

국립국어원  
중심  
국립국어원  
한국어  
II

#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2월 ~ 2020년 12월

2020년 12월

연구 책임자: 김창영((주)케이스탯리서치)

연구 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연구 책임자: 김창영 상무

연구원: 이은빈 차장

이승준 과장

김지은 대리

신예림 연구원

공동 연구원: 조태린(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현철(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양수경(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김주성(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심주희(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국문 초록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는 국민들이 언어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 언어 사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할 목적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조사 방법을 활용해 수행하였다.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는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5년 주기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에 제4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는 제1차에서 제4차까지의 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의 언어 의식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기준 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55.4%로, 2010년 이후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국어 분야 중에서는 말하기(78.5%)와 언어 예절(73.9%)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들의 50.9%는 평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73.1%)으로 생각하고 있음.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국어의 높임말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기(41.8%) 때문임.
- 우리 국민들은 욕설(46.9%)보다 비속어(48.1%)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욕설 및 비속어는 주로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32.6%), 습관적으로(23.1%)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는 표준어(56.7%)가 지역 방언(43.3%)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우리 국민들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친근하다고(79.9%) 느끼며, 본인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86.1%)으로 생각하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래어/외국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41.2%)이며, 2005년 이후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53.0%)고 생각함.
- 대중매체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46.7%)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언어 규범의 지침이 되거나(43.7%),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기(36.8%) 때문임.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34.4%)하는 이유는 주로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기(46.6%) 때문으로 나타남.
-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자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기준 36.3%로, 2015년 5.6% 대비 크게 증가함. 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53.3%),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46.3%), 유행어나 신조어(43.1%)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함을 겪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22.9%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서류, 안내문, 홍보문 등에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쉽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함.(쉬운 편 33.4%), 공공기관의 언어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50.8%),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48.2%) 등임.
-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62.9%)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은 필요(50.0%)하다고 생각함.
-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가 기관은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35.2%)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수집 및 제공(서비스)(22.6%),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21.4%)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 언어 사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등 언어 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조사 결과와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언어 의식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도 파악할 수 있었다.

## 영문 초록

The survey of Korean people's linguistic consciousness in 2020 was conducted using home-visit method with the sample of 5,000 Korean people between 20 year-old and 69 year-old respon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Korean people's linguistic consciousness such as interest level, usage of the language, views o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policy.

Since the first survey in 2005, subsequent surveys have been carried out every five years. In 2020, the 4th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se subsequent data, This study suggests that trend analysis of Korean people's linguistic consciousness.

The level of interest in Korean language and its usage was 55.4% in 2020 and has increased since 2010. Speaking(78.5%) and language etiquette(73.9%) are the main parts of interest.

Koreans think that they use Korean language correctly(50.9%), and generally think positively(73.1%) about using honorific in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at home, school and work. The main reason for the positive view is that the honorific contains the Korean culture which respects the elderly and regards manners highly(41.8%).

Koreans use slang(48.1%) more frequently than curse words(46.9%). Curse words and slang are usually used to express unpleasant emotions(32.6%) and are spoken habitually(23.1%). Moreover, the rate of habitual use has consistently increased since 2005.

The standard language(56.7%) is more frequently used than local dialects(43.3%). Thus, the usage rate of standard language has increased since 2010. Koreans feel friendly(79.9%) when they talk to people using local dialects and feel positive(86.1%) about their use of local dialects.

The reason for using foreign-originated words or foreign languages instead of Korean words is that they can convey more precise meanings(41.2%) and the people who agreed to this reason has increased

since 2005. They also believe that only the difficult foreign words should be changed into Korean equivalent words(53.0%).

For the language usage in mass media,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language used in broadcasting plays a positive role in daily language life(46.7%). The main reasons of this positive view are that it can act as a guide to language norms(43.7%) and provide models of language life(36.8%). Whereas, others think that the language used in broadcasting has a negative impact(34.4%), because this may induce the violent or discriminatory language culture(46.6%).

36.3% of the respondents often had difficulties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words on newspapers and television in 2020, and this response rate has sharply increased from 5.6% in 2015. People experienced difficulties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professional terms(53.3%), complicated Chinese characters(46.3%), and buzzwords or new words(43.1%). Meanwhile, 22.9% of the respondents think that the language used for documents, notices, and brochures by public institutions are relatively not easy (But, 33.4% of them thinks the language by public institutions is easy). The parts that need immediate improvement are 'long and complicated sentences that are hard to understand'(50.8%)', 'usage of difficult unfamiliar Chinese characters'(48.2%) and so on.

The respondents think that the use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or hate speech in Korean society has increased(62.9%) and thus, legal,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strict punishment on the use of such discriminatory expressions are required(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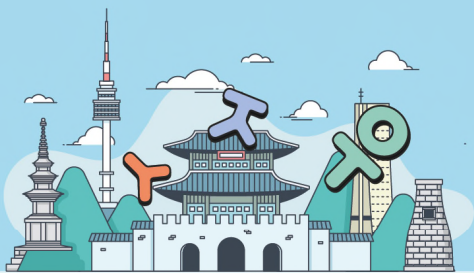
To build better language life, national institute should arrange and promote easy Korean language standards(35.2%), provide large-scale Korean language usage survey(22.6%), and operate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21.4%).

Through this survey, one can understand the status of Korean people's linguistic consciousness such as interest level, usage of the language, views o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policy. Furthermore, using accumulated data, one can identify the periodic changes in Korean people's linguistic consciousness.

## 이용자를 위하여

1. 통계표에 수록된 모든 자료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기타 응답이 제외된 경우 항목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202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국립국어원, 2020) 00 쪽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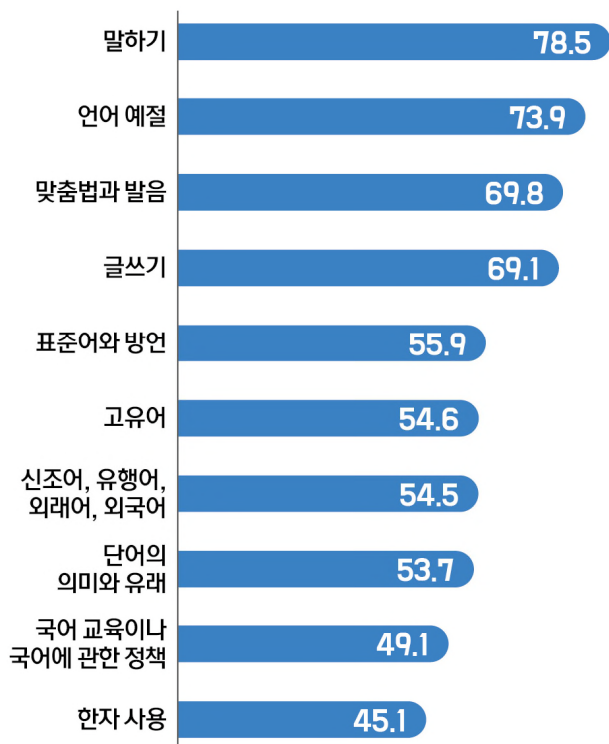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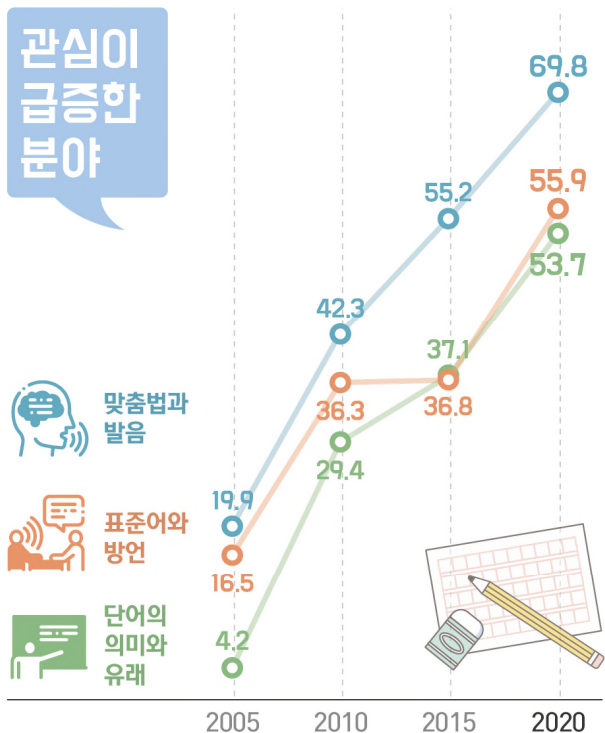
##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국어 관심 분야

(단위 : %)



### 관심이 급증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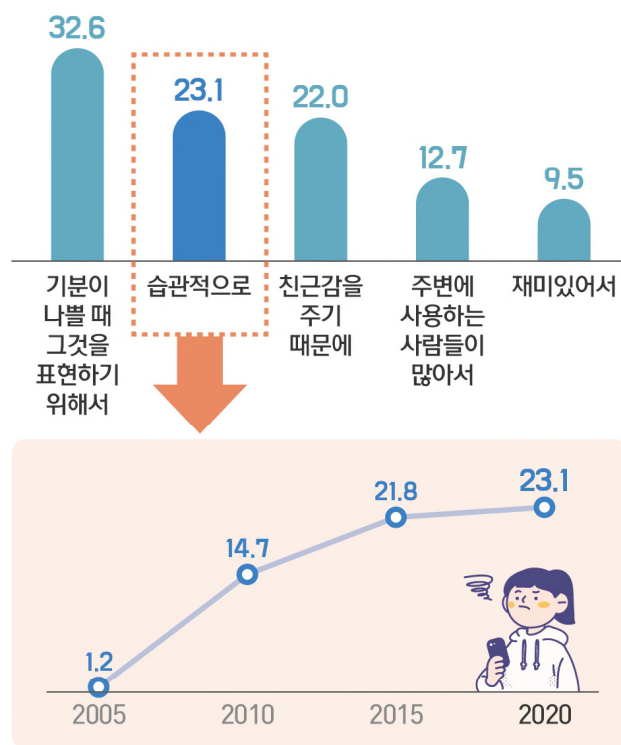
### 국민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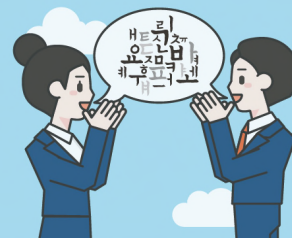


###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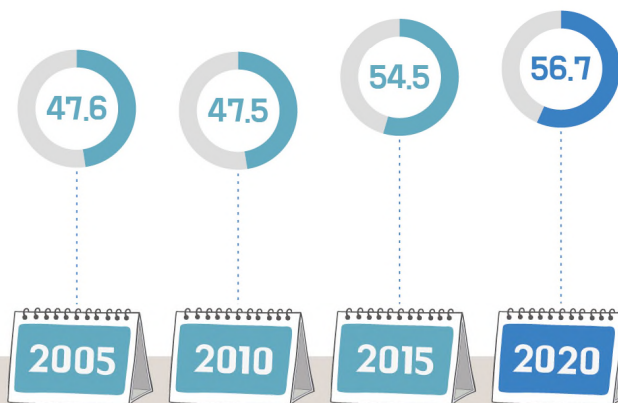


#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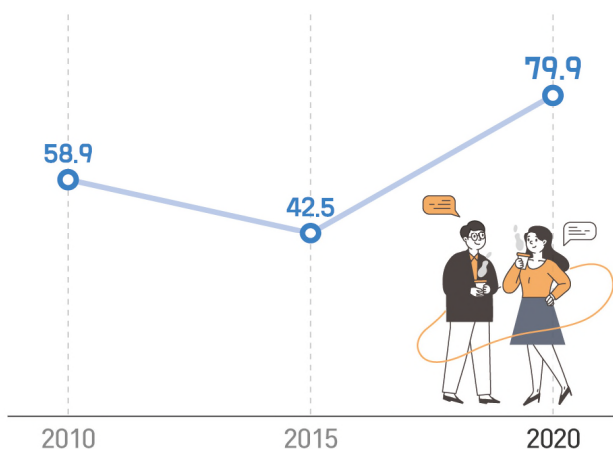
##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표준어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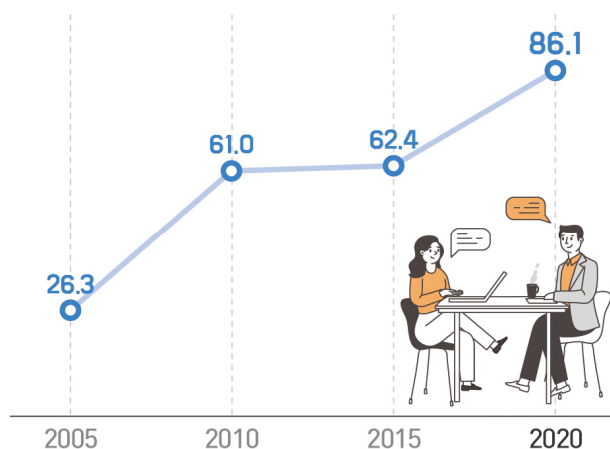
##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 시 친근한 느낌

(단위 : %)



## 본인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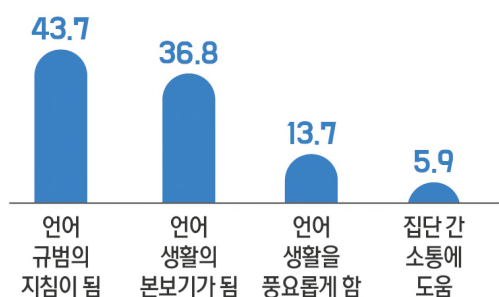
(단위 :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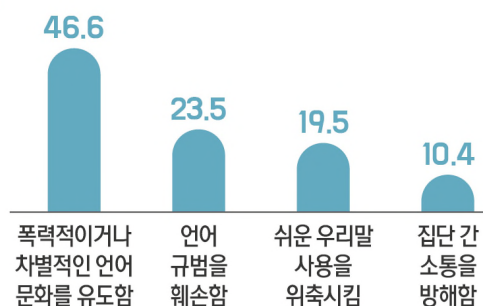
46.7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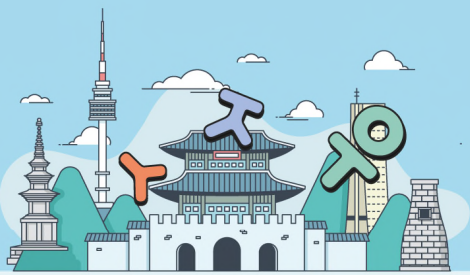
34.4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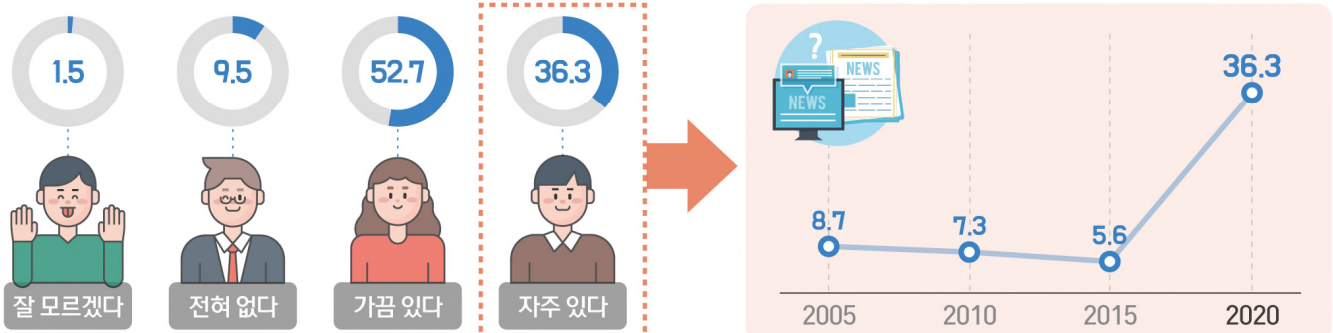




##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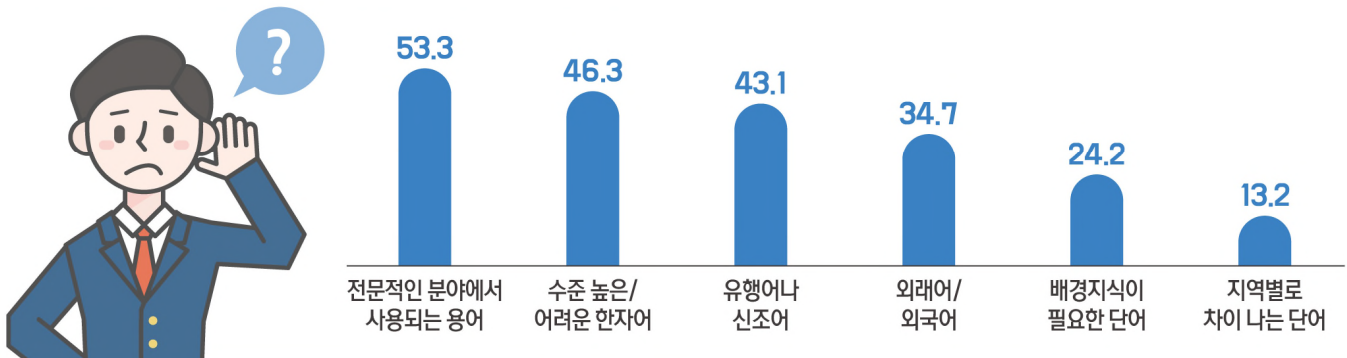
### 신문·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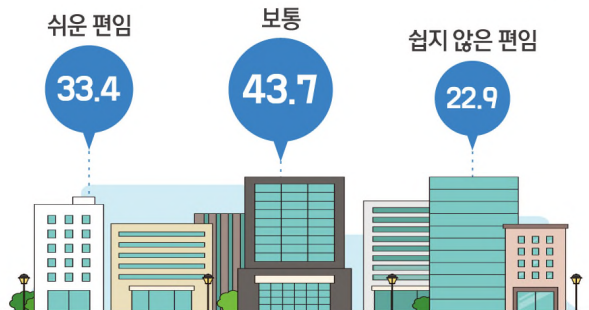
### 의미를 몰라서 곤란함을 겪은 말(중복 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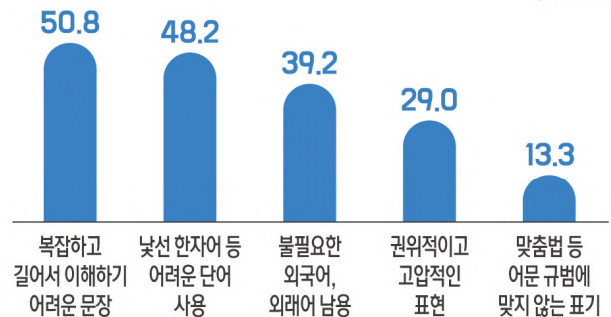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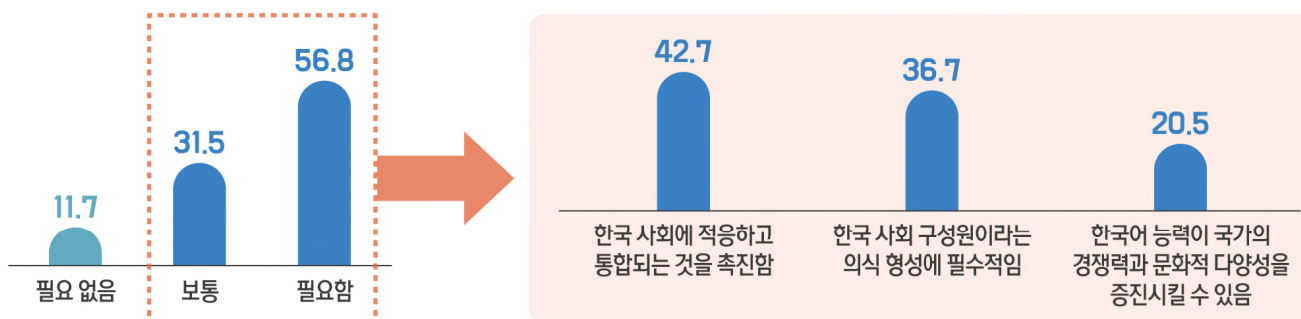
### 공공언어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중복 응답)

(단위 : %)



### 이주민과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의 정책 지원 필요성

(단위 : %)





# CONTENTS

## I.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3
나. 조사 연혁	3
다. 법적 근거	3
라. 조사 설계	4
마. 조사 내용	5
바. 응답자 특성	6
사. 표본 설계	7
1. 모집단 정의	7
2. 표본추출 및 표본 배분	7
3. 가중치	10

## II. 주요 조사 결과

가.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15
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15
1-1.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15
2.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16
나. 언어 사용	17
1. 국어의 바른 사용에 대한 생각	17
2.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17
3.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18
4.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18
4-1.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생각	19
5.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정도	19
5-1.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이유	20
6. 일본에서 온 외래어 및 한자어에 대한 생각	20
7.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21
8.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 및 이유	21

# CONTENTS

9.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 .....	22
10. 인터넷 언어 인지 및 사용 정도 .....	22
 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23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	23
2.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	23
3.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	24
4.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 .....	24
5. 이주민과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	25
6.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	25
 라.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26
1. 국가 기관 인지도 .....	26
2. 국가 기관 중점 추진 사항 .....	26
 <b>Ⅲ. 조사 결과 분석</b>	
 가.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29
1. 국어 관심 .....	29
2. 국어 인상 .....	33
 나. 언어 사용 .....	35
1. 사용 인식 .....	35
2. 높임말 .....	43
3. 욕설 및 비속어 .....	61
4. 표준어와 지역 방언 .....	69
5.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	87
6. 대중매체의 언어 .....	105
7. 외국 문자 사용 .....	123

# CONTENTS

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140
1. 국어 능력 .....	140
2. 국어 교육 .....	142
3. 한자 교육 .....	152
4. 외국어 교육 .....	158
5. 어문 규범 .....	162
6. 사전 이용 .....	166
7. 공공 언어 .....	174
8. 차별적 표현, 혐오 표현 .....	178
9. 특수 언어 .....	182
10. 다문화 가정 언어 .....	188
11. 한국어 진흥 .....	200
12. 남북한 언어 통일 .....	212

라.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218
1.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218

## IV. 사회언어학적 함의와 정책 제언

가.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227
나. 언어 사용 .....	229
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248
라.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262

## V. 부록 1. 설문 문항 정비 내용 및 사유

## V. 부록 2. 설문지

# CONTENTS

## [표 목차]

표 1-1   시도별 조사 대상 인구 현황 .....	7
표 1-2   시도 및 세부 층별 인구 수 .....	8
표 1-3   시도별 및 세부 층별 표본배분 .....	9
표 1-4   2020 년도 기준 시도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 현황 .....	11
표 3-1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관심 .....	30
표 3-2   국어 관심 분야 .....	32
표 3-3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	34
표 3-4   국민들의 바른 국어 사용 .....	36
표 3-5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37
표 3-6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	40
표 3-7   본인의 바른 국어 사용 .....	42
표 3-8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	44
표 3-9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	46
표 3-10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	48
표 3-11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50
표 3-12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52
표 3-13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54
표 3-14   표현의 적절성 .....	56
표 3-15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58
표 3-16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60
표 3-17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62
표 3-18   본인의 평소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64
표 3-19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66
표 3-20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	68
표 3-21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	70
표 3-22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느낌 .....	72
표 3-23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74

# CONTENTS

표 3-24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	76
표 3-25   지역 방언 유지, 존속에 대한 생각 .....	78
표 3-26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80
표 3-27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82
표 3-28   표준어 사용 .....	84
표 3-29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	86
표 3-30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 .....	88
표 3-31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 .....	90
표 3-32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	92
표 3-33   평소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	94
표 3-3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	96
표 3-35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생각 .....	98
표 3-36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생각 .....	100
표 3-37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한 생각 .....	102
표 3-38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04
표 3-39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	106
표 3-40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08
표 3-41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10
표 3-42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책적 관리/규제 필요성 .....	112
표 3-43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	114
표 3-44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	116
표 3-45   인터넷 언어 인지도 .....	118
표 3-46   인터넷 언어 사용빈도 .....	120
표 3-47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 .....	122
표 3-48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 .....	124
표 3-49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 .....	126
표 3-50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1) .....	128
표 3-50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2) .....	129

# CONTENTS

표 3-51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	131
표 3-52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33
표 3-53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35
표 3-54   기관 이름 표기 방법 .....	137
표 3-55   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 표기 방법 .....	139
표 3-56   국어 능력 향상 방안 (중복 응답) .....	141
표 3-57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	143
표 3-58   문제가 되었던 말 .....	145
표 3-59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행동 .....	147
표 3-60   쉬운 말 사용 필요성 .....	149
표 3-61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 .....	151
표 3-62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필요성 .....	153
표 3-63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55
표 3-6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57
표 3-65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중복 응답) .....	159
표 3-66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 .....	161
표 3-67   어문 규범 준수 .....	163
표 3-68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	165
표 3-69   평소 국어사전 사용 정도 .....	167
표 3-70   국어사전 사용 형태 .....	169
표 3-71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중복 응답) .....	171
표 3-72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	173
표 3-73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 .....	175
표 3-74   공공기관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중복 응답) .....	177
표 3-75   차별적 표현/혐오 표현의 사용 증가 .....	179
표 3-76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 필요성 .....	181
표 3-77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 .....	183
표 3-78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 .....	185



# CONTENTS

표 3-79   수어(수화언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이유 .....	187
표 3-80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생각 .....	189
표 3-8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91
표 3-82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	193
표 3-83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95
표 3-84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필요성 .....	197
표 3-85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99
표 3-86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	201
표 3-87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03
표 3-88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05
표 3-89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위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	207
표 3-90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09
표 3-9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11
표 3-92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성 .....	213
표 3-93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15
표 3-94   남북한어 통합시 표준어 정책 기준과 방향 .....	217
표 3-95   국립국어원 인지도 .....	219
표 3-96   국민 언어생활 위해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	221
표 3-97   참여하고 싶은 국어 관련 교육 내용(중복 응답) .....	223

# CONTENTS

## [그림 목차]

그림 2-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	15
그림 2-2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관심 있음 비율, 상위 4 개) .....	15
그림 2-3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그렇다 비율) .....	16
그림 2-4   국어의 바른 사용에 대한 생각 .....	17
그림 2-5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및 긍정, 부정 이유(상위 3 개) ...	17
그림 2-6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18
그림 2-7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상위 3 개) .....	18
그림 2-8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생각 .....	19
그림 2-9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정도 .....	19
그림 2-10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이유(상위 3 개) .....	20
그림 2-11   일본에서 온 외래어 및 한자어에 대한 생각 .....	20
그림 2-12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	21
그림 2-13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 및 이유 .....	21
그림 2-14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 .....	22
그림 2-15   인터넷 언어 인지 및 사용 정도 .....	22
그림 2-16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	23
그림 2-17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	23
그림 2-18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	24
그림 2-19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 .....	24
그림 2-20   이주민과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	25
그림 2-21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	25
그림 2-22   국가 기관 인지도 .....	26
그림 2-23   국가 기관 중점 추진 사항 .....	26
그림 3-1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관심 .....	29
그림 3-2   국어 관심 분야 .....	31
그림 3-3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	33
그림 3-4   국민들의 바른 국어 사용 .....	35

# CONTENTS

그림 3-5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37
그림 3-6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	39
그림 3-7   본인의 바른 국어 사용 .....	41
그림 3-8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	43
그림 3-9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	45
그림 3-10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	47
그림 3-11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49
그림 3-12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51
그림 3-13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53
그림 3-14   표현의 적절성 .....	55
그림 3-15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57
그림 3-16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59
그림 3-17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61
그림 3-18   본인의 평소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63
그림 3-19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65
그림 3-20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	67
그림 3-21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	69
그림 3-22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느낌 .....	71
그림 3-23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73
그림 3-24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	75
그림 3-25   지역 방언 유지, 존속에 대한 생각 .....	77
그림 3-26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79
그림 3-27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81
그림 3-28   표준어 사용 .....	83
그림 3-29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	85
그림 3-30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 .....	87
그림 3-31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 .....	89
그림 3-32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	91

# CONTENTS

그림 3-33   평소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	93
그림 3-34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	95
그림 3-35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생각 .....	97
그림 3-36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생각 .....	99
그림 3-37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한 생각 .....	101
그림 3-38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	103
그림 3-39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	105
그림 3-40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07
그림 3-41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09
그림 3-42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책적 관리/규제 필요성 .....	111
그림 3-43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	113
그림 3-44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	115
그림 3-45   인터넷 언어 인지도 .....	117
그림 3-46   인터넷 언어 사용빈도 .....	119
그림 3-47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 .....	121
그림 3-48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 .....	123
그림 3-49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 .....	125
그림 3-50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 .....	127
그림 3-51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	130
그림 3-52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32
그림 3-53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34
그림 3-54   기관 이름 표기 방법 .....	136
그림 3-55   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 표기 방법 .....	138
그림 3-56   국어 능력 향상 방안 .....	140
그림 3-57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	142
그림 3-58   문제가 되었던 말 .....	144
그림 3-59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행동 .....	146
그림 3-60   쉬운 말 사용 필요성 .....	148

# CONTENTS

그림 3-61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 .....	150
그림 3-62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필요성 .....	152
그림 3-63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54
그림 3-6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56
그림 3-65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	158
그림 3-66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160
그림 3-67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1 순위로 고른 외국어 기준) ...	160
그림 3-68   어문 규범 준수 .....	162
그림 3-69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	164
그림 3-70   평소 국어사전 사용 정도 .....	166
그림 3-71   국어사전 사용 형태 .....	168
그림 3-72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	170
그림 3-73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	172
그림 3-74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 .....	174
그림 3-75   공공기관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	176
그림 3-76   차별적 표현/혐오 표현의 사용 증가 .....	178
그림 3-77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 필요성 .....	180
그림 3-78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 .....	182
그림 3-79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 .....	184
그림 3-80   수어(수화언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이유 .....	186
그림 3-81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생각 .....	188
그림 3-82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90
그림 3-83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	192
그림 3-8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94
그림 3-85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필요성 .....	196
그림 3-86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198
그림 3-87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	200
그림 3-88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02

# CONTENTS

그림 3-89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04
그림 3-90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위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	206
그림 3-91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08
그림 3-9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10
그림 3-93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성 .....	212
그림 3-9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214
그림 3-95   남북한어 통합시 표준어 정책 기준과 방향 .....	216
그림 3-96   국립국어원 인지도 .....	218
그림 3-97   국민 언어생활 위해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	220
그림 3-98   참여하고 싶은 국어 관련 교육 내용 .....	222



## 조사 개요





##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 ▶ 「국어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실시를 규정함. 조사 내용으로는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현황을 규정함.
- ▶ 2005년, 2010년, 2015년에 이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 언어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의식을 파악하여 현실에 기반한 국어 정책 수립 및 개선에 반영하기 위함.

## 나 조사 연혁

- ▶ 2005년 제1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실시
- ▶ 2010년 제2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실시
- ▶ 2015년 제3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실시
- ▶ 2020년 제4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실시

## 다 법적 근거

- ▶ 「국어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

### \* 「국어기본법」 제9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 라 조사 설계

- ▶ 전국 17개 시군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구분	내용
1. 조사 대상	- 전국(17개 시군) 만 20세 ~ 69세 성인 남녀
2. 유효 표본	- 총 5,000 표본
3. 표본 설계	- 1차: 전국 17개 시도를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제곱근 비례 배분 - 2차: 각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 배분은 세부 층별 인구수 기준으로 비례 배분
4. 조사 방법	-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5. 조사 기간	- 2020년 9월 21일 ~ 2020년 11월 18일
6. 조사 주기	- 5년

※ 조사 진행시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위생 관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음.

## 마 조사 내용

▶ 조사 부문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됨(응답자 인적 사항 및 자료 분류용 질문 제외).

구분	문항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도 및 내용별 관심도</li> <li>- 국어에 대한 인식</li> </ul>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들이 국어 사용 실태 및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li> <li>- 국민/응답자 언어 사용 실태</li> <li>-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 및 긍정/부정 이유,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li> <li>- 높임말 표현의 적절성 여부와 적절/부적절 이유</li> <li>- 국민/응답자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빈도 및 사용/비사용 이유</li> <li>-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과 지역 방언에 대한 인식</li> <li>-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의견</li> <li>- 지역 방언 유지, 존속에 대한 의견 및 이유</li> <li>- 표준어 사용 현황 및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li> <li>-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및 인식</li> <li>- 응답자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및 이유</li> <li>- 일본에서 온 외래어 및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생각</li> <li>- 국어 순화에 대한 의견 및 순화어 사용이 저조한 이유</li> <li>- 방송 언어가 일상적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 및 이유</li> <li>-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의 필요성 및 이유</li> <li>- 인터넷 언어 인지 정도 및 사용 빈도</li> <li>-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li> <li>-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li> <li>- 외국 문자 표기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및 생각이나 느낌</li> <li>- 외국 문자로만 표기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이유</li> <li>- 기관 이름/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 표기 적절성</li> </ul>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방법</li> <li>-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문제되었던 말, 해결 방법</li> <li>-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li> <li>-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필요성과 이유</li> <li>- 배우고 싶은 외국어와 이유</li> <li>- 어문 규범 준수 현황, 어문 규범에 대한 생각</li> <li>- 국어사전 사용 빈도 및 주로 사용하는 국어사전의 형태, 주된 사용 목적, 개선해야 할 점</li> <li>- 공공기관 언어 수준 및 개선해야 할 부분</li> <li>-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 빈도 및 법적/제도적 규제, 처벌 필요성</li> <li>- 수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 배울 의향 및 이유</li> <li>- 이주민이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및 긍정 이유</li> <li>- 이주민과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및 이유</li> <li>- 이주민과 자녀에게 행정, 사법, 교육 영역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필요성 및 이유</li> <li>-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및 이유</li> <li>-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 지원 필요성 및 이유</li> <li>- 북한어 이해의 필요성 및 이유</li> <li>- 남한어와 북한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li> </ul>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국어원 기관 인지도</li> <li>-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li> <li>- 국어 관련 교육 과정 참여 시 참여하고 싶은 교육 내용</li> </ul>

## 바

## 응답자 특성

구분		표본 수(명)	비율(%)
전체		(5,000)	100.0
성별	남성	(2,556)	51.1
	여성	(2,444)	48.9
연령	20대	(929)	18.6
	30대	(960)	19.2
	40대	(1,103)	22.1
	50대	(1,145)	22.9
	60대	(863)	17.3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51.3
	강원	(142)	2.8
	충청권	(539)	10.8
	전라권	(461)	9.2
	경상권	(1,233)	24.7
	제주	(62)	1.2
가구원 구성	1세대 가구	(878)	17.6
	2세대 가구	(3,851)	77.0
	3세대 가구	(111)	2.2
	4세대 이상 가구	(6)	0.1
	1인 가구	(149)	3.0
	비친족 가구	(1)	0.0
	기타	(4)	0.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0
	중학교 졸업	(295)	5.9
	고등학교 졸업(재학)	(1,902)	38.0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2,662)	53.2
	대학원 재학 이상	(89)	1.8
직업	관리자	(126)	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6)	3.3
	사무 종사자	(1,288)	25.8
	서비스 종사자	(945)	18.9
	판매 종사자	(889)	17.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26)	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30)	6.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9)	2.2
	단순 노무 종사자	(159)	3.2
	기타	(761)	15.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6.9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25.3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3.9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7.1
	600만원 이상	(498)	10.0

## 사 표본 설계

### 1. 모집단 정의

-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전국 만 20세 ~ 69세 국민이며, 모집단 자료는 표본 설계 시점인 2020년 3월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 ▶ 전체 조사 대상 인구는 37,269,822명이며 20대 6,799,238명, 30대 7,006,749명, 40대 8,375,429명, 50대 8,662,400명, 60대 6,426,006명임.

| 표 1-1 | 시도별 조사 대상 인구 현황

구분	전체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전체	37,269,822	6,799,238	7,006,749	8,375,429	8,662,400	6,426,006
서울특별시	7,263,815	1,461,212	1,501,662	1,558,128	1,537,114	1,205,699
부산광역시	2,475,732	435,280	430,494	516,889	579,584	513,485
대구광역시	1,758,007	322,594	302,617	390,628	428,955	313,213
인천광역시	2,173,908	405,826	416,119	489,213	515,257	347,493
광주광역시	1,033,168	207,787	190,641	244,621	234,045	156,074
대전광역시	1,066,621	212,258	198,404	241,550	242,974	171,435
울산광역시	843,842	147,434	157,548	190,195	211,169	137,496
세종특별자치시	234,886	36,373	61,396	65,983	43,132	28,002
경기도	9,637,027	1,779,533	1,916,550	2,296,447	2,208,632	1,435,865
강원도	1,073,134	179,347	169,113	227,123	269,104	228,447
충청북도	1,125,003	198,733	198,047	243,255	273,598	211,370
충청남도	1,453,885	243,505	275,275	329,148	340,052	265,905
전라북도	1,229,225	212,222	194,883	273,525	302,523	246,072
전라남도	1,236,110	202,245	192,216	264,233	316,811	260,605
경상북도	1,834,951	289,348	301,627	389,278	463,397	391,301
경상남도	2,364,968	383,661	416,280	542,296	584,730	438,001
제주특별자치도	465,540	81,880	83,877	112,917	111,323	75,543

\* 2020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 현황(행정안전부)

### 2. 표본 추출 및 표본 배분

#### 1) 표본 추출

- ▶ 본 조사에서 표본 추출은 층화 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음. 1차 추출 단위는 통계청의 집계구 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이며, 최종 조사 대상은 가구 및 만 20세 ~ 69세 성인임.
- ▶ 표본으로 추출된 표본 집계구에서 각 10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 가구 내 응답자는 성별 및 연령대별 사전 할당에 따라 가구당 적격자 1인을 최종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단, 강한 거절이나 조사 대상자가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3회까지 재방문함으로써 면접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최소화하였음.

## 2) 표본 배분

- 본 조사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20년 3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층화 및 표본배분을 실시하였음.
- 표본 설계에서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층화를 통해서 전체 32개 지역층을 구성하였음. 각 시도 및 세부 층별 모집단 현황은 <표 1-2>와 같음.
- 각 시도별 표본 배분은 각 시도별 조사대상 인구수 기준의 제곱근비례배분법에 따라 이루어졌음. 또한 각 시도 내 세부 층별 표본 배분은 세부 층별 인구수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였음. <표 1-3>은 이와 같은 표본배분 원칙에 따라 배분된 세부 시도별 표본 크기와 할당된 집계구 수임.
- 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하에서  $\pm 1.4\%p$ 임.

| 표 1-2 | 시도 및 세부 층별 인구 수

구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전체	37,269,822	6,799,238	7,006,749	8,375,429	8,662,400	6,426,006
서울특별시	7,263,815	1,461,212	1,501,662	1,558,128	1,537,114	1,205,699
도심권	379,345	75,135	78,854	77,568	83,377	64,411
동남권	1,552,274	287,927	335,653	362,519	319,569	246,606
동북권	2,237,658	448,493	428,887	471,879	498,533	389,866
서남권	2,230,953	472,780	478,908	457,707	454,621	366,937
서북권	863,585	176,877	179,360	188,455	181,014	137,879
부산광역시	2,475,732	435,280	430,494	516,889	579,584	513,485
대구광역시	1,758,007	322,594	302,617	390,628	428,955	313,213
인천광역시	2,173,908	405,826	416,119	489,213	515,257	347,493
광주광역시	1,033,168	207,787	190,641	244,621	234,045	156,074
대전광역시	1,066,621	212,258	198,404	241,550	242,974	171,435
울산광역시	843,842	147,434	157,548	190,195	211,169	137,496
세종특별자치시	234,886	36,373	61,396	65,983	43,132	28,002
경기도	9,637,027	1,779,533	1,916,550	2,296,447	2,208,632	1,435,865
북부 동부	1,878,177	345,692	356,341	456,493	442,761	276,890
북부 읍면부	597,135	100,797	93,992	133,318	151,531	117,497
남부 동부	6,220,832	1,185,143	1,289,381	1,490,171	1,390,835	865,302
남부 읍면부	940,883	147,901	176,836	216,465	223,505	176,176
강원도	1,073,134	179,347	169,113	227,123	269,104	228,447
강원 동부	646,623	114,659	108,297	147,675	156,876	119,116
강원 읍면부	426,511	64,688	60,816	79,448	112,228	109,331
충청북도	1,125,003	198,733	198,047	243,255	273,598	211,370
충북 동부	666,414	130,528	119,646	151,360	158,115	106,765
충북 읍면부	458,589	68,205	78,401	91,895	115,483	104,605
충청남도	1,453,885	243,505	275,275	329,148	340,052	265,905
충남 동부	707,027	137,812	155,848	171,548	151,814	90,005
충남 읍면부	746,858	105,693	119,427	157,600	188,238	175,900
전라북도	1,229,225	212,222	194,883	273,525	302,523	246,072
전북 동부	890,327	168,214	153,082	209,798	208,951	150,282
전북 읍면부	338,898	44,008	41,801	63,727	93,572	95,790
전라남도	1,236,110	202,245	192,216	264,233	316,811	260,605
전남 동부	563,773	105,041	99,271	129,188	136,938	93,335
전남 읍면부	672,337	97,204	92,945	135,045	179,873	167,270
경상북도	1,834,951	289,348	301,627	389,278	463,397	391,301
경북 동부	994,857	174,836	180,445	227,597	239,038	172,941
경북 읍면부	840,094	114,512	121,182	161,681	224,359	218,360
경상남도	2,364,968	383,661	416,280	542,296	584,730	438,001
경남 동부	1,547,066	270,270	281,032	368,409	375,822	251,533
경남 읍면부	817,902	113,391	135,248	173,887	208,908	186,468
제주특별자치도	465,540	81,880	83,877	112,917	111,323	75,543
동부	335,210	62,958	63,621	81,772	76,979	49,880
읍면부	130,330	18,922	20,256	31,145	34,344	25,663

\* 2020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행정안전부)

| 표 1-3 | 시도별 및 세부 층별 표본배분

구분	전체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집계구 수
전체	5,000	912	940	1124	1162	862	500
서울특별시	594	119	123	127	126	99	59
도심권	31	6	6	6	7	6	3
동남권	127	24	27	30	26	20	13
동북권	183	37	35	39	40	32	18
서남권	182	39	39	37	37	30	18
서북권	71	15	15	15	15	11	7
부산광역시	346	61	60	72	81	72	35
대구광역시	292	54	50	65	71	52	29
인천광역시	324	60	62	73	77	52	32
광주광역시	224	45	41	53	51	34	22
대전광역시	227	45	42	51	52	37	23
울산광역시	202	35	38	46	50	33	20
세종특별자치시	107	17	28	29	20	13	11
경기도	683	126	136	162	157	102	68
북부 동부	133	24	25	32	31	21	13
북부 읍면부	42	7	7	9	11	8	4
남부 동부	441	84	91	106	99	61	44
남부 읍면부	67	11	13	15	15	13	7
강원도	228	38	36	48	57	49	23
강원 동부	137	24	24	31	33	25	14
강원 읍면부	91	14	13	17	24	23	9
충청북도	233	41	41	50	57	44	23
충북 동부	138	27	25	31	33	22	13
충북 읍면부	95	14	16	19	24	22	10
충청남도	265	45	50	60	62	48	27
충남 동부	129	25	28	31	28	17	13
충남 읍면부	136	19	22	29	34	32	14
전라북도	244	42	39	54	60	49	24
전북 동부	177	33	30	42	42	30	17
전북 읍면부	67	9	8	13	18	19	7
전라남도	245	40	38	52	63	52	25
전남 동부	112	21	20	26	26	19	12
전남 읍면부	133	19	18	27	36	33	13
경상북도	298	47	49	63	75	64	30
경북 동부	162	28	29	37	39	29	16
경북 읍면부	136	19	20	26	36	35	14
경상남도	338	55	59	78	83	63	34
경남 동부	221	39	40	53	53	36	22
경남 읍면부	117	16	19	25	30	27	12
제주특별자치도	150	26	27	36	36	25	15
동부	108	20	20	26	25	17	11
읍면부	42	6	7	10	11	8	4

### 3. 가중치

- ▶ 통계 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산정, ② 무응답에 대한 조정, ③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산정됨.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통계청의 「추계인구·가구」자료 중 2020년도 추계 인구 결과임.
- ▶ 표본 설계에서는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 층화를 통해서 전체 32개 지역층을 구성하였음. 표본 추출은 층화 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 단위는 통계청의 집계구이고, 2차 추출 단위는 가구이며, 최종 조사 대상은 가구 및 만 20세 ~ 69세 성인임.
- ▶ 본 조사에서 설계 가중치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층화 2단 확률비례계통 추출법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집계구 내의 가구별 추출 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함.
- ▶ 가중치 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음.
  - $N_h$  : 층  $h$ 의 모집단 집계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집계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집계구 내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집계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 집계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 1) 설계 가중치

- ▶ 본 조사의 설계 가중치는 각 표본 집계구에 대한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집계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함.

$$\text{설계 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S_{hi}}{m_{hi}}$$

- ▶ 본 조사에서는 각 표본 집계구에서 10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10$ 이고, 각 층에서 설계 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 가중치= $S_h/(n_h \times 10)$ '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음.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모든 표본 가구들은 동일한 설계 가중치를 갖게 됨.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률의 집계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 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됨.



## 2) 무응답 조정

- ▶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음.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집계구 단위로 진행되었음. 무응답 조정 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함.

$$\text{무응답 조정계수} = \frac{m_{hi}}{r_{hi}}$$

- 여기에서,  $r_{hi}$ 는 층  $h$ 의  $i$ 번째 표본 집계구 내 조사완료 가구(응답자) 수임.

## 3) 「추계인구·가구」 결과를 이용한 사후층화 조정

-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중치 산정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20년도 기준의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임.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단계에서는 2020년도 기준의 「추계인구」 자료 중 지역(17) × 연령대(5) × 성별(2) 구분에 대한 만 20세 ~ 69세 인구 현황을 사용하여 사후층화 조정하였음. <표 1-4>는 사후층화 단계에서 사용된 모집단 정보임. 마지막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음.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사후층화 조정계수}$$

표 1-4 | 2020년도 기준 시도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 현황

[남자]

구분	전체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전체	19,180,628	3,703,732	3,775,425	4,234,782	4,310,213	3,156,476
서울특별시	3,535,184	718,988	749,206	749,966	742,792	574,232
부산광역시	1,211,218	235,689	218,123	251,937	267,991	237,478
대구광역시	881,776	173,224	160,383	190,633	207,378	150,158
인천광역시	1,116,928	210,858	225,830	249,943	255,366	174,931
광주광역시	539,024	114,768	102,070	123,633	120,174	78,379
대전광역시	558,353	130,145	104,954	118,738	119,967	84,549
울산광역시	443,720	80,461	87,717	97,738	107,694	70,110
세종특별자치시	122,310	22,936	29,852	33,478	22,057	13,987
경기도	5,056,987	953,124	1,063,747	1,183,058	1,125,788	731,270
강원도	554,783	108,399	88,737	112,878	132,795	111,974
충청북도	613,902	126,498	113,473	127,091	140,316	106,524
충청남도	823,552	160,759	167,066	182,308	179,745	133,674
전라북도	633,080	124,121	102,695	136,477	150,183	119,604
전라남도	621,101	104,669	100,494	134,130	156,902	124,906
경상북도	976,729	180,497	172,644	201,411	231,472	190,705
경상남도	1,249,882	214,954	242,317	282,775	293,147	216,689
제주특별자치도	242,099	43,642	46,117	58,588	56,446	37,306

## [여자]

구분	전체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전체	18,346,469	3,268,053	3,428,125	4,056,946	4,276,834	3,316,511
서울특별시	3,712,125	782,898	744,543	758,284	782,479	643,921
부산광역시	1,222,538	214,571	203,971	247,258	289,783	266,955
대구광역시	871,434	149,037	146,572	194,440	216,457	164,928
인천광역시	1,066,169	188,327	203,519	237,736	257,503	179,084
광주광역시	529,208	105,542	96,033	123,492	119,909	84,232
대전광역시	539,767	114,199	96,140	118,978	121,324	89,126
울산광역시	398,861	58,475	74,757	93,139	103,524	68,966
세종특별자치시	117,714	20,377	30,913	31,661	20,549	14,214
경기도	4,749,957	823,315	951,957	1,127,569	1,101,801	745,315
강원도	508,033	81,665	79,111	106,371	127,218	113,668
충청북도	550,236	97,779	95,875	116,882	132,965	106,735
충청남도	717,407	129,645	134,473	156,003	162,585	134,701
전라북도	589,536	100,048	94,438	128,668	142,971	123,411
전라남도	548,890	74,527	88,225	118,438	141,410	126,290
경상북도	874,703	132,433	142,694	183,328	220,023	196,225
경상남도	1,124,540	158,409	201,544	260,190	283,701	220,696
제주특별자치도	225,351	36,806	43,360	54,509	52,632	38,044



##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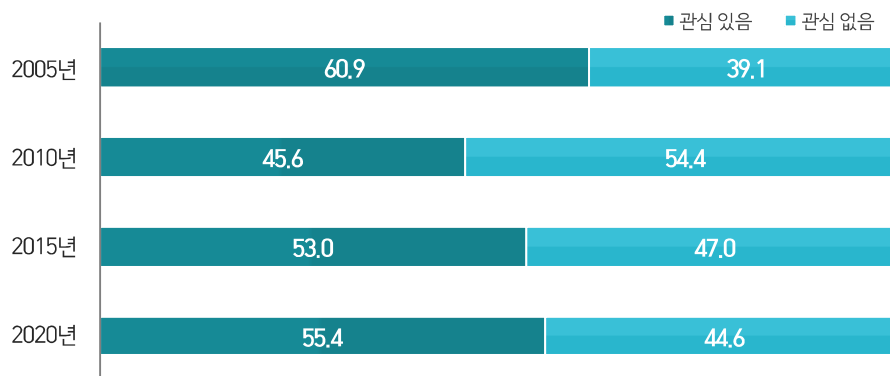
## 가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1.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 ▶ 국민들의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도는 55.4%로, 2005년에 60.9%였다가 2010년에 15.3% 떨어진 45.6%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그림 2-1 |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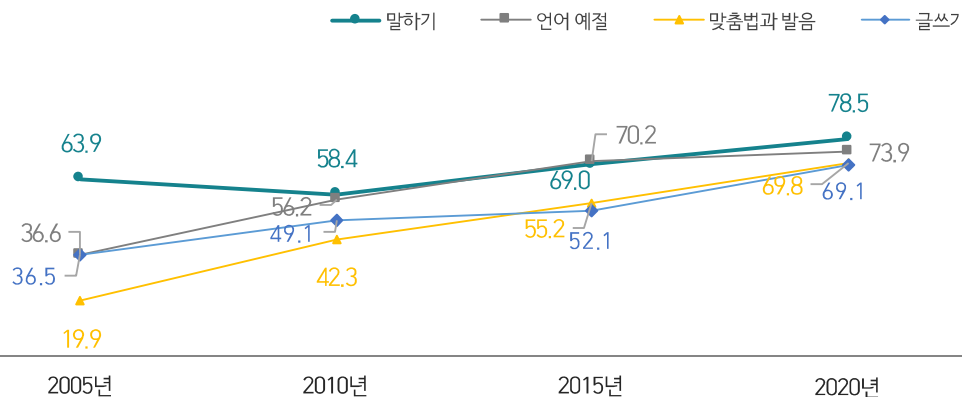


#### 1-1.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

- ▶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말하기(말하는 태도, 방법 등)'(78.5%), '언어 예절'(73.9%), '맞춤법과 발음'(69.8%), '글쓰기'(69.1%)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2010년 이후 관심 비율이 증가함.

| 그림 2-2 | 국어에 대한 관심 분야(관심 있음 비율, 상위 4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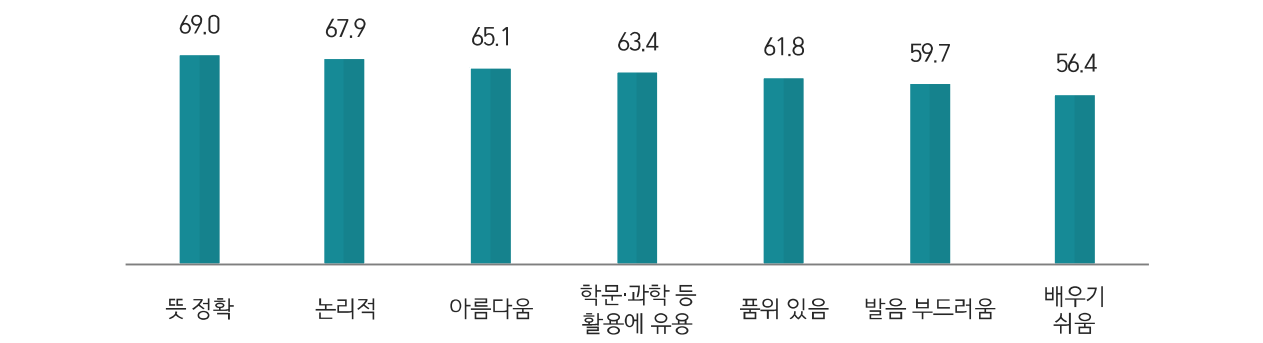


## 2.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 ▶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에 대해 국민들은 '뜻이 정확'(69.0%)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논리적'(67.9%), '아름답다'(65.1%) 등의 순임.

| 그림 2-3 |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그렇다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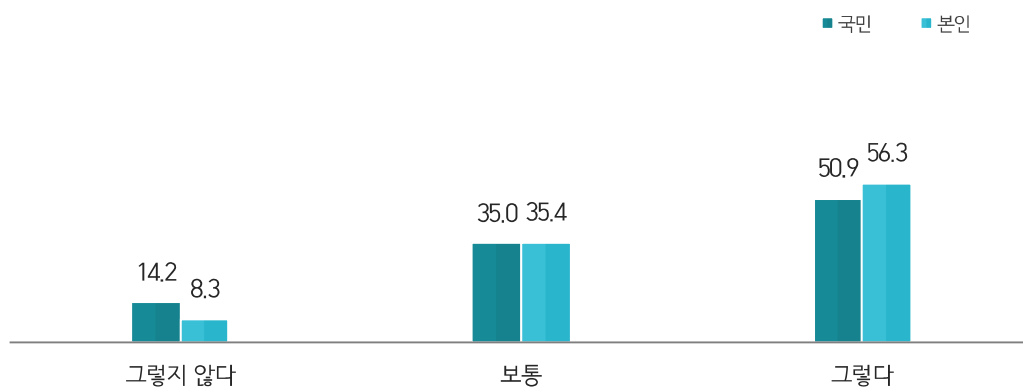
## 나 언어 사용

### 1. 국어의 바른 사용에 대한 생각

- ▶ 일반 국민의 50.9%는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56.3%가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 그림 2-4 | 국어의 바른 사용에 대한 생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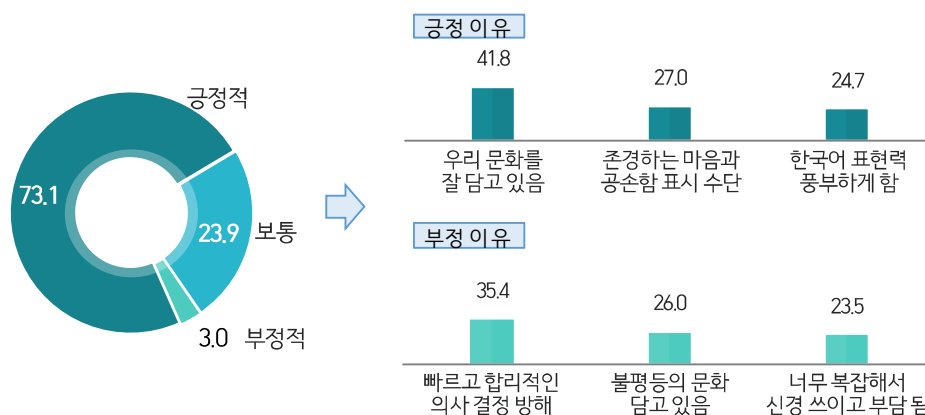


### 2.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 ▶ 국민들은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73.1%)으로 생각하고 있음.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음'(41.8%)이며,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35.4%)함으로 나타남.

| 그림 2-5 |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및 긍정, 부정 이유(상위 3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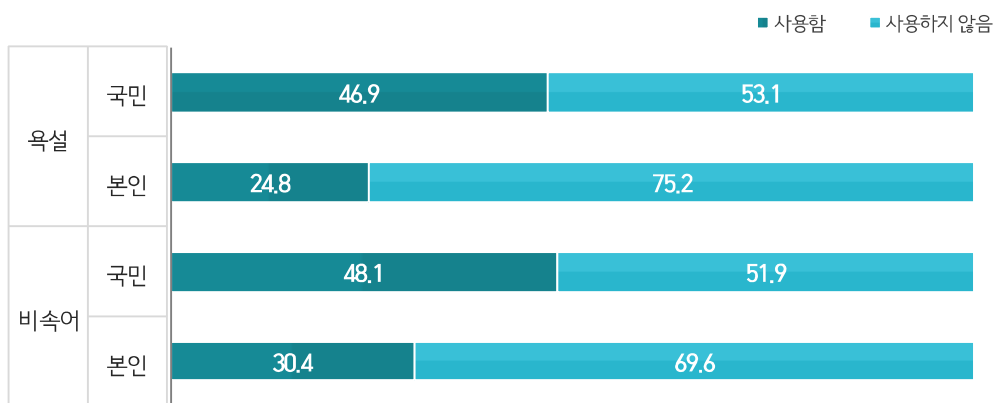


### 3. 욱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 일반 국민의 46.9%는 욱설을 사용하고, 48.1%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본인의 경우에는 24.8%가 욱설을 사용하고, 30.4%가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함.
- ▶ 일반 국민과 본인은 욱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에서 대부분 욱설보다 비속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본인 대비 일반 국민들이 욱설 및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함.

| 그림 2-6 | 욱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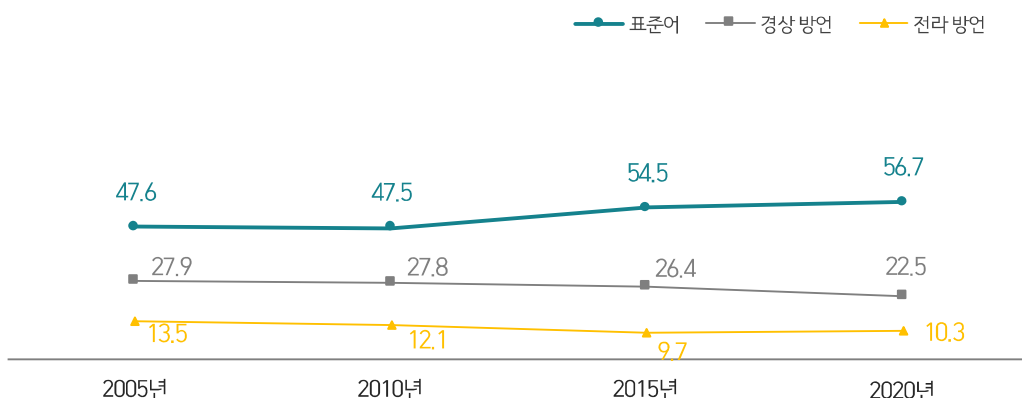


### 4.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 ▶ 국민들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는 '표준어'(56.7%), '경상 방언'(22.5%), '전라 방언'(10.3%) 순임.
- ▶ 표준어 사용률은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그림 2-7 |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상위 3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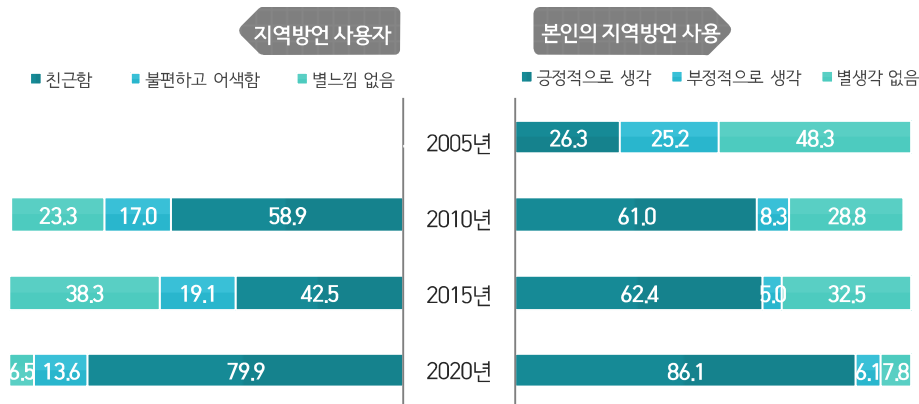


## 4-1.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생각

- 표준어 사용자의 79.9%는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친근함'을 느끼고, 지역 방언 사용자의 86.1%는 본인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 본인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 그림 2-8 |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생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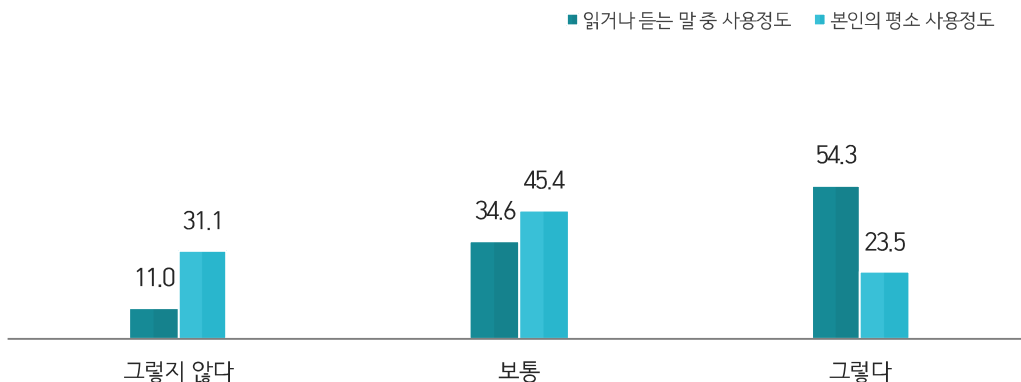
※ '지역 방언 사용자들과의 대화 시 느낌' 문항은 2010년 신설

## 5.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정도

- 국민들이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 정도는 54.3%이며, 본인의 외래어 외국어 사용 정도는 23.5%임.
- 본인보다 주변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9 |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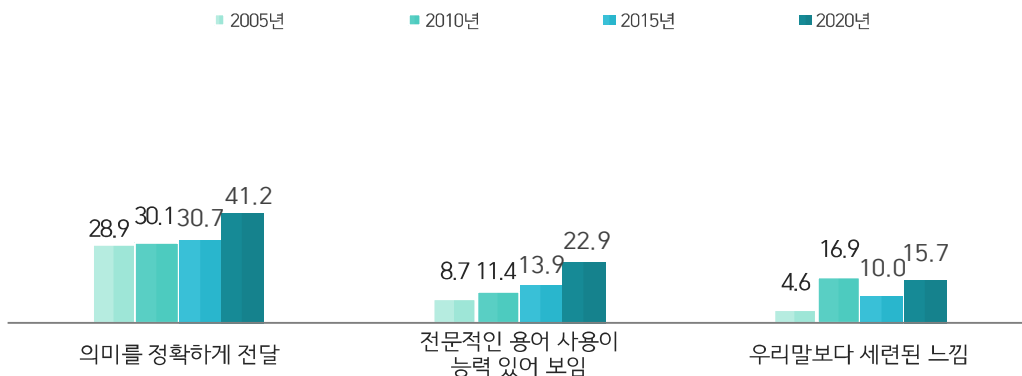


## 5-1.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이유

- ▶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밝힌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의 가장 큰 이유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41.2%)이며, 다음으로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22.9%),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15.7%) 순임.
- ▶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및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능력 있어 보이기' 위하여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그림 2-10 |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이유(상위 3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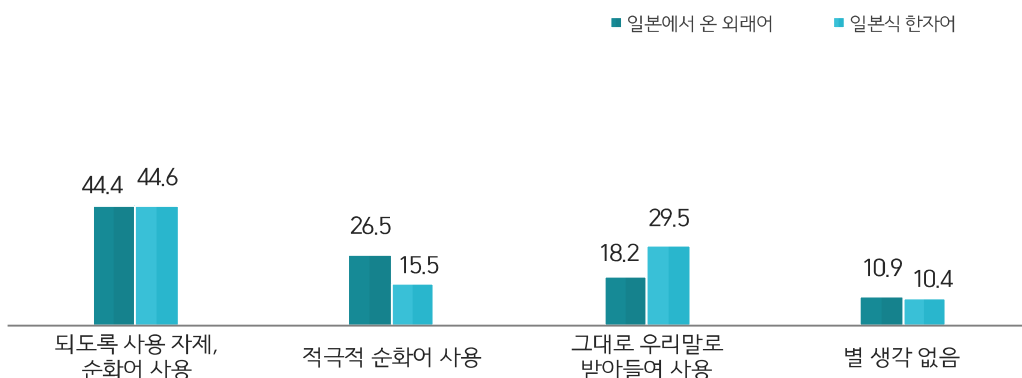


## 6. 일본에서 온 외래어 및 한자어에 대한 생각

- ▶ 국민들은 일본에서 온 외래어 및 일본식 한자어 사용에 대해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각각 44.4%, 44.6%)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함.
- ▶ 특히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는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이어 사용'(29.5%)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그림 2-11 | 일본에서 온 외래어 및 한자어에 대한 생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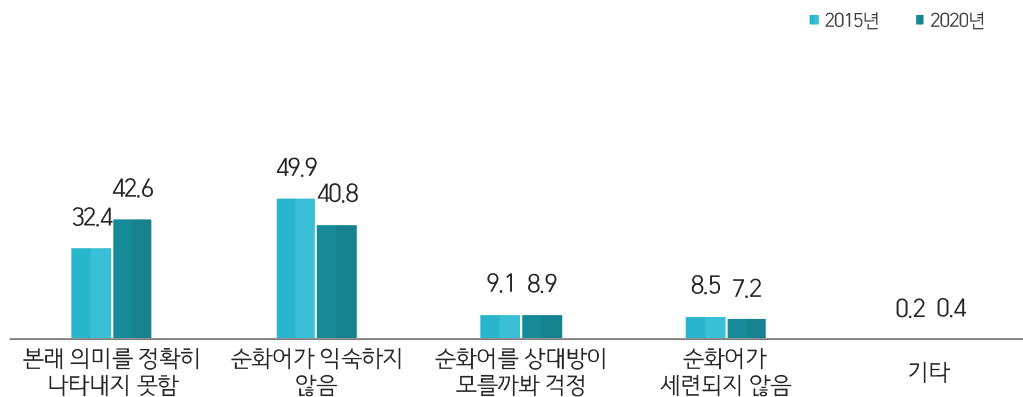
※ 기타 응답 제외

## 7.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 ▶ 국민들이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어를 일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42.6%)이며, 2015년 결과 대비 응답률이 소폭 상승함.

| 그림 2-12 |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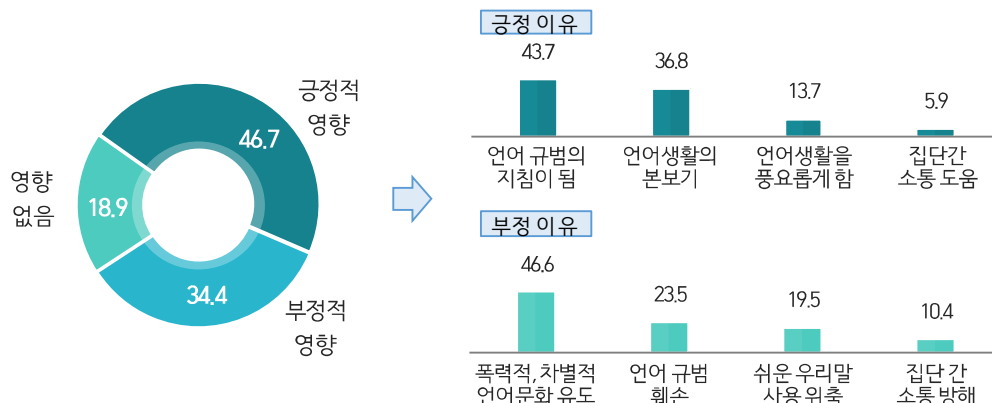


## 8.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 및 이유

- ▶ 국민들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 영향'(46.7%)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 표기, 문법 등의 사용으로 언어 규범의 지침'(43.7%)이 되기 때문임.
- ▶ 반면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선정적이거나 과장적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46.6%) 한다는 부정적 영향도 있음.

| 그림 2-13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 및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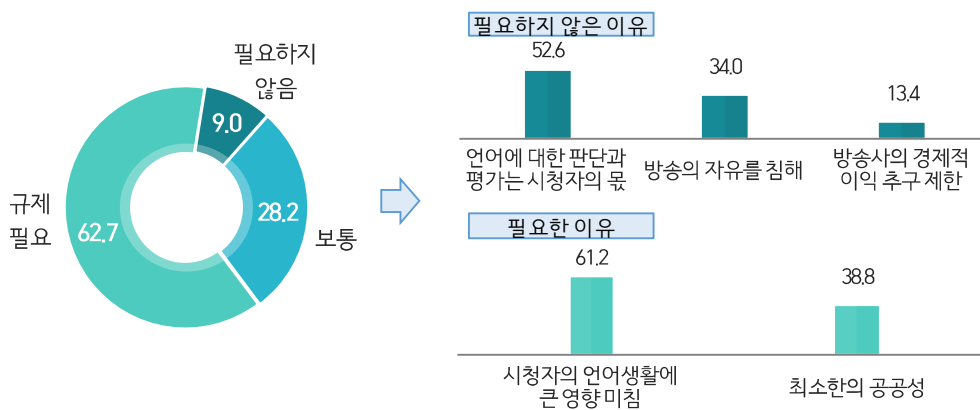
※ 기타 응답 제외

## 9.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

- ▶ 국민들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는 '필요하다'(62.7%)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61.2%)임.
- ▶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시청자의 몫이기 때문'(52.6%)으로 나타남.

| 그림 2-14 |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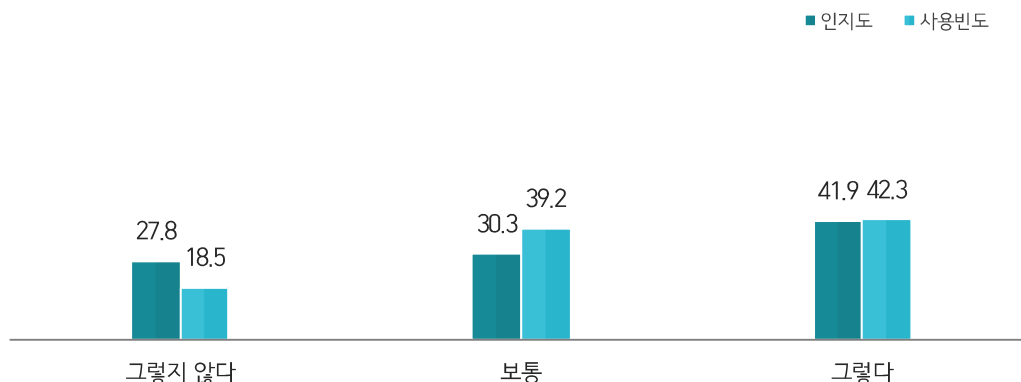
※ 기타 응답 제외

## 10. 인터넷 언어 인지 및 사용 정도

- ▶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새롭게 통용되는 '인터넷 언어'에 대해 잘 아는 국민들은 41.9%이며, 그중 평소 자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3%임.

| 그림 2-15 | 인터넷 언어 인지 및 사용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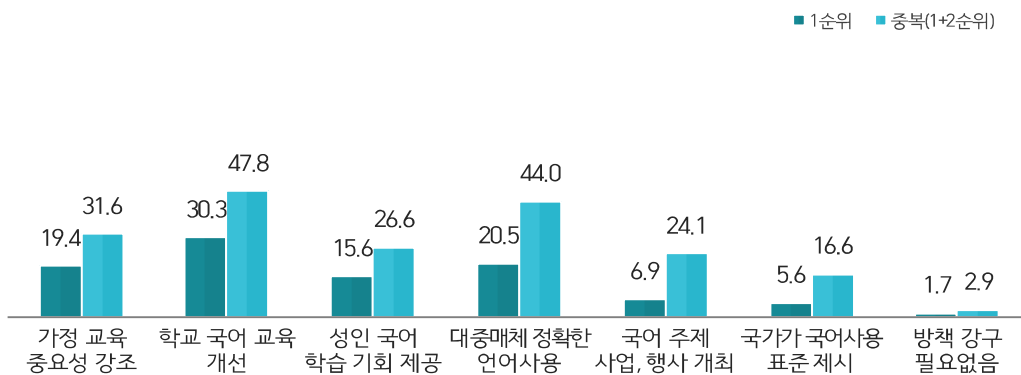
## 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 ▶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개선'(30.3%)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으로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함'(20.5%),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함'(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 그림 2-16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방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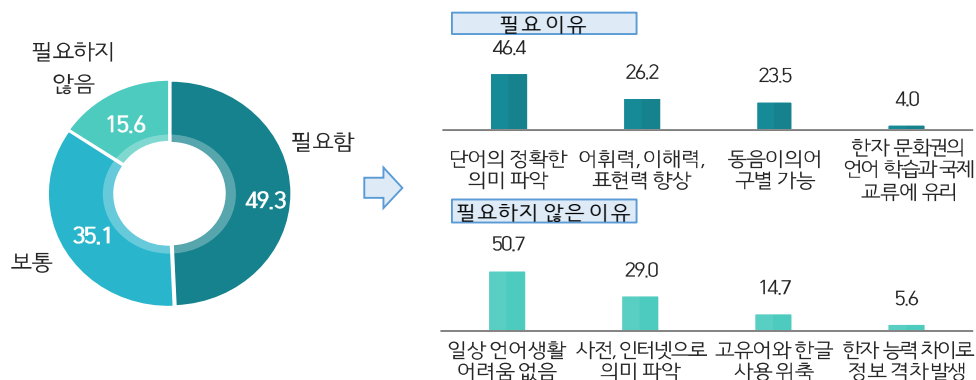
※ 기타 응답 제외

### 2.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 ▶ 국민들은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다소 '필요'(49.3%)하다고 생각함.
- ▶ 한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를 알아야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46.4%)이며, '한자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려움이 없음'(50.7%)이 한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그림 2-17 |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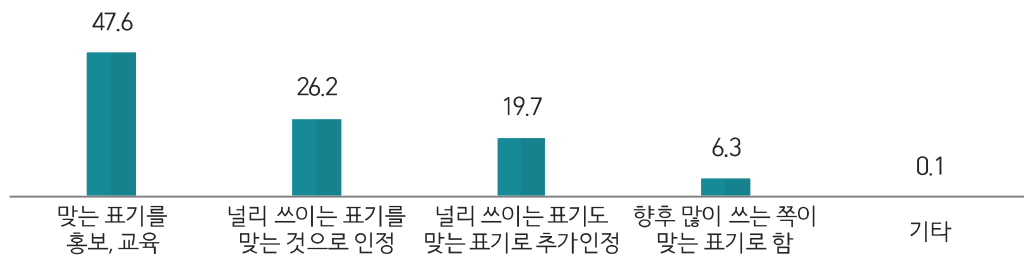
※ 기타 응답 제외

### 3.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일반 국민들은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는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교육'(47.6%)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림 2-18 |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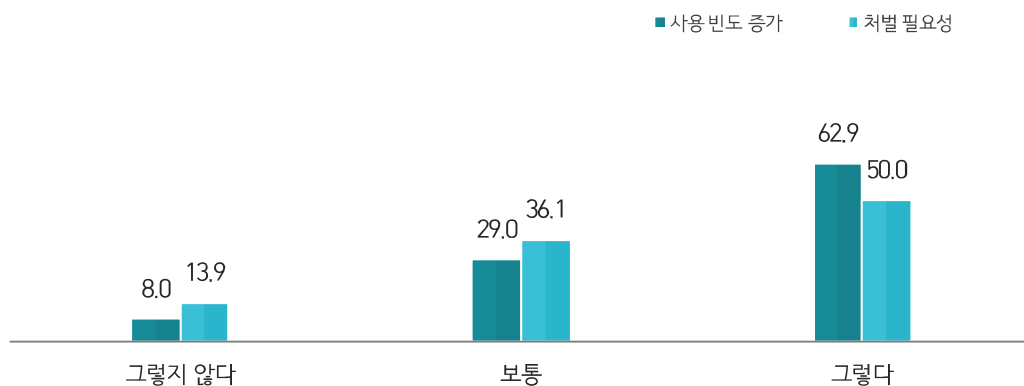


### 4.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

- ▶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은 예전보다 '많아진 편'(62.9%)이며, 이러한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은 '필요'(50.0%)하다고 생각함.

| 그림 2-19 |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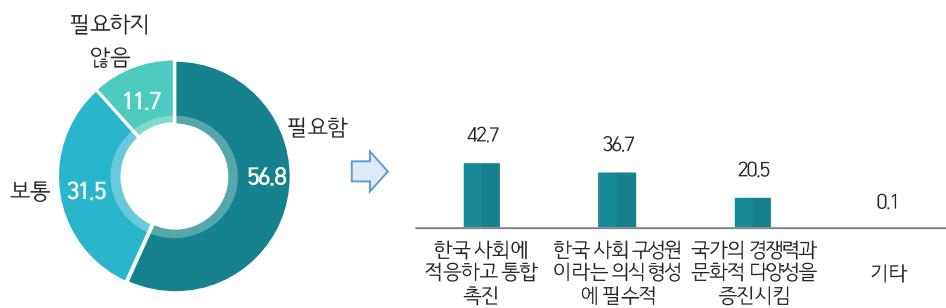


## 5. 이주민과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 ▶ 일반 국민의 56.8%는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교육이 이주민과 그 자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을 촉진'(42.7%)하기 때문임.

| 그림 2-20 | 이주민과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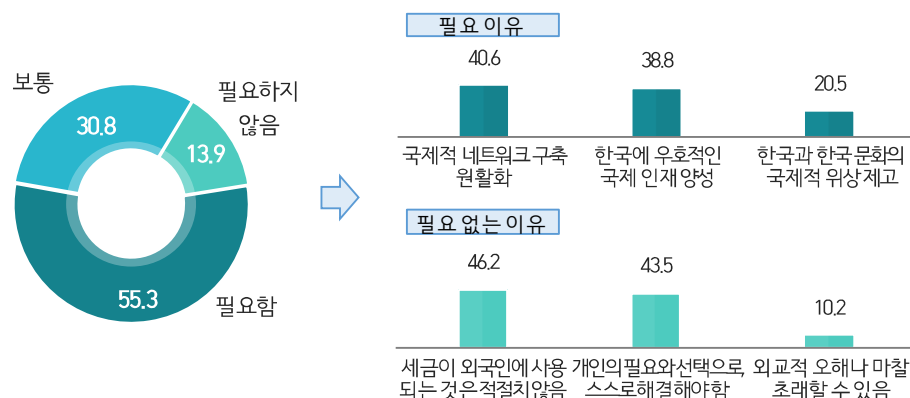


## 6.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 ▶ 일반 국민의 55.3%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 (40.6%) 하게 한다는 것이며,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6.2%)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남.

| 그림 2-21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단위 : %)



※ 기타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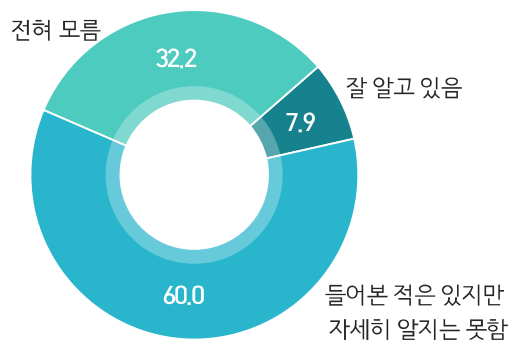
## 라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1. 국가 기관 인지도

- ▶ 국민들의 국립국어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67.8%(잘 알고 있음 7.9%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함 60.0%)임.

| 그림 2-22 | 국가 기관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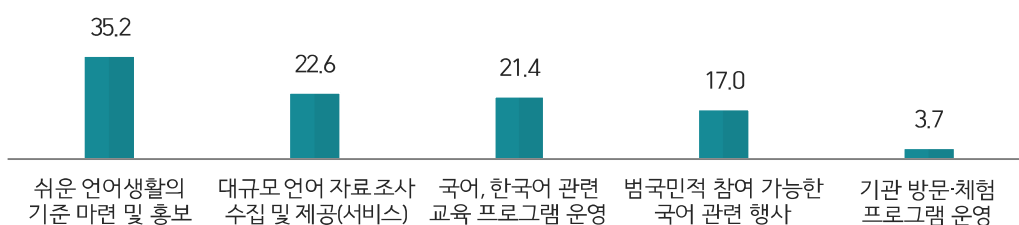


### 2. 국가 기관 중점 추진 사항

- ▶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 같은 국가 기관이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35.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수집 및 제공(서비스)'(22.6%),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21.4%) 등으로 나타남.

| 그림 2-23 | 국가 기관 중점 추진 사항

(단위 : %)







## 조사 결과 분석



## 가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1. 국어 관심

#### 1)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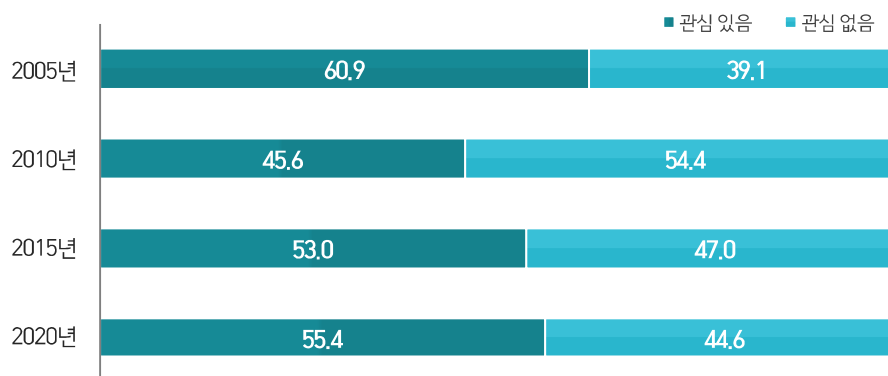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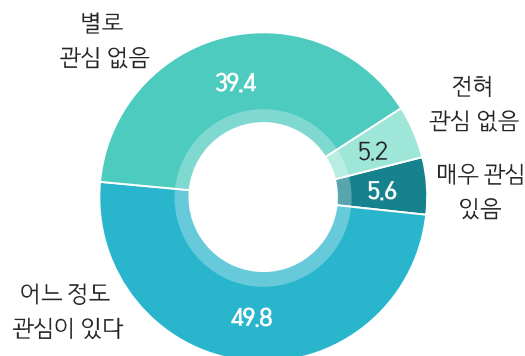
문1

귀하는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국민들은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해 55.4%(어느 정도 관심 있음 + 매우 관심 있음)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국민들의 44.6%는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해 관심이 없음(전혀 관심 없음 + 별로 관심 없음).
- ▶ 시계열 분석 결과, 우리 국민들의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도는 2010년 이후 상승 추세임.

| 그림 3-1 |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관심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은 30대(63.3%), 거주 지역은 전라권(63.0%),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 있음'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 |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관심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종합	
							관심 없음	관심 있음
[전 체]		(5,000)	5.2	39.4	49.8	5.6	44.6	55.4
성별	남성	(2,556)	5.7	40.3	48.7	5.3	46.0	54.0
	여성	(2,444)	4.7	38.5	50.9	5.9	43.2	56.8
연령	20대	(929)	3.2	37.7	52.9	6.3	40.8	59.2
	30대	(960)	3.2	33.4	55.7	7.6	36.7	63.3
	40대	(1,103)	4.3	36.8	53.8	5.0	41.2	58.8
	50대	(1,145)	5.6	44.1	46.3	4.0	49.7	50.3
	60대	(863)	10.1	45.1	39.1	5.7	55.2	44.8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6	35.9	52.5	8.0	39.5	60.5
	강원	(142)	5.2	36.7	49.6	8.6	41.9	58.1
	충청권	(539)	9.8	41.4	46.3	2.6	51.2	48.8
	전라권	(461)	1.7	35.3	58.8	4.1	37.0	63.0
	경상권	(1,233)	7.7	47.9	42.1	2.3	55.6	44.4
	제주	(62)	5.6	39.0	50.8	4.5	44.7	55.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8.7	59.6	31.7	0.0	68.3	31.7
	중학교 졸업	(295)	8.3	52.9	34.8	4.0	61.2	38.8
	고등학교 졸업	(1,902)	7.5	43.4	45.4	3.7	50.9	49.1
	대학교 졸업	(2,662)	3.2	35.2	54.6	7.0	38.4	61.6
	대학원 재학 이상	(89)	2.3	24.0	58.8	14.9	26.3	73.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6.9	39.5	46.5	7.1	46.3	53.7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8.8	49.2	39.1	2.9	58.0	42.0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5.4	41.5	50.3	2.9	46.8	53.2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5.0	40.2	51.0	3.8	45.2	54.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6.2	38.3	51.9	3.6	44.5	55.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9	37.2	50.4	8.5	41.1	58.9
	600만원 이상	(498)	2.9	34.9	45.9	16.3	37.8	62.2

## 2) 국어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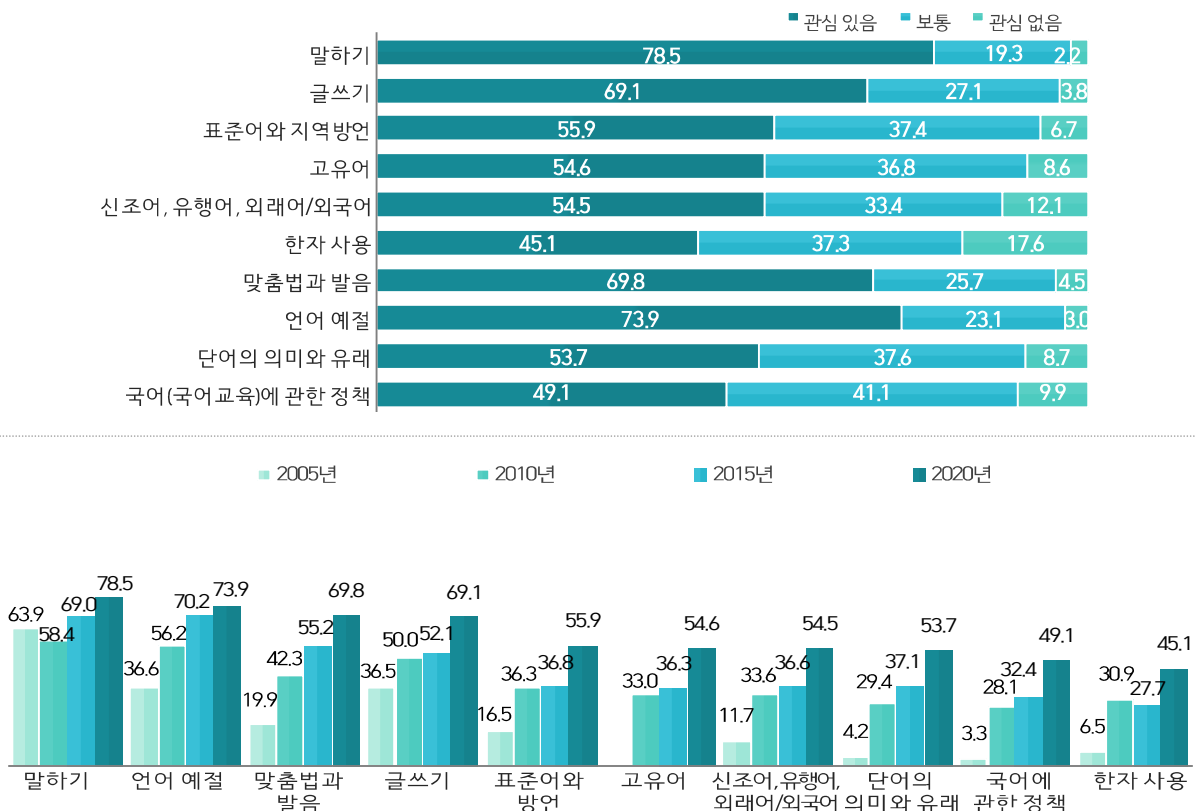
문1-1

귀하는 국어의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들 각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 국어와 국어 사용에 대해 관심 있는 국민들은 '말하기(말하는 태도, 방법 등)'(78.5%) 분야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며, 다음으로 '언어 예절'(73.9%), '맞춤법과 발음'(69.8%), '글쓰기'(69.1%) 분야에 관심이 높음.
- ▶ 반면, '한자 사용'(45.1%), '국어(국어 교육)에 관한 정책'(49.1%)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은 말하기, 언어 예절, 맞춤법과 발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2005년 이후 국어 각 분야(10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38.3%p 상승함.(2005년 9개 분야 평균 관심도 22.1%→2020년 10개 분야 평균 관심도 60.4%) 특히, 맞춤법과 발음(2005년 19.9%→2020년 69.8%), 단어의 의미와 유래(2005년 4.2%→2020년 53.7%) 분야의 관심도가 50%p 가까이 상승함.

그림 3-2 | 국어 관심 분야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말하기(말하는 태도, 방법 등)' 분야에서는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89.7%),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85.7%), 600만원 이상(83.9%), 거주 지역이 강원(82.6%), 수도권(8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 | 국어 관심 분야

(단위: 관심있음 %)

구분		사례 수	말하기	글쓰기	표준어 와 지역 방언	고유어	신조 어,유 행어, 외래 어/외 국어	한자 사용	맞춤법 과 발음	언어 예절	단어의 의미와 유래	국어에 관한 정책
[전 체]		(2,769)	78.5	69.1	55.9	54.6	54.5	45.1	69.8	73.9	53.7	49.1
성별	남성	(1,380)	78.0	67.7	56.6	56.7	53.1	47.2	68.3	72.2	54.0	50.5
	여성	(1,389)	78.9	70.5	55.3	52.5	55.9	43.1	71.3	75.5	53.4	47.7
연령	20대	(550)	79.6	72.7	52.7	49.7	69.4	38.3	73.7	71.7	50.5	50.3
	30대	(608)	76.2	72.6	56.9	54.8	58.1	45.4	70.4	74.3	48.9	47.0
	40대	(649)	79.5	66.9	54.9	54.0	53.4	44.5	70.1	72.2	56.8	47.4
	50대	(576)	81.9	65.7	57.8	57.7	44.4	49.2	68.0	75.3	56.6	51.1
	60대	(386)	73.6	67.0	58.0	58.0	44.5	49.5	65.4	77.0	56.4	50.6
거주 지역	수도권	(1,551)	82.1	71.6	51.4	50.2	51.7	42.6	72.1	73.2	46.8	42.7
	강원	(82)	82.6	61.5	42.3	51.8	35.6	36.8	58.7	79.4	40.3	35.2
	충청권	(263)	61.7	56.4	53.0	47.8	45.1	47.4	56.0	64.1	48.2	44.3
	전라권	(290)	74.8	64.5	63.3	66.7	68.5	60.0	75.1	80.1	72.5	62.9
	경상권	(547)	77.9	71.6	68.1	64.7	63.8	45.3	68.6	76.5	68.1	64.8
	제주	(34)	74.8	71.1	59.1	49.5	31.7	36.1	74.8	73.3	51.8	41.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06)	61.5	59.9	58.0	38.6	23.8	35.3	54.2	69.5	66.6	26.8
	중학교 졸업	(2,220)	79.1	57.4	63.1	59.4	34.5	28.0	61.2	80.9	52.2	43.5
	고등학교 졸업	(57)	75.1	66.7	57.1	55.3	50.5	45.0	67.7	72.1	54.1	48.0
	대학교 졸업	(3)	80.1	70.9	54.9	53.9	58.7	46.7	71.5	74.1	53.2	50.5
	대학원 재학 이상	(78)	89.7	80.8	51.8	57.2	49.3	41.1	77.3	81.5	60.4	45.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	81.9	64.1	52.1	42.7	35.5	32.0	46.0	66.1	54.4	31.1
	100만원~200만원 미만	(2)	65.9	65.1	50.3	44.8	44.6	32.9	60.8	75.5	39.1	25.7
	200만원~300만원 미만	(17)	68.1	67.0	49.4	50.4	48.9	40.5	65.5	69.8	49.8	49.6
	300만원~400만원 미만	(114)	78.1	67.8	59.0	57.6	58.9	47.1	69.8	73.3	60.4	52.8
	400만원~500만원 미만	(933)	80.0	70.3	55.0	53.2	53.7	45.5	70.1	74.3	51.8	43.6
	500만원~600만원 미만	(1,639)	85.7	68.9	60.9	60.4	56.6	47.9	72.7	74.1	55.9	53.2
	600만원 이상	(65)	83.9	74.6	55.0	52.8	57.0	48.4	76.7	79.9	50.7	56.0

## 2. 국어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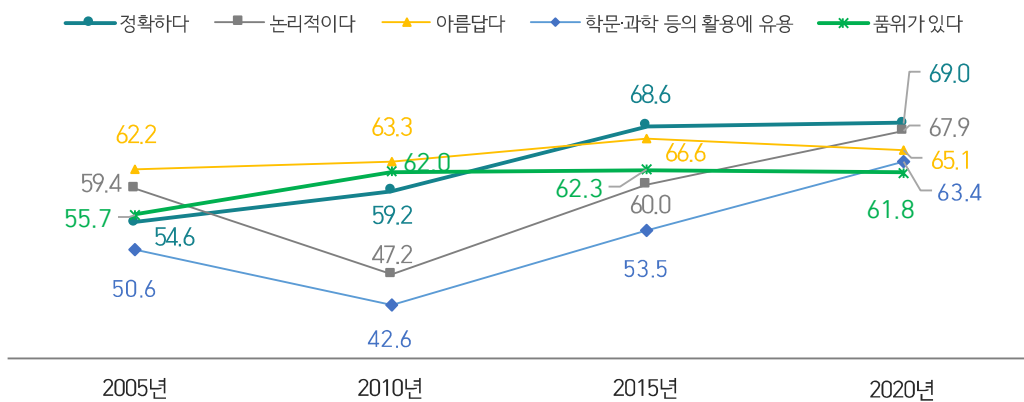
문2

다음은 국어에 대한 귀하의 생각 또는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으로 국민들은 '뜻이 정확하다'(69.0%)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논리적이다'(67.9%), '아름답다'(65.1%) 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음.
- ▶ 시계열 분석 결과,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으로 '뜻이 정확하다' 응답은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그림 3-3 |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단위 :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5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뜻이 정확하다'는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81.4%), 거주 지역이 강원(75.3%), 수도권(73.5%),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72.9%), 500만원~600만원 미만(7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 |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단위 : %)

구분		사례 수	뜻이 정확하다	품위가 있다	아름답다	발음이 부드럽다	배우기 쉽다	논리적 이다	학문, 과학 등의 활동에 유용하다
[전 체]		(5,000)	69.0	61.8	65.1	59.7	56.4	67.9	63.4
성별	남성	(2,556)	69.1	60.1	64.2	58.6	56.9	67.9	63.0
	여성	(2,444)	68.9	63.7	66.1	60.8	55.9	67.8	63.9
연령	20대	(929)	68.2	60.3	67.3	58.1	57.3	69.5	63.1
	30대	(960)	69.8	60.4	64.2	60.0	57.3	68.2	63.4
	40대	(1,103)	69.9	63.8	64.0	60.6	54.1	68.9	64.3
	50대	(1,145)	68.5	62.5	65.5	60.6	56.4	66.7	63.5
	60대	(863)	68.6	61.5	64.7	58.7	57.3	65.8	62.6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73.5	64.4	66.4	62.4	55.5	72.7	66.7
	강원	(142)	75.3	59.6	60.2	60.2	51.5	53.4	56.3
	충청권	(539)	46.9	51.4	55.5	50.5	56.8	52.6	44.9
	전라권	(461)	70.9	58.6	68.0	60.2	53.8	66.3	63.1
	경상권	(1,233)	68.3	63.2	66.9	58.0	59.4	67.1	66.4
	제주	(62)	62.9	45.0	49.6	55.2	59.6	57.2	48.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68.3	61.5	55.4	60.4	40.3	63.3	63.9
	중학교 졸업	(295)	71.1	69.7	69.0	61.2	53.9	63.9	66.6
	고등학교 졸업	(1,902)	66.6	62.1	63.3	59.5	54.7	66.6	62.4
	대학교 졸업	(2,662)	70.2	60.4	65.9	59.7	58.3	69.2	63.5
	대학원 재학 이상	(89)	81.4	70.9	74.6	59.5	54.6	71.4	71.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9.4	56.6	61.2	47.7	40.9	55.0	54.4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66.4	61.6	64.9	51.4	43.4	61.7	54.7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64.0	59.4	61.8	53.9	49.4	64.5	58.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68.2	61.8	64.5	59.3	57.9	66.4	65.0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70.8	60.9	65.4	65.0	59.1	69.2	64.3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71.9	62.8	67.1	61.5	58.7	70.5	65.9
	600만원 이상	(498)	72.9	67.1	69.0	60.8	63.3	74.5	67.3



## 나 언어 사용

### 1. 사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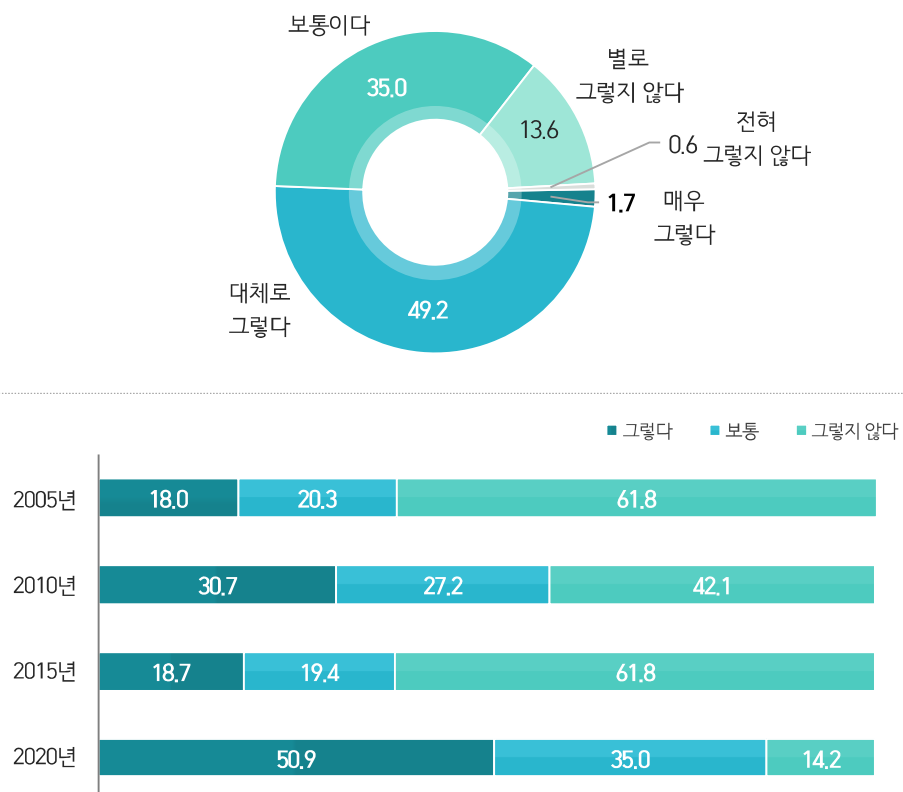
#### 1) 국민들의 바른 국어 사용

문3 귀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50.9%(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14.2%는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하고 있음.
- ▶ 시계열 분석 결과,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020년(50.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그림 3-4 | 국민들의 바른 국어 사용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2.4%), 거주 지역이 전라권(59.7%), 수도권(54.4%),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58.7%), 연령이 30대(55.3%)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 | 국민들의 바른 국어 사용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0.6	13.6	35.0	49.2	1.7	14.2	35.0	50.9
성별	남성	(2,556)	0.6	14.3	34.2	49.2	1.7	14.9	34.2	50.9
	여성	(2,444)	0.5	12.8	35.8	49.1	1.8	13.3	35.8	50.9
연령	20대	(929)	0.5	14.6	35.0	48.3	1.6	15.1	35.0	50.0
	30대	(960)	0.0	11.9	32.8	53.3	2.0	11.9	32.8	55.3
	40대	(1,103)	0.8	11.9	35.2	50.6	1.5	12.7	35.2	52.1
	50대	(1,145)	0.9	13.2	36.1	48.4	1.5	14.1	36.1	49.8
	60대	(863)	0.7	17.0	35.6	44.7	2.0	17.7	35.6	46.7
	70대	(200)	0.5	15.0	35.0	47.5	1.5	16.0	35.0	47.5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6	12.7	32.3	52.4	2.1	13.2	32.3	54.4
	강원	(142)	2.7	33.4	43.0	20.9	0.0	36.1	43.0	20.9
	충청권	(539)	0.6	13.3	43.4	41.6	1.1	13.9	43.4	42.7
	전라권	(461)	0.0	7.5	32.8	58.6	1.1	7.5	32.8	59.7
	경상권	(1,233)	0.5	15.2	36.0	46.7	1.5	15.8	36.0	48.2
	제주	(62)	1.3	21.1	47.2	25.2	5.2	22.4	47.2	30.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2	24.4	28.3	46.1	0.0	25.6	28.3	46.1
	중학교 졸업	(295)	0.3	18.8	41.5	38.7	0.7	19.1	41.5	39.4
	고등학교 졸업	(1,902)	0.6	14.3	36.3	47.3	1.5	14.9	36.3	48.8
	대학교 졸업	(2,662)	0.5	12.6	33.6	51.5	1.9	13.1	33.6	53.4
	대학원 재학 이상	(89)	2.7	5.3	29.6	56.5	5.9	8.0	29.6	62.4
	무학	(10)	0.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2.7	19.5	37.9	39.4	0.6	22.2	37.9	40.0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0.6	20.2	37.8	40.3	1.1	20.8	37.8	41.4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0.2	15.0	40.1	42.6	2.1	15.2	40.1	44.8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5	12.1	36.5	49.3	1.7	12.6	36.5	51.0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4	13.0	34.0	51.8	0.9	13.4	34.0	52.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6	11.2	29.6	56.3	2.4	11.8	29.6	58.7
	600만원 이상	(498)	1.6	16.0	32.1	47.6	2.7	17.6	32.1	50.3

## 1-1)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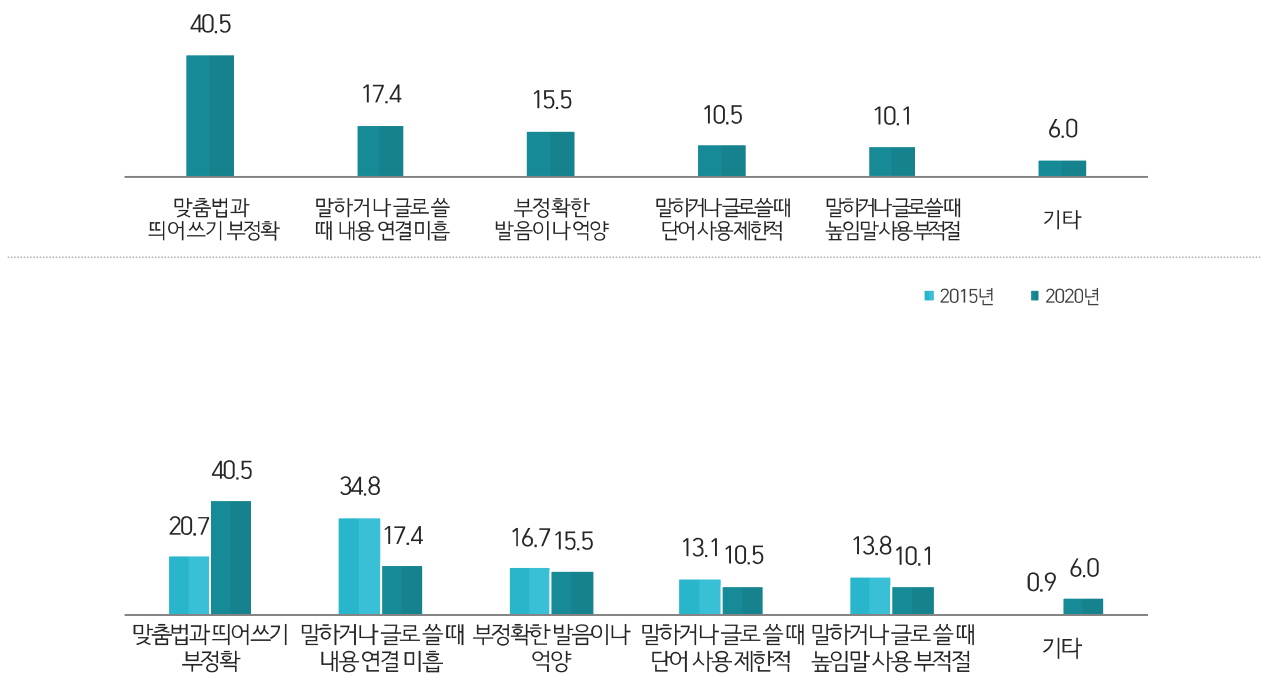
문3-1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40.5%)이며, 다음으로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내용 연결 미흡'(17.4%),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15.5%) 순임.
- ▶ 기타 응답으로는 '신조어/줄임말이 많음', '비속어를 많이 사용함' 등이 있음.
- ▶ 시계열 분석 결과,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 의견이 2015년 대비 19.8%p 상승함.

그림 3-5 |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 2015년 보기 항목에서 '말할 때 내용 연결 미흡', '글로 쓸 때 내용 연결 미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0년과 비교하기 위해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내용 연결 미흡'으로 통합하여 분석함

## 특성별 분석

- ▶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 의견을 선택한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55.3%), 거주 지역이 충청권(51.9%), 전라권(45.7%),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46.3%),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4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5 |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내용 연결 미흡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단어 사용이 제한적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이 부적절	기타
[전 체]		(708)	40.5	17.4	15.5	10.5	10.1	6.0
성별	남성	(382)	42.8	14.1	16.4	9.9	10.1	6.6
	여성	(326)	37.7	21.2	14.4	11.3	10.1	5.2
연령	20대	(140)	55.3	15.7	10.2	9.0	4.2	5.7
	30대	(114)	39.6	18.3	13.3	10.1	9.7	9.1
	40대	(140)	36.8	20.8	19.3	8.8	9.8	4.5
	50대	(161)	42.5	9.9	13.8	16.2	8.8	8.8
	60대	(153)	28.7	23.1	20.3	7.7	17.7	2.4
거주 지역	수도권	(339)	41.1	16.4	10.6	9.5	11.2	11.2
	강원	(51)	24.7	25.5	17.0	8.5	19.8	4.6
	충청권	(75)	51.9	18.4	9.3	9.6	10.8	0.0
	전라권	(35)	45.7	16.9	21.2	12.5	3.7	0.0
	경상권	(194)	38.3	17.5	25.7	11.8	6.4	0.3
	제주	(14)	38.3	5.6	6.3	23.5	14.9	11.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	32.1	27.5	16.6	9.3	14.5	0.0
	중학교 졸업	(56)	35.1	20.9	26.4	9.0	6.8	1.8
	고등학교 졸업	(283)	35.7	15.8	21.8	9.6	12.5	4.7
	대학교 졸업	(348)	46.0	18.1	8.9	10.8	8.8	7.4
	대학원 재학 이상	(7)	16.9	0.0	0.0	49.9	0.0	33.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3)	33.7	20.2	6.1	5.0	31.7	3.2
	100만원~200만원 미만	(60)	33.4	15.1	26.3	12.2	9.7	3.2
	200만원~300만원 미만	(128)	34.5	19.4	20.0	7.9	12.5	5.5
	300만원~400만원 미만	(159)	43.8	17.3	11.8	13.4	9.2	4.5
	400만원~500만원 미만	(160)	39.6	17.8	18.1	12.0	7.6	5.0
	500만원~600만원 미만	(100)	44.0	13.4	10.8	9.7	12.2	9.9
	600만원 이상	(88)	46.3	19.5	10.2	6.9	7.9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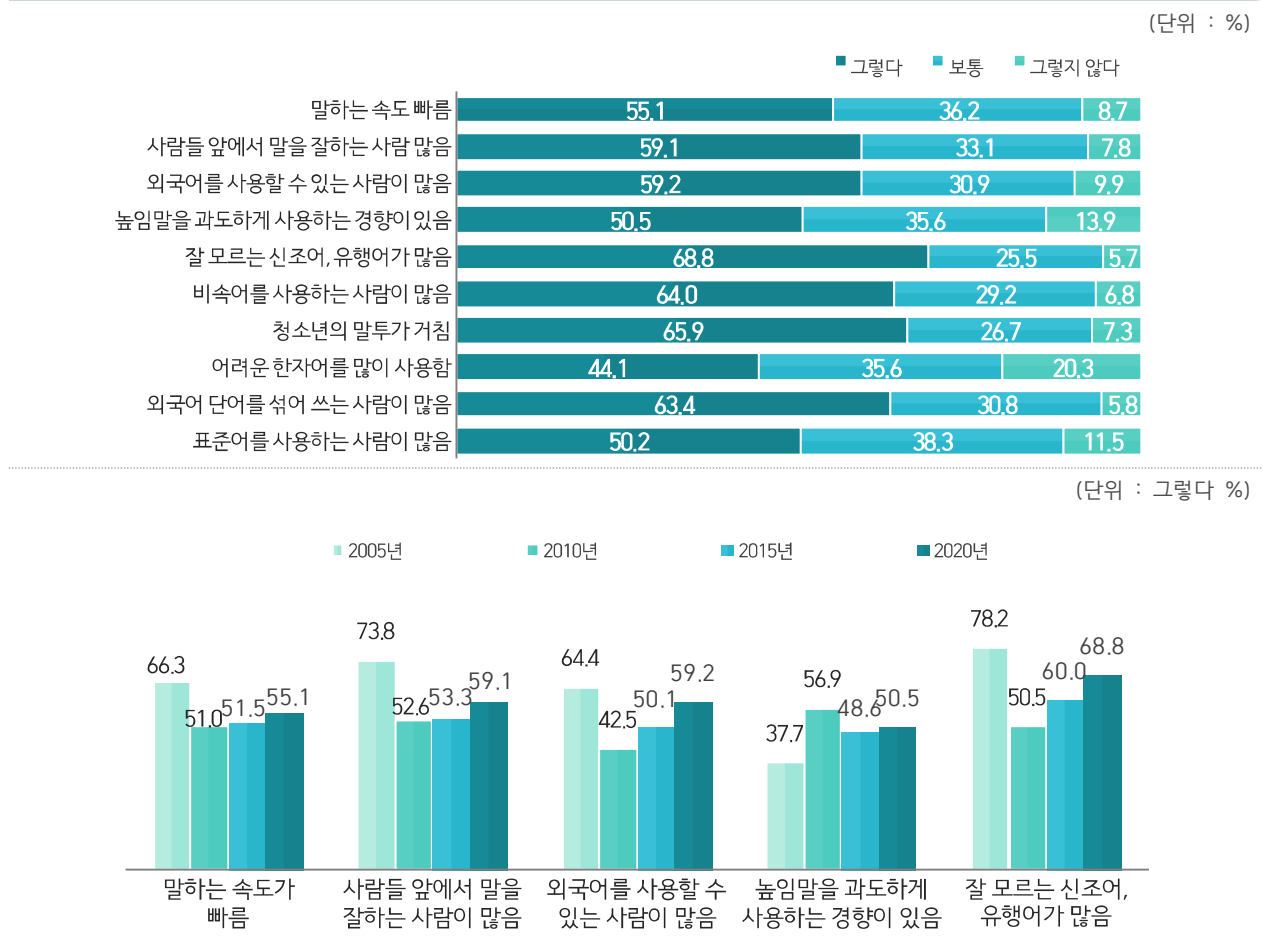
## 2)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문4

우리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우리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신조어, 유행어가 많다'(68.8%)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의 말투가 거칠다'(65.9%),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64.0%)는 의견 순임.
- ▶ 반면,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20.3%), '높임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13.9%)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말하는 속도 빠름',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많음',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 '잘 모르는 신조어, 유행어가 많음' 응답률이 증가함.

| 그림 3-6 |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5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특성별 분석

- ▶ 우리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잘 모르는 신조어, 유행어가 많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76.5%), 중학교 졸업(70.9%), 거주 지역이 제주(76.0%), 수도권(72.0%),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7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6 |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그렁다 %)

구분		사례 수	말하는 속도 빠름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음	외국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	높임말 과도 하게 사용 하는 경향 있음	잘 모르는 신조어, 유행어 많음	비속어 사용 하는 사람이 많음	청소년 말투가 거침	어려운 한자어 많이 사용함	외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 많음	표준어 사용 하는 사람이 많음
[전 체]		(5,000)	55.1	59.1	59.2	50.5	68.8	64.0	65.9	44.1	63.4	50.2
성별	남성	(2,556)	54.2	57.5	57.6	48.6	67.7	62.4	64.3	42.9	62.5	48.7
	여성	(2,444)	56.1	60.8	61.0	52.5	70.0	65.7	67.6	45.4	64.3	51.8
연령	20대	(929)	56.8	60.5	59.9	53.8	66.3	68.1	66.4	45.4	66.4	49.2
	30대	(960)	54.6	59.4	62.2	53.3	69.7	64.4	65.7	43.6	63.3	50.9
	40대	(1,103)	55.4	58.8	58.7	49.2	68.8	62.2	64.2	44.6	63.1	50.8
	50대	(1,145)	55.4	58.7	59.4	49.7	70.3	63.5	65.3	42.2	63.4	51.1
	60대	(863)	53.0	58.1	55.9	46.7	68.5	62.2	68.8	45.4	60.6	48.5
	수도권	(2,563)	55.7	62.9	65.4	53.8	72.0	64.2	67.4	42.1	67.1	55.5
거주 지역	강원	(142)	41.5	41.1	35.1	36.4	67.5	59.6	64.7	25.0	55.2	29.3
	충청권	(539)	40.5	45.8	51.8	44.7	59.7	61.8	63.9	43.1	56.3	42.6
	전라권	(461)	64.4	59.1	60.0	50.6	66.9	64.9	68.3	48.9	60.6	47.1
	경상권	(1,233)	59.4	59.5	53.5	48.8	66.8	64.1	63.1	50.3	61.7	45.9
	제주	(62)	34.2	50.2	33.6	29.4	76.0	72.9	66.0	22.7	45.5	54.1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48.7	52.8	40.0	42.2	58.2	57.3	64.5	54.2	50.1	42.5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295)	55.4	65.9	60.5	43.6	70.9	63.5	71.3	43.6	60.9	42.8
	고등학교 졸업	(1,902)	55.9	58.3	57.7	51.2	67.3	64.7	65.5	42.8	61.6	49.0
	대학교 졸업	(2,662)	54.3	59.1	60.5	51.1	69.6	63.7	65.6	44.9	65.1	51.6
	대학원 재학 이상	(89)	63.6	57.1	61.2	45.8	76.5	63.4	67.5	44.6	66.6	62.3
	100만원 미만	(57)	46.2	51.8	51.3	32.7	63.5	55.8	60.7	34.5	60.6	47.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2.4	62.4	55.7	48.3	68.7	66.2	69.8	44.4	63.3	40.7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52.1	55.7	52.9	45.9	65.6	61.4	67.9	47.2	59.5	45.2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56.3	59.8	59.9	52.7	68.3	64.4	65.0	44.7	63.4	50.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54.1	58.3	58.9	50.1	71.9	64.6	63.7	41.9	63.5	49.8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58.0	62.4	64.7	55.0	67.9	63.6	62.1	44.5	64.4	55.3
	600만원 이상	(498)	57.4	58.2	63.0	49.2	70.4	66.1	75.0	43.3	68.2	55.7

### 3) 본인의 바른 국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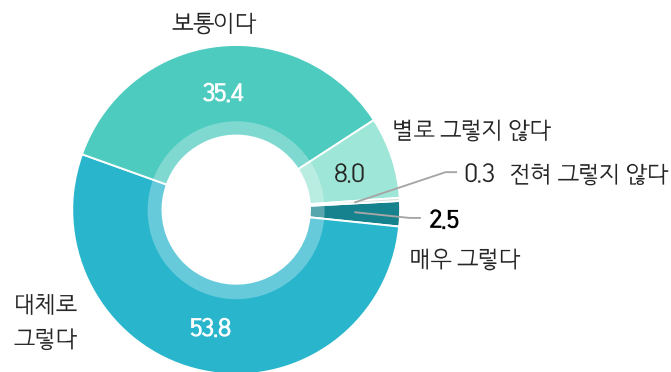
문5

귀하는 평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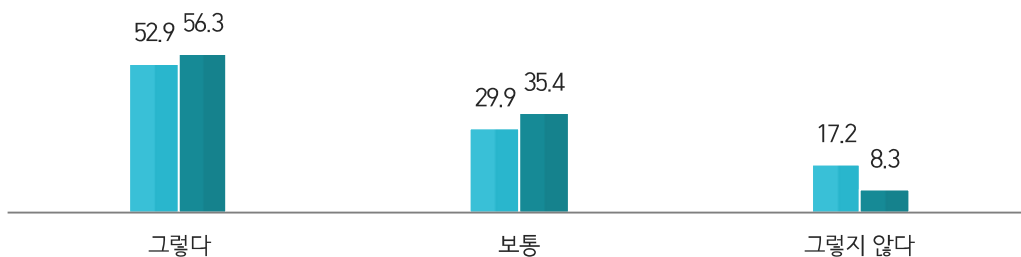
- ▶ 국민들의 56.3%(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본인이 평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8.3%는 본인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하고 있음.
- ▶ 시계열 분석 결과, 본인이 평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은 2015년 이후 증가함.

| 그림 3-7 | 본인의 바른 국어 사용

(단위 : %)



■ 2015년 ■ 2020년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 (64.0%), 600만원 이상(64.0%), 거주 지역이 전라권(62.0%), 수도권(61.5%)에서 본인이 평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7 | 본인의 바른 국어 사용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0.3	8.0	35.4	53.8	2.5	8.3	35.4	56.3
성별	남성	(2,556)	0.3	8.6	35.9	52.9	2.3	9.0	35.9	55.2
	여성	(2,444)	0.3	7.3	34.9	54.8	2.7	7.6	34.9	57.5
연령	20대	(929)	0.1	8.8	34.5	53.8	2.7	9.0	34.5	56.5
	30대	(960)	0.1	7.6	34.7	55.3	2.3	7.7	34.7	57.6
	40대	(1,103)	0.3	6.6	35.1	55.1	3.0	6.9	35.1	58.0
	50대	(1,145)	0.3	6.8	38.7	52.5	1.8	7.0	38.7	54.3
	60대	(863)	0.9	10.9	33.0	52.4	2.7	11.8	33.0	55.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2	4.7	33.6	58.0	3.5	4.9	33.6	61.5
	강원	(142)	2.6	15.7	45.0	35.5	1.3	18.3	45.0	36.8
	충청권	(539)	0.1	10.6	42.3	45.0	2.1	10.7	42.3	47.0
	전라권	(461)	0.1	4.7	33.1	60.7	1.3	4.9	33.1	62.0
	경상권	(1,233)	0.6	14.0	35.1	49.4	1.0	14.5	35.1	50.4
	제주	(62)	0.6	9.5	49.1	36.2	4.6	10.1	49.1	40.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5.6	19.0	40.9	34.6	0.0	24.5	40.9	34.6
	중학교 졸업	(295)	0.5	18.1	37.0	42.3	2.1	18.6	37.0	44.4
	고등학교 졸업	(1,902)	0.4	8.3	39.3	50.5	1.5	8.7	39.3	52.0
	대학교 졸업	(2,662)	0.2	6.6	32.7	57.6	3.1	6.7	32.7	60.6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3.3	24.9	63.2	8.6	3.3	24.9	71.8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1	9.6	36.7	50.4	2.1	10.7	36.7	52.6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5	16.7	37.2	42.5	2.1	18.2	37.2	44.6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0.4	9.0	40.8	48.1	1.8	9.3	40.8	49.9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2	8.2	38.3	52.3	0.9	8.5	38.3	53.2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2	7.3	34.1	55.9	2.6	7.5	34.1	58.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1	4.9	31.0	60.9	3.2	5.0	31.0	64.0
	600만원 이상	(498)	0.4	7.5	28.2	57.6	6.4	7.9	28.2	64.0



## 2. 높임말

### 1)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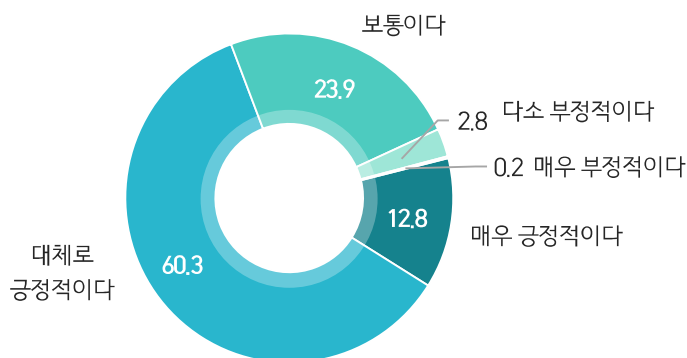
문6

귀하는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 국민의 73.1%(대체로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3.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다 + 다소 부정적이다)으로 생각하고 있음.

| 그림 3-8 |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이 강원(78.1%), 수도권(76.9%),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50대(76.5%),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75.5%), 고등학교 졸업(74.0%)에서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8 |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종합		
								부정적	보통	긍정적
[전 체]		(5,000)	0.2	2.8	23.9	60.3	12.8	3.0	23.9	73.1
성별	남성	(2,556)	0.2	2.6	23.8	60.3	13.1	2.9	23.8	73.4
	여성	(2,444)	0.2	2.9	24.1	60.4	12.5	3.1	24.1	72.9
연령	20대	(929)	0.8	4.2	26.9	58.8	9.3	5.0	26.9	68.1
	30대	(960)	0.0	4.0	24.4	62.6	9.0	4.0	24.4	71.6
	40대	(1,103)	0.0	2.2	23.4	60.8	13.6	2.2	23.4	74.4
	50대	(1,145)	0.1	1.8	21.6	61.9	14.6	1.9	21.6	76.5
	60대	(863)	0.2	1.8	24.0	56.6	17.4	2.0	24.0	74.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2	1.9	21.0	61.7	15.2	2.1	21.0	76.9
	강원	(142)	0.0	3.4	18.5	71.8	6.3	3.4	18.5	78.1
	충청권	(539)	0.3	5.6	42.4	41.1	10.6	5.9	42.4	51.6
	전라권	(461)	0.0	4.2	21.4	67.0	7.4	4.2	21.4	74.4
	경상권	(1,233)	0.2	2.7	23.0	62.4	11.6	2.9	23.0	74.0
	제주	(62)	0.0	3.4	30.8	53.2	12.6	3.4	30.8	65.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3.0	31.1	50.0	15.8	3.0	31.1	65.9
	중학교 졸업	(295)	0.0	2.2	22.3	59.8	15.7	2.2	22.3	75.5
	고등학교 졸업	(1,902)	0.3	2.0	23.7	60.5	13.4	2.4	23.7	74.0
	대학교 졸업	(2,662)	0.1	3.4	24.1	60.4	11.9	3.5	24.1	72.3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1.8	23.3	60.1	14.8	1.8	23.3	74.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0.0	1.6	36.4	50.1	11.8	1.6	36.4	62.0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0.0	4.3	25.6	52.6	17.5	4.3	25.6	70.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0.2	2.6	26.7	57.5	13.0	2.9	26.7	70.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4	2.9	24.6	61.1	11.0	3.3	24.6	72.0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1	2.5	23.6	61.0	12.7	2.7	23.6	73.7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0	2.2	22.5	62.2	13.2	2.2	22.5	75.4
	600만원 이상	(498)	0.3	3.4	18.2	63.8	14.2	3.7	18.2	78.1

## 1-1)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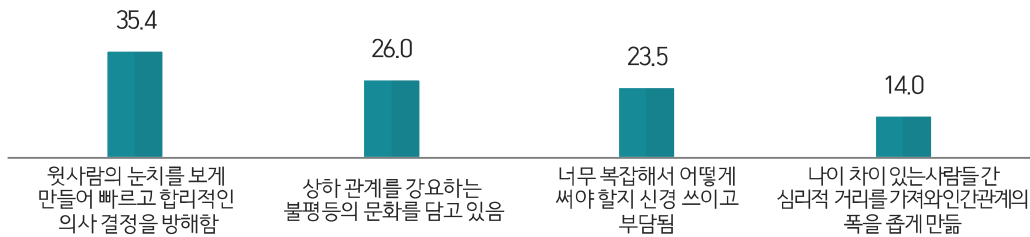
문6-1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35.4%)하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의 문화를 담고 있음'(26.0%),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신경 쓰이고 부담됨'(23.5%)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9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인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47.0%),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400만원 미만(44.1%), 거주 지역이 경상권(42.0%),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3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9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함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의 문화를 담고 있음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신경 쓰이고 부담됨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가져와 인간관계의 폭을 좁게 만들
[전 체]		(148)	35.4	26.0	23.5	14.0
성별	남성	(73)	37.0	27.6	17.0	16.3
	여성	(75)	33.9	24.5	29.7	11.8
연령	20대	(46)	31.6	37.9	22.0	6.9
	30대	(39)	47.0	21.1	20.1	11.9
	40대	(24)	21.2	36.7	15.6	23.2
	50대	(22)	45.9	15.9	18.2	20.0
	60대	(17)	26.7	3.4	52.4	17.4
	70대	(18)	22.2	11.1	44.4	22.2
거주 지역	수도권	(54)	31.2	36.3	22.7	9.8
	강원	(5)	12.8	28.5	42.8	15.9
	충청권	(32)	27.6	28.1	15.3	26.6
	전라권	(19)	55.0	15.8	19.5	9.8
	경상권	(36)	42.0	12.1	31.6	12.0
	제주	(2)	19.6	61.5	18.9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42.1	0.0	57.9	0.0
	중학교 졸업	(7)	49.9	9.1	31.1	9.9
	고등학교 졸업	(45)	29.8	24.5	26.6	19.0
	대학교 졸업	(94)	37.6	28.8	21.2	10.7
	대학원 재학 이상	(2)	0.0	0.0	0.0	100.0
	무학	(1)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	0.0	0.0	100.0	0.0
	100만원~200만원 미만	(13)	47.3	4.8	23.7	18.2
	200만원~300만원 미만	(24)	46.5	18.0	21.3	10.8
	300만원~400만원 미만	(42)	44.1	26.4	17.2	12.4
	400만원~500만원 미만	(32)	26.0	33.0	27.1	13.9
	500만원~600만원 미만	(18)	32.7	24.8	33.2	9.3
	600만원 이상	(19)	14.2	40.6	20.5	24.7

※ 기타 응답 제외

## 1-2)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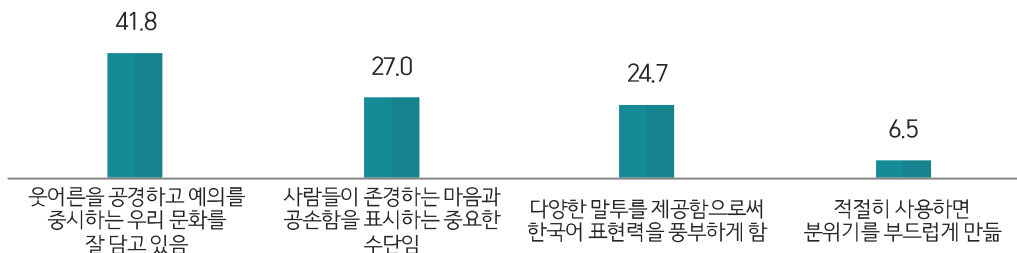
문6-2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음'(41.8%)이며, 다음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과 공손함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임'(27.0%), '다양한 말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표현력을 풍부하게 함'(24.7%)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10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인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음'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53.2%), 중학교 졸업(48.7%), 거주 지역이 제주(52.2%), 전라권(48.8%), 연령이 60대(5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0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음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과 공손함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임	다양한 말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표현력을 풍부하게 함	적절히 사용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전 체]		(4,852)	41.8	27.0	24.7	6.5
성별	남성	(2,482)	42.1	26.8	24.8	6.3
	여성	(2,369)	41.5	27.2	24.7	6.6
연령	20대	(883)	38.2	28.0	24.7	9.0
	30대	(921)	39.8	28.6	23.9	7.8
	40대	(1,079)	39.9	29.4	24.3	6.4
	50대	(1,123)	41.4	26.2	26.6	5.8
	60대	(846)	50.7	22.1	23.9	3.3
거주 지역	수도권	(2,509)	41.9	28.3	22.4	7.4
	강원	(137)	46.5	30.7	16.0	6.3
	충청권	(507)	46.0	29.3	18.3	6.4
	전라권	(442)	48.8	16.0	32.4	2.7
	경상권	(1,197)	36.2	26.7	31.2	6.0
	제주	(60)	52.2	33.3	10.5	4.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1)	53.2	17.6	29.2	0.0
	중학교 졸업	(289)	48.7	25.4	23.6	2.3
	고등학교 졸업	(1,857)	42.6	25.7	25.8	5.9
	대학교 졸업	(2,569)	40.2	28.2	24.3	7.3
	대학원 재학 이상	(87)	42.3	28.0	17.8	11.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6)	42.3	30.2	19.1	8.4
	100만원~200만원 미만	(276)	47.1	23.4	26.4	3.1
	200만원~300만원 미만	(820)	43.9	28.0	24.1	4.1
	300만원~400만원 미만	(1,222)	40.8	28.8	24.2	6.1
	400만원~500만원 미만	(1,163)	40.1	28.2	24.6	7.1
	500만원~600만원 미만	(835)	38.9	24.8	28.6	7.7
	600만원 이상	(479)	47.0	23.2	20.5	9.2

※ 기타 응답 제외

## 2)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2-1)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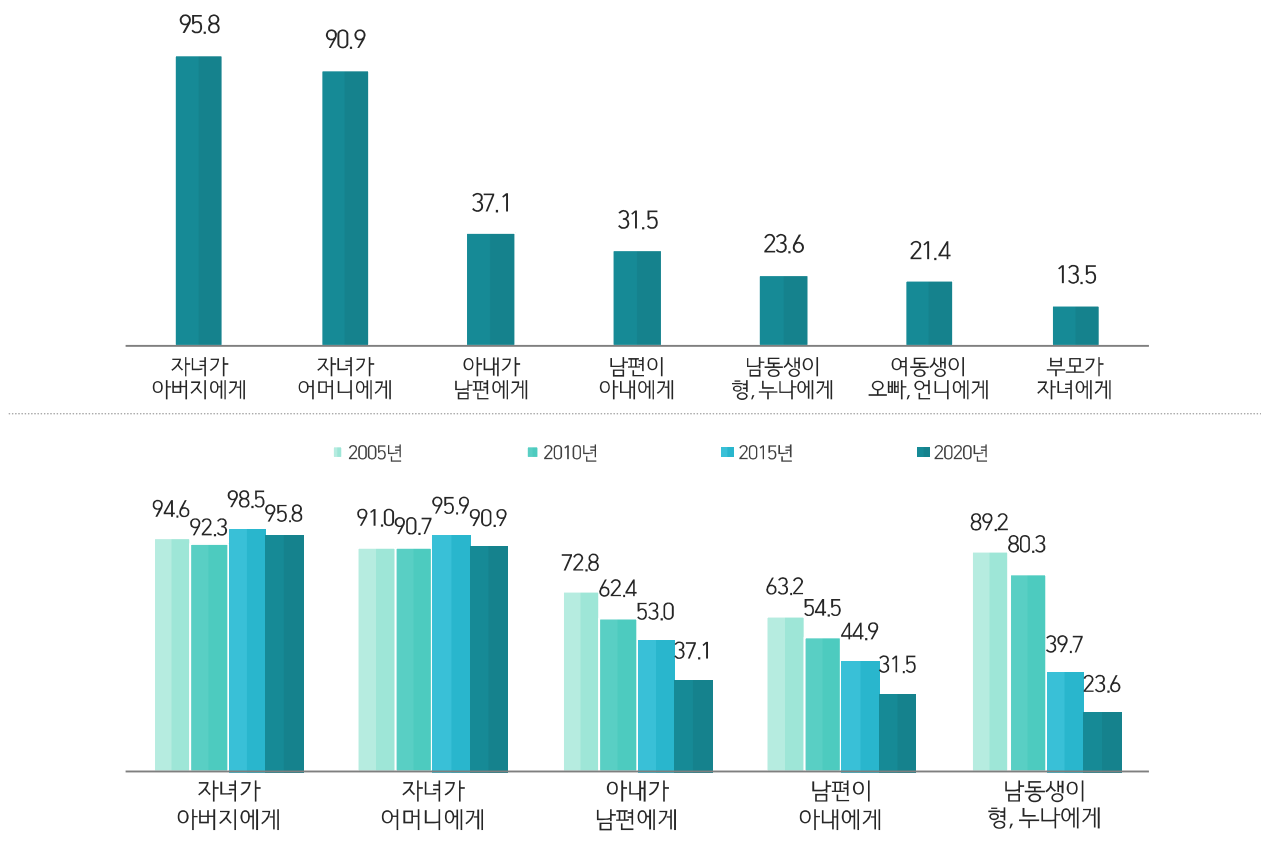
문7-1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는 '자녀가 아버지에게'(95.8%), '자녀가 어머니에게'(90.9%), '아내가 남편에게'(37.1%), '남편이 아내에게'(31.5%) 순임.
- ▶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13.5%), '여동생이 오빠, 언니에게'(21.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가 아버지, 자녀가 어머니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아내와 남편 사이, 형제 사이에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그림 3-11 |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단위 :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5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거주 지역이 제주(99.3%), 강원(98.8%),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97.6%), 100만원 미만(97.2%),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96.7%)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1 |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녀가 어머니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동생이 형, 누나에게	여동생이 오빠, 언니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전 체]		(5,000)	95.8	90.9	37.1	31.5	23.6	21.4	13.5
성별	남성	(2,556)	95.6	90.5	35.9	29.1	24.7	22.1	12.8
	여성	(2,444)	96.1	91.4	38.4	34.0	22.5	20.7	14.2
연령	20대	(929)	94.6	89.1	30.7	27.2	21.6	17.6	11.3
	30대	(960)	95.8	90.3	36.9	35.4	22.7	19.4	16.5
	40대	(1,103)	95.9	90.5	37.5	32.2	24.3	22.2	15.8
	50대	(1,145)	96.3	91.0	39.7	32.5	23.0	22.2	11.9
	60대	(863)	96.5	94.0	40.4	29.6	26.9	25.5	11.6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96.2	89.5	36.7	29.2	23.0	19.5	14.4
	강원	(142)	98.8	95.7	65.3	59.1	35.4	34.4	23.3
	충청권	(539)	94.8	93.7	23.0	20.2	12.9	11.2	2.6
	전라권	(461)	94.1	93.9	37.3	37.7	47.3	42.1	20.4
	경상권	(1,233)	95.7	91.0	40.0	34.8	18.1	19.0	12.3
	제주	(62)	99.3	89.2	55.6	51.7	52.8	52.7	21.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95.8	79.3	52.7	30.4	27.1	25.9	9.4
	중학교 졸업	(295)	95.3	90.7	45.6	33.4	24.5	21.0	10.1
	고등학교 졸업	(1,902)	96.7	92.1	37.3	30.3	23.6	22.4	14.5
	대학교 졸업	(2,662)	95.3	90.6	35.7	32.0	23.6	20.5	13.5
	대학원 재학 이상	(89)	95.2	82.8	40.8	39.5	22.6	24.3	6.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97.2	92.5	35.4	22.1	28.3	30.1	6.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94.5	87.0	41.3	23.6	19.6	16.4	13.2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95.7	92.8	41.5	37.6	22.9	20.6	12.5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94.7	91.0	36.9	33.2	24.6	22.6	13.4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96.5	89.9	34.6	30.5	22.4	21.4	14.1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96.2	90.6	30.5	25.1	24.9	21.6	14.3
	600만원 이상	(498)	97.6	92.6	45.8	36.2	25.0	21.2	13.7



## 2-2)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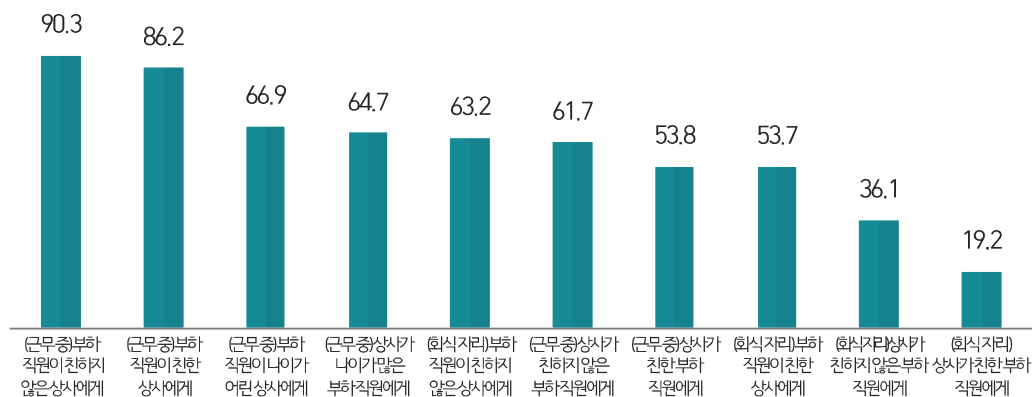
문 7-1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는 '(근무 중) 부하 직원이 친하지 않은 상사에게'(90.3%), '(근무 중) 부하 직원이 친한 상사에게'(86.2%), '(근무 중) 부하 직원이 나이가 어린 상사에게'(66.9%), '(근무 중) 상사가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에게'(64.7%) 순임.
- ▶ 반면 '(회식 자리) 상사가 친한 부하 직원에게'(19.2%), '(회식 자리) 상사가 친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36.1%)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그림 3-12 |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이 제주(96.0%), 경상권(94.0%), 강원(92.3%),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93.3%),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91.5%)에서 '(근무 중) 부하 직원이 친하지 않은 상사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2 |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근무 중) 부하 직원이 친하지 않은 상사에게	(근무 중) 부하 직원이 친한 상사에게	(근무 중) 부하 직원이 나이가 어린 상사에게	(근무 중) 상사가 많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 자리) 부하 직원이 친하지 않은 상사에게	(근무 중) 상사가 친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근무 중) 상사가 친한 부하 직원에게	(회식 자리) 부하 직원이 친한 상사에게	(회식 자리) 상사가 친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 자리) 상사가 친한 부하 직원에게
[전 체]		(5,000)	90.3	86.2	66.9	64.7	63.2	61.7	53.8	53.7	36.1	19.2
성별	남성	(2,556)	89.9	86.3	65.7	64.2	62.7	59.1	51.9	53.8	34.3	18.0
	여성	(2,444)	90.8	86.1	68.2	65.1	63.8	64.3	55.8	53.7	37.9	20.5
연령	20대	(929)	90.2	86.1	65.7	66.0	61.7	61.9	53.7	53.0	36.6	19.6
	30대	(960)	91.5	85.7	67.4	64.9	64.9	64.9	56.1	54.1	39.0	22.1
	40대	(1,103)	89.4	85.8	68.3	64.9	63.5	61.9	54.1	54.1	36.4	19.4
	50대	(1,145)	90.0	86.6	66.7	64.7	62.0	61.2	52.6	52.9	34.3	17.5
	60대	(863)	90.8	86.7	66.2	62.7	64.3	58.2	52.8	54.7	34.2	17.8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90.2	87.8	69.9	67.3	65.0	63.2	53.3	55.1	35.1	17.6
	강원	(142)	92.3	78.2	69.0	75.2	81.0	61.6	62.2	69.7	49.6	31.7
	충청권	(539)	81.0	74.9	55.0	52.7	41.7	53.1	48.6	29.3	26.0	12.8
	전라권	(461)	90.7	89.0	75.1	60.2	76.1	51.3	32.6	68.4	30.5	13.7
	경상권	(1,233)	94.0	87.4	62.0	63.8	61.4	64.8	63.5	53.3	42.2	25.3
	제주	(62)	96.0	88.8	78.0	84.7	75.5	85.3	65.1	70.8	52.9	33.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91.5	92.9	73.9	70.1	85.3	61.0	51.4	69.9	45.4	22.3
	중학교 졸업	(295)	93.3	92.7	70.5	68.0	70.2	57.1	54.0	59.2	37.7	18.8
	고등학교 졸업	(1,902)	90.3	85.0	67.7	62.0	61.3	61.5	54.8	52.4	34.5	18.9
	대학교 졸업	(2,662)	90.3	86.2	65.6	65.6	63.3	61.9	52.9	53.7	36.8	19.2
	대학원 재학 이상	(89)	81.1	85.2	75.9	77.1	65.0	75.7	61.6	55.2	37.0	25.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78.2	75.7	58.7	53.8	58.4	59.4	50.2	49.2	32.8	30.9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91.5	90.4	57.7	60.2	65.2	49.5	42.6	57.3	36.6	17.7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90.3	83.4	62.1	56.9	62.5	57.9	47.0	52.8	36.7	18.3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90.8	83.3	64.3	62.9	63.4	57.6	50.6	54.5	32.9	18.1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91.4	87.8	72.3	66.6	64.6	66.5	57.6	53.5	38.4	19.8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90.8	87.9	68.1	66.8	61.4	63.9	60.9	52.2	33.7	18.6
	600만원 이상	(498)	86.6	90.0	73.2	77.9	63.2	70.3	59.3	54.9	41.5	22.9

## 2-3)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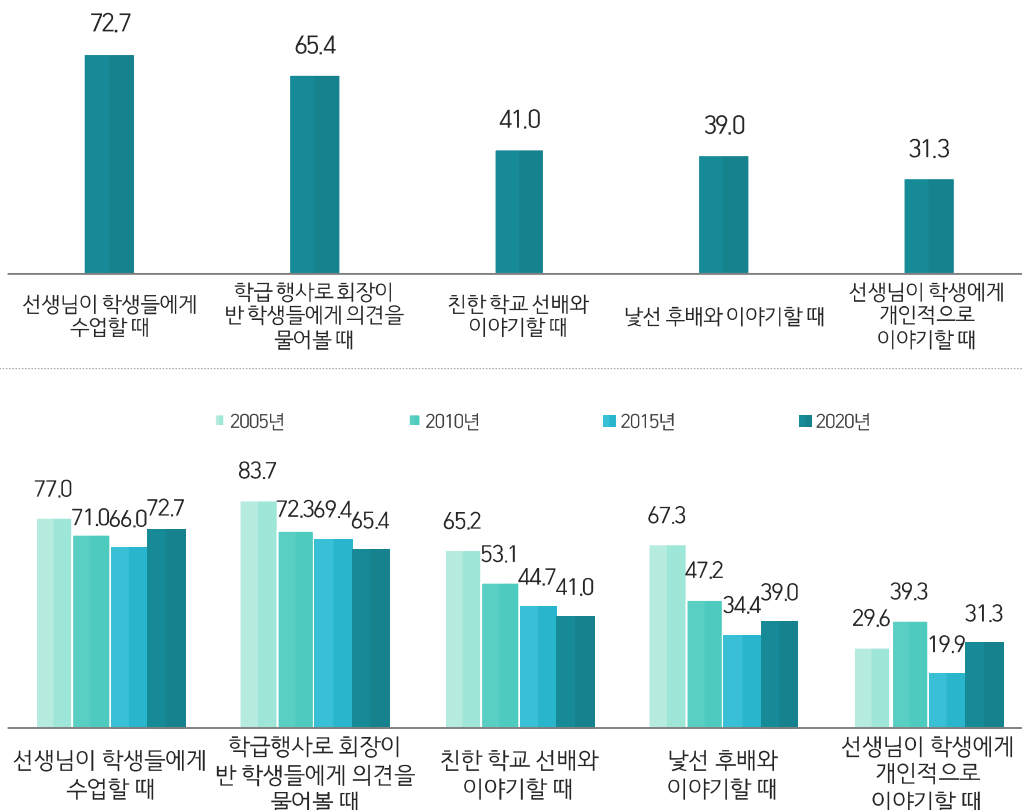
문 7-3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72.7%),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65.4%),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41.0%), '낯선 후배와 이야기할 때'(39.0%) 순임.
- ▶ 반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31.3%)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2005년부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에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음.

| 그림 3-13 |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이 전라권(85.1%),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77.0%),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75.6%), 200만원~300만원 미만(74.5%)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3 |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단위 : %)

구분		사례 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	낯선 후배와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 체]		(5,000)	72.7	65.4	41.0	39.0	31.3
성별	남성	(2,556)	71.8	65.8	40.7	38.2	31.7
	여성	(2,444)	73.7	65.0	41.4	39.9	30.9
연령	20대	(929)	71.4	64.7	40.2	40.6	31.7
	30대	(960)	74.2	63.7	42.2	40.6	33.9
	40대	(1,103)	73.8	68.4	40.5	38.1	31.3
	50대	(1,145)	73.6	64.0	39.9	38.4	30.3
	60대	(863)	70.0	66.2	42.7	37.8	29.2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72.1	65.5	38.8	40.2	30.3
	강원	(142)	72.2	77.7	42.0	48.8	25.6
	충청권	(539)	65.9	53.1	25.5	23.2	40.2
	전라권	(461)	85.1	80.7	55.2	32.3	26.6
	경상권	(1,233)	72.3	63.1	45.9	44.8	31.1
	제주	(62)	74.7	72.4	60.5	40.0	46.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69.7	73.6	41.2	51.7	20.1
	중학교 졸업	(295)	70.6	72.8	47.4	42.4	24.9
	고등학교 졸업	(1,902)	74.1	63.5	39.1	35.8	32.5
	대학교 졸업	(2,662)	71.9	65.6	41.5	40.8	31.3
	대학원 재학 이상	(89)	77.0	71.3	47.4	36.3	32.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71.4	68.8	45.8	36.3	36.2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67.9	64.7	34.4	36.6	24.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74.5	63.0	38.9	35.4	31.5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71.3	65.0	43.0	38.3	30.3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73.8	65.9	40.6	41.3	33.3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71.7	63.4	42.7	34.8	36.2
	600만원 이상	(498)	75.6	73.0	40.9	50.6	23.7

### 3) 사물 주체 높임 표현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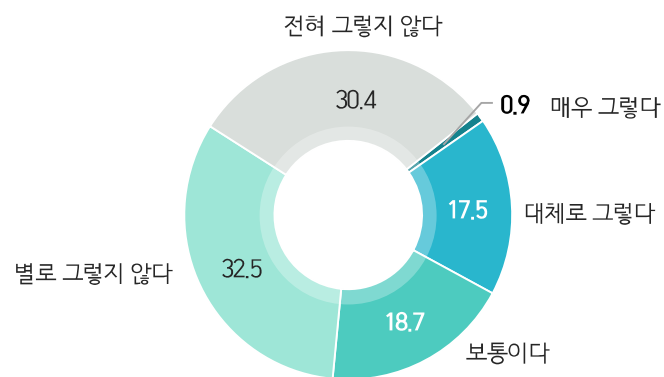
문8

귀하는 다음 <보기>와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요금은 2,000원이세요. 이 상품은 품절되었습니다.

- ▶ 요금 및 상품에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해 국민의 18.4%(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62.9%는 '적절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그림 3-14 | 표현의 적절성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이 전라권(26.9%), 경상권(21.5%),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24.7%), 600만원 이상(22.9%), 연령이 60대(20.0%)인 경우 요금 및 상품에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4 | 표현의 적절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30.4	32.5	18.7	17.5	0.9	62.9	18.7	18.4
성별	남성	(2,556)	30.1	31.9	19.3	17.7	1.0	62.0	19.3	18.6
	여성	(2,444)	30.7	33.1	18.0	17.4	0.8	63.8	18.0	18.2
연령	20대	(929)	32.5	34.0	16.1	16.7	0.7	66.5	16.1	17.4
	30대	(960)	34.1	29.7	18.1	17.8	0.4	63.8	18.1	18.2
	40대	(1,103)	31.1	31.7	19.8	16.9	0.6	62.7	19.8	17.5
	50대	(1,145)	28.5	33.3	19.0	17.7	1.5	61.8	19.0	19.2
	60대	(863)	25.8	34.1	20.1	18.9	1.1	59.9	20.1	20.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5.0	32.1	16.6	15.3	1.0	67.2	16.6	16.2
	강원	(142)	35.8	40.7	10.1	13.4	0.0	76.5	10.1	13.4
	충청권	(539)	19.1	28.3	35.0	16.8	0.8	47.4	35.0	17.6
	전라권	(461)	24.9	30.4	17.8	26.7	0.3	55.3	17.8	26.9
	경상권	(1,233)	26.0	35.1	17.4	20.4	1.0	61.1	17.4	21.5
	제주	(62)	51.1	32.0	13.5	2.0	1.4	83.1	13.5	3.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8.2	42.4	18.8	9.5	1.1	70.5	18.8	10.6
	중학교 졸업	(295)	31.4	35.7	16.0	16.7	0.2	67.1	16.0	16.9
	고등학교 졸업	(1,902)	26.4	32.4	21.2	18.8	1.1	58.9	21.2	19.9
	대학교 졸업	(2,662)	32.6	32.3	17.1	17.1	0.8	64.9	17.1	18.0
	대학원 재학 이상	(89)	45.7	25.2	19.4	9.7	0.0	70.9	19.4	9.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6.3	24.8	25.1	12.8	1.1	61.0	25.1	13.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4.7	39.9	13.7	11.5	0.2	74.5	13.7	11.7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1.1	31.9	22.9	13.4	0.7	63.0	22.9	14.1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27.6	35.8	18.9	16.6	1.1	63.4	18.9	17.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8.2	34.6	19.4	16.8	1.0	62.8	19.4	17.8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0.4	27.2	17.7	23.5	1.3	57.5	17.7	24.7
	600만원 이상	(498)	38.3	26.0	12.8	22.7	0.2	64.3	12.8	22.9

### 3-1) 사물 주체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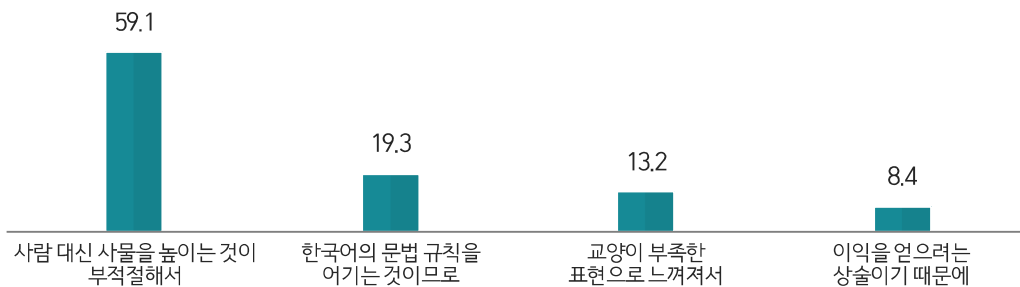
문8-1

<보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요금 및 상품에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대신 사물을 높이는 것이 부적절해서'(59.1%)이며,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문법 규칙을 어기는 것이므로'(19.3%), '교양이 부족한 표현으로 느껴져서'(13.2%) 순임.
- ▶ 반면 '이익을 얻으려는 상술이기 때문에'(8.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 그림 3-15 |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제주(80.7%), 강원(71.0%),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72.0%),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70.4%)에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사람 대신 사물을 높이는 것이 부적절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5 |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사람 대신 사물을 높이는 것이 부적절해서	한국어의 문법 규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교양이 부족한 표현으로 느껴져서	이익을 얻으려는 상술이기 때문에
[전 체]		(3,145)	59.1	19.3	13.2	8.4
성별	남성	(1,585)	59.1	20.1	12.4	8.4
	여성	(1,560)	59.1	18.4	14.0	8.5
연령	20대	(617)	61.7	19.8	11.3	7.1
	30대	(612)	59.9	20.1	9.4	10.5
	40대	(692)	61.1	17.3	15.4	6.2
	50대	(707)	57.7	19.0	14.1	9.0
	60대	(517)	54.3	20.5	15.4	9.6
거주 지역	수도권	(1,722)	56.7	18.3	15.3	9.6
	강원	(108)	71.0	9.7	5.9	11.4
	충청권	(255)	60.3	22.0	7.5	10.2
	전라권	(255)	59.4	18.3	15.9	6.4
	경상권	(754)	60.9	22.5	10.9	5.8
	제주	(52)	80.7	13.6	4.0	0.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7)	43.3	18.6	24.9	13.1
	중학교 졸업	(198)	47.9	17.6	20.1	14.4
	고등학교 졸업	(1,120)	55.0	20.1	15.3	9.6
	대학교 졸업	(1,728)	62.9	19.1	10.9	6.9
	대학원 재학 이상	(63)	72.0	14.1	7.4	6.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5)	55.5	11.4	21.0	12.1
	100만원~200만원 미만	(215)	51.0	20.5	18.8	9.8
	200만원~300만원 미만	(532)	55.8	19.2	14.2	10.6
	300만원~400만원 미만	(802)	61.6	19.2	11.1	8.1
	400만원~500만원 미만	(751)	55.4	20.5	15.1	8.9
	500만원~600만원 미만	(491)	60.8	18.6	14.3	6.2
	600만원 이상	(320)	70.4	17.5	5.8	6.4

※ 기타 응답 제외



### 3-2) 사물 주체 높임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8-2

<보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요금 및 상품에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29.1%)이며,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대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26.8%), '서비스 제공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때문'(21.6%) 순임.

| 그림 3-16 |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36.1%), 600만원 이상(31.9%), 거주 지역이 수도권(32.2%), 전라권(31.2%), 연령이 50대(32.1%)에서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6 |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때문에	사물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 표현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전 체]		(1,855)	29.1	26.8	21.6	12.9	9.6
성별	남성	(970)	28.8	27.2	21.9	12.2	9.9
	여성	(884)	29.5	26.3	21.2	13.7	9.2
연령	20대	(312)	27.7	26.8	20.7	15.3	9.6
	30대	(348)	26.0	26.0	25.1	12.6	10.3
	40대	(411)	30.3	25.4	22.5	12.3	9.5
	50대	(438)	32.1	24.9	20.9	13.0	9.1
	60대	(346)	28.3	31.5	18.6	11.8	9.8
거주 지역	수도권	(841)	32.2	26.2	22.3	10.3	9.0
	강원	(33)	5.5	34.3	21.8	11.7	26.7
	충청권	(284)	27.2	27.3	23.8	13.2	8.5
	전라권	(206)	31.2	32.2	16.2	13.6	6.9
	경상권	(480)	25.7	24.8	21.2	17.4	10.9
	제주	(11)	22.3	23.6	26.2	4.0	23.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	49.1	20.9	17.3	4.3	8.5
	중학교 졸업	(97)	29.4	31.5	16.2	13.5	9.4
	고등학교 졸업	(782)	30.3	25.2	24.0	11.3	9.2
	대학교 졸업	(935)	28.0	27.8	20.1	14.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26)	20.9	24.0	23.6	24.8	6.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2)	26.8	31.6	19.8	13.4	8.5
	100만원~200만원 미만	(73)	36.1	25.9	18.7	12.0	7.3
	200만원~300만원 미만	(312)	26.5	25.7	21.8	13.5	12.5
	300만원~400만원 미만	(462)	30.1	26.6	21.4	12.1	9.8
	400만원~500만원 미만	(445)	30.3	27.3	20.0	13.7	8.6
	500만원~600만원 미만	(362)	25.9	26.7	25.8	13.6	8.0
	600만원 이상	(178)	31.9	27.9	18.5	10.8	10.9

### 3. 욕설 및 비속어

#### 1) 국민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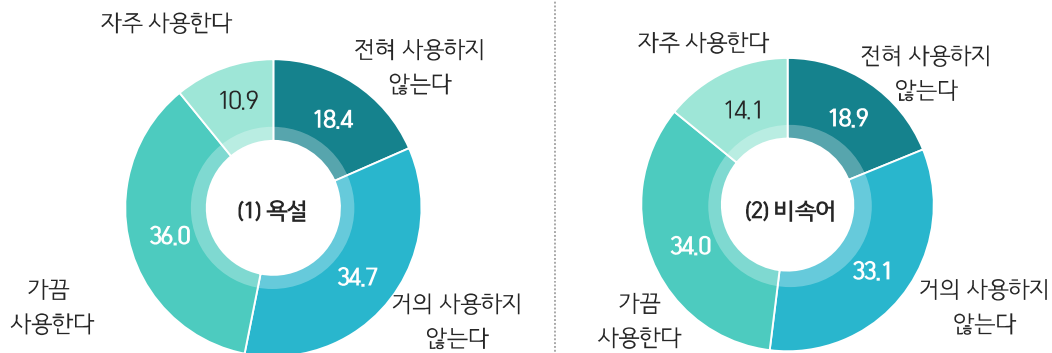
문9

귀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 및 비속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사용한다(자주 사용한다 + 가끔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9%, 비속어를 사용한다(자주 사용한다 + 가끔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로 나타남.
- ▶ 우리 국민들은 욕설(10.9%)보다 비속어(14.1%)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함.

| 그림 3-17 |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욕설 사용은 거주 지역이 제주(83.6%), 강원(55.2%),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3.9%), 500만원~600만원 미만(52.5%), 연령이 20대(53.7%)에서, 비속어 사용은 거주 지역이 제주(84.0%), 강원(58.1%),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8.5%), 연령이 20대(56.9%),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7 |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1) 욕설		(2) 비속어	
			사용하지 않음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사용함
[전 체]		(5,000)	53.1	46.9	51.9	48.1
성별	남성	(2,556)	50.1	49.9	49.1	50.9
	여성	(2,444)	56.3	43.7	54.9	45.1
연령	20대	(929)	46.3	53.7	43.1	56.9
	30대	(960)	53.7	46.3	50.4	49.6
	40대	(1,103)	54.6	45.4	54.0	46.0
	50대	(1,145)	55.6	44.4	53.1	46.9
	60대	(863)	54.5	45.5	58.9	41.1
	70대	(109)	54.1	45.9	58.7	41.3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7.9	52.1	47.4	52.6
	강원	(142)	44.8	55.2	41.9	58.1
	충청권	(539)	50.4	49.6	51.0	49.0
	전라권	(461)	70.7	29.3	72.5	27.5
	경상권	(1,233)	61.3	38.7	57.1	42.9
	제주	(62)	16.4	83.6	16.0	84.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54.6	45.4	48.4	51.6
	중학교 졸업	(295)	56.6	43.4	62.2	37.8
	고등학교 졸업	(1,902)	57.0	43.0	54.7	45.3
	대학교 졸업	(2,662)	50.0	50.0	49.2	50.8
	대학원 재학 이상	(89)	49.6	50.4	41.5	58.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2.5	47.5	54.2	45.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3.2	46.8	56.5	43.5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58.8	41.2	58.3	41.7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53.6	46.4	52.2	47.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55.5	44.5	48.9	51.1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7.5	52.5	50.9	49.1
	600만원 이상	(498)	46.1	53.9	46.8	53.2

## 2) 본인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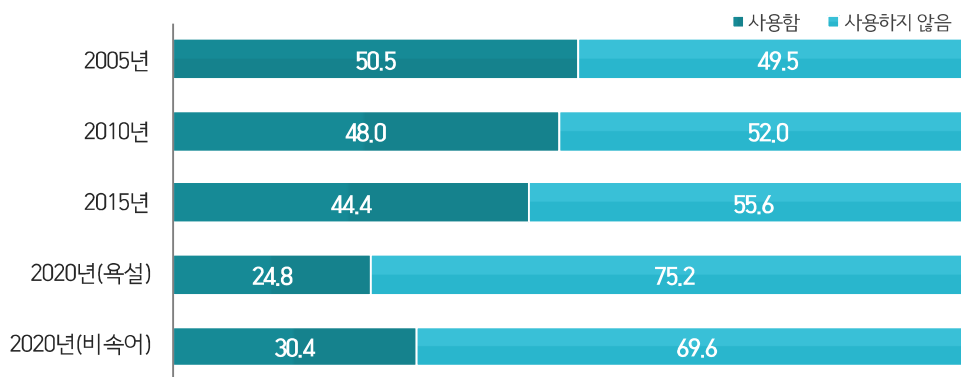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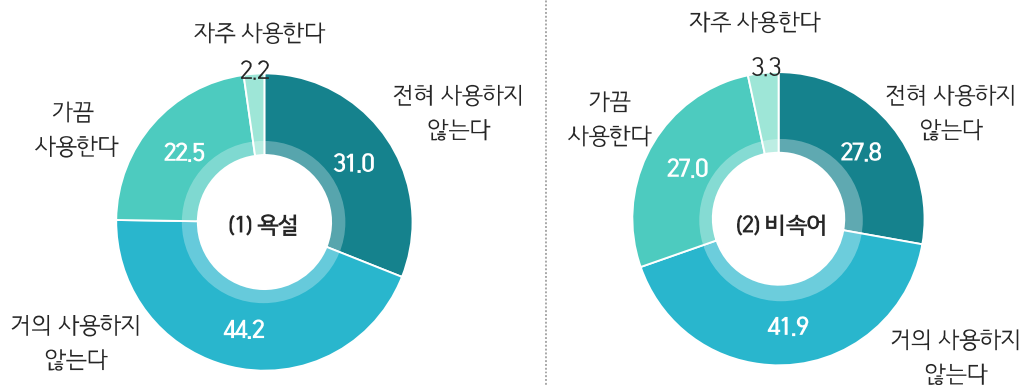
문10

귀하는 평소 욕설 및 비속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 ▶ 본인이 평소 욕설을 사용한다(자주 사용한다 + 가끔 사용한다) 비율은 24.8%, 비속어를 사용한다(자주 사용한다 + 가끔 사용한다) 비율은 30.4%로 나타남.
- ▶ 본인은 욕설(2.2%)보다 비속어(3.3%)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함.
- ▶ 시계열 분석 결과, 평소 본인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그림 3-18 | 본인의 평소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욕설 사용은 거주 지역이 제주(46.0%), 강원(31.1%), 연령이 20대(31.8%),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28.1%)에서, 비속어 사용은 나이가 어릴수록, 거주 지역이 제주(40.4%),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36.7%),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3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8 | 본인의 평소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1) 욕설		(2) 비속어	
			사용하지 않음	사용함	사용하지 않음	사용함
[전 체]		(5,000)	75.2	24.8	69.6	30.4
성별	남성	(2,556)	67.9	32.1	62.9	37.1
	여성	(2,444)	82.9	17.1	76.7	23.3
연령	20대	(929)	68.2	31.8	57.1	42.9
	30대	(960)	74.6	25.4	67.4	32.6
	40대	(1,103)	77.7	22.3	72.2	27.8
	50대	(1,145)	77.6	22.4	74.7	25.3
	60대	(863)	77.2	22.8	75.5	24.5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73.7	26.3	68.4	31.6
	강원	(142)	68.9	31.1	69.5	30.5
	충청권	(539)	72.5	27.5	65.3	34.7
	전라권	(461)	85.5	14.5	81.6	18.4
	경상권	(1,233)	77.5	22.5	70.2	29.8
	제주	(62)	54.0	46.0	59.6	40.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75.3	24.7	64.4	35.6
	중학교 졸업	(295)	78.1	21.9	77.7	22.3
	고등학교 졸업	(1,902)	77.6	22.4	71.4	28.6
	대학교 졸업	(2,662)	73.1	26.9	67.7	32.3
	대학원 재학 이상	(89)	81.0	19.0	64.7	35.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71.9	28.1	63.3	36.7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79.7	20.3	72.1	27.9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77.6	22.4	74.5	25.5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74.0	26.0	70.4	29.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77.0	23.0	68.4	31.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71.9	28.1	66.4	33.6
	600만원 이상	(498)	73.4	26.6	67.7	32.3

### 3)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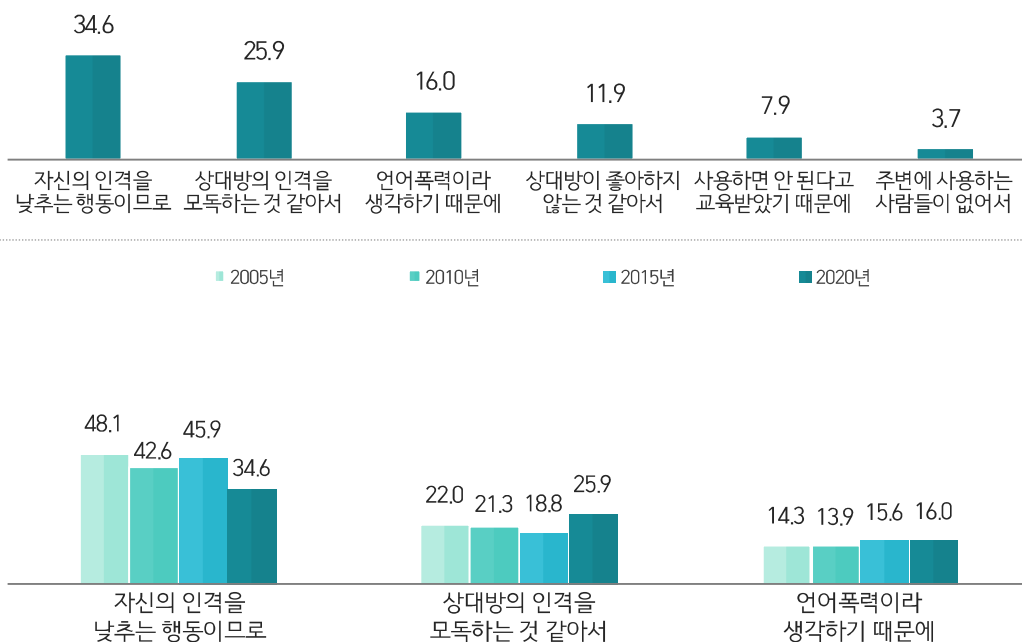
#### 3-1)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문10-1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본인이 평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 (34.6%)이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25.9%),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16.0%)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또한 2005년 이후부터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3-19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3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특성별 분석

-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인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응답은 거주 지역이 강원(52.0%), 제주(51.4%),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37.5%), 연령이 60대(37.0%),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3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9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전 체]		(4,264)	34.6	25.9	16.0	11.9	7.9	3.7
성별	남성	(2,040)	34.2	25.5	16.3	13.2	6.9	3.8
	여성	(2,224)	34.9	26.2	15.7	10.6	8.8	3.5
연령	20대	(722)	34.2	25.7	14.6	12.3	10.6	2.6
	30대	(811)	32.2	26.2	17.2	11.4	8.3	4.3
	40대	(974)	34.9	26.2	17.5	10.8	6.8	3.7
	50대	(1,006)	34.6	25.6	16.2	12.0	7.1	4.5
	60대	(751)	37.0	25.8	13.5	13.3	7.4	2.9
거주 지역	수도권	(2,223)	35.5	24.4	14.8	11.2	9.2	4.6
	강원	(111)	52.0	13.8	12.4	13.1	5.5	2.1
	충청권	(433)	32.2	31.1	16.1	9.8	6.9	3.9
	전라권	(427)	28.0	25.3	23.6	16.0	5.1	1.9
	경상권	(1,032)	33.7	29.3	15.6	12.2	6.9	2.3
	제주	(39)	51.4	3.3	13.7	14.8	8.4	6.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5)	28.3	37.1	12.2	16.0	5.4	0.9
	중학교 졸업	(259)	27.4	35.5	13.2	14.2	6.7	2.7
	고등학교 졸업	(1,626)	34.6	26.2	15.9	13.2	7.0	3.1
	대학교 졸업	(2,261)	35.4	24.7	16.1	10.8	8.5	4.3
	대학원 재학 이상	(73)	36.7	13.5	27.0	5.5	13.9	2.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2)	21.4	32.5	22.7	12.9	8.6	2.0
	100만원~200만원 미만	(249)	33.4	35.1	13.0	10.2	6.4	1.7
	200만원~300만원 미만	(729)	30.1	28.7	14.7	14.9	7.1	4.5
	300만원~400만원 미만	(1,069)	34.7	25.7	16.6	11.2	8.0	3.8
	400만원~500만원 미만	(1,024)	37.5	22.6	15.4	12.3	7.6	4.4
	500만원~600만원 미만	(728)	35.8	25.1	16.6	11.4	7.7	3.2
	600만원 이상	(422)	34.7	25.0	17.8	8.9	10.9	2.5

※ 기타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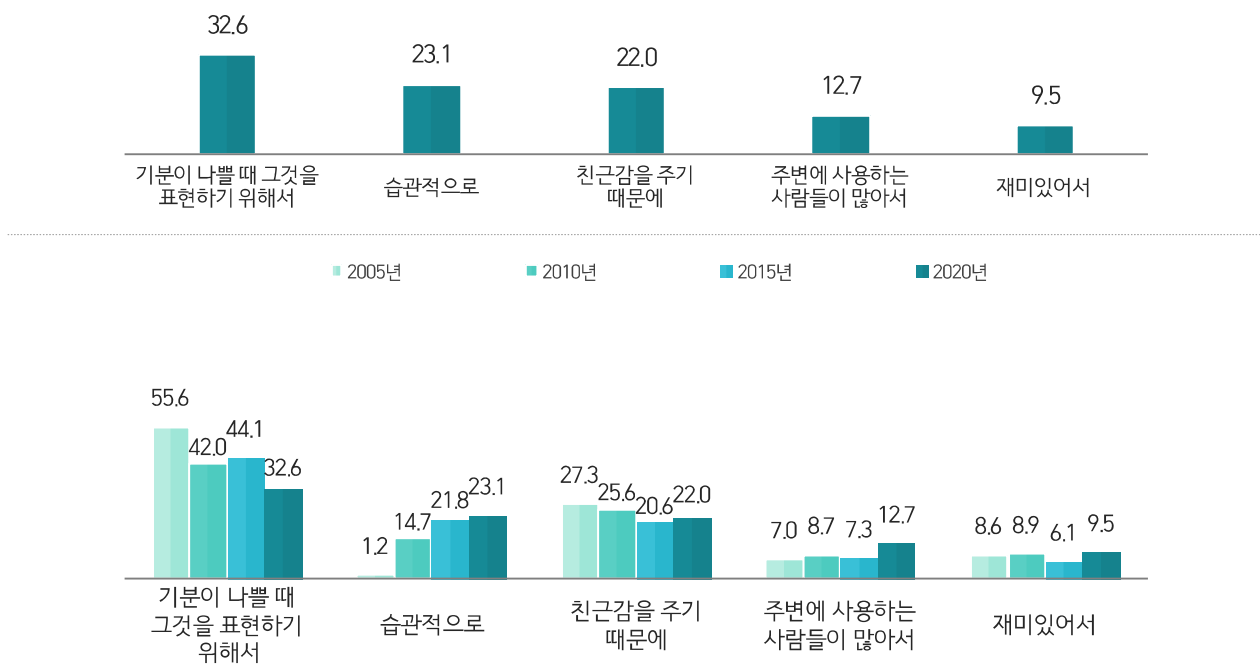
### 3-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문10-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본인이 평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32.6%)이며, 다음으로 '습관적으로'(23.1%),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22.0%)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또한 2005년 이후부터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습관적으로'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21.9%p 증가함.

| 그림 3-20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응답은 거주 지역이 강원(40.1%), 제주(39.3%), 전라권(38.4%),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38.3%),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300만원 미만(3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0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있어서
[전 체]		(2,021)	32.6	23.1	22.0	12.7	9.5
성별	남성	(1,253)	33.8	24.9	22.2	10.8	8.2
	여성	(767)	30.7	20.0	21.6	16.0	11.7
연령	20대	(486)	27.9	23.3	21.6	12.7	14.3
	30대	(408)	30.1	20.8	23.7	16.0	9.4
	40대	(423)	35.6	23.0	21.3	11.1	8.9
	50대	(407)	35.7	24.2	21.7	13.0	5.4
	60대	(296)	35.4	24.3	21.5	10.2	8.4
	70대	(91)	38.9	20.1	21.0	10.0	10.0
거주 지역	수도권	(1,144)	29.7	22.3	23.6	12.8	11.5
	강원	(57)	40.1	24.3	19.0	13.2	1.0
	충청권	(229)	36.8	28.8	16.8	14.3	3.2
	전라권	(118)	38.4	20.6	19.6	13.5	7.8
	경상권	(443)	35.2	22.1	21.2	11.9	9.5
	제주	(30)	39.3	29.2	23.4	4.2	2.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4)	18.9	37.3	17.3	22.6	3.9
	중학교 졸업	(95)	38.3	27.8	24.4	7.1	2.4
	고등학교 졸업	(694)	33.4	25.5	22.1	11.5	7.4
	대학교 졸업	(1,175)	32.5	20.5	21.9	13.7	11.3
	대학원 재학 이상	(32)	13.9	39.9	18.1	14.1	14.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2)	25.5	50.9	6.1	3.1	14.5
	100만원~200만원 미만	(100)	34.8	36.9	12.9	7.9	7.5
	200만원~300만원 미만	(289)	38.2	28.4	17.1	10.2	5.9
	300만원~400만원 미만	(508)	33.6	25.4	19.4	13.8	7.8
	400만원~500만원 미만	(482)	32.4	20.8	25.0	13.9	7.9
	500만원~600만원 미만	(402)	30.4	14.0	27.0	13.8	14.7
	600만원 이상	(218)	27.5	23.1	24.2	12.2	12.7

※ 기타 응답 제외

## 4. 표준어와 지역 방언

### 1)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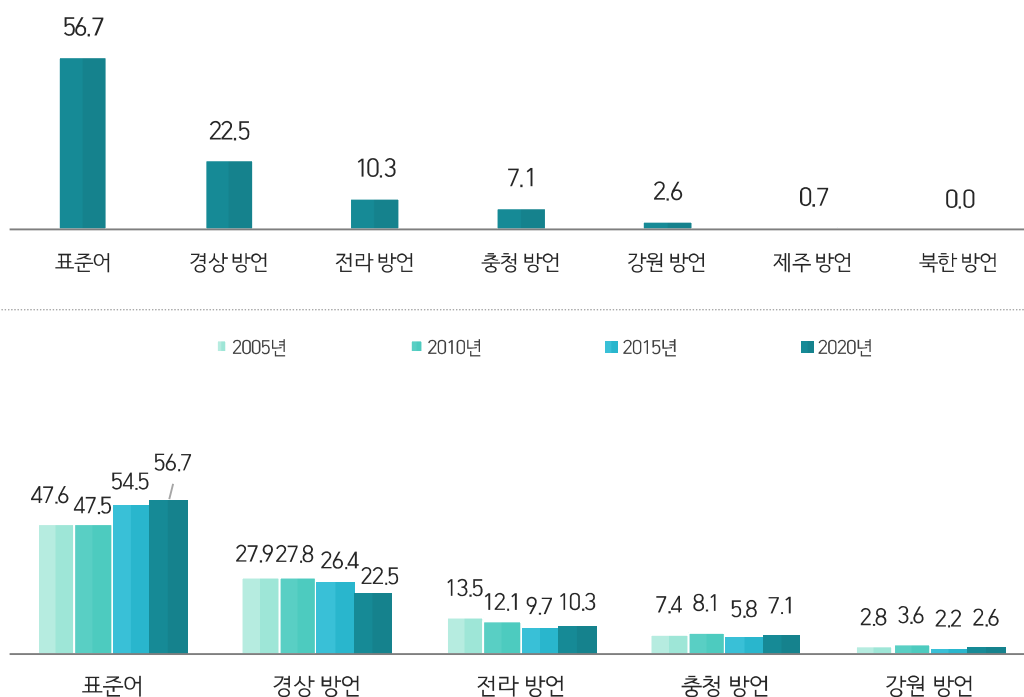
문11

다음 중 귀하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 ▶ 우리 국민들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표준어'(56.7%)이며, 다음으로 '경상 방언'(22.5%), '전라 방언'(10.3%)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본인이 평소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의견은 2005년 47.6%에서 2020년 56.7%로 9.1%p 증가함.

| 그림 3-21 |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단위 :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5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수도권(83.3%),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69.7%), 500만원~600만원 미만(69.7%)에서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1 |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단위 : %)

구분		사례 수	표준어	경상 방언	전라 방언	충청 방언	강원 방언	제주 방언	북한 방언
[전 체]		(5,000)	56.7	22.5	10.3	7.1	2.6	0.7	0.0
성별	남성	(2,556)	55.9	22.7	10.6	7.4	2.5	0.9	0.0
	여성	(2,444)	57.6	22.3	10.0	6.8	2.8	0.6	0.1
연령	20대	(929)	68.4	18.7	6.9	4.0	1.6	0.5	0.0
	30대	(960)	64.8	19.5	8.1	5.3	1.8	0.6	0.0
	40대	(1,103)	57.8	21.9	10.3	6.7	2.5	0.8	0.1
	50대	(1,145)	51.7	24.4	12.2	8.1	2.6	0.9	0.1
	60대	(863)	40.4	28.3	13.7	11.8	5.0	0.8	0.0
	70대	(254)	35.5	28.5	15.1	5.1	12.0	3.9	0.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83.3	4.1	4.8	5.0	2.5	0.2	0.1
	강원	(142)	54.0	4.5	0.8	1.0	39.7	0.0	0.0
	충청권	(539)	54.7	1.1	1.3	41.4	1.3	0.1	0.0
	전라권	(461)	19.2	0.0	80.6	0.0	0.2	0.0	0.0
	경상권	(1,233)	17.3	81.4	0.8	0.2	0.3	0.0	0.0
	제주	(62)	44.6	7.4	2.0	0.0	0.0	46.0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35.5	28.5	15.1	5.1	12.0	3.9	0.0
	중학교 졸업	(295)	37.7	32.9	16.2	8.1	4.6	0.4	0.0
	고등학교 졸업	(1,902)	49.0	25.5	12.3	9.0	3.5	0.6	0.1
	대학교 졸업	(2,662)	64.4	19.1	8.3	5.8	1.7	0.7	0.0
	대학원 재학 이상	(89)	67.3	22.2	3.9	5.0	0.6	0.9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8.0	15.7	3.8	12.1	8.4	2.1	0.0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1.7	32.1	13.9	7.9	3.4	0.7	0.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4.1	28.8	14.7	8.4	2.7	1.3	0.1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7.6	28.3	13.7	7.1	2.5	0.7	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64.2	19.6	6.9	6.9	2.0	0.4	0.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69.7	14.2	6.1	7.0	2.7	0.3	0.0
	600만원 이상	(498)	69.7	13.6	7.7	4.7	3.2	1.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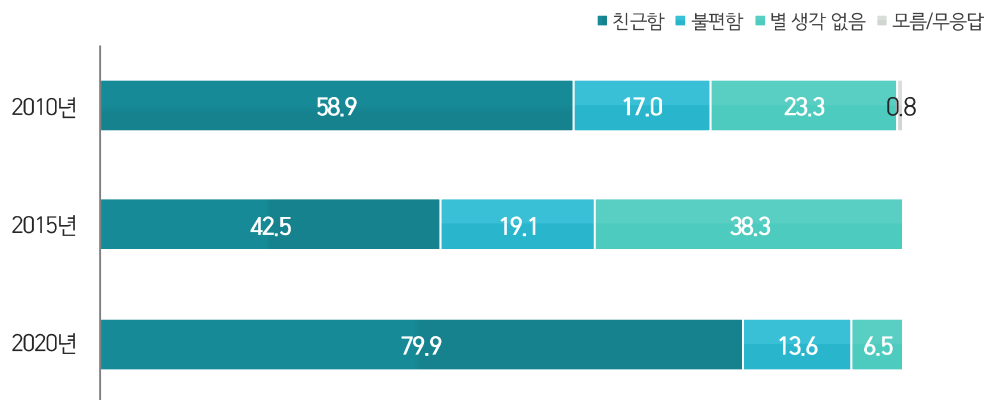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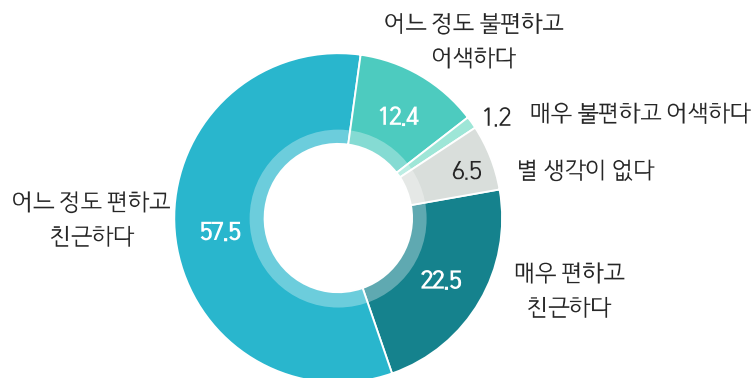
## 1-1)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문11-1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에는 '편하고 친근함'(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79.9%)을 느끼며, '불편하고 어색함'(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을 느끼는 응답자는 13.6%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2015년 대비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친근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37.4%p 증가함.

| 그림 3-22 |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느낌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 지역이 경상권(93.0%), 전라권(90.7%), 충청권(87.1%)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편하고 친근'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2 |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느낌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 느낌이 없다	종합		
								불편하고 어색함	편하고 친근함	별 느낌 없음
[전 체]		(2,836)	1.2	12.4	57.5	22.5	6.5	13.6	79.9	6.5
성별	남성	(1,428)	1.4	11.4	60.1	20.8	6.4	12.8	80.8	6.4
	여성	(1,408)	1.1	13.3	54.9	24.2	6.6	14.4	79.0	6.6
연령	20대	(636)	2.8	16.7	52.8	20.8	7.0	19.5	73.6	7.0
	30대	(622)	1.4	14.7	55.5	21.5	7.0	16.1	76.9	7.0
	40대	(637)	0.3	10.3	56.2	23.5	9.7	10.6	79.7	9.7
	50대	(592)	0.8	8.2	62.1	24.3	4.6	9.0	86.4	4.6
	60대	(349)	0.5	11.1	64.1	22.3	1.9	11.6	86.4	1.9
거주 지역	수도권	(2,135)	1.6	14.6	56.6	21.1	6.1	16.2	77.7	6.1
	강원	(76)	0.0	11.3	60.6	9.8	18.3	11.3	70.4	18.3
	충청권	(295)	0.0	4.2	61.7	25.4	8.6	4.2	87.1	8.6
	전라권	(89)	0.0	8.6	68.5	22.1	0.7	8.6	90.7	0.7
	경상권	(213)	0.0	4.9	57.0	35.9	2.1	4.9	93.0	2.1
최종 학력	제주	(28)	0.0	3.1	41.3	27.9	27.6	3.1	69.3	27.6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0.0	3.6	84.4	8.5	3.5	3.6	92.9	3.5
	중학교 졸업	(111)	0.0	12.3	55.4	30.8	1.5	12.3	86.2	1.5
	고등학교 졸업	(931)	0.8	9.6	59.9	25.2	4.5	10.4	85.1	4.5
	대학교 졸업	(1,715)	1.6	13.7	56.0	20.9	7.9	15.2	76.9	7.9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재학 이상	(60)	0.0	21.0	59.1	12.6	7.3	21.0	71.7	7.3
	100만원 미만	(33)	5.2	17.3	56.7	20.9	0.0	22.5	77.5	0.0
	100만원~200만원 미만	(120)	1.3	14.4	63.3	19.5	1.5	15.7	82.8	1.5
	200만원~300만원 미만	(372)	1.7	10.1	67.5	18.2	2.4	11.9	85.7	2.4
	300만원~400만원 미만	(601)	0.9	13.2	57.9	22.5	5.5	14.1	80.3	5.5
	400만원~500만원 미만	(768)	0.8	9.5	57.3	23.0	9.3	10.4	80.3	9.3
	500만원~600만원 미만	(594)	1.6	11.4	52.7	28.7	5.6	13.0	81.4	5.6
	600만원 이상	(347)	1.0	20.1	52.8	16.2	9.9	21.1	69.0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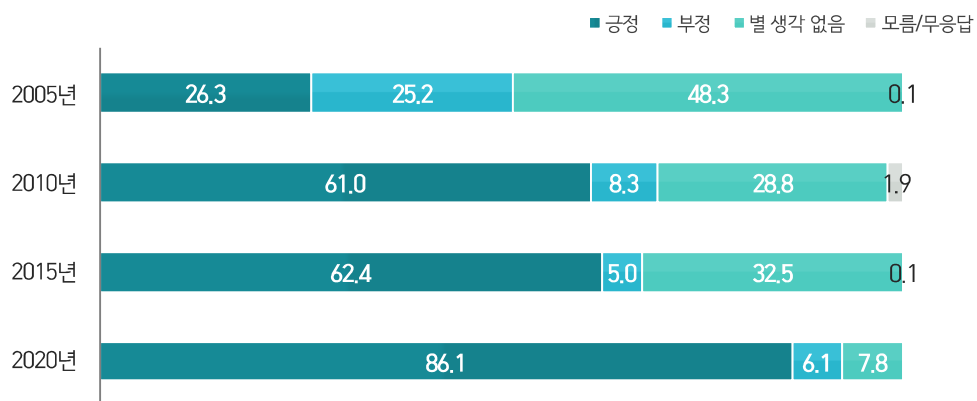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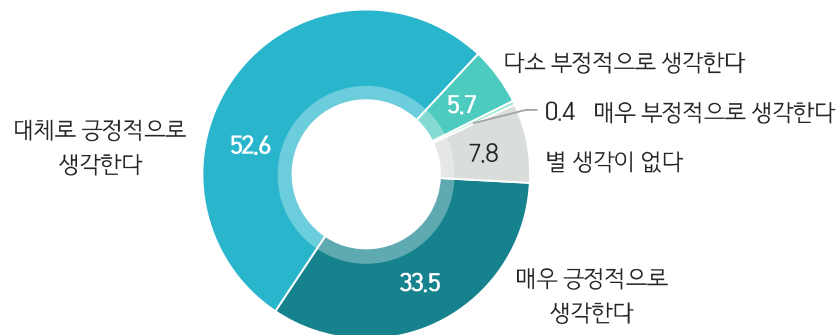
## 1-2)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문11-2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본인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86.1%)하고 있으며, 6.1%는 '부정적으로 생각'(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2005년 이후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23.7%p 상승함.

| 그림 3-23 |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92.2%), 500만원~600만원 미만(91.2%), 400만원~500만원 미만(88.4%)에서 본인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3 |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별 생각이 없다	종합		
								부정적으로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	별 생각이 없다
[전 체]		(2,164)	0.4	5.7	52.6	33.5	7.8	6.1	86.1	7.8
성별	남성	(1,128)	0.4	5.7	51.8	33.7	8.4	6.1	85.4	8.4
	여성	(1,037)	0.4	5.7	53.5	33.4	7.0	6.1	86.9	7.0
연령	20대	(293)	0.7	5.0	55.9	31.1	7.3	5.7	87.0	7.3
	30대	(338)	0.0	5.4	53.3	32.9	8.4	5.4	86.2	8.4
	40대	(466)	0.7	6.0	53.6	33.0	6.7	6.7	86.6	6.7
	50대	(553)	0.0	5.7	50.1	36.6	7.7	5.7	86.6	7.7
	60대	(515)	0.6	6.1	52.1	32.5	8.7	6.7	84.6	8.7
거주 지역	수도권	(428)	1.7	7.1	49.3	36.4	5.5	8.8	85.7	5.5
	강원	(65)	0.0	4.5	70.9	15.5	9.1	4.5	86.4	9.1
	충청권	(244)	0.0	6.2	54.9	31.4	7.5	6.2	86.3	7.5
	전라권	(372)	0.0	6.6	55.9	30.8	6.7	6.6	86.7	6.7
	경상권	(1,020)	0.1	5.0	51.3	35.0	8.6	5.1	86.3	8.6
최종 학력	제주	(35)	0.0	0.0	44.2	32.4	23.5	0.0	76.5	23.5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	5.8	9.3	45.0	35.4	4.5	15.1	80.4	4.5
	중학교 졸업	(184)	0.0	5.4	54.9	31.9	7.8	5.4	86.8	7.8
	고등학교 졸업	(970)	0.3	6.7	53.6	32.6	6.9	6.9	86.2	6.9
	대학교 졸업	(947)	0.4	4.8	51.2	34.8	8.8	5.2	86.0	8.8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재학 이상	(29)	0.0	2.5	60.5	30.5	6.5	2.5	91.0	6.5
	100만원 미만	(24)	0.0	3.6	49.4	33.4	13.6	3.6	82.8	13.6
	100만원~200만원 미만	(168)	1.2	12.8	43.1	32.3	10.7	14.0	75.4	10.7
	200만원~300만원 미만	(472)	0.6	5.5	55.8	29.1	9.0	6.1	84.9	9.0
	300만원~400만원 미만	(663)	0.0	6.4	54.5	30.5	8.6	6.4	85.0	8.6
	400만원~500만원 미만	(427)	0.5	4.6	53.0	35.4	6.6	5.0	88.4	6.6
	500만원~600만원 미만	(259)	0.6	4.2	48.3	43.0	3.9	4.8	91.2	3.9
	600만원 이상	(151)	0.0	1.9	51.7	40.5	5.9	1.9	92.2	5.9



## 2)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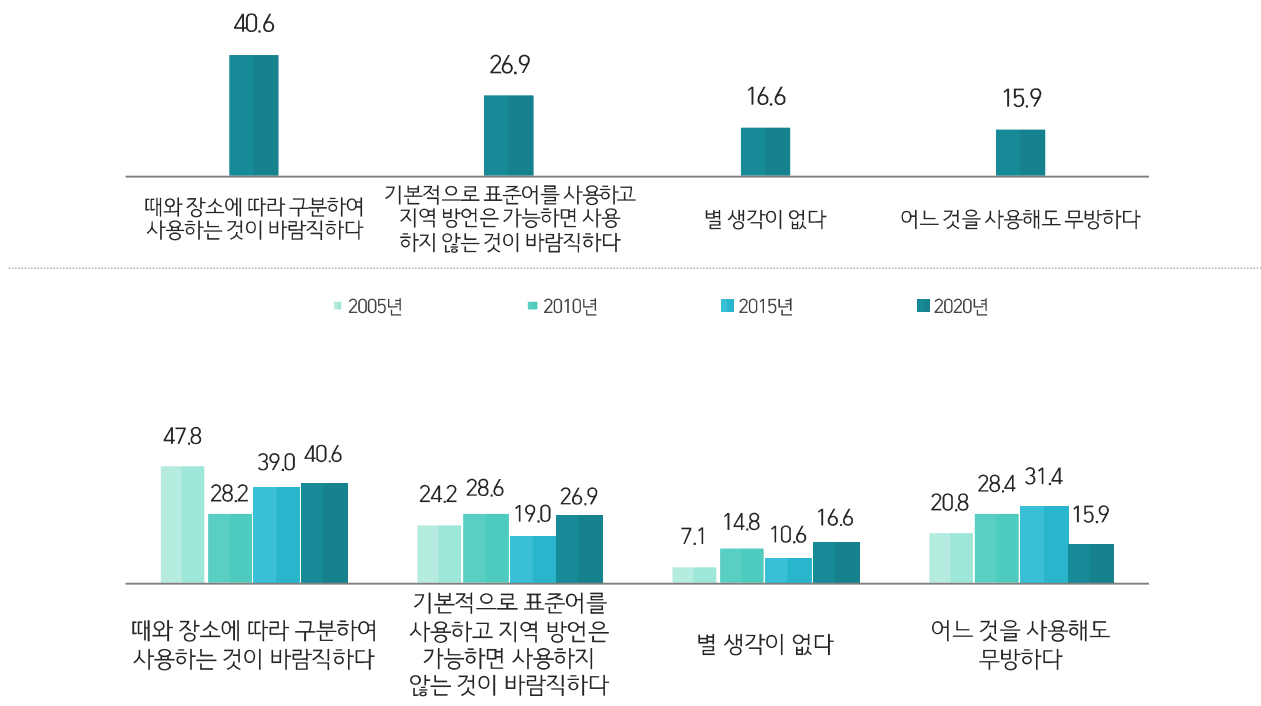
문 12

귀하는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40.6%)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26.9%), '별 생각 없음'(16.6%)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

| 그림 3-24 |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제주(52.6%), 수도권(47.3%),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46.8%)에서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4 |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단위 : %)

구분		사례 수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 생각이 없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전 체]		(5,000)	40.6	26.9	16.6	15.9
성별	남성	(2,556)	40.8	25.9	16.7	16.7
	여성	(2,444)	40.4	28.1	16.5	15.1
연령	20대	(929)	42.0	26.1	16.0	16.0
	30대	(960)	42.0	27.5	15.2	15.2
	40대	(1,103)	41.4	26.8	16.4	15.5
	50대	(1,145)	40.2	27.7	17.1	15.0
	60대	(863)	36.9	26.5	18.3	18.4
	70대	(1,110)	34.2	25.5	19.5	19.8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7.3	28.5	11.8	12.5
	강원	(142)	33.3	17.7	21.7	27.4
	충청권	(539)	33.4	21.0	22.0	23.5
	전라권	(461)	36.4	30.7	16.6	16.3
	경상권	(1,233)	31.5	27.0	23.8	17.7
	제주	(62)	52.6	7.5	11.9	28.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9.6	25.3	21.3	23.8
	중학교 졸업	(295)	37.4	25.9	19.4	17.3
	고등학교 졸업	(1,902)	37.6	28.9	17.9	15.7
	대학교 졸업	(2,662)	43.2	26.0	15.2	15.6
	대학원 재학 이상	(89)	44.3	17.0	17.5	21.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40.4	9.7	19.8	30.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7.5	24.6	18.7	19.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5.2	26.9	20.5	17.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0.3	25.6	17.5	16.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1.4	27.9	15.6	15.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2.5	27.5	15.2	14.9
	600만원 이상	(498)	46.8	30.4	10.6	12.1

### 3) 지역 방언 유지, 존속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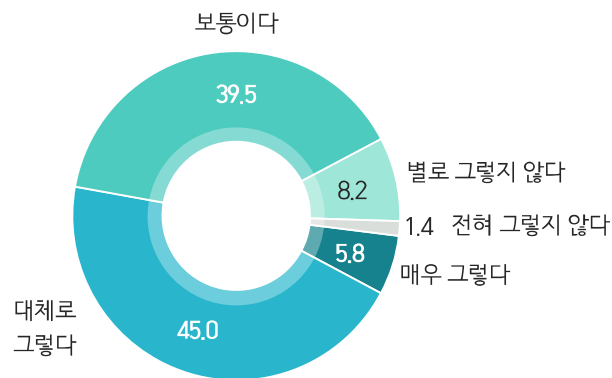
문 13

귀하는 표준어가 아닌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 국민의 50.9%는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하고 있으며,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하는 응답률은 9.7%임.

| 그림 3-25 | 지역 방언 유지, 존속에 대한 생각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이 제주(76.4%),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0.8%), 초등학교 졸업 이하(55.3%),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7.0%)에서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5 | 지역 방언 유지, 존속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1.4	8.2	39.5	45.0	5.8	9.7	39.5	50.9
성별	남성	(2,556)	1.4	8.2	39.2	44.9	6.3	9.7	39.2	51.2
	여성	(2,444)	1.5	8.2	39.8	45.2	5.4	9.7	39.8	50.6
연령	20대	(929)	1.6	9.8	41.1	43.0	4.5	11.4	41.1	47.6
	30대	(960)	1.7	8.9	41.9	42.3	5.2	10.6	41.9	47.5
	40대	(1,103)	1.7	8.1	39.1	45.2	5.9	9.8	39.1	51.1
	50대	(1,145)	1.1	7.0	38.1	46.9	7.0	8.0	38.1	53.9
	60대	(863)	1.1	7.7	37.2	47.5	6.5	8.8	37.2	54.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2.4	10.5	37.6	43.3	6.2	12.9	37.6	49.5
	강원	(142)	0.4	6.9	57.1	30.9	4.7	7.3	57.1	35.7
	충청권	(539)	0.4	6.5	47.1	39.1	6.9	6.9	47.1	46.0
	전라권	(461)	0.0	6.1	39.2	50.9	3.8	6.1	39.2	54.7
	경상권	(1,233)	0.5	5.5	39.1	50.5	4.4	6.0	39.1	54.9
최종 학력	제주	(62)	1.9	1.9	19.8	47.9	28.5	3.8	19.8	76.4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11.0	33.7	51.4	3.9	11.0	33.7	55.3
	중학교 졸업	(295)	1.0	3.6	40.9	49.0	5.5	4.6	40.9	54.5
	고등학교 졸업	(1,902)	0.6	7.5	40.0	46.9	5.0	8.1	40.0	51.9
	대학교 졸업	(2,662)	2.1	9.2	39.3	42.9	6.5	11.4	39.3	49.3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재학 이상	(89)	0.4	7.0	31.8	54.2	6.6	7.4	31.8	60.8
	100만원 미만	(57)	2.9	6.3	42.2	45.1	3.4	9.3	42.2	48.5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0.5	8.5	39.9	46.0	5.1	9.1	39.9	51.0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7	8.7	39.7	44.0	5.9	10.4	39.7	49.9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5	8.4	39.8	45.8	5.5	8.9	39.8	51.3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8	8.4	40.2	44.2	5.2	10.3	40.2	49.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2.3	8.0	39.9	43.8	6.0	10.4	39.9	49.8
	600만원 이상	(498)	1.1	6.9	35.0	48.6	8.4	8.1	35.0	57.0

### 3-1)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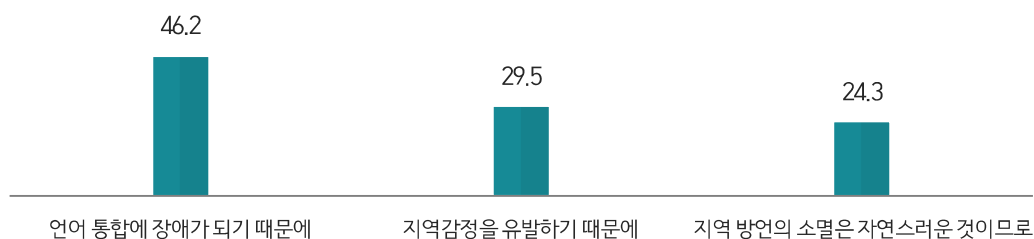
문13-1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46.2%)이며, 다음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때문'(29.5%), '지역 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24.3%) 순임.

| 그림 3-26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응답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8.4%), 200만원~300만원 미만(54.1%), 거주 지역이 수도권(52.9%), 연령이 50대(5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6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 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전 체]		(483)	46.2	29.5	24.3
성별	남성	(247)	42.7	30.4	26.8
	여성	(236)	49.8	28.5	21.7
연령	20대	(106)	42.6	28.8	28.6
	30대	(102)	48.9	30.1	21.1
	40대	(108)	49.8	31.1	19.2
	50대	(92)	51.1	19.9	29.0
	60대	(76)	36.5	38.9	24.6
거주 지역	수도권	(331)	52.9	24.7	22.4
	강원	(10)	88.7	5.4	5.9
	충청권	(37)	35.8	43.5	20.8
	전라권	(28)	20.8	60.8	18.4
	경상권	(75)	25.7	35.8	38.5
	제주	(2)	32.2	16.1	51.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11.5	22.1	66.4
	중학교 졸업	(14)	38.9	36.6	24.5
	고등학교 졸업	(154)	42.2	36.5	21.4
	대학교 졸업	(303)	49.6	25.7	24.6
	대학원 재학 이상	(7)	26.4	30.3	43.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	68.3	0.0	31.7
	100만원~200만원 미만	(26)	60.1	15.6	24.3
	200만원~300만원 미만	(88)	54.1	28.2	17.7
	300만원~400만원 미만	(112)	34.5	37.7	27.7
	400만원~500만원 미만	(123)	42.2	27.6	30.2
	500만원~600만원 미만	(88)	47.8	32.4	19.8
	600만원 이상	(40)	58.4	21.3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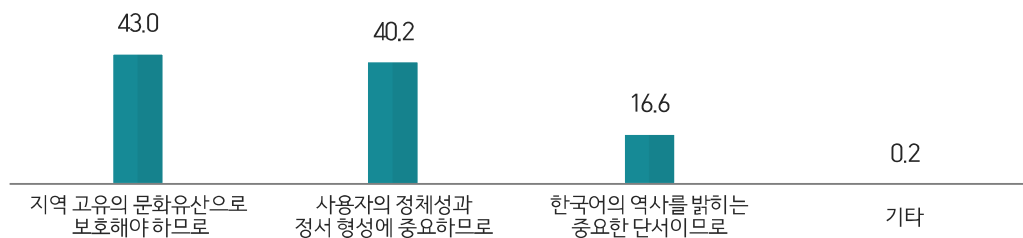
### 3-2)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문13-2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방언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43.0%)이며, 다음으로 '사용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40.2%), '한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16.6%) 순임.

| 그림 3-27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응답은 거주 지역이 제주(70.6%), 강원(46.8%), 전라권(46.5%),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48.1%),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400만원 미만(4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7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	한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기타
[전 체]		(4,517)	43.0	40.2	16.6	0.2
성별	남성	(2,309)	42.0	41.2	16.6	0.1
	여성	(2,208)	44.0	39.1	16.7	0.2
연령	20대	(824)	42.4	39.9	17.4	0.3
	30대	(858)	41.5	41.5	17.0	0.1
	40대	(996)	44.1	38.5	17.3	0.2
	50대	(1,053)	42.7	40.4	16.8	0.2
	60대	(787)	44.4	41.0	14.6	0.0
거주 지역	수도권	(2,232)	41.0	42.1	17.0	0.0
	강원	(131)	46.8	38.3	13.9	1.0
	충청권	(502)	44.0	32.8	22.4	0.8
	전라권	(433)	46.5	42.4	11.1	0.0
	경상권	(1,159)	43.3	40.1	16.5	0.1
	제주	(60)	70.6	23.0	4.9	1.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7)	41.7	50.3	8.0	0.0
	중학교 졸업	(282)	48.1	39.8	11.8	0.2
	고등학교 졸업	(1,748)	43.2	40.9	15.8	0.1
	대학교 졸업	(2,359)	42.2	39.8	17.9	0.1
	대학원 재학 이상	(82)	44.7	32.3	19.5	3.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2)	39.5	46.2	12.7	1.6
	100만원~200만원 미만	(262)	40.6	44.6	14.7	0.2
	200만원~300만원 미만	(756)	44.4	39.6	15.6	0.4
	300만원~400만원 미만	(1,151)	46.0	36.9	17.0	0.1
	400만원~500만원 미만	(1,073)	41.9	41.0	17.0	0.1
	500만원~600만원 미만	(765)	38.5	44.0	17.4	0.1
	600만원 이상	(457)	45.1	37.9	16.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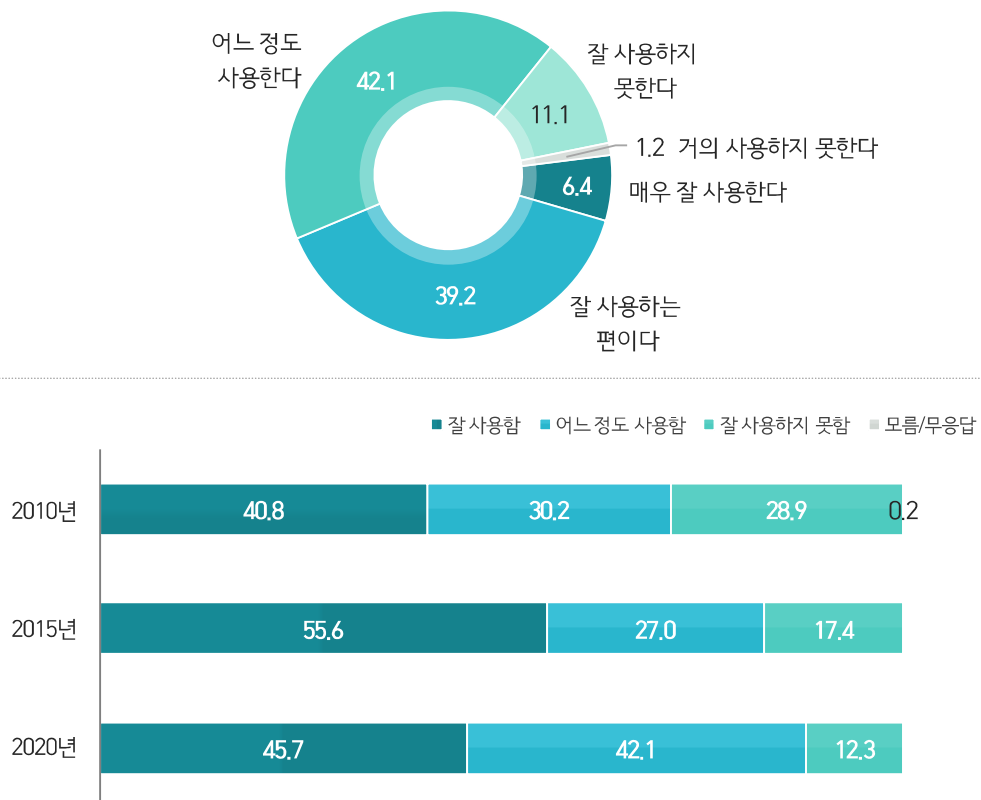
#### 4) 표준어 사용

문 14 귀하는 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본인의 표준어 사용에 대해 '잘 사용하는 편'(잘 사용하는 편이다 + 매우 잘 사용한다)(45.7%)이라고 생각하며,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 잘 사용하지 못한다) 응답은 12.3%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2010년 이후부터 본인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감소하고 있음.

| 그림 3-28 | 표준어 사용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이 수도권(60.4%),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8.5%), 500만원~600만원 미만(53.2%),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5.6%), 연령이 30대(53.4%)에서 본인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8 | 표준어 사용

(단위 : %)

구분		사례 수	거의 사용 하지 못한다	잘 사용 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사용 한다	잘 사용 하는 편이다	매우 잘 사용 한다	총합		
								잘 사용 하지 못하는 편	어느 정도 사용	잘 사용 하는 편
[전 체]		(5,000)	1.2	11.1	42.1	39.2	6.4	12.3	42.1	45.7
성별	남성	(2,556)	1.4	11.9	42.6	38.5	5.7	13.2	42.6	44.2
	여성	(2,444)	1.0	10.2	41.5	40.0	7.2	11.3	41.5	47.2
연령	20대	(929)	0.7	10.1	36.9	41.1	11.2	10.8	36.9	52.3
	30대	(960)	0.4	6.1	40.2	45.7	7.7	6.4	40.2	53.4
	40대	(1,103)	0.4	10.4	41.9	41.2	6.1	10.9	41.9	47.3
	50대	(1,145)	1.9	11.5	47.7	35.5	3.5	13.4	47.7	39.0
	60대	(863)	2.8	17.9	42.5	32.6	4.2	20.7	42.5	36.8
	70대	(254)	1.2	14.2	38.2	32.9	1.5	11.8	38.2	35.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0	3.7	35.9	49.4	11.0	3.7	35.9	60.4
	강원	(142)	0.5	13.3	61.6	21.7	3.0	13.7	61.6	24.7
	충청권	(539)	0.2	10.2	56.3	29.2	4.0	10.5	56.3	33.2
	전라권	(461)	1.1	15.2	46.8	36.9	0.0	16.4	46.8	36.9
	경상권	(1,233)	4.3	25.0	44.6	25.6	0.5	29.3	44.6	26.1
	제주	(62)	0.7	7.3	45.1	34.9	12.1	7.9	45.1	47.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3.4	13.4	48.3	23.6	1.3	26.8	48.3	24.8
	중학교 졸업	(295)	3.8	21.5	50.9	21.6	2.3	25.2	50.9	23.9
	고등학교 졸업	(1,902)	1.7	13.4	44.9	36.5	3.5	15.1	44.9	40.0
	대학교 졸업	(2,662)	0.4	8.4	39.1	43.3	8.9	8.7	39.1	52.2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5.6	38.9	44.3	11.3	5.6	38.9	55.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4.8	7.6	48.1	31.8	7.7	12.4	48.1	39.5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6.6	20.4	43.6	24.7	4.7	27.0	43.6	29.4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8	13.4	48.1	34.3	2.3	15.2	48.1	36.7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7	12.7	44.5	37.4	4.6	13.5	44.5	42.0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7	9.0	40.9	43.1	6.3	9.7	40.9	49.4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5	7.8	38.5	45.8	7.4	8.3	38.5	53.2
	600만원 이상	(498)	0.4	8.2	32.9	41.1	17.4	8.6	32.9	58.5

## 5)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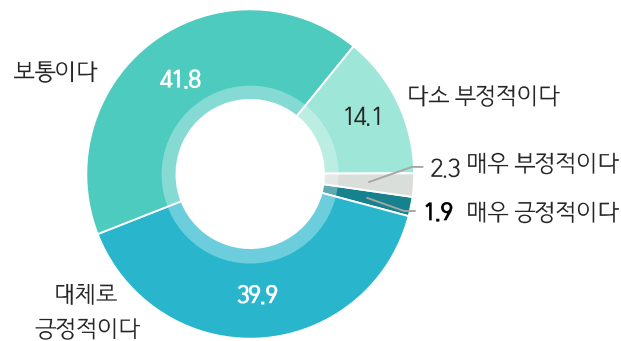
문15

귀하는 지역 방언에 속하는 어떤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쓰이면, 그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우리 국민의 41.8%는 지역 방언에 속하는 어떤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쓰이면, 그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대체로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으로 생각함.
- ▶ 반면, 지역 방언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다 + 다소 부정적이다)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16.4%임.

| 그림 3-29 |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47.0%),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44.7%), 400만원~500만원 미만(44.5%), 거주 지역이 전라권(44.7%), 연령이 20대(43.8%)에서 지역 방언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9 |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종합		
								부정적	보통	긍정적
[전 체]		(5,000)	2.3	14.1	41.8	39.9	1.9	16.4	41.8	41.8
성별	남성	(2,556)	2.4	14.2	41.9	39.8	1.8	16.5	41.9	41.6
	여성	(2,444)	2.2	14.0	41.7	40.1	2.0	16.2	41.7	42.1
연령	20대	(929)	2.8	13.7	39.7	41.7	2.1	16.5	39.7	43.8
	30대	(960)	2.8	16.0	41.0	37.9	2.3	18.7	41.0	40.2
	40대	(1,103)	3.7	14.5	40.4	39.8	1.6	18.2	40.4	41.4
	50대	(1,145)	0.8	12.9	44.2	40.2	1.9	13.7	44.2	42.1
	60대	(863)	1.4	13.3	43.6	40.0	1.7	14.7	43.6	41.7
	70대	(254)	0.0	10.3	40.9	48.8	0.0	10.3	40.9	48.8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9	17.0	35.9	40.7	2.4	20.9	35.9	43.2
	강원	(142)	0.0	9.9	59.4	29.0	1.7	9.9	59.4	30.7
	충청권	(539)	1.1	13.8	52.0	31.9	1.2	14.9	52.0	33.0
	전라권	(461)	0.0	9.2	46.0	44.5	0.3	9.2	46.0	44.7
	경상권	(1,233)	0.4	10.2	46.1	41.9	1.5	10.6	46.1	43.4
	제주	(62)	6.9	16.9	39.7	29.1	7.4	23.8	39.7	36.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4.8	14.0	41.5	39.8	0.0	18.7	41.5	39.8
	중학교 졸업	(295)	0.4	8.4	44.2	46.2	0.8	8.9	44.2	47.0
	고등학교 졸업	(1,902)	0.8	13.2	44.1	40.0	1.9	14.0	44.1	41.9
	대학교 졸업	(2,662)	3.6	14.7	39.9	39.6	2.1	18.4	39.9	41.7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31.5	39.5	28.1	0.9	31.5	39.5	29.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0.0	25.9	37.3	34.6	2.3	25.9	37.3	36.9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7	16.0	42.3	39.4	0.6	17.7	42.3	40.0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5	15.6	42.2	39.5	1.3	17.0	42.2	40.8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3	14.2	44.3	39.1	1.1	15.5	44.3	40.2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3	11.5	41.7	42.0	2.5	13.8	41.7	44.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0	11.0	41.3	42.3	2.4	14.0	41.3	44.7
	600만원 이상	(498)	5.7	20.1	36.0	34.8	3.4	25.8	36.0	38.2

## 5.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 1)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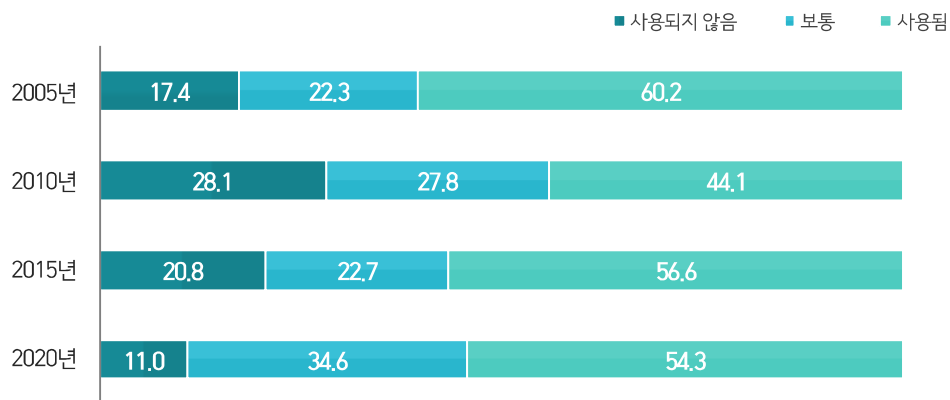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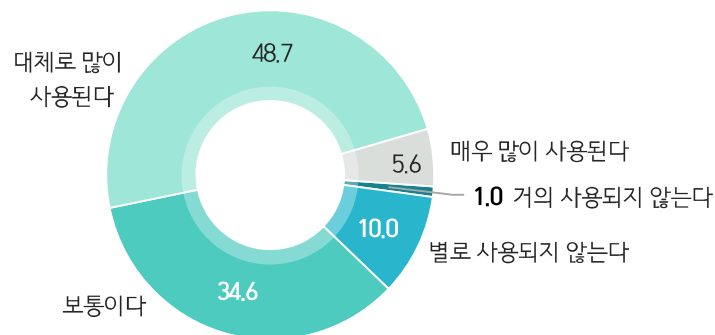
문16

귀하는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대체로 많이 사용된다 + 매우 많이 사용된다)(54.3%)고 생각하는 반면, 11.0%는 '사용되지 않는다'(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 시계열 분석 결과, 2010년 이후부터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있음.

| 그림 3-30 |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59.7%), 거주 지역이 수도권(63.5%),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0.0%),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9.4%)인 집단에서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가 '많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함.

| 표 3-30 |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많이 사용된다	매우 많이 사용된다	종합		
								사용되지 않음	보통	많이 사용됨
[전 체]		(5,000)	1.0	10.0	34.6	48.7	5.6	11.0	34.6	54.3
성별	남성	(2,556)	0.8	10.0	35.1	48.9	5.2	10.8	35.1	54.1
	여성	(2,444)	1.2	10.0	34.2	48.5	6.0	11.3	34.2	54.5
연령	20대	(929)	0.3	6.1	33.8	51.4	8.3	6.5	33.8	59.7
	30대	(960)	0.3	9.2	36.5	48.2	5.9	9.5	36.5	54.0
	40대	(1,103)	1.1	8.3	36.3	49.6	4.7	9.4	36.3	54.4
	50대	(1,145)	1.3	11.4	34.8	48.2	4.3	12.7	34.8	52.5
	60대	(863)	2.1	15.5	31.1	45.9	5.4	17.6	31.1	51.3
	70대	(200)	0.5	10.0	30.0	40.0	20.0	10.0	30.0	60.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9	6.4	29.2	55.4	8.1	7.3	29.2	63.5
	강원	(142)	0.5	7.7	37.4	51.7	2.7	8.2	37.4	54.3
	충청권	(539)	0.6	11.2	44.2	39.8	4.2	11.8	44.2	43.9
	전라권	(461)	0.3	16.2	35.7	46.3	1.5	16.5	35.7	47.8
	경상권	(1,233)	1.5	15.1	40.7	39.9	2.8	16.6	40.7	42.6
	제주	(62)	5.0	8.4	41.8	36.5	8.3	13.5	41.8	44.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6.8	15.5	26.7	34.9	16.1	22.4	26.7	51.0
	중학교 졸업	(295)	2.1	16.6	33.6	41.3	6.3	18.8	33.6	47.6
	고등학교 졸업	(1,902)	1.3	11.8	34.0	48.5	4.4	13.1	34.0	52.9
	대학교 졸업	(2,662)	0.6	8.0	35.4	49.8	6.1	8.6	35.4	55.9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7.5	32.4	51.3	8.7	7.5	32.4	60.0
	무학	(100)	0.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2.8	12.0	33.0	41.0	11.3	14.8	33.0	52.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3	17.7	32.7	37.0	9.3	21.1	32.7	46.2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3	13.4	34.9	44.6	5.8	14.7	34.9	50.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4	10.6	34.5	49.4	5.2	11.0	34.5	54.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1	7.2	35.1	51.4	5.3	8.3	35.1	56.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9	7.4	37.1	50.7	3.9	8.3	37.1	54.6
	600만원 이상	(498)	0.6	9.5	30.6	51.8	7.6	10.0	30.6	59.4

## 1-1)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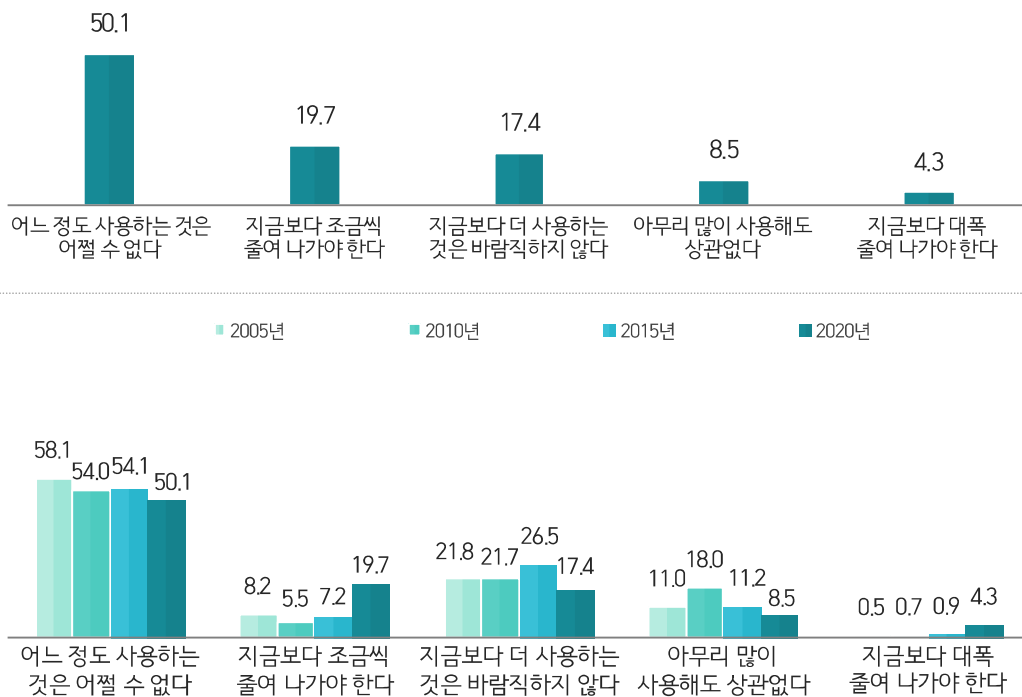
문16-1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과반수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50.1%)고 생각하고 있음.
- ▶ 다음으로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한다'(19.7%), '지금보다 더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7.4%)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또한 2005년 이후부터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은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그림 3-31 |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응답은 나이가 어릴수록, 거주 지역이 강원(62.9%),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56.1%),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5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1 |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한다	지금보다 더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상관없다	지금보다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전 체]		(2,716)	50.1	19.7	17.4	8.5	4.3
성별	남성	(1,383)	48.8	19.5	18.2	9.4	4.2
	여성	(1,333)	51.4	20.0	16.6	7.5	4.5
연령	20대	(555)	55.7	14.4	16.2	11.2	2.5
	30대	(518)	54.6	17.6	15.3	8.5	4.0
	40대	(600)	51.1	19.2	17.1	7.8	4.8
	50대	(601)	47.2	24.0	16.5	8.1	4.2
	60대	(443)	40.3	23.8	22.9	6.3	6.7
거주 지역	수도권	(1,628)	49.8	20.5	18.2	7.3	4.2
	강원	(77)	62.9	17.5	7.1	6.0	6.4
	충청권	(237)	47.0	18.0	18.8	8.9	7.3
	전라권	(220)	46.9	23.6	16.5	10.5	2.6
	경상권	(526)	51.6	16.7	16.3	11.4	3.9
	제주	(28)	55.0	25.3	10.6	6.0	3.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7)	42.7	38.1	7.3	2.3	9.5
	중학교 졸업	(141)	33.7	31.2	20.8	8.1	6.3
	고등학교 졸업	(1,006)	47.4	22.7	18.2	7.7	4.0
	대학교 졸업	(1,490)	53.6	16.5	16.5	9.1	4.3
	대학원 재학 이상	(53)	50.2	15.0	22.0	9.9	2.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0)	46.0	22.3	23.4	3.6	4.8
	100만원~200만원 미만	(133)	36.1	31.1	20.9	7.5	4.4
	200만원~300만원 미만	(425)	52.2	19.7	15.4	8.0	4.6
	300만원~400만원 미만	(689)	50.2	20.0	18.4	7.1	4.4
	400만원~500만원 미만	(677)	47.3	20.4	20.6	8.6	3.1
	500만원~600만원 미만	(466)	56.1	16.4	12.3	9.9	5.2
	600만원 이상	(295)	50.2	17.5	16.2	10.7	5.4



## 2)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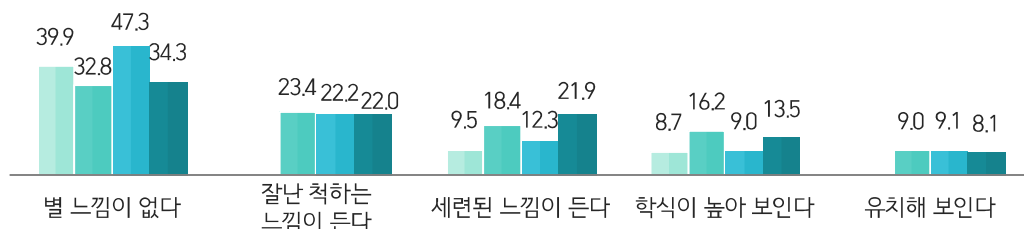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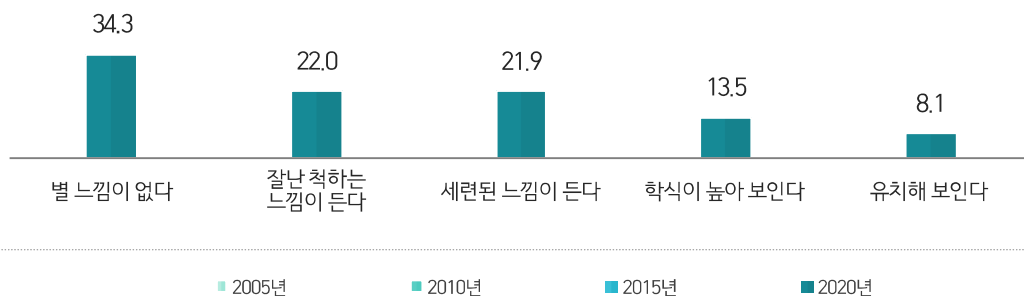
문 17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을 주로 받으십니까?

- ▶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34.3%)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함.
- ▶ 다음으로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22.0%), '세련된 느낌이 든다'(21.9%)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2005년 이후부터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련된 느낌이 든다'는 의견은 2015년 이후 소폭 증가함.

| 그림 3-32 |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31.0%), 거주 지역이 강원(24.6%), 연령이 50대(2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2 |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단위 : %)

구분		사례 수	별 느낌이 없다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세련된 느낌이 든다	학식이 높아 보인다	유치해 보인다
[전 체]		(5,000)	34.3	22.0	21.9	13.5	8.1
성별	남성	(2,556)	34.8	23.3	21.7	12.5	7.7
	여성	(2,444)	33.8	20.7	22.2	14.6	8.6
연령	20대	(929)	34.1	21.2	25.9	11.6	6.8
	30대	(960)	34.1	21.1	22.5	13.4	8.8
	40대	(1,103)	36.1	20.8	21.5	13.2	8.4
	50대	(1,145)	34.7	24.5	20.1	12.7	8.0
	60대	(863)	32.0	22.2	20.1	17.0	8.6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0.1	23.9	21.6	15.5	8.8
	강원	(142)	55.5	24.6	8.4	4.6	5.6
	충청권	(539)	40.9	18.0	22.4	10.5	8.2
	전라권	(461)	32.4	21.9	29.7	7.3	8.7
	경상권	(1,233)	36.1	20.2	22.1	14.5	7.0
	제주	(62)	78.9	12.5	3.9	3.4	1.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33.3	30.3	14.5	9.0	13.0
	중학교 졸업	(295)	28.4	27.3	24.1	16.1	4.1
	고등학교 졸업	(1,902)	34.5	22.3	20.9	14.1	8.2
	대학교 졸업	(2,662)	34.3	21.4	22.7	12.9	8.5
	대학원 재학 이상	(89)	49.7	13.0	17.7	13.1	6.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6.5	31.0	17.6	7.0	7.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1.5	23.7	20.4	15.5	8.9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6.1	22.8	22.6	9.1	9.0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34.1	24.1	23.1	11.3	7.4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35.1	21.8	18.9	14.7	9.4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1.5	20.8	24.2	15.5	7.9
	600만원 이상	(498)	36.0	16.0	22.8	19.7	5.4

※ 기타 응답 제외

### 3) 본인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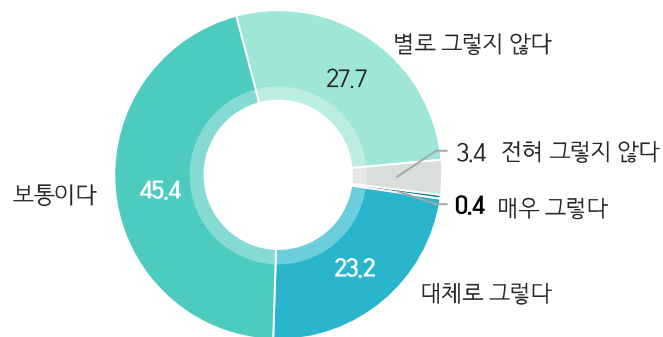
문18

귀하는 평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 ▶ 본인이 평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31.1%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3.5%는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 그림 3-33 | 평소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본인이 평소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연령이 20대(35.9%), 거주 지역이 전라권(31.4%),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30.4%),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30.5%)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3 | 평소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3.4	27.7	45.4	23.2	0.4	31.1	45.4	23.5
성별	남성	(2,556)	2.9	26.4	47.1	23.3	0.3	29.3	47.1	23.6
	여성	(2,444)	3.9	29.0	43.6	23.0	0.4	32.9	43.6	23.5
연령	20대	(929)	0.8	13.8	49.5	35.2	0.7	14.7	49.5	35.9
	30대	(960)	0.8	19.7	52.8	26.2	0.6	20.4	52.8	26.8
	40대	(1,103)	2.8	28.7	47.3	20.6	0.7	31.5	47.3	21.2
	50대	(1,145)	4.2	34.8	43.0	18.0	0.0	39.0	43.0	18.1
	60대	(863)	8.9	40.6	33.6	17.0	0.0	49.4	33.6	17.0
	70대	(200)	15.0	45.0	30.0	10.0	0.0	55.0	30.0	15.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6	27.0	45.2	23.7	0.5	30.6	45.2	24.2
	강원	(142)	5.0	30.6	46.9	17.5	0.0	35.6	46.9	17.5
	충청권	(539)	1.6	24.0	53.3	20.8	0.3	25.6	53.3	21.2
	전라권	(461)	0.3	26.2	42.1	31.4	0.0	26.5	42.1	31.4
	경상권	(1,233)	4.4	30.3	43.9	21.2	0.3	34.7	43.9	21.4
	제주	(62)	9.9	39.1	34.5	13.2	3.3	49.0	34.5	16.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0.2	41.1	22.1	16.5	0.0	61.3	22.1	16.5
	중학교 졸업	(295)	12.5	44.0	29.0	14.4	0.1	56.5	29.0	14.5
	고등학교 졸업	(1,902)	5.0	34.9	41.4	18.8	0.0	39.8	41.4	18.8
	대학교 졸업	(2,662)	1.0	21.0	50.1	27.2	0.6	22.0	50.1	27.8
	대학원 재학 이상	(89)	0.4	11.0	58.1	28.9	1.5	11.4	58.1	30.4
	무학	(10)	0.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1.6	35.1	40.1	12.4	0.7	46.8	40.1	13.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9.2	43.0	35.2	12.5	0.1	52.2	35.2	12.6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9	28.8	44.3	21.5	0.6	33.7	44.3	22.0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3.0	29.1	44.8	22.8	0.3	32.1	44.8	23.1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5	26.2	48.8	21.9	0.6	28.7	48.8	22.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2.4	24.5	45.5	27.3	0.3	26.9	45.5	27.5
	600만원 이상	(498)	1.4	21.2	46.9	30.3	0.2	22.7	46.9	30.5
	무응답	(10)	0.0	0.0	0.0	0.0	0.0	0.0	0.0	0.0

### 3-1)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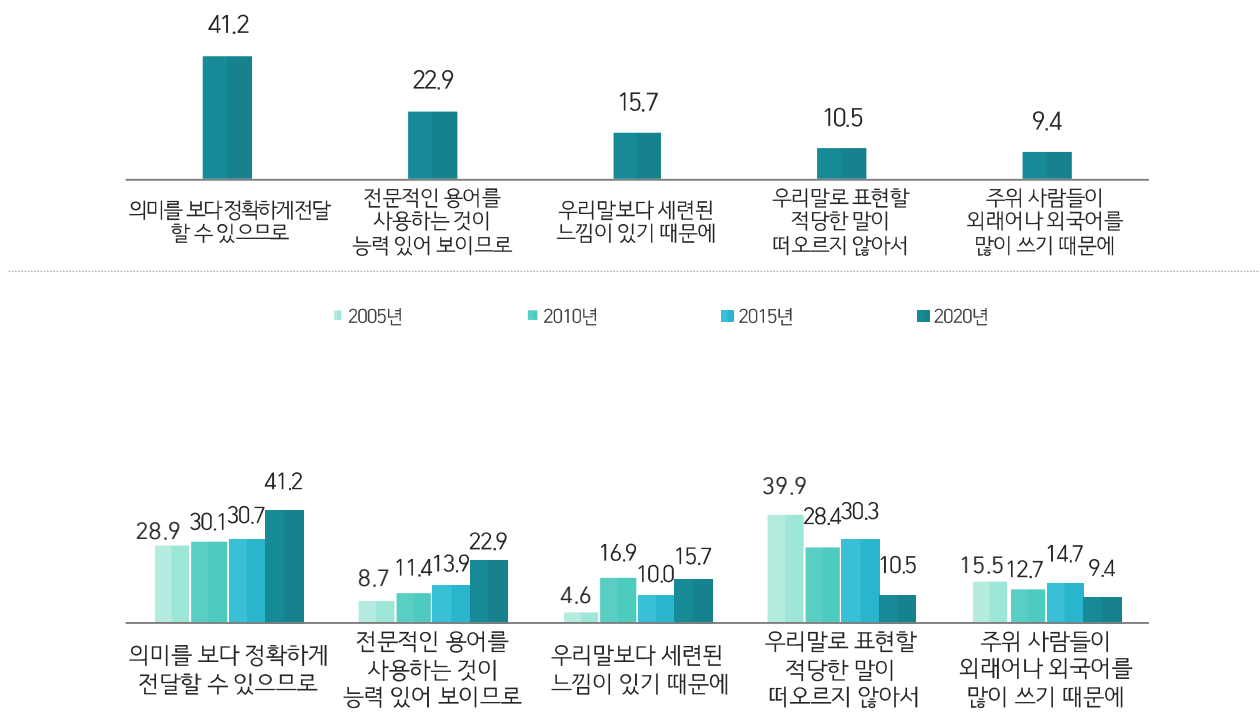
문18-1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41.2%)이며, 다음으로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22.9%),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15.7%)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의견이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그림 3-34 |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 '외래어나 외국어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20대(44.3%), 거주 지역이 수도권(46.2%),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4.0%),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4.4%)인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표 3-34 |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외래어나 외국어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 체]		(1,177)	41.2	22.9	15.7	10.5	9.4
성별	남성	(604)	40.7	22.7	15.6	11.5	8.9
	여성	(573)	41.6	23.1	15.7	9.5	9.9
연령	20대	(333)	44.3	20.0	10.5	15.2	9.0
	30대	(257)	44.0	21.3	13.6	10.5	10.6
	40대	(234)	34.8	26.8	16.1	11.3	10.6
	50대	(207)	43.6	24.0	21.2	6.4	4.7
	60대	(147)	35.9	24.6	22.5	4.6	12.5
	70대	(140)	35.0	25.0	22.9	4.3	12.9
거주 지역	수도권	(619)	46.2	19.1	15.3	10.1	9.1
	강원	(25)	28.0	19.5	12.6	21.5	12.8
	충청권	(114)	33.2	23.6	19.4	7.9	16.0
	전라권	(145)	31.4	30.3	10.9	14.9	12.5
	경상권	(264)	40.6	27.6	18.3	8.8	4.4
	제주	(10)	13.1	25.4	4.1	24.4	28.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	60.2	7.2	25.0	0.0	7.6
	중학교 졸업	(43)	24.4	36.3	28.0	5.1	6.2
	고등학교 졸업	(358)	39.2	24.4	19.9	9.6	7.0
	대학교 졸업	(741)	42.4	22.0	13.4	11.0	10.7
	대학원 재학 이상	(27)	54.0	11.8	0.0	23.1	8.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	8.8	18.7	57.7	10.6	4.2
	100만원~200만원 미만	(36)	33.8	31.0	27.9	4.6	2.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6)	38.1	22.1	14.1	14.2	11.1
	300만원~400만원 미만	(292)	37.0	21.8	15.3	15.9	9.6
	400만원~500만원 미만	(269)	38.2	27.6	13.8	8.1	11.7
	500만원~600만원 미만	(235)	45.9	22.6	18.0	5.8	7.6
	600만원 이상	(152)	54.4	16.3	12.8	8.7	7.4

※ 기타 응답 제외

#### 4)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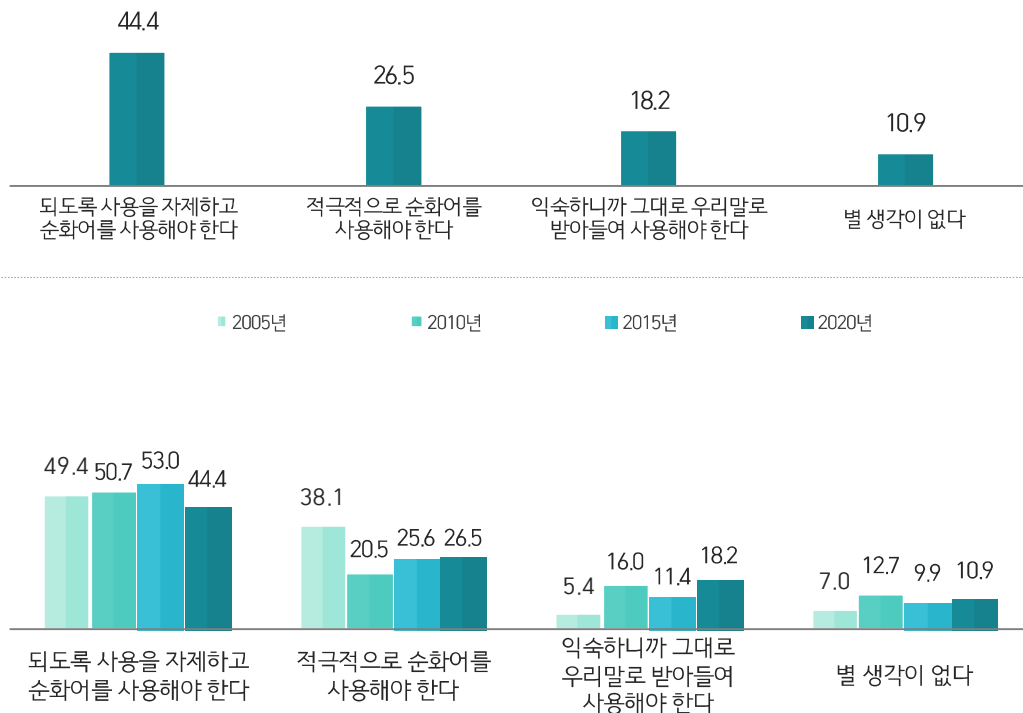
문19

다음 <보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쇼부, 간지, 뽀빠이, 만땅, 노가다, 기스, 와꾸

- ▶ 국민들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44.4%)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함.
- ▶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26.5%),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18.2%)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림 3-35 |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생각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응답은 거주 지역이 강원(58.9%), 제주(50.4%),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2.4%), 연령이 30대(47.1%),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4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5 |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	별 생각이 없다
[전 체]		(5,000)	44.4	26.5	18.2	10.9
성별	남성	(2,556)	43.5	25.5	19.1	11.9
	여성	(2,444)	45.3	27.7	17.3	9.8
연령	20대	(929)	42.5	27.2	19.0	11.4
	30대	(960)	47.1	25.6	17.5	9.8
	40대	(1,103)	46.4	25.2	18.4	10.1
	50대	(1,145)	42.5	28.1	18.3	11.0
	60대	(863)	43.4	26.5	17.8	12.4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5.4	31.5	17.4	5.7
	강원	(142)	58.9	17.0	6.6	17.5
	충청권	(539)	37.8	32.4	12.5	17.2
	전라권	(461)	35.8	17.2	27.0	20.0
	경상권	(1,233)	46.4	18.7	20.8	14.1
	제주	(62)	50.4	18.3	9.9	21.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4.8	36.8	13.9	24.5
	중학교 졸업	(295)	38.2	31.1	16.7	13.7
	고등학교 졸업	(1,902)	42.7	26.2	20.0	11.1
	대학교 졸업	(2,662)	46.6	26.2	17.2	10.0
	대학원 재학 이상	(89)	45.8	23.1	16.8	14.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9.1	30.7	8.0	22.2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0.3	29.7	11.5	18.4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0.1	28.5	19.8	11.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5.2	24.9	17.8	12.2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6.5	26.3	18.2	8.9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1.5	28.5	20.0	10.1
	600만원 이상	(498)	52.4	22.5	18.7	6.5

※ 기타 응답 제외



## 5)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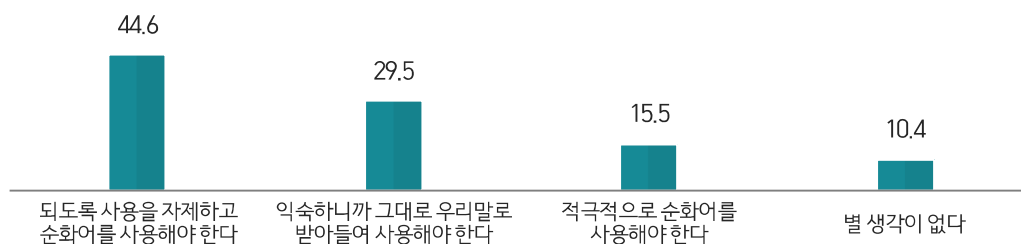
문20

다음 <보기>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괄호 안은 순화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고참(선임), 식비(밥값), 간식(새참), 견학(보고 배우기), 고객(손님), 승강장(타는 곳), 노점(거리 가게)

- ▶ 국민들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44.6%)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함.
- ▶ 다음으로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29.5%),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15.5%)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36 |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생각

(단위 : %)



## 특성별 분석

- ⑤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응답은 거주 지역이 제주(49.1%), 경상권(49.0%), 강원(47.7%),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300만원 미만(47.0%), 연령이 50대(4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6 |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별 생각이 없다
[전 체]		(5,000)	44.6	29.5	15.5	10.4
성별	남성	(2,556)	43.7	30.0	14.9	11.5
	여성	(2,444)	45.6	28.9	16.2	9.2
연령	20대	(929)	43.9	31.7	13.2	11.3
	30대	(960)	43.5	29.6	16.9	10.0
	40대	(1,103)	45.4	30.5	14.8	9.3
	50대	(1,145)	46.8	28.3	14.9	10.0
	60대	(863)	42.9	27.2	18.1	11.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3.4	35.0	16.0	5.7
	강원	(142)	47.7	14.2	21.0	17.0
	충청권	(539)	42.0	19.3	23.0	15.7
	전라권	(461)	41.7	26.5	11.5	20.2
	경상권	(1,233)	49.0	25.9	12.3	12.8
	제주	(62)	49.1	17.7	10.6	22.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9.7	29.2	21.0	20.1
	중학교 졸업	(295)	43.1	26.3	20.0	10.6
	고등학교 졸업	(1,902)	44.9	29.5	15.1	10.6
	대학교 졸업	(2,662)	45.2	29.5	15.5	9.7
	대학원 재학 이상	(89)	36.4	37.8	7.4	18.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29.8	17.6	32.4	20.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2.8	26.1	17.3	13.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7.0	24.9	16.4	11.7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5.5	26.3	15.8	12.4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4.1	33.2	13.9	8.8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4.9	30.4	16.7	8.0
	600만원 이상	(498)	42.1	38.2	12.2	7.5

※ 기타 응답 제외

## 6)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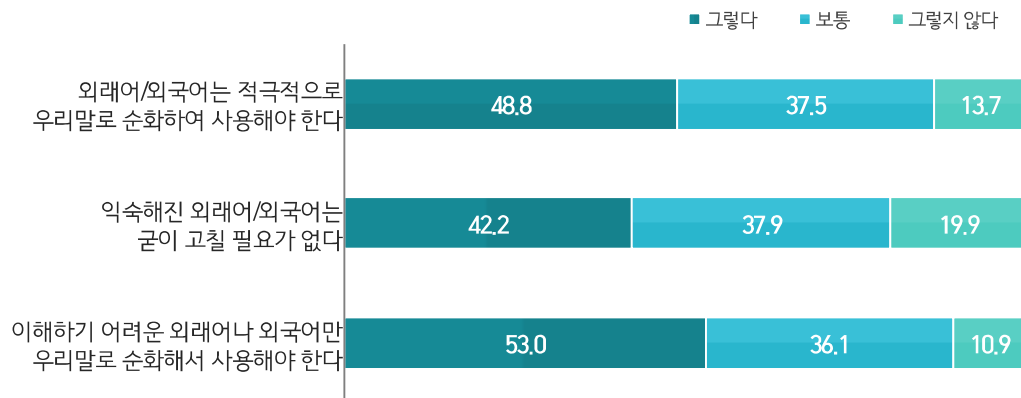
문21

귀하는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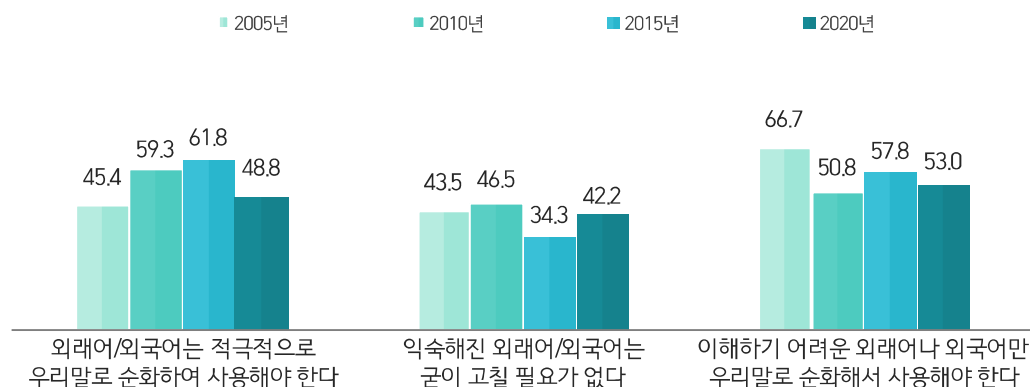
- ▶ 국어 순화에 대한 의견들 중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에 동의하는 비율(53.0%)이 가장 높았음.
- ▶ 다음으로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48.8%),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42.2%)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015년 이후 소폭 증가함.

| 그림 3-37 |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한 생각

(단위 : %)



(단위 : 그렇다 %)



## 특성별 분석

- ▶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50대(53.7%), 거주 지역이 전라권(60.3%),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6.1%),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9.3%)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7 |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 굳이 고칠 필요 없음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5,000)	13.7	37.5	48.8	19.9	37.9	42.2	10.9	36.1	53.0
성별	남성	(2,556)	13.5	37.5	48.9	19.4	37.9	42.7	11.1	36.5	52.4
	여성	(2,444)	13.8	37.4	48.7	20.4	37.9	41.7	10.6	35.7	53.7
연령	20대	(929)	14.2	39.3	46.5	15.9	37.4	46.7	10.2	36.3	53.5
	30대	(960)	13.7	38.0	48.3	19.6	39.0	41.5	11.1	36.7	52.2
	40대	(1,103)	12.6	36.7	50.8	20.6	37.3	42.1	10.7	35.6	53.7
	50대	(1,145)	13.2	38.0	48.8	21.5	37.3	41.2	10.3	36.2	53.5
	60대	(863)	15.1	35.3	49.6	21.5	38.7	39.8	12.2	35.9	52.0
	70대	(863)	15.1	35.3	49.6	21.5	38.7	39.8	12.2	35.9	52.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11.9	38.5	49.6	17.6	37.5	44.8	9.1	34.6	56.3
	강원	(142)	9.0	36.8	54.3	23.4	50.0	26.5	12.8	40.2	47.0
	충청권	(539)	22.3	40.2	37.5	26.9	34.2	38.9	15.0	34.8	50.2
	전라권	(461)	17.8	37.4	44.8	18.0	31.8	50.2	10.7	29.0	60.3
	경상권	(1,233)	12.6	34.7	52.6	20.6	40.9	38.4	11.5	42.1	46.5
	제주	(62)	12.6	28.7	58.7	43.0	42.2	14.8	32.8	33.8	33.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4.6	27.4	58.0	30.6	42.0	27.4	21.1	38.8	40.1
	중학교 졸업	(295)	15.7	35.2	49.1	24.6	36.4	39.0	16.8	34.3	48.9
	고등학교 졸업	(1,902)	14.6	38.0	47.4	19.7	39.0	41.3	10.6	38.0	51.4
	대학교 졸업	(2,662)	12.8	37.2	50.0	19.5	37.2	43.4	10.3	34.9	54.8
	대학원 재학 이상	(89)	13.3	48.4	38.2	14.5	38.0	47.5	6.6	37.3	56.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4.5	39.2	46.3	31.3	25.1	43.5	14.4	33.9	51.7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6.7	33.0	50.3	30.1	36.2	33.7	19.3	36.6	44.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5.6	34.9	49.5	21.5	37.4	41.0	13.4	38.2	48.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4.3	35.5	50.2	19.9	40.9	39.2	11.0	36.1	52.9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2.8	39.5	47.7	18.8	36.2	45.0	9.4	37.9	52.7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9.4	40.0	50.6	17.8	37.7	44.5	8.0	34.4	57.6
	600만원 이상	(498)	16.1	40.3	43.6	16.1	37.8	46.1	9.2	31.5	59.3

## 7)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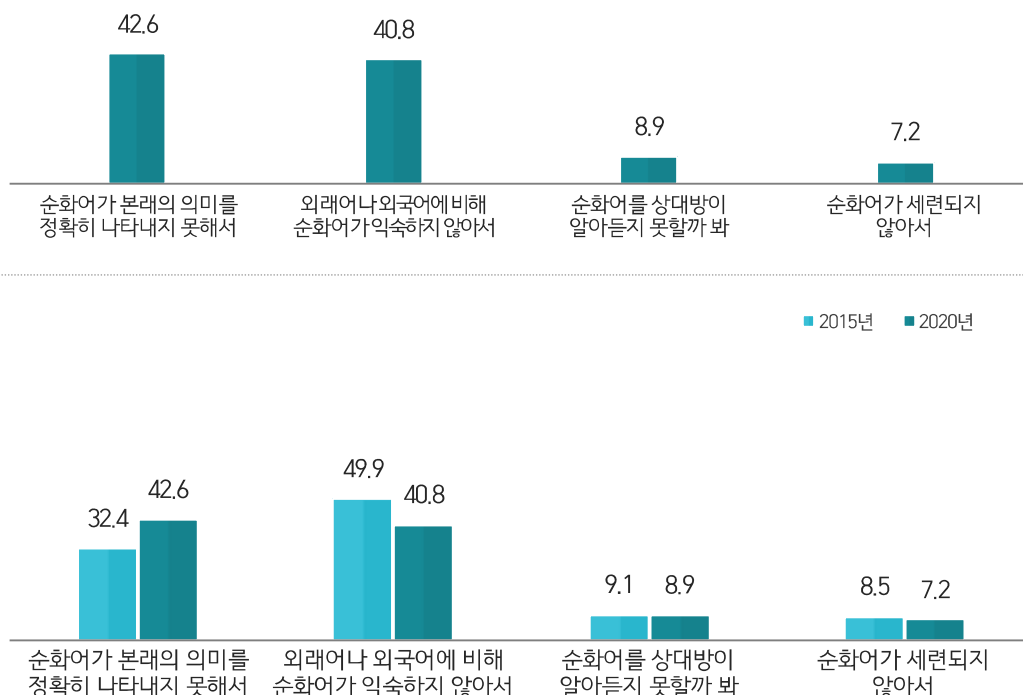
문22

귀하는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어를 일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어를 일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42.6%)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 ▶ 다음으로는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40.8%), '순화어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8.9%), '순화어가 세련되지 않아서'(7.2%)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015년 이후 소폭 증가한 반면,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소폭 감소함.

| 그림 3-38 |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순화어를 일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 응답은 거주 지역이 경상권(49.7%), 전라권(44.3%),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47.9%), 연령이 40대(44.9%),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43.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8 |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순화어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순화어가 세련되지 않아서
[전 체]		(5,000)	42.6	40.8	8.9	7.2
성별	남성	(2,556)	43.5	41.0	8.0	7.1
	여성	(2,444)	41.7	40.7	9.9	7.3
연령	20대	(929)	43.7	38.9	9.7	7.4
	30대	(960)	43.2	41.2	7.9	7.1
	40대	(1,103)	44.9	38.5	8.9	7.3
	50대	(1,145)	39.3	44.3	8.4	7.5
	60대	(863)	42.3	40.8	10.0	6.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2.2	42.8	9.4	5.5
	강원	(142)	21.9	58.7	12.8	4.8
	충청권	(539)	35.3	39.7	9.2	13.1
	전라권	(461)	44.3	38.2	9.3	8.1
	경상권	(1,233)	49.7	34.6	7.3	8.4
	제주	(62)	15.5	72.8	9.6	2.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33.7	45.7	10.9	9.6
	중학교 졸업	(295)	40.0	43.0	8.9	7.7
	고등학교 졸업	(1,902)	43.5	39.7	9.6	7.0
	대학교 졸업	(2,662)	42.3	41.7	8.4	7.2
	대학원 재학 이상	(89)	47.9	28.6	7.9	7.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24.8	38.5	12.9	18.5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6.8	44.9	9.4	8.4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2.7	38.1	8.4	10.1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3.1	39.9	8.8	7.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3.5	41.8	7.9	6.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3.7	40.8	10.0	5.5
	600만원 이상	(498)	42.7	43.7	10.0	3.7

※ 기타 응답 제외

## 6. 대중매체의 언어

### 1)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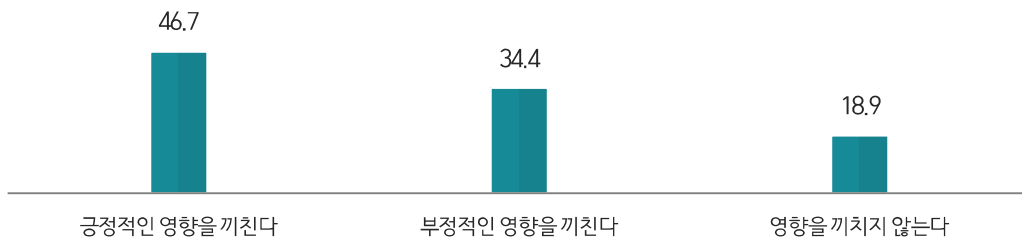
문23

귀하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46.7%)고 생각하는 반면, 34.4%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함.

| 그림 3-39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은 연령이 60대(48.6%), 거주 지역이 전라권(50.0%),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4.6%),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54.4%)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9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구분		사례 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 체]		(5,000)	46.7	34.4	18.9
성별	남성	(2,556)	47.4	33.5	19.1
	여성	(2,444)	46.0	35.3	18.7
연령	20대	(929)	47.8	33.2	19.0
	30대	(960)	46.1	34.9	19.0
	40대	(1,103)	45.6	36.1	18.3
	50대	(1,145)	46.0	34.8	19.2
	60대	(863)	48.6	32.3	19.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9.2	35.8	15.0
	강원	(142)	39.5	43.3	17.1
	충청권	(539)	37.1	39.6	23.3
	전라권	(461)	50.0	38.1	11.9
	경상권	(1,233)	46.4	26.5	27.1
	제주	(62)	26.2	37.8	36.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38.1	39.4	22.6
	중학교 졸업	(295)	50.7	32.5	16.8
	고등학교 졸업	(1,902)	45.6	32.7	21.7
	대학교 졸업	(2,662)	47.0	35.8	17.3
	대학원 재학 이상	(89)	54.6	33.2	12.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4.4	18.5	27.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0.8	30.3	18.9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8.5	32.8	18.7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6.5	33.2	20.3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6.6	35.5	17.9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8.2	33.3	18.5
	600만원 이상	(498)	38.6	43.5	17.9



## 1-1)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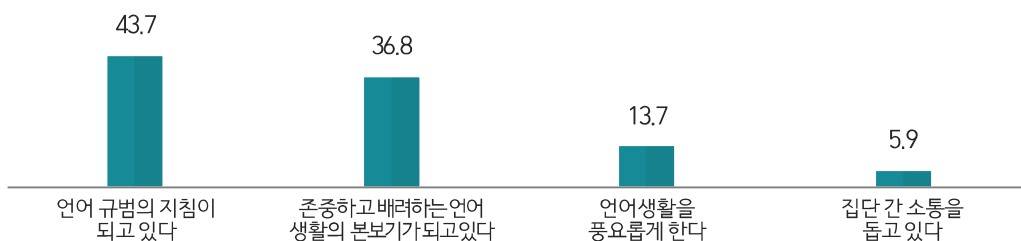
문23-1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 표기, 문법 등의 사용으로 언어 규범의 지침이 되고 있다'(43.7%)임.
- ▶ 다음으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36.8%), '전문 용어, 신어, 외국어 등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제시하여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한다'(13.7%)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40 |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 표기, 문법 등의 사용으로 언어 규범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응답은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1.5%), 거주 지역이 전라권(50.5%), 강원(49.6%), 연령이 40대(48.9%),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400만원 미만(45.9%)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0 |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 표기, 문법 등의 사용으로 언어 규범의 지침이 되고 있다	공정하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전문 용어, 신어, 외국어 등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제시하여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다양한 지역, 세대, 계층 간 언어 차이를 알게 하여 집단 간 소통을 돕고 있다
[전 체]		(2,335)	43.7	36.8	13.7	5.9
성별	남성	(1,210)	43.5	37.1	13.9	5.5
	여성	(1,125)	43.9	36.4	13.4	6.3
연령	20대	(444)	42.1	35.0	15.5	7.4
	30대	(442)	40.4	38.4	15.8	5.3
	40대	(503)	48.9	33.1	12.3	5.7
	50대	(526)	45.7	36.1	12.8	5.4
	60대	(420)	40.1	42.1	12.2	5.6
거주 지역	수도권	(1,261)	43.2	35.2	16.2	5.5
	강원	(56)	49.6	21.3	11.1	18.0
	충청권	(200)	34.4	43.4	14.5	7.8
	전라권	(231)	50.5	34.6	8.9	6.1
	경상권	(572)	44.4	41.1	9.8	4.5
	제주	(16)	50.1	12.0	20.2	17.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	42.7	42.6	11.3	3.3
	중학교 졸업	(150)	37.4	48.2	7.9	6.5
	고등학교 졸업	(867)	42.7	38.8	13.5	5.0
	대학교 졸업	(1,251)	44.4	34.3	14.8	6.5
	대학원 재학 이상	(48)	61.5	26.9	6.1	5.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1)	38.8	39.8	9.3	12.1
	100만원~200만원 미만	(147)	44.8	37.9	9.4	7.9
	200만원~300만원 미만	(410)	44.7	35.0	13.8	6.5
	300만원~400만원 미만	(587)	45.9	36.8	12.8	4.4
	400만원~500만원 미만	(557)	41.1	36.3	15.8	6.8
	500만원~600만원 미만	(412)	43.3	36.4	15.0	5.2
	600만원 이상	(192)	42.7	41.3	10.7	5.4

※ 기타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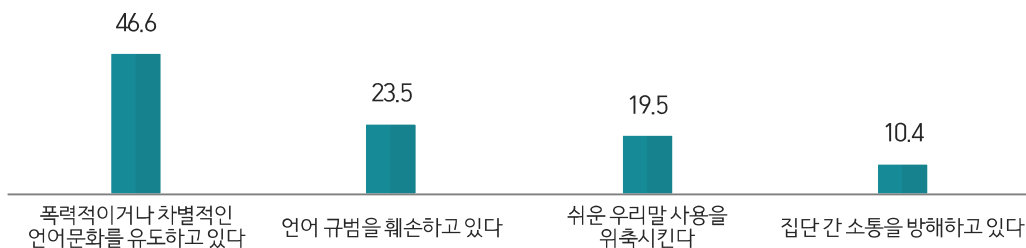
## 1-2)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문23-2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정적이거나 과장적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46.6%)임.
- ▶ 다음으로 '비표준어 사용과 부정확한 발음, 잦은 오자와 탈자 출현 등으로 언어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23.5%), '불필요하게 어려운 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축시킨다'(19.5%)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41 |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선정적이거나 과장적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응답은 연령이 40대(51.2%), 거주 지역이 제주(48.8%),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48.1%),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5.2%)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1 |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선정적이거나 과장적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비표준어 사용과 부정확한 발음, 잘못된 오자와 탈자 출현 등으로 언어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어려운 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축시킨다	특정 집단만 이해하는 방언, 신조어, 유행어 등을 남용하여 집단 간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전 체]		(1,720)	46.6	23.5	19.5	10.4
성별	남성	(857)	45.1	25.1	20.5	9.3
	여성	(863)	48.1	21.9	18.5	11.5
연령	20대	(308)	46.7	24.6	20.3	8.4
	30대	(335)	40.5	25.5	20.8	13.1
	40대	(399)	51.2	20.5	19.0	9.3
	50대	(398)	47.3	23.5	18.1	11.2
	60대	(279)	46.2	24.3	19.5	10.0
거주 지역	수도권	(918)	47.8	24.6	17.5	10.1
	강원	(61)	44.9	22.1	19.8	13.2
	충청권	(214)	43.5	21.1	22.9	12.4
	전라권	(176)	43.2	24.1	17.3	15.4
	경상권	(327)	47.3	22.4	25.0	5.4
	제주	(24)	48.8	16.9	5.3	29.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1)	69.5	10.8	17.6	2.0
	중학교 졸업	(96)	37.6	28.8	20.5	13.1
	고등학교 졸업	(621)	48.1	21.1	20.4	10.5
	대학교 졸업	(952)	46.1	25.0	18.5	10.4
	대학원 재학 이상	(29)	44.2	18.5	29.9	7.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1)	74.5	13.7	7.8	4.0
	100만원~200만원 미만	(87)	40.5	22.2	16.8	20.5
	200만원~300만원 미만	(277)	47.8	20.8	23.9	7.5
	300만원~400만원 미만	(420)	45.1	22.1	19.4	13.4
	400만원~500만원 미만	(424)	46.0	25.2	18.7	10.1
	500만원~600만원 미만	(284)	42.9	26.7	21.3	9.2
	600만원 이상	(217)	55.2	23.3	14.7	6.8

## 2)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책적 관리/규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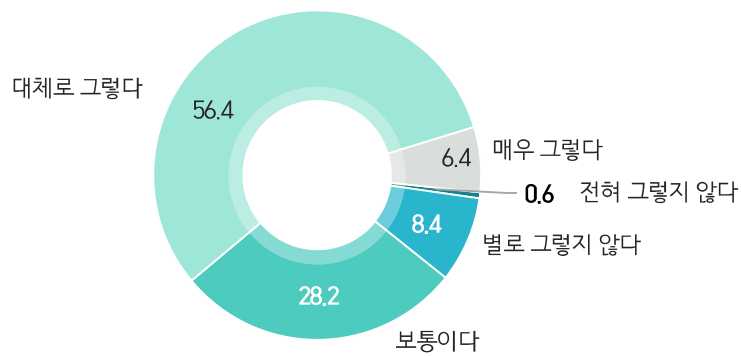
문24

귀하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62.7%)고 생각함.
- ▶ 반면,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응답은 9.0%임.

| 그림 3-42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책적 관리/규제 필요성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40대(64.5%), 거주 지역이 수도권(68.7%),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67.3%),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71.5%)인 집단에서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2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책적 관리/규제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0.6	8.4	28.2	56.4	6.4	9.0	28.2	62.7
성별	남성	(2,556)	0.7	8.4	29.2	55.8	6.0	9.1	29.2	61.8
	여성	(2,444)	0.5	8.5	27.2	57.0	6.8	9.0	27.2	63.8
연령	20대	(929)	0.8	9.7	27.2	56.6	5.7	10.5	27.2	62.3
	30대	(960)	0.9	8.3	27.6	56.9	6.4	9.2	27.6	63.2
	40대	(1,103)	0.2	8.1	27.3	58.1	6.3	8.3	27.3	64.5
	50대	(1,145)	0.5	6.5	30.0	56.1	6.8	7.0	30.0	62.9
	60대	(863)	0.7	10.2	28.8	53.7	6.6	10.9	28.8	60.3
	70대	(290)	0.3	11.7	25.5	52.4	6.8	13.1	25.5	59.2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4	8.0	23.0	60.3	8.3	8.3	23.0	68.7
	강원	(142)	0.5	4.5	30.9	61.1	3.0	5.0	30.9	64.1
	충청권	(539)	1.1	11.3	42.3	38.0	7.4	12.3	42.3	45.4
	전라권	(461)	0.1	7.6	25.2	62.0	5.0	7.8	25.2	67.0
	경상권	(1,233)	0.8	8.6	33.5	54.4	2.7	9.4	33.5	57.1
	제주	(62)	6.0	15.4	32.4	39.5	6.7	21.4	32.4	46.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8.7	24.0	59.6	7.8	8.7	24.0	67.3
	중학교 졸업	(295)	0.1	7.3	27.5	58.7	6.3	7.5	27.5	65.0
	고등학교 졸업	(1,902)	0.6	8.1	31.5	55.1	4.8	8.6	31.5	59.8
	대학교 졸업	(2,662)	0.7	8.8	26.2	57.4	6.9	9.5	26.2	64.3
	대학원 재학 이상	(89)	0.9	7.5	24.4	44.5	22.6	8.4	24.4	67.1
	학력 미상	(100)	0.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0.7	10.7	29.0	41.6	18.0	11.4	29.0	59.6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0.6	11.4	34.4	46.6	6.9	12.1	34.4	53.5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1	8.5	28.9	55.7	5.8	9.6	28.9	61.5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5	9.5	30.5	55.4	4.0	10.0	30.5	59.4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7	8.2	28.1	57.2	5.9	8.8	28.1	63.1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1	6.7	26.5	62.3	4.3	6.9	26.5	66.6
	600만원 이상	(498)	0.6	7.2	20.7	55.0	16.5	7.8	20.7	71.5

## 2-1)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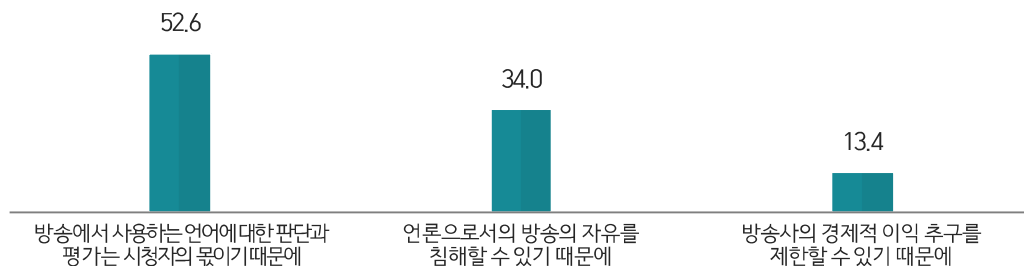
문24-1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시청자의 몫이기 때문에'(52.6%)임.
- ▶ 다음으로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34.0%), '방송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13.4%)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43 |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시청자의 몫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거주 지역이 제주(78.9%), 강원(61.4%),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61.0%),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3 |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시청자의 몫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체]		(1,863)	52.6	34.0	13.4
성별	남성	(977)	53.6	32.9	13.4
	여성	(886)	51.4	35.1	13.4
연령	20대	(351)	54.5	32.5	13.1
	30대	(353)	49.9	38.6	11.3
	40대	(392)	52.2	35.3	12.5
	50대	(425)	51.9	32.6	15.5
	60대	(343)	54.8	30.9	14.3
거주 지역	수도권	(803)	56.0	32.3	11.6
	강원	(51)	61.4	32.7	4.9
	충청권	(294)	50.9	34.8	14.3
	전라권	(152)	44.6	44.0	11.4
	경상권	(529)	48.1	34.1	17.8
	제주	(33)	78.9	21.1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7)	40.6	38.3	21.2
	중학교 졸업	(103)	57.1	30.5	12.4
	고등학교 졸업	(764)	51.3	35.1	13.6
	대학교 졸업	(950)	53.8	33.2	13.0
	대학원 재학 이상	(29)	39.0	40.5	20.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3)	39.9	44.1	15.9
	100만원~200만원 미만	(134)	50.3	36.9	12.8
	200만원~300만원 미만	(325)	49.3	34.7	16.0
	300만원~400만원 미만	(513)	49.6	34.9	15.4
	400만원~500만원 미만	(441)	56.3	33.1	10.5
	500만원~600만원 미만	(285)	61.0	27.3	11.8
	600만원 이상	(142)	46.9	40.7	12.5

※ 기타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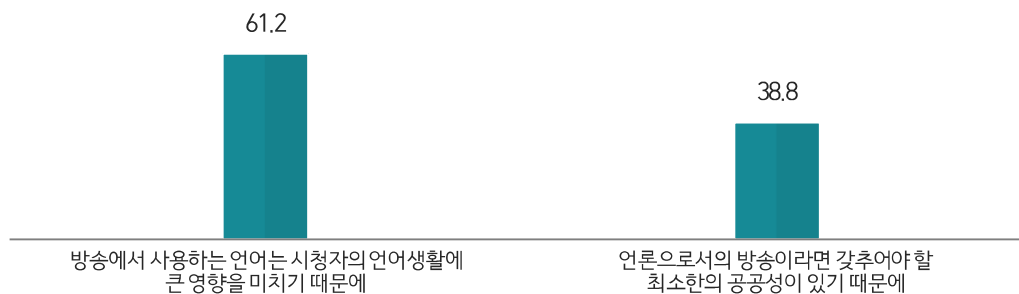
## 2-2)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문24-2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1.2%), '언론으로서의 방송이라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38.8%)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44 |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연령이 50대(62.5%), 거주 지역이 강원(79.8%),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8.1%),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68.2%)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4 |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방송이라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전 체]		(3,137)	61.2	38.8
성별	남성	(1,579)	61.8	38.2
	여성	(1,558)	60.7	39.3
연령	20대	(579)	61.4	38.6
	30대	(607)	60.4	39.6
	40대	(711)	62.3	37.7
	50대	(720)	62.5	37.5
	60대	(521)	58.8	41.2
거주 지역	수도권	(1,760)	58.0	42.0
	강원	(91)	79.8	20.2
	충청권	(245)	54.4	45.6
	전라권	(309)	70.8	29.2
	경상권	(704)	64.2	35.8
	제주	(29)	81.3	18.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	63.9	36.1
	중학교 졸업	(192)	56.3	43.7
	고등학교 졸업	(1,138)	61.5	38.5
	대학교 졸업	(1,712)	61.3	38.7
	대학원 재학 이상	(60)	68.1	31.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4)	60.6	39.4
	100만원~200만원 미만	(154)	59.6	40.4
	200만원~300만원 미만	(519)	63.1	36.9
	300만원~400만원 미만	(751)	59.3	40.7
	400만원~500만원 미만	(754)	60.0	40.0
	500만원~600만원 미만	(568)	60.0	40.0
	600만원 이상	(356)	68.2	31.8

### 3) 인터넷 언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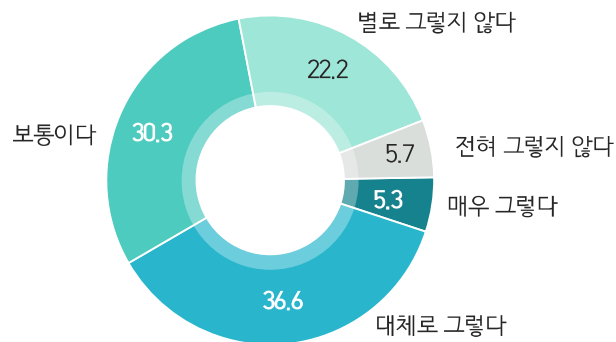
문25

귀하는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새롭게 통용되는 이른바 '인터넷 언어'를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새롭게 통용되는 '인터넷 언어'를 잘 아는 편(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41.9%)임.
- ▶ 반면에, 국민의 27.8%는 인터넷 언어를 잘 모른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45 | 인터넷 언어 인지도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9대(70.9%), 거주 지역이 수도권(43.8%),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51.5%),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51.2%)인 집단에서 인터넷 언어를 '잘 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5 | 인터넷 언어 인지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5.7	22.2	30.3	36.6	5.3	27.8	30.3	41.9
성별	남성	(2,556)	5.3	22.9	30.4	36.3	5.2	28.1	30.4	41.5
	여성	(2,444)	6.1	21.4	30.2	36.8	5.5	27.5	30.2	42.3
연령	20대	(929)	0.4	5.6	23.1	54.5	16.4	6.0	23.1	70.9
	30대	(960)	0.3	12.4	34.2	46.5	6.6	12.7	34.2	53.1
	40대	(1,103)	1.4	25.1	38.7	32.7	2.1	26.5	38.7	34.8
	50대	(1,145)	6.6	34.6	30.8	26.5	1.5	41.2	30.8	28.0
	60대	(863)	21.3	30.7	22.3	24.4	1.2	52.1	22.3	25.7
	70대	(290)	10.0	25.5	20.0	24.5	2.0	48.0	22.5	25.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6.2	22.9	27.0	37.8	6.1	29.1	27.0	43.8
	강원	(142)	5.6	26.6	38.6	27.6	1.5	32.3	38.6	29.1
	충청권	(539)	5.1	20.1	34.8	31.2	8.7	25.3	34.8	40.0
	전라권	(461)	2.3	22.2	33.2	40.4	1.9	24.5	33.2	42.3
	경상권	(1,233)	5.9	20.6	33.1	37.0	3.4	26.5	33.1	40.4
	제주	(62)	7.8	29.8	28.6	15.0	18.8	37.6	28.6	33.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31.4	39.4	11.2	18.0	0.0	70.8	11.2	18.0
	중학교 졸업	(295)	27.2	27.5	23.9	21.0	0.4	54.7	23.9	21.4
	고등학교 졸업	(1,902)	7.9	30.9	29.1	29.5	2.6	38.8	29.1	32.1
	대학교 졸업	(2,662)	1.3	15.2	32.0	43.6	7.9	16.5	32.0	51.5
	대학원 재학 이상	(89)	1.1	16.5	36.4	39.0	7.0	17.6	36.4	46.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22.8	15.1	18.1	24.4	19.6	37.9	18.1	44.0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8.8	28.2	21.2	29.0	2.9	47.0	21.2	31.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7.8	23.1	30.8	33.8	4.5	30.9	30.8	38.3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8	24.5	31.0	35.3	4.3	29.4	31.0	39.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3	23.0	33.1	34.6	5.1	27.3	33.1	39.7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0	17.3	28.4	45.3	5.9	20.4	28.4	51.2
	600만원 이상	(498)	2.4	18.2	30.7	39.9	8.8	20.6	30.7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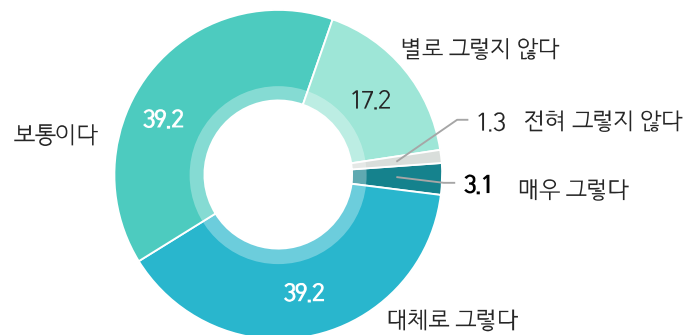
### 3-1) 인터넷 언어 사용 빈도

문25-1 귀하는 평소 '인터넷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인터넷 언어에 대해 잘 아는 편이거나 보통인 국민들 중 42.3%는 평소 인터넷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42.3%)이라고 응답함.
- ▶ 반면, 평소 인터넷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편'(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5%에 그쳤음.

| 그림 3-46 | 인터넷 언어 사용빈도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63.7%), 30대(47.2%),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53.6%),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46.8%), 거주 지역이 전라권(46.3%)인 집단에서 평소 인터넷 언어 '자주 사용'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6 | 인터넷 언어 사용빈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3,609)	1.3	17.2	39.2	39.2	3.1	18.5	39.2	42.3
성별	남성	(1,837)	1.3	16.1	38.7	40.6	3.3	17.4	38.7	43.9
	여성	(1,772)	1.3	18.4	39.7	37.8	2.8	19.7	39.7	40.7
연령	20대	(873)	0.2	5.0	31.1	55.8	7.9	5.2	31.1	63.7
	30대	(837)	0.3	13.0	39.6	43.5	3.7	13.2	39.6	47.2
	40대	(811)	0.1	21.4	49.6	28.4	0.5	21.5	49.6	28.9
	50대	(673)	2.7	26.5	40.7	29.0	1.1	29.3	40.7	30.1
	60대	(414)	5.4	28.4	32.8	33.3	0.2	33.8	32.8	33.4
	70대	(308)	1.3	21.1	34.4	33.2	0.0	30.4	34.4	34.1
거주 지역	수도권	(1,816)	1.4	17.3	39.0	39.5	2.8	18.6	39.0	42.4
	강원	(96)	4.4	11.5	49.7	33.1	1.4	15.9	49.7	34.5
	충청권	(403)	0.8	20.6	43.8	31.3	3.5	21.4	43.8	34.9
	전라권	(348)	0.4	14.6	38.7	45.2	1.0	15.0	38.7	46.3
	경상권	(907)	1.2	16.9	36.9	41.3	3.7	18.2	36.9	45.0
	제주	(39)	3.9	23.3	34.5	17.5	20.7	27.3	34.5	38.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5)	11.8	32.6	32.3	23.3	0.0	44.4	32.3	23.3
	중학교 졸업	(134)	7.3	28.0	35.2	29.0	0.5	35.3	35.2	29.5
	고등학교 졸업	(1,163)	2.2	22.6	39.5	33.9	1.8	24.8	39.5	35.7
	대학교 졸업	(2,224)	0.4	13.2	39.6	43.0	3.8	13.6	39.6	46.8
	대학원 재학 이상	(73)	0.0	30.0	32.3	31.0	6.7	30.0	32.3	37.7
	무학	(85)	1.2	18.8	31.8	38.2	10.0	10.0	31.8	48.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6)	4.7	4.2	37.5	28.3	25.2	9.0	37.5	53.6
	100만원~200만원 미만	(153)	3.2	23.0	33.5	38.2	2.2	26.2	33.5	40.4
	200만원~300만원 미만	(584)	2.2	19.7	42.3	32.4	3.3	22.0	42.3	35.7
	300만원~400만원 미만	(893)	0.7	17.3	38.2	40.3	3.5	18.0	38.2	43.7
	400만원~500만원 미만	(869)	1.3	16.7	41.1	38.8	2.1	18.0	41.1	40.9
	500만원~600만원 미만	(680)	1.2	16.5	36.7	42.6	3.0	17.7	36.7	45.6
	600만원 이상	(395)	0.3	14.5	39.3	43.2	2.6	14.8	39.3	45.9
	미응답	(10)	0.0	0.0	0.0	0.0	0.0	0.0	0.0	0.0

#### 4)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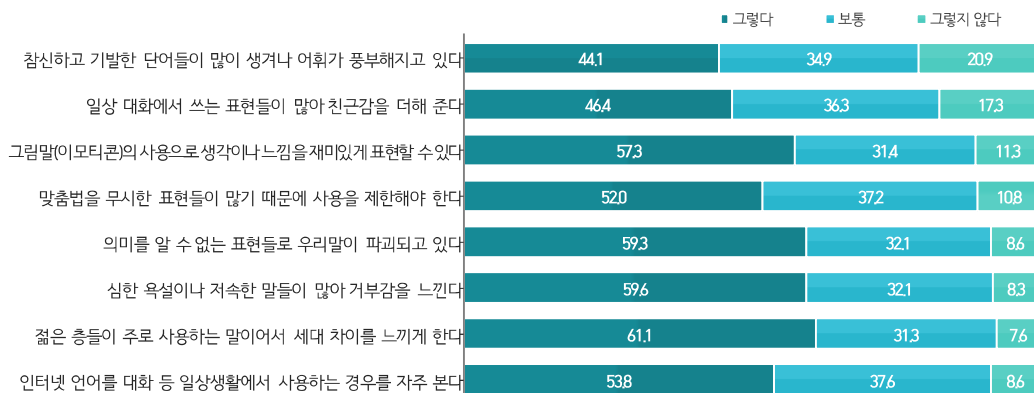
문26

귀하는 인터넷 언어에 대한 다음 평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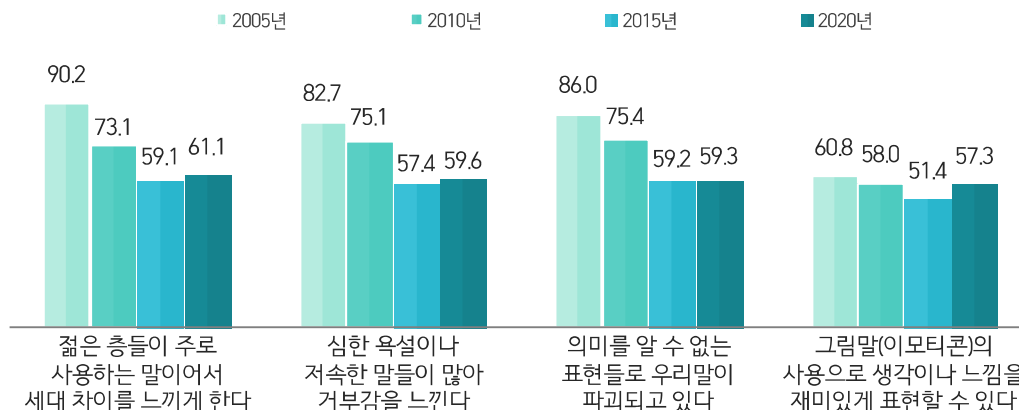
- ▶ 국민들은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로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어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61.1%)를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음.
- ▶ 다음으로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59.6%),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59.3%) 순으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2005년 이후 인터넷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어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 3-47 |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

(단위 : %)



(단위 : 그렇다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4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특성별 분석

- ▶ 인터넷 언어에 대해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어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라는 평가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이 60대(67.6%), 거주 지역이 제주(65.3%),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70.1%),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64.8%)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7 |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

(단위 : 그렁다 %)

구분		사례 수	어휘가 풍부해 지고 있다	친근함을 더해 준다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	거부감을 느낀다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전 체]		(5,000)	44.1	46.4	57.3	52.0	59.3	59.6	61.1	53.8
성별	남성	(2,556)	44.3	46.4	56.7	50.3	58.7	58.9	61.1	52.7
	여성	(2,444)	43.9	46.5	58.0	53.8	59.9	60.3	61.0	55.0
연령	20대	(929)	58.1	60.9	71.2	50.0	54.3	55.0	51.3	61.8
	30대	(960)	50.6	56.4	65.6	54.9	57.5	60.6	58.6	59.0
	40대	(1,103)	42.7	44.9	54.6	51.3	61.7	60.6	62.1	51.1
	50대	(1,145)	37.0	39.6	51.3	51.7	59.2	61.1	65.2	50.2
	60대	(863)	33.2	30.9	44.6	52.3	63.7	60.1	67.6	47.7
	70대	(1,010)	30.1	28.1	38.1	53.1	65.1	62.1	70.1	44.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3.4	45.5	58.0	53.3	62.0	60.8	63.6	53.0
	강원	(142)	36.9	24.6	55.5	56.4	60.4	57.1	56.3	50.1
	충청권	(539)	30.9	44.2	52.9	46.7	54.4	59.4	54.9	48.0
	전라권	(461)	50.0	48.9	55.1	49.5	56.2	57.4	58.2	54.9
	경상권	(1,233)	51.3	52.0	58.7	52.4	56.9	58.3	59.9	57.3
	제주	(62)	21.4	26.1	61.8	45.5	58.5	56.7	65.3	67.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9.8	16.8	31.1	40.3	60.9	48.9	59.7	40.6
	중학교 졸업	(295)	33.4	37.6	45.1	53.2	63.7	66.5	70.1	46.7
	고등학교 졸업	(1,902)	38.8	41.2	51.0	49.5	57.3	57.3	63.0	51.0
	대학교 졸업	(2,662)	49.5	51.6	63.5	53.7	59.8	60.3	58.9	56.5
	대학원 재학 이상	(89)	41.5	50.8	62.1	57.5	70.8	69.0	57.2	62.2
	무학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8.5	40.9	54.6	45.0	55.5	54.6	64.2	58.7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9.1	38.4	52.8	46.8	55.6	52.1	58.7	48.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2.4	45.3	54.4	46.6	54.6	55.7	61.2	52.9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4.6	47.0	55.6	52.8	59.5	59.4	59.4	55.5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5.1	48.4	57.9	56.2	61.0	63.3	64.8	54.4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5.4	48.3	61.1	50.4	59.8	58.3	59.8	52.8
	600만원 이상	(498)	45.2	44.5	61.6	55.7	64.7	64.9	59.4	53.9



## 7. 외국 문자 사용

### 1)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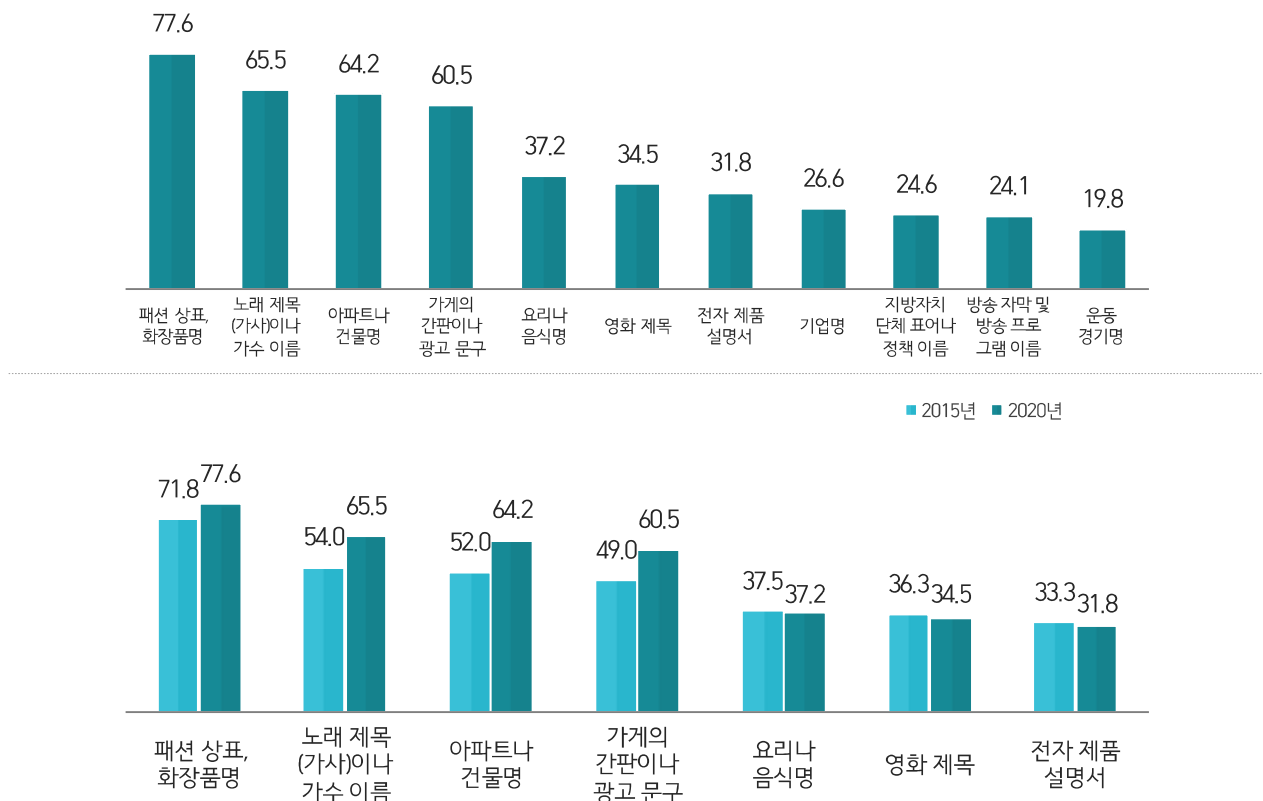
문27

최근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 외국어를 로마자 알파벳으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최근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 외국어를 로마자 알파벳으로만 표기하는 사례로 '패션 상표, 화장품명'(77.6%)을 가장 많이 꼽았음.
- ▶ 다음으로 '노래 제목(가사)이나 가수 이름'(65.5%), '아파트나 건물명'(64.2%), '가게의 간판이나 광고 문구'(60.5%) 순으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패션 상표, 화장품명', '노래 제목(가사)이나 가수 이름', '아파트나 건물명', '가게의 간판이나 광고 문구'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응답이 2015년 이후 소폭 증가함.

| 그림 3-48 |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

(단위 : 그렇다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7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특성별 분석

- ▶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로 '패션 상표, 화장품명'을 선택한 응답은 연령이 30대(80.6%), 거주 지역이 제주(90.8%),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87.6%),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이하(78.3%)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8 |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

(단위 : 그렇다 %)

구분		사례 수	패션 상표, 화장 품명	노래 제목 이나 가수 이름	아파트 나 건물명	가게의 간판 이나 광고 문구	요리나 음식명	영화 제목	전자 제품의 설명서	기업명	지방 자치 단체 표어나 정책 이름	방송 자막 및 방송 프로 그램 이름	운동 경기명
[전 체]		(5,000)	77.6	65.5	64.2	60.5	37.2	34.5	31.8	26.6	24.6	24.1	19.8
성별	남성	(2,556)	76.4	65.6	63.3	60.6	36.9	34.9	32.2	25.8	25.1	24.0	21.1
	여성	(2,444)	78.8	65.5	65.1	60.4	37.6	34.1	31.4	27.4	24.1	24.2	18.5
연령	20대	(929)	79.8	70.7	60.1	59.1	37.5	40.1	31.9	27.8	21.9	27.7	20.6
	30대	(960)	80.6	68.8	65.2	61.8	40.0	33.1	30.8	26.0	23.2	23.9	20.7
	40대	(1,103)	78.2	64.5	63.6	61.6	38.7	35.0	32.6	26.1	27.1	23.1	17.4
	50대	(1,145)	74.7	62.9	64.9	59.4	35.6	33.2	31.5	26.9	25.9	22.6	20.9
	60대	(863)	74.9	61.2	67.1	60.8	34.1	30.9	32.3	26.1	24.2	23.6	19.6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81.8	70.6	67.5	63.9	37.0	32.3	30.4	31.3	27.1	26.0	17.5
	강원	(142)	87.5	62.6	71.7	76.4	48.3	54.6	45.1	49.1	38.6	38.7	39.0
	충청권	(539)	67.0	52.9	51.4	50.3	30.0	36.5	37.9	24.9	28.1	24.7	20.5
	전라권	(461)	70.0	60.9	62.6	58.2	33.9	23.9	28.2	15.9	20.1	19.5	15.3
	경상권	(1,233)	74.5	62.9	62.4	56.5	40.2	39.3	31.4	18.8	18.8	19.9	23.2
	제주	(62)	90.8	60.3	66.0	68.8	47.4	42.2	41.1	27.4	8.1	23.9	33.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87.6	56.8	67.3	70.8	43.6	44.2	32.0	29.1	15.9	25.3	15.8
	중학교 졸업	(295)	78.9	70.9	69.7	68.1	32.6	34.4	31.8	25.0	22.8	23.8	15.9
	고등학교 졸업	(1,902)	75.3	61.8	64.2	58.5	34.5	31.9	29.9	24.9	23.5	21.5	18.4
	대학교 졸업	(2,662)	79.0	68.2	63.6	61.2	39.1	36.2	33.2	27.6	25.9	25.9	21.2
	대학원 재학 이상	(89)	73.6	53.2	58.6	50.9	49.6	33.1	30.0	35.7	21.4	24.7	21.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69.0	53.8	53.7	67.5	32.9	35.7	37.6	33.5	15.5	13.8	16.4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78.3	67.6	69.0	62.5	28.7	27.4	25.4	25.0	20.6	15.9	15.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77.9	62.2	66.8	58.5	36.2	31.9	32.1	26.4	19.4	19.6	20.3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77.7	65.7	66.8	63.4	36.9	34.4	30.1	24.4	23.7	24.8	2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78.0	64.9	62.9	59.8	36.5	36.0	34.6	27.1	26.2	24.1	19.7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76.5	67.0	59.8	57.6	39.3	40.1	33.5	23.1	25.9	28.6	20.0
	600만원 이상	(498)	78.0	69.9	62.1	61.5	43.4	29.8	29.2	37.4	33.3	28.1	21.4

※ 기타 응답 제외

## 2)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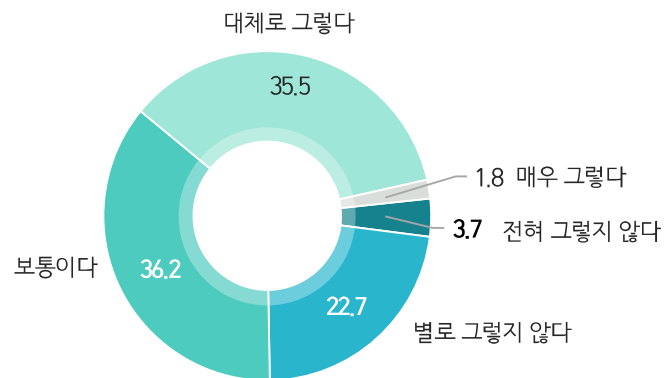
문28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 ▶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경험이 '있는'(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국민은 37.4%이며, 경험이 '없는'(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국민은 26.4%임.

| 그림 3-49 |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60대(53.1%), 거주 지역이 전라권(47.0%),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61.9%),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44.3%)인 집단에서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49 |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3.7	22.7	36.2	35.5	1.8	26.4	36.2	37.4
성별	남성	(2,556)	3.7	22.8	35.5	36.1	1.9	26.6	35.5	38.0
	여성	(2,444)	3.7	22.6	36.9	35.0	1.8	26.3	36.9	36.8
연령	20대	(929)	7.0	31.9	30.7	29.3	1.0	38.9	30.7	30.3
	30대	(960)	5.1	27.9	37.9	28.8	0.3	33.0	37.9	29.1
	40대	(1,103)	3.5	24.1	40.7	31.1	0.7	27.5	40.7	31.8
	50대	(1,145)	1.5	17.3	37.7	41.7	1.8	18.7	37.7	43.6
	60대	(863)	1.9	12.6	32.4	47.2	5.9	14.5	32.4	53.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5.3	24.6	34.1	34.4	1.6	30.0	34.1	36.0
	강원	(142)	4.0	20.4	35.4	39.3	0.8	24.5	35.4	40.1
	충청권	(539)	1.5	16.0	50.5	29.3	2.6	17.5	50.5	32.0
	전라권	(461)	0.1	20.9	31.9	46.4	0.6	21.1	31.9	47.0
	경상권	(1,233)	2.2	22.2	36.2	37.0	2.4	24.4	36.2	39.4
	제주	(62)	10.9	31.5	33.8	19.4	4.5	42.4	33.8	23.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12.4	25.7	52.6	9.3	12.4	25.7	61.9
	중학교 졸업	(295)	1.9	12.9	29.1	49.7	6.4	14.9	29.1	56.1
	고등학교 졸업	(1,902)	1.3	17.6	38.4	40.5	2.2	18.9	38.4	42.6
	대학교 졸업	(2,662)	5.5	27.2	35.5	30.8	1.0	32.7	35.5	31.8
	대학원 재학 이상	(89)	7.5	38.2	38.3	14.8	1.2	45.7	38.3	16.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1.9	32.1	23.6	28.9	3.6	43.9	23.6	32.5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2.3	23.8	29.5	37.7	6.7	26.2	29.5	44.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2.1	17.3	40.3	37.7	2.6	19.4	40.3	40.3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2.7	20.6	39.8	35.6	1.3	23.3	39.8	36.9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3.5	25.0	37.4	33.6	0.5	28.5	37.4	34.1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3	25.3	32.9	36.1	1.5	29.6	32.9	37.6
	600만원 이상	(498)	8.3	25.8	28.1	35.1	2.8	34.1	28.1	37.9

### 3)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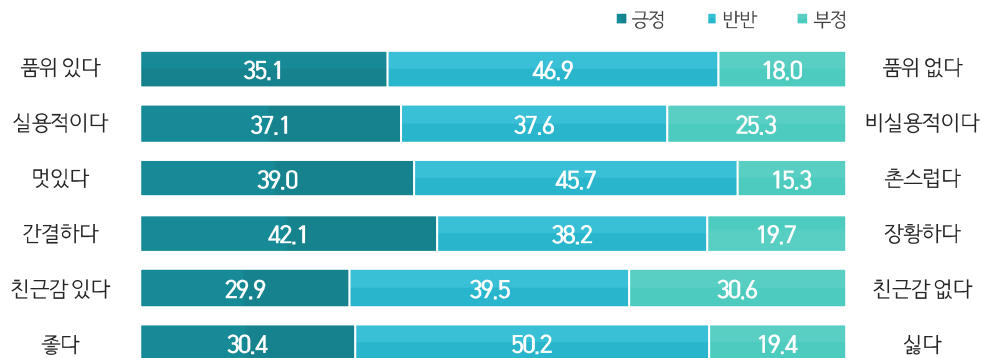
문29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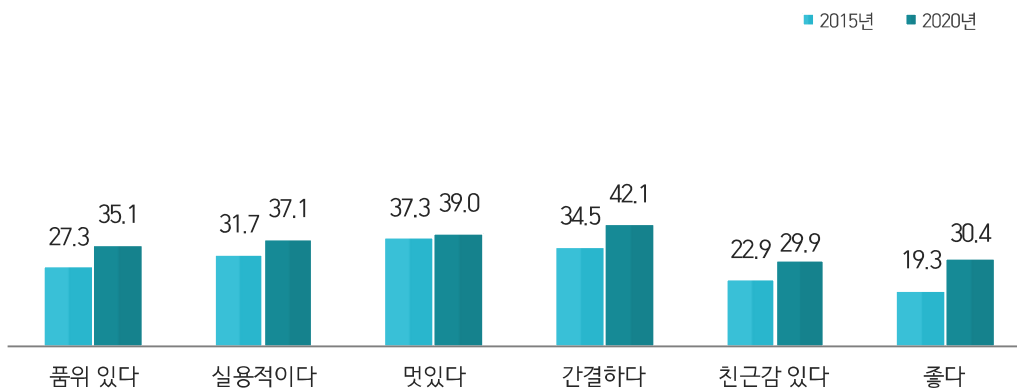
- ▶ 국민들이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으로는 '간결하다' (42.1%)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멋있다'(39.0%), '실용적이다'(37.1%), '품위 있다'(35.1%) 등의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2015년 이후 소폭 증가함.

| 그림 3-50 |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

(단위 : %)



(단위 : 긍정 %)



## 특성별 분석

- ▶ 한글 표기 없는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으로 '간결하다'는 응답은 연령이 20대(50.5%), 거주 지역이 경상권(45.5%),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44.3%),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46.1%)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50 |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1)

(단위 : %)

구분		사례 수	(1) 품위			(2) 실용			(3) 멋		
			품위 없다	반반	품위 있다	비실용적	반반	실용적	촌스러움	반반	멋있음
[전 체]		(5,000)	18.0	46.9	35.1	25.3	37.6	37.1	15.3	45.7	39.0
성별	남성	(2,556)	17.0	47.9	35.1	25.8	36.7	37.4	15.5	45.6	38.9
	여성	(2,444)	19.0	45.9	35.0	24.8	38.5	36.7	15.2	45.8	39.1
연령	20대	(929)	13.1	45.1	41.9	18.5	38.3	43.2	14.5	41.7	43.8
	30대	(960)	15.9	46.7	37.4	20.2	36.4	43.4	14.5	43.4	42.1
	40대	(1,103)	15.2	50.3	34.5	23.2	38.4	38.4	14.9	45.8	39.3
	50대	(1,145)	20.3	48.2	31.4	28.1	38.3	33.6	15.0	50.4	34.6
	60대	(863)	25.9	43.3	30.8	37.4	36.3	26.3	18.1	46.2	35.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20.1	48.0	31.9	28.3	36.5	35.2	15.0	47.6	37.4
	강원	(142)	10.5	56.4	33.1	36.2	51.5	12.4	17.4	59.6	22.9
	충청권	(539)	20.7	52.6	26.7	29.5	40.1	30.4	20.7	44.2	35.1
	전라권	(461)	20.1	38.2	41.7	21.7	32.4	45.9	18.6	33.2	48.2
	경상권	(1,233)	12.5	43.7	43.8	17.5	38.4	44.1	12.4	44.0	43.6
	제주	(62)	17.2	61.0	21.8	21.2	54.8	24.0	10.3	74.3	15.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6.8	60.6	12.6	43.7	39.7	16.6	29.9	53.3	16.8
	중학교 졸업	(295)	30.2	47.7	22.2	43.2	35.3	21.5	17.7	51.1	31.2
	고등학교 졸업	(1,902)	19.4	47.6	33.0	26.3	38.7	35.0	15.3	47.0	37.7
	대학교 졸업	(2,662)	15.8	45.7	38.5	22.7	36.6	40.7	15.0	43.8	41.2
	대학원 재학 이상	(89)	8.6	60.4	31.0	13.6	50.0	36.5	8.5	51.3	40.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6.1	64.5	19.4	26.8	44.8	28.4	18.6	55.4	26.0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0.2	45.0	24.9	37.9	37.2	24.9	22.0	46.9	31.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21.0	50.8	28.2	24.7	42.3	33.0	18.0	46.4	35.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7.9	48.0	34.2	26.1	36.1	37.8	15.1	45.1	39.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6.8	46.3	36.9	21.3	37.1	41.6	14.2	45.0	40.8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4.7	45.7	39.6	25.1	36.7	38.1	13.5	46.1	40.4
	600만원 이상	(498)	14.7	40.7	44.6	26.8	35.7	37.5	13.3	45.0	41.7

| 표 3-50 |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2)

(단위 : %)

구분		사례 수	(4) 간결			(5) 친근			(6) 선호		
			장황함	반반	간결함	친근감 없음	반반	친근감 있음	싫음	반반	좋음
[전 체]		(5,000)	19.7	38.2	42.1	30.6	39.5	29.9	19.4	50.2	30.4
성별	남성	(2,556)	19.9	39.0	41.1	30.8	38.1	31.1	19.5	49.4	31.1
	여성	(2,444)	19.4	37.4	43.2	30.5	40.9	28.6	19.2	51.0	29.8
연령	20대	(929)	13.8	35.7	50.5	21.0	40.9	38.1	11.1	50.2	38.7
	30대	(960)	18.3	37.2	44.5	25.1	40.2	34.7	13.1	51.8	35.1
	40대	(1,103)	18.6	40.4	41.0	29.8	43.9	26.3	16.1	55.1	28.8
	50대	(1,145)	21.2	39.0	39.7	35.7	37.5	26.8	24.6	50.0	25.4
	60대	(863)	26.7	38.2	35.2	41.5	34.2	24.3	32.5	42.4	25.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20.8	36.1	43.1	37.2	36.4	26.3	21.9	51.8	26.3
	강원	(142)	18.6	58.5	23.0	28.0	56.4	15.6	19.6	58.9	21.5
	충청권	(539)	22.1	44.2	33.8	25.7	45.8	28.5	20.5	52.5	27.0
	전라권	(461)	24.0	31.7	44.3	21.1	38.8	40.1	16.8	44.0	39.1
	경상권	(1,233)	15.1	39.4	45.5	23.0	40.7	36.3	14.3	46.6	39.0
	제주	(62)	10.6	50.0	39.4	31.4	51.8	16.7	23.8	60.0	16.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32.3	45.8	21.9	49.4	37.0	13.6	36.3	47.2	16.5
	중학교 졸업	(295)	30.5	38.4	31.1	53.2	27.7	19.0	40.4	40.7	18.8
	고등학교 졸업	(1,902)	19.9	38.4	41.7	32.2	41.2	26.6	21.1	51.5	27.4
	대학교 졸업	(2,662)	18.2	37.5	44.3	26.9	39.3	33.8	15.6	50.5	33.9
	대학원 재학 이상	(89)	13.4	50.1	36.5	23.4	47.4	29.2	15.7	46.8	37.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9.5	38.0	42.5	25.0	40.8	34.2	27.5	42.1	30.4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0.9	36.6	32.5	37.8	41.8	20.4	33.5	45.7	20.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22.4	37.1	40.5	31.2	38.7	30.2	22.0	49.6	28.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9.5	39.1	41.3	28.2	38.2	33.6	21.0	47.9	31.1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8.5	39.1	42.3	30.3	42.4	27.4	16.5	54.5	29.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7.2	36.7	46.1	30.3	38.9	30.9	15.3	51.9	32.8
	600만원 이상	(498)	15.8	39.1	45.2	34.0	36.8	29.2	15.6	47.1	37.3

#### 4)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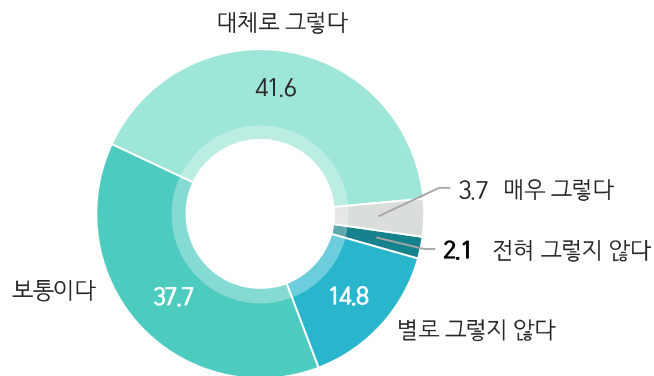
문30

귀하는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국민들은 45.3%이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국민은 17.0%임.

| 그림 3-51 |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60대(56.3%), 거주 지역이 강원(55.3%),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56.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50.5%)인 집단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51 |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2.1	14.8	37.7	41.6	3.7	17.0	37.7	45.3
성별	남성	(2,556)	2.3	14.4	38.0	41.9	3.5	16.6	38.0	45.4
	여성	(2,444)	2.0	15.3	37.5	41.3	3.9	17.3	37.5	45.1
연령	20대	(929)	4.4	21.2	37.3	35.2	1.9	25.6	37.3	37.1
	30대	(960)	2.6	19.1	37.1	39.1	2.0	21.7	37.1	41.2
	40대	(1,103)	2.5	15.4	40.6	38.5	2.9	17.9	40.6	41.4
	50대	(1,145)	0.8	10.9	37.6	46.7	4.0	11.7	37.6	50.7
	60대	(863)	0.5	7.8	35.4	48.3	8.0	8.3	35.4	56.3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3	18.4	33.9	40.4	4.0	21.7	33.9	44.4
	강원	(142)	0.0	2.6	42.2	51.3	3.9	2.6	42.2	55.3
	충청권	(539)	1.0	10.1	48.0	35.2	5.7	11.1	48.0	41.0
	전라권	(461)	0.3	11.0	35.2	51.7	1.8	11.3	35.2	53.5
	경상권	(1,233)	0.8	12.4	42.0	42.3	2.5	13.2	42.0	44.8
	제주	(62)	9.3	15.6	32.6	33.4	9.0	24.9	32.6	42.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6.5	46.1	41.5	5.9	6.5	46.1	47.4
	중학교 졸업	(295)	0.7	7.9	34.8	48.1	8.5	8.5	34.8	56.7
	고등학교 졸업	(1,902)	0.8	11.8	38.6	44.6	4.3	12.6	38.6	48.9
	대학교 졸업	(2,662)	3.3	17.7	37.2	39.2	2.7	21.0	37.2	41.8
	대학원 재학 이상	(89)	3.7	23.1	40.6	28.8	3.8	26.9	40.6	32.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8.5	6.3	34.7	40.7	9.9	14.8	34.7	50.5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2	13.9	35.7	42.2	7.0	15.1	35.7	49.2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0	11.3	40.0	44.2	3.4	12.3	40.0	47.7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5	14.8	40.0	40.1	3.6	16.3	40.0	43.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6	16.0	39.4	38.9	3.1	18.6	39.4	42.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2.5	15.4	34.5	44.0	3.5	18.0	34.5	47.5
	600만원 이상	(498)	3.8	18.7	31.3	43.0	3.2	22.5	31.3	46.2

#### 4-1)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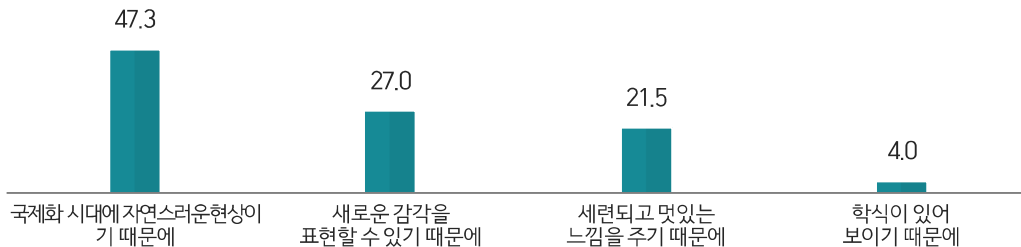
문30-1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47.3%)임.
- ▶ 다음으로 '새로운 감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27.0%), '세련되고 멋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21.5%)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52 |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국제화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연령이 40대(48.6%), 거주 지역이 강원(74.3%),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6.8%),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63.7%)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52 |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국제화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련되고 멋진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학식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전 체]		(2,736)	47.3	27.0	21.5	4.0
성별	남성	(1,395)	47.3	28.6	19.4	4.5
	여성	(1,341)	47.4	25.4	23.6	3.6
연령	20대	(584)	47.9	26.2	19.8	5.8
	30대	(565)	45.5	31.1	20.5	2.4
	40대	(646)	48.6	27.9	20.1	3.3
	50대	(564)	47.4	26.0	23.0	3.5
	60대	(378)	46.6	22.0	25.6	5.8
거주 지역	수도권	(1,424)	50.7	26.5	19.7	3.0
	강원	(63)	74.3	16.7	7.0	2.0
	충청권	(318)	36.9	31.5	25.2	5.7
	전라권	(215)	29.9	32.4	31.7	6.0
	경상권	(680)	46.8	25.6	22.6	5.0
	제주	(36)	73.3	18.6	3.4	2.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7)	51.3	18.4	20.5	9.9
	중학교 졸업	(128)	46.3	25.6	24.9	2.1
	고등학교 졸업	(973)	43.0	26.1	26.5	4.3
	대학교 졸업	(1,549)	49.2	28.3	18.5	3.8
	대학원 재학 이상	(60)	66.8	15.9	9.5	6.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8)	27.7	29.3	25.1	14.6
	100만원~200만원 미만	(147)	42.8	27.6	21.9	7.1
	200만원~300만원 미만	(442)	45.9	25.9	23.3	4.8
	300만원~400만원 미만	(711)	44.1	26.3	25.5	3.8
	400만원~500만원 미만	(693)	45.4	30.8	20.9	2.8
	500만원~600만원 미만	(448)	49.7	30.4	16.6	3.4
	600만원 이상	(268)	63.7	14.6	16.7	4.9

※ 기타 응답 제외

## 4-2)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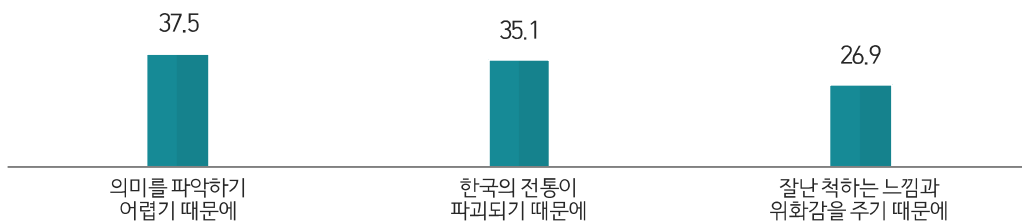
문30-2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37.5%)임.
- ▶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이 파괴되기 때문에'(35.1%), '잘난 척하는 느낌과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26.9%)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53 |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여성(41.5%), 연령이 60대(44.7%), 거주 지역이 강원(54.0%),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48.6%),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44.7%)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53 |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이 파괴되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느낌과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전 체]		(2,264)	37.5	35.1	26.9
성별	남성	(1,160)	33.6	37.3	28.3
	여성	(1,103)	41.5	32.7	25.4
연령	20대	(345)	30.4	34.4	34.0
	30대	(395)	32.0	38.1	29.0
	40대	(457)	34.8	36.5	28.6
	50대	(581)	41.5	32.5	25.4
	60대	(486)	44.7	34.9	20.3
거주 지역	수도권	(1,139)	36.6	37.5	24.8
	강원	(78)	54.0	32.7	12.5
	충청권	(221)	43.1	38.8	18.1
	전라권	(247)	34.6	32.5	33.0
	경상권	(553)	34.7	30.2	35.0
	제주	(26)	62.4	32.8	3.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5)	46.7	15.5	37.8
	중학교 졸업	(167)	48.6	27.5	23.9
	고등학교 졸업	(929)	42.2	34.9	22.6
	대학교 졸업	(1,114)	31.9	36.6	30.8
	대학원 재학 이상	(29)	25.7	44.7	22.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9)	59.8	30.9	9.3
	100만원~200만원 미만	(142)	44.7	23.1	32.2
	200만원~300만원 미만	(403)	41.2	36.7	21.9
	300만원~400만원 미만	(553)	40.2	35.4	24.4
	400만원~500만원 미만	(502)	33.6	34.9	30.2
	500만원~600만원 미만	(406)	32.4	37.5	29.1
	600만원 이상	(230)	34.3	35.5	29.2

※ 기타 응답 제외

## 5) 기관 이름 표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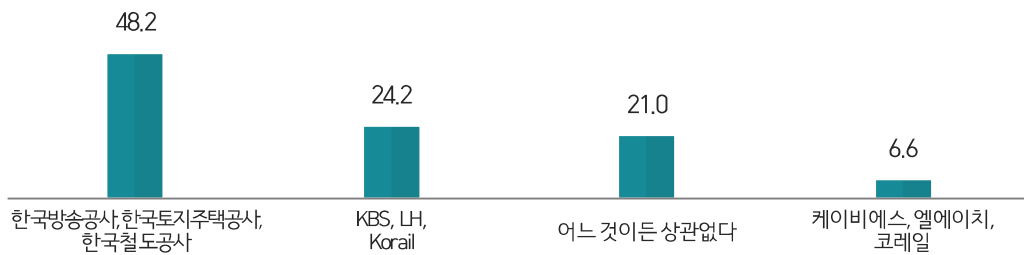
문31

귀하는 다음의 기관 이름 표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절반가량은 기관 이름 표기 방법을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48.2%)와 같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 ▶ 다음으로는 'KBS, LH, Korail'(24.2%),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21.0%) 순임.

| 그림 3-54 | 기관 이름 표기 방법

(단위 : %)



특성별 분석

- ▶ 기관 이름 표기 방법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연령이 60대(64.8%), 거주 지역이 강원(67.8%),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72.6%),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59.8%)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54 | 기관 이름 표기 방법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KBS, LH, Korail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케이비에스, 엘에이치, 코레일
[전 체]		(5,000)	48.2	24.2	21.0	6.6
성별	남성	(2,556)	48.1	24.8	20.2	6.8
	여성	(2,444)	48.3	23.5	21.9	6.4
연령	20대	(929)	35.8	33.0	24.2	7.1
	30대	(960)	41.2	28.6	23.9	6.3
	40대	(1,103)	44.8	26.9	21.0	7.3
	50대	(1,145)	54.8	20.2	19.6	5.4
	60대	(863)	64.8	11.4	16.5	7.3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5.6	30.7	18.0	5.6
	강원	(142)	67.8	7.2	24.5	0.5
	충청권	(539)	51.1	16.9	24.0	8.0
	전라권	(461)	49.4	18.6	21.1	10.9
	경상권	(1,233)	49.1	18.5	25.1	7.3
	제주	(62)	57.3	7.4	31.2	4.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48.5	18.9	22.1	10.4
	중학교 졸업	(295)	72.6	9.6	11.3	6.5
	고등학교 졸업	(1,902)	53.1	20.7	20.2	5.9
	대학교 졸업	(2,662)	42.3	28.2	22.5	7.0
	대학원 재학 이상	(89)	39.2	26.7	26.5	7.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0.6	18.2	22.9	8.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9.8	16.0	18.2	6.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52.0	17.7	22.2	8.1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8.5	21.8	23.1	6.5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7.2	28.0	19.3	5.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6.4	26.7	19.7	7.1
	600만원 이상	(498)	39.5	32.8	21.7	6.0

## 6) 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 표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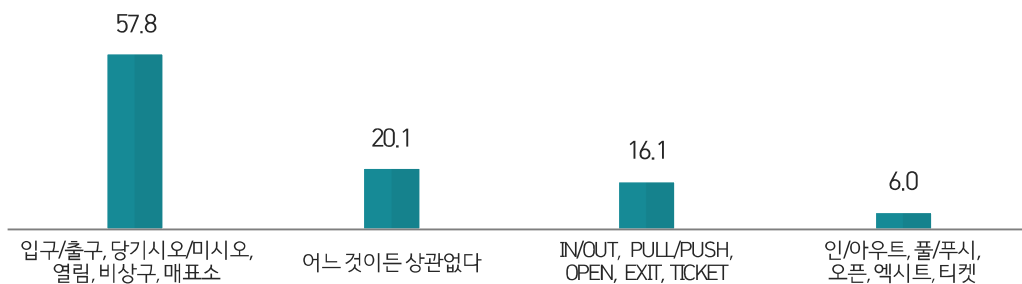
문32

귀하는 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 이용 시설에서의 안내 표지 표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과반수는 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 이용 시설에서의 안내 표지 표기 방법을 '입구/출구, 당기시오/미시오, 열림, 비상구, 매표소'(57.8%)와 같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함.
- ▶ 다음으로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20.1%), 'IN/OUT, PULL/PUSH, OPEN, EXIT, TICKET'(16.1%) 순임.

| 그림 3-55 | 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 표기 방법

(단위 : %)





특성별 분석

- ▶ 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 이용 시설에서의 안내 표지 표기 방법 중 '입구/출구, 당기시오/미시오, 열림, 비상구, 매표소'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연령이 60대(72.6%), 거주 지역이 강원(75.1%),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84.3%),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71.5%)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55 | 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 표기 방법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입구/출구, 당기시오/미시오, 열림, 비상구, 매표소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IN/OUT, PULL/PUSH, OPEN, EXIT, TICKET	인/아우트, 풀/푸시, 오픈, 엑시트, 티켓
[전 체]		(5,000)	57.8	20.1	16.1	6.0
성별	남성	(2,556)	57.1	20.2	16.4	6.3
	여성	(2,444)	58.5	20.0	15.8	5.7
연령	20대	(929)	44.6	24.7	24.5	6.2
	30대	(960)	51.5	21.5	20.8	6.2
	40대	(1,103)	53.1	22.5	18.0	6.4
	50대	(1,145)	67.0	17.7	10.2	5.1
	60대	(863)	72.6	13.9	7.3	6.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58.3	15.6	19.8	6.3
	강원	(142)	75.1	22.3	2.2	0.4
	충청권	(539)	56.7	24.9	11.6	6.9
	전라권	(461)	55.9	19.7	17.0	7.4
	경상권	(1,233)	55.2	27.2	12.4	5.2
	제주	(62)	70.2	23.7	4.0	2.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75.4	17.9	1.8	5.0
	중학교 졸업	(295)	84.3	9.1	2.4	4.2
	고등학교 졸업	(1,902)	63.4	19.0	11.5	6.0
	대학교 졸업	(2,662)	50.8	22.1	20.8	6.4
	대학원 재학 이상	(89)	45.8	24.2	28.7	1.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9.0	28.4	5.6	7.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71.5	17.0	7.6	3.9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62.6	20.5	11.3	5.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58.1	20.8	14.8	6.3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58.5	18.1	18.1	5.4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53.6	21.9	17.8	6.6
	600만원 이상	(498)	45.9	20.6	26.2	7.3

## 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1. 국어 능력

#### 1) 국어 능력 향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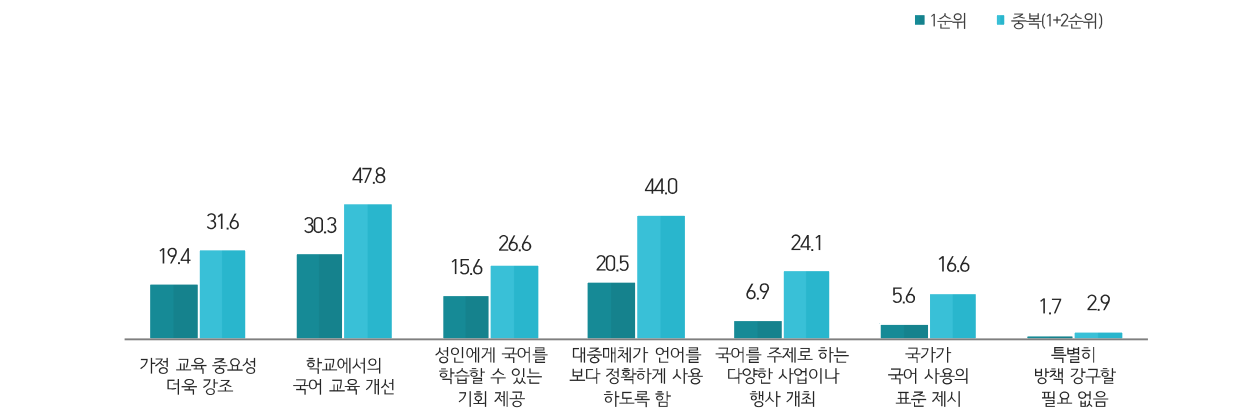
문33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개선'(47.8%)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 다음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44.0%),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31.6%) 순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기준)

| 그림 3-56 | 국어 능력 향상 방안

(단위 : %)



특성별 분석

-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개선' 의견은 연령이 30대(50.8%), 거주 지역이 강원(75.2%),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52.4%),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300만원 미만(54.4%)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56 | 국어 능력 향상 방안 (중복 응답)

(단위 : %)

구분		사례 수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	성인에게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을 제시한다	특별히 방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전 체]		(5,000)	31.6	47.8	26.6	44.0	24.1	16.6	2.9
성별	남성	(2,556)	31.8	48.6	26.9	43.0	24.1	16.0	3.0
	여성	(2,444)	31.4	47.0	26.3	45.2	24.1	17.1	2.8
연령	20대	(929)	31.1	49.3	25.3	44.3	24.3	15.9	3.4
	30대	(960)	31.7	50.8	26.7	41.8	24.2	17.0	2.5
	40대	(1,103)	30.4	49.0	26.6	45.5	24.3	13.8	4.3
	50대	(1,145)	31.5	44.0	29.0	43.7	25.2	18.5	1.8
	60대	(863)	33.7	46.3	24.7	44.8	22.0	17.8	2.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28.3	48.0	25.2	48.6	23.5	18.2	2.7
	강원	(142)	24.2	75.2	14.3	43.2	11.0	22.3	3.0
	충청권	(539)	42.0	44.7	28.1	37.4	23.3	14.1	3.7
	전라권	(461)	34.3	52.8	28.2	37.7	24.9	12.5	3.1
	경상권	(1,233)	32.7	43.0	30.5	40.3	27.5	15.4	2.8
	제주	(62)	52.5	62.0	10.2	35.4	13.4	10.1	4.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8.4	52.4	35.0	34.1	14.7	20.1	4.2
	중학교 졸업	(295)	27.2	45.8	27.9	47.7	24.1	19.9	1.4
	고등학교 졸업	(1,902)	32.9	48.4	28.3	42.9	22.6	15.2	3.2
	대학교 졸업	(2,662)	31.2	47.8	25.4	44.6	25.2	16.8	2.9
	대학원 재학 이상	(89)	34.1	38.2	18.4	44.3	28.8	26.3	2.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9.3	42.7	26.4	48.5	17.5	29.3	2.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0.7	50.3	23.2	47.1	19.2	19.7	2.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1.2	54.4	26.5	43.9	23.0	11.8	1.9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33.5	47.3	27.2	41.0	25.5	15.8	3.5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9.8	45.4	28.4	43.6	25.6	17.6	3.3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2.2	44.8	26.4	44.5	24.6	16.8	3.4
	600만원 이상	(498)	32.5	48.0	23.2	49.9	21.6	20.7	1.9

※ 기타 응답 제외

## 2. 국어 교육

### 1)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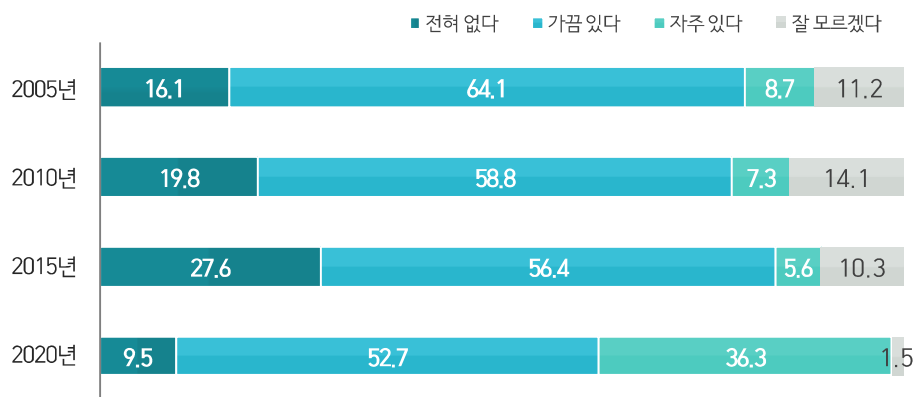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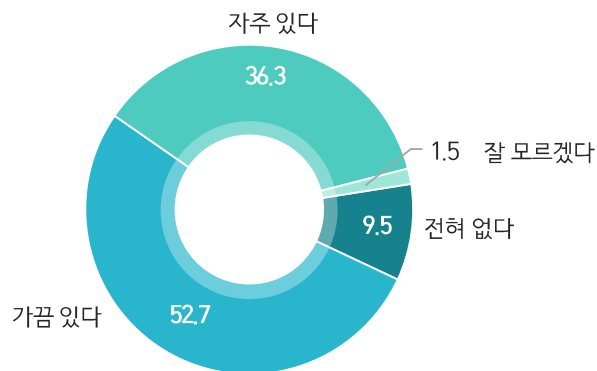
문34

귀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 ▶ 국민들의 89.0%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가끔 있다 + 자주 있다) 것으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우리 국민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자주 있다'는 의견이 2015년 이후 다소 큰 폭(+30.7%p)으로 증가함.

| 그림 3-57 |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60대(93.0%), 거주 지역이 전라권(95.8%),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98.5%),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94.3%)인 집단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57 |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잘 모르겠다	종합		
							없음	있음	잘 모름
[전 체]		(5,000)	9.5	52.7	36.3	1.5	9.5	89.0	1.5
성별	남성	(2,556)	9.5	54.0	35.1	1.4	9.5	89.1	1.4
	여성	(2,444)	9.5	51.3	37.6	1.6	9.5	88.9	1.6
연령	20대	(929)	14.5	54.2	29.4	1.8	14.5	83.6	1.8
	30대	(960)	12.9	53.4	32.4	1.3	12.9	85.8	1.3
	40대	(1,103)	8.1	57.7	32.3	1.9	8.1	89.9	1.9
	50대	(1,145)	6.9	50.9	41.2	0.9	6.9	92.1	0.9
	60대	(863)	5.4	46.0	47.0	1.6	5.4	93.0	1.6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11.7	52.5	34.9	0.8	11.7	87.4	0.8
	강원	(142)	14.9	52.8	29.8	2.6	14.9	82.6	2.6
	충청권	(539)	4.9	51.4	40.3	3.5	4.9	91.7	3.5
	전라권	(461)	4.0	54.1	41.7	0.3	4.0	95.8	0.3
	경상권	(1,233)	7.7	53.0	37.2	2.1	7.7	90.1	2.1
	제주	(62)	20.7	52.9	19.1	7.3	20.7	72.0	7.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40.1	58.4	1.5	0.0	98.5	1.5
	중학교 졸업	(295)	6.0	43.5	49.2	1.3	6.0	92.7	1.3
	고등학교 졸업	(1,902)	6.0	50.8	41.8	1.3	6.0	92.6	1.3
	대학교 졸업	(2,662)	12.0	55.1	31.2	1.7	12.0	86.3	1.7
	대학원 재학 이상	(89)	24.1	57.5	18.0	0.4	24.1	75.4	0.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4.4	54.8	34.8	5.9	4.4	89.6	5.9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7	51.8	42.4	2.0	3.7	94.3	2.0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7.2	51.6	40.2	1.0	7.2	91.8	1.0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7.8	54.5	36.1	1.6	7.8	90.6	1.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8.8	56.9	32.4	1.8	8.8	89.3	1.8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1.0	49.0	38.9	1.1	11.0	87.9	1.1
	600만원 이상	(498)	20.5	46.2	32.1	1.1	20.5	78.3	1.1

## 1-1) 문제가 되었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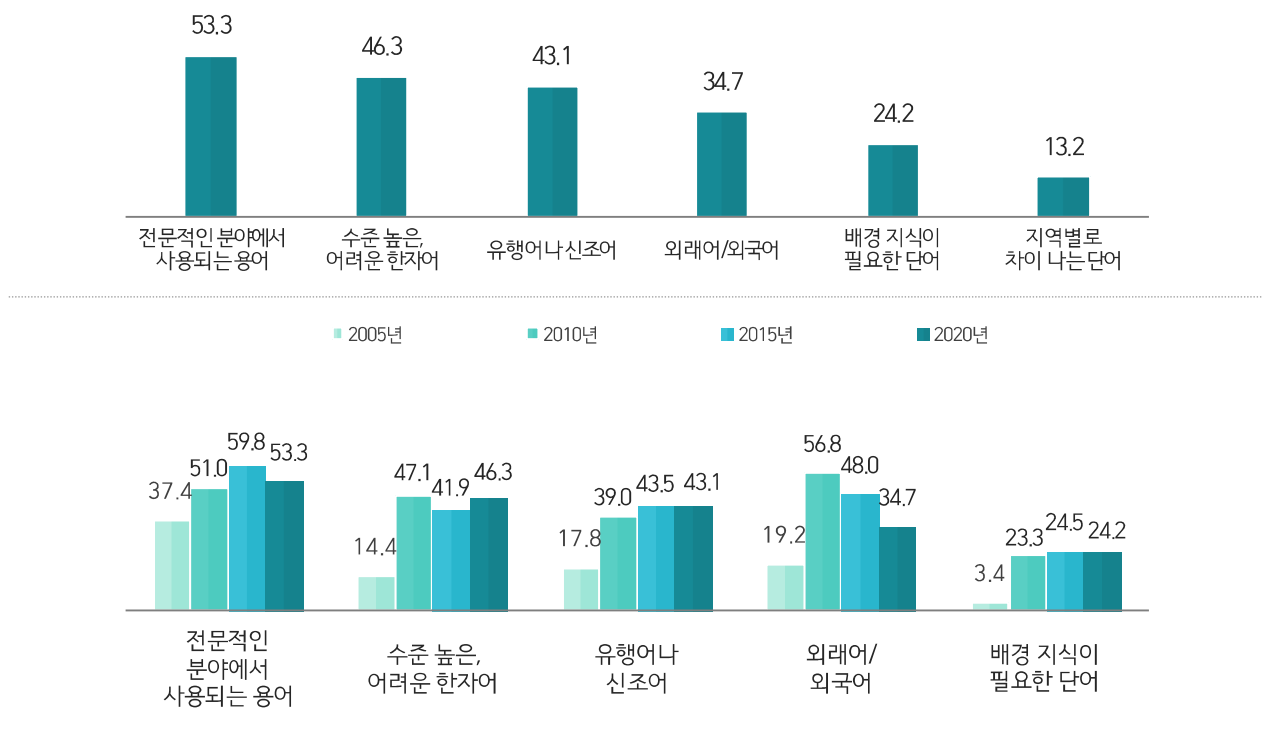
문34-1

그럼 주로 어떤 말들이 문제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말로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53.3%)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46.3%), '유행어나 신조어'(43.1%), '외래어/외국어'(34.7%)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또한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를 몰라 문제가 되었던 경험이 많았으며, '외래어/외국어'를 몰라 문제가 되었던 경험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58 | 문제가 되었던 말

(단위 :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5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함.

※ 2005년: 1개 선택, 2010년 중복 선택, 2015년 3개 선택, 2020년: 중복 선택으로 질문 방식이 달라 해석에 유의해야 함.

특성별 분석

-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말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응답은 연령이 20대(57.4%), 거주 지역이 수도권(56.5%),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55.9%),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59.1%)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58 | 문제가 되었던 말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	유행어나 신조어	외래어/ 외국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어	지역별로 차이 나는 단어
[전 체]		(4,450)	53.3	46.3	43.1	34.7	24.2	13.2
성별	남성	(2,276)	53.4	45.8	42.9	33.4	22.4	13.4
	여성	(2,173)	53.1	46.8	43.4	36.0	26.0	12.9
연령	20대	(777)	57.4	54.3	30.3	25.5	26.2	14.0
	30대	(823)	54.0	50.3	37.0	29.2	25.1	14.4
	40대	(992)	52.7	42.8	45.9	33.3	23.3	13.8
	50대	(1,055)	51.7	44.1	49.8	39.2	23.6	11.8
	60대	(803)	51.2	41.6	49.7	44.8	23.1	12.2
거주 지역	수도권	(2,241)	56.5	47.1	45.9	37.2	27.6	14.0
	강원	(117)	55.5	39.9	60.5	47.8	39.0	21.2
	충청권	(494)	49.9	43.2	39.6	27.5	17.2	14.5
	전라권	(442)	47.0	37.1	40.8	25.3	17.3	10.0
	경상권	(1,112)	50.8	51.1	38.4	34.8	21.8	11.5
최종 학력	제주	(45)	44.6	28.1	39.8	40.1	17.5	12.7
	초등학교 졸업 이하	(51)	41.8	38.4	52.2	55.4	38.0	13.9
	중학교 졸업	(274)	55.9	51.1	41.2	43.1	23.2	10.5
	고등학교 졸업	(1,761)	52.2	45.9	46.1	38.9	22.0	11.6
	대학교 졸업	(2,297)	54.0	46.2	41.0	30.2	25.4	14.7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재학 이상	(67)	54.2	46.7	39.0	26.2	31.0	14.4
	100만원 미만	(51)	54.0	39.0	50.2	29.7	33.8	16.0
	100만원~200만원 미만	(272)	46.9	46.3	47.6	45.4	24.2	10.1
	200만원~300만원 미만	(775)	51.9	45.5	42.0	34.8	24.3	13.6
	300만원~400만원 미만	(1,144)	50.0	47.6	40.8	33.8	22.5	12.6
	400만원~500만원 미만	(1,068)	59.1	42.9	44.2	34.0	24.1	13.4
	500만원~600만원 미만	(750)	55.1	49.9	42.2	35.2	24.5	12.8
	600만원 이상	(390)	50.2	47.3	47.3	30.7	27.0	16.1

※ 기타 응답 제외

## 1-2)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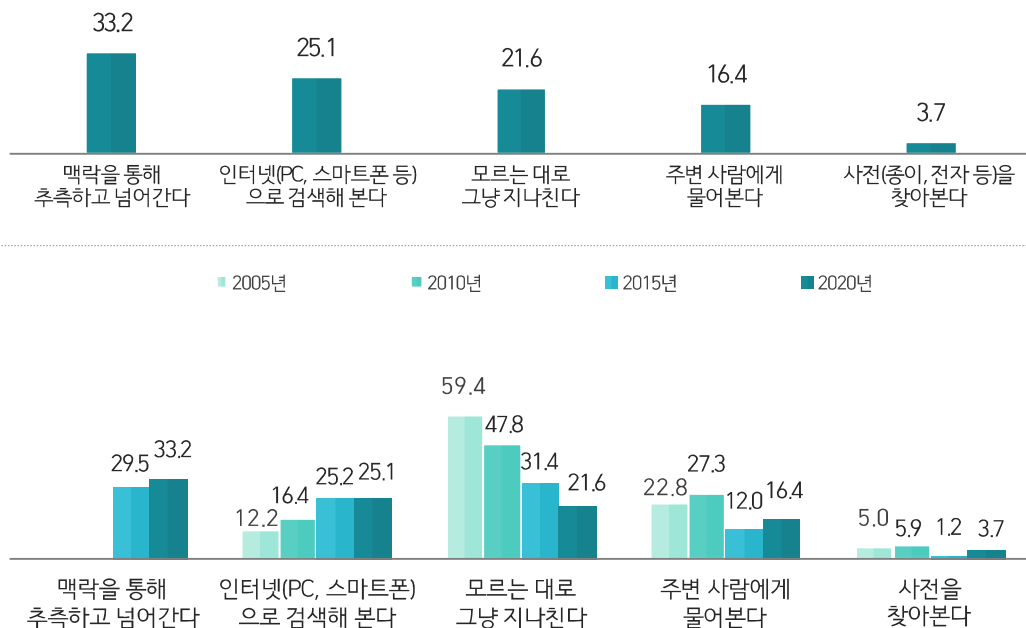
문34-2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주로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가는' (33.2%) 비율이 높았음.
- ▶ 다음으로 '인터넷(PC,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 본다'(25.1%),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 (21.6%)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음.

| 그림 3-59 |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행동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라는 의견은 연령이 50대(36.8%), 거주 지역이 전라권(38.5%),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34.9%),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36.1%)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59 |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행동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	인터넷(PC,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 본다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	사전(종이, 전자 등)을 찾아본다
[전 체]		(4,450)	33.2	25.1	21.6	16.4	3.7
성별	남성	(2,276)	33.6	25.5	22.9	13.8	4.3
	여성	(2,173)	32.9	24.6	20.4	19.1	3.1
연령	20대	(777)	29.2	38.7	17.3	10.7	4.2
	30대	(823)	32.3	36.8	14.8	11.2	4.8
	40대	(992)	35.3	28.8	18.3	14.4	3.1
	50대	(1,055)	36.8	16.4	22.3	21.2	3.3
	60대	(803)	30.7	6.6	36.0	23.3	3.4
	70대	(1,042)	28.1	1.2	47.5	21.8	1.3
거주 지역	수도권	(2,241)	34.9	26.4	18.5	16.5	3.6
	강원	(117)	22.1	37.7	27.4	9.7	3.2
	충청권	(494)	30.9	29.2	20.3	14.6	5.0
	전라권	(442)	38.5	16.6	25.6	16.2	3.2
	경상권	(1,112)	30.6	21.7	26.0	18.1	3.6
	제주	(45)	20.2	44.5	30.8	2.7	1.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1)	28.2	1.2	47.5	21.8	1.3
	중학교 졸업	(274)	29.5	2.8	42.9	20.2	4.5
	고등학교 졸업	(1,761)	34.9	16.7	24.4	21.8	2.3
	대학교 졸업	(2,297)	33.0	34.1	16.6	12.0	4.4
	대학원 재학 이상	(67)	18.3	44.6	15.8	5.9	15.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1)	18.9	25.6	23.4	21.5	10.6
	100만원~200만원 미만	(272)	36.1	10.4	33.5	18.1	1.9
	200만원~300만원 미만	(775)	30.6	21.3	27.4	17.2	3.5
	300만원~400만원 미만	(1,144)	33.6	23.9	22.3	17.0	3.1
	400만원~500만원 미만	(1,068)	35.4	25.2	18.3	17.6	3.6
	500만원~600만원 미만	(750)	33.3	28.3	18.5	15.3	4.6
	600만원 이상	(390)	31.2	39.7	14.7	9.8	4.7

### 1-3) 쉬운 말 사용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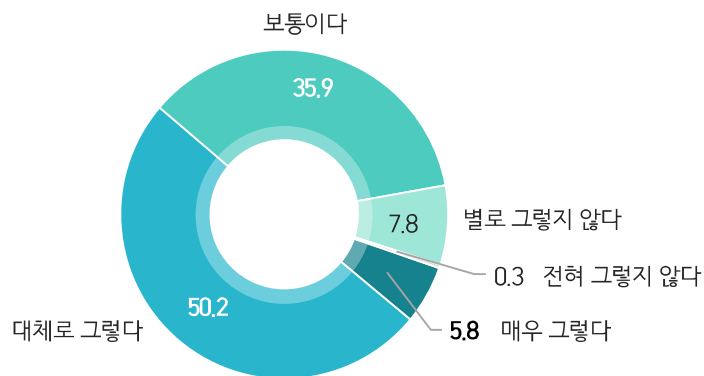
문34-3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말을 좀 더 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 국민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말을 좀 더 '쉽게 써야 한다'(56.0%)(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생각함.

| 그림 3-60 | 쉬운 말 사용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60대(60.6%), 거주 지역이 강원(71.1%),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76.9%),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62.2%)인 집단에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말을 좀 더 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60 | 쉬운 말 사용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4,450)	0.3	7.8	35.9	50.2	5.8	8.1	35.9	56.0
성별	남성	(2,276)	0.3	9.0	35.0	50.0	5.7	9.3	35.0	55.7
	여성	(2,173)	0.3	6.5	36.9	50.4	5.9	6.9	36.9	56.3
연령	20대	(777)	0.1	11.0	34.0	49.7	5.2	11.1	34.0	54.9
	30대	(823)	0.5	7.8	37.8	49.3	4.7	8.2	37.8	54.0
	40대	(992)	0.5	9.0	36.5	49.4	4.7	9.4	36.5	54.0
	50대	(1,055)	0.2	6.1	37.2	50.3	6.3	6.3	37.2	56.5
	60대	(803)	0.4	5.6	33.4	52.5	8.1	6.0	33.4	60.6
	70대	(1,002)	0.3	5.1	34.2	50.1	9.9	5.1	34.2	55.5
거주 지역	수도권	(2,241)	0.4	9.1	33.1	50.1	7.3	9.5	33.1	57.4
	강원	(117)	0.0	5.9	22.9	67.0	4.1	5.9	22.9	71.1
	충청권	(494)	0.5	9.6	51.3	34.2	4.5	10.1	51.3	38.7
	전라권	(442)	0.3	5.1	32.1	57.7	4.8	5.3	32.1	62.5
	경상권	(1,112)	0.2	5.7	37.7	52.8	3.6	5.9	37.7	56.5
	제주	(45)	0.0	5.4	36.4	47.3	10.9	5.4	36.4	58.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1)	0.0	9.1	14.0	63.8	13.0	9.1	14.0	76.9
	중학교 졸업	(274)	0.0	3.1	31.1	54.7	11.2	3.1	31.1	65.9
	고등학교 졸업	(1,761)	0.4	5.9	37.3	50.6	5.8	6.3	37.3	56.4
	대학교 졸업	(2,297)	0.4	9.8	35.8	49.4	4.7	10.2	35.8	54.0
	대학원 재학 이상	(67)	0.0	6.0	39.5	39.8	14.7	6.0	39.5	54.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1)	1.3	14.0	25.9	41.7	17.1	15.2	25.9	58.9
	100만원~200만원 미만	(272)	0.0	7.7	30.1	49.9	12.3	7.7	30.1	62.2
	200만원~300만원 미만	(775)	0.0	5.9	35.2	51.8	7.1	5.9	35.2	58.9
	300만원~400만원 미만	(1,144)	0.3	7.0	37.6	50.4	4.7	7.3	37.6	55.1
	400만원~500만원 미만	(1,068)	0.7	8.2	37.7	48.0	5.5	8.9	37.7	53.5
	500만원~600만원 미만	(750)	0.5	8.6	34.8	52.8	3.3	9.1	34.8	56.2
	600만원 이상	(390)	0.0	10.6	35.3	48.5	5.6	10.6	35.3	54.1

## 2)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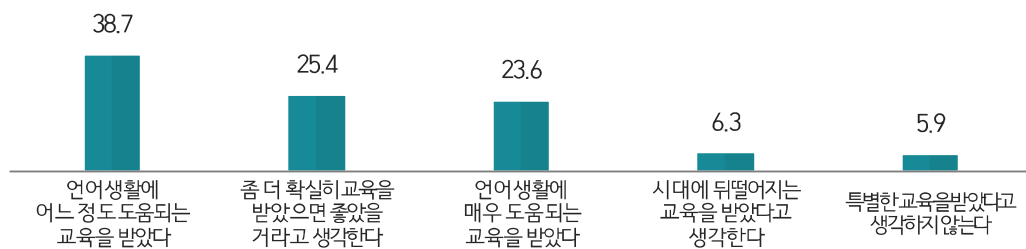
문35

귀하는 자신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국민들은 본인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38.7%)고 생각함.
- ▶ 다음으로는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25.4%),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23.6%) 순임.

| 그림 3-61 |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

(단위 : %)



특성별 분석

- ▶ 본인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의견은 연령이 40대(40.4%), 거주 지역이 강원(50.6%),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43.9%),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400만원 미만(41.6%)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61 |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 체]		(5,000)	38.7	25.4	23.6	6.3	5.9
성별	남성	(2,556)	40.9	24.4	23.4	5.6	5.7
	여성	(2,444)	36.4	26.5	23.8	7.1	6.2
연령	20대	(929)	40.2	23.2	25.6	3.8	7.1
	30대	(960)	40.1	25.9	24.6	3.9	5.4
	40대	(1,103)	40.4	24.9	22.3	6.1	6.3
	50대	(1,145)	38.1	25.3	22.5	8.9	5.1
	60대	(863)	34.2	27.9	23.3	8.7	6.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7.8	24.6	25.2	6.2	6.2
	강원	(142)	50.6	21.3	15.0	4.8	8.3
	충청권	(539)	33.1	25.3	23.4	7.9	10.1
	전라권	(461)	49.4	14.6	27.8	5.8	2.4
	경상권	(1,233)	38.1	32.0	19.5	6.4	4.0
	제주	(62)	31.5	17.0	27.6	4.3	17.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5.7	32.8	29.3	8.0	2.9
	중학교 졸업	(295)	32.7	30.5	23.0	7.1	6.6
	고등학교 졸업	(1,902)	39.7	25.9	20.3	8.4	5.8
	대학교 졸업	(2,662)	38.7	24.5	25.8	4.8	6.1
	대학원 재학 이상	(89)	43.9	20.2	26.6	4.9	4.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2.3	32.1	20.9	6.1	8.6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5.9	26.7	24.4	7.0	5.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0.3	27.4	21.1	6.9	4.3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1.6	26.1	19.1	7.2	6.1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39.5	23.8	24.1	7.3	5.4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6.3	23.8	28.7	4.2	7.0
	600만원 이상	(498)	33.4	25.2	29.1	4.5	7.7

※ 기타 응답 제외

### 3. 한자 교육

#### 1)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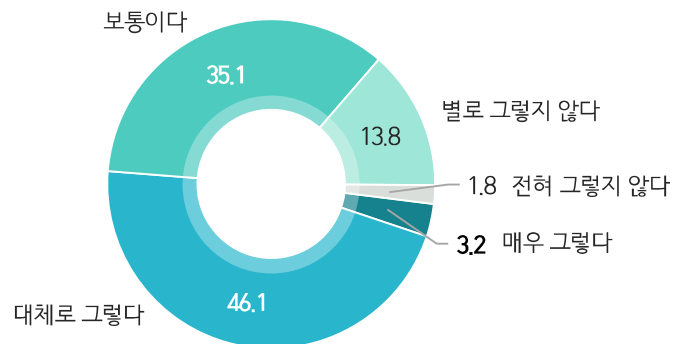
문36

귀하는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49.3%)고 생각함.
- ▶ 반면,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5.6%로 나타남.

| 그림 3-62 |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60대(55.7%), 거주 지역이 전라권(60.7%),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51.9%), 월평균 가구 소득 600만원 이상(56.0%)인 집단에서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62 |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1.8	13.8	35.1	46.1	3.2	15.6	35.1	49.3
성별	남성	(2,556)	1.7	13.4	33.7	47.4	3.7	15.1	33.7	51.2
	여성	(2,444)	1.9	14.1	36.6	44.7	2.6	16.1	36.6	47.4
연령	20대	(929)	3.7	19.5	34.0	40.4	2.5	23.1	34.0	42.9
	30대	(960)	2.4	16.4	35.2	43.5	2.5	18.8	35.2	46.0
	40대	(1,103)	1.0	11.7	37.1	47.1	3.0	12.7	37.1	50.2
	50대	(1,145)	1.1	10.8	36.4	48.2	3.5	11.9	36.4	51.7
	60대	(863)	1.1	11.2	32.0	51.0	4.6	12.3	32.0	55.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1.5	13.0	31.4	49.6	4.5	14.5	31.4	54.1
	강원	(142)	1.8	22.0	34.1	39.5	2.6	23.8	34.1	42.0
	충청권	(539)	4.9	21.3	43.2	28.8	1.8	26.2	43.2	30.6
	전라권	(461)	0.2	9.5	29.7	57.7	3.0	9.6	29.7	60.7
	경상권	(1,233)	1.7	12.5	41.3	43.4	1.2	14.1	41.3	44.6
	제주	(62)	2.0	18.2	39.7	34.8	5.4	20.2	39.7	40.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8	10.6	38.9	43.4	5.4	12.3	38.9	48.8
	중학교 졸업	(295)	1.1	13.8	33.2	49.7	2.2	14.9	33.2	51.9
	고등학교 졸업	(1,902)	1.0	13.8	38.4	45.0	1.8	14.8	38.4	46.8
	대학교 졸업	(2,662)	2.2	13.8	32.9	46.8	4.2	16.1	32.9	51.0
	대학원 재학 이상	(89)	8.4	13.0	36.4	38.8	3.5	21.4	36.4	42.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8.7	22.1	25.7	35.3	8.2	30.8	25.7	43.5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7	14.3	38.0	42.1	4.0	16.0	38.0	46.0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2.3	12.6	38.1	45.2	1.8	14.9	38.1	47.0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5	14.3	36.4	45.8	2.1	15.8	36.4	47.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7	14.5	35.2	46.6	2.1	16.2	35.2	48.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1	13.0	33.6	49.1	3.3	14.1	33.6	52.4
	600만원 이상	(498)	2.7	12.5	28.8	45.9	10.1	15.3	28.8	56.0

## 1-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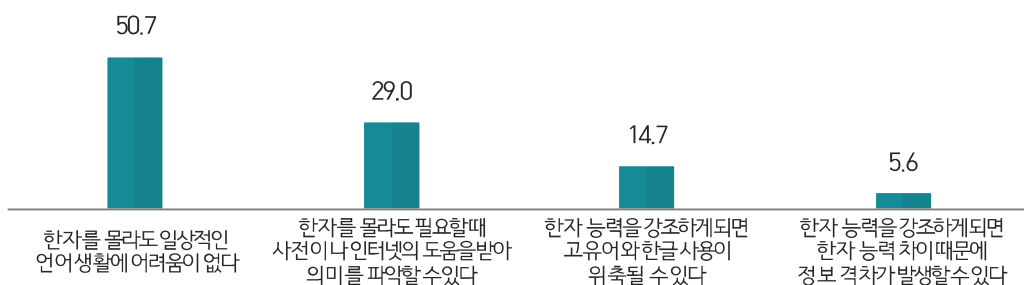
문36-1

한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한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려움이 없다'(50.7%)로 나타남.
- ▶ 다음으로는 '한자를 몰라도 필요할 때 사전이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29.0%), '한자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고유어와 한글 사용이 위축될 수 있다'(14.7%) 순임.

| 그림 3-63 |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한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한자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40대(54.6%), 거주 지역이 강원(71.9%),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55.0%),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57.1%)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63 |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자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한자를 몰라도 필요할 때 사전이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한자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고유어와 한글 사용이 위축될 수 있다	한자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한자 능력 차이 때문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체]		(779)	50.7	29.0	14.7	5.6
성별	남성	(386)	51.7	28.8	14.4	5.1
	여성	(392)	49.6	29.2	15.0	6.2
연령	20대	(215)	53.3	28.1	13.6	5.1
	30대	(180)	52.1	28.0	15.6	4.3
	40대	(141)	54.6	27.1	14.0	4.2
	50대	(136)	43.6	36.6	14.0	5.8
	60대	(106)	46.7	25.5	16.9	10.8
	70대	(10)	50.0	20.0	10.0	10.0
거주 지역	수도권	(373)	50.5	31.1	13.3	5.1
	강원	(34)	71.9	24.0	4.2	0.0
	충청권	(141)	48.8	27.2	14.7	9.4
	전라권	(44)	49.5	32.9	11.8	5.8
	경상권	(174)	46.7	26.9	21.2	5.2
	제주	(13)	79.4	17.3	3.3	0.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53.4	26.3	0.0	20.3
	중학교 졸업	(44)	55.0	19.8	18.3	6.9
	고등학교 졸업	(281)	50.4	30.6	13.2	5.7
	대학교 졸업	(428)	49.9	29.4	15.3	5.4
	대학원 재학 이상	(19)	60.3	17.8	18.7	3.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8)	49.4	37.1	13.5	0.0
	100만원~200만원 미만	(46)	57.1	22.6	16.0	4.2
	200만원~300만원 미만	(126)	51.7	30.3	15.9	2.1
	300만원~400만원 미만	(199)	47.6	28.8	15.3	8.3
	400만원~500만원 미만	(194)	50.7	30.5	12.4	6.4
	500만원~600만원 미만	(120)	52.5	31.8	11.7	4.0
	600만원 이상	(76)	50.4	21.1	20.9	7.6

## 1-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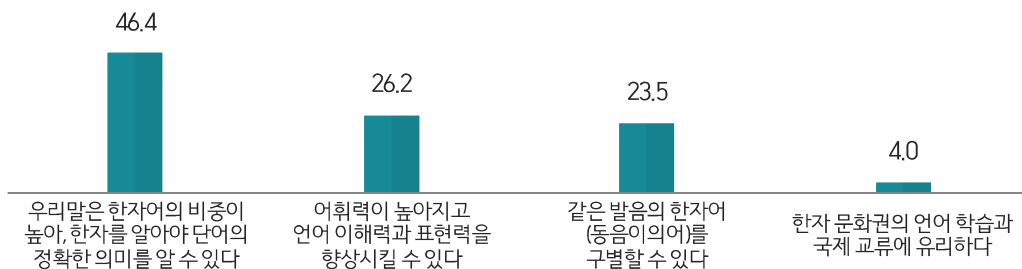
문36-2

한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한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말은 한자어의 비중이 높아서, 한자를 알아야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46.4%)로 나타남.
- ▶ 다음으로는 '어휘력이 높아지고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26.2%), '같은 발음의 한자어(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있다'(23.5%) 순임.

| 그림 3-64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한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우리말은 한자어의 비중이 높아서, 한자를 알아야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응답은 연령이 50대(48.7%), 거주 지역이 제주(73.7%),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3.2%),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51.3%)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64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우리말은 한자어의 비중이 높아서, 한자를 알아야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어휘력이 높아지고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같은 발음의 한자어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있다	한자 문화권의 언어 학습과 국제 교류에 유리하다
[전 체]		(4,221)	46.4	26.2	23.5	4.0
성별	남성	(2,169)	46.4	26.1	24.0	3.5
	여성	(2,052)	46.3	26.2	22.9	4.5
연령	20대	(714)	43.3	30.9	23.1	2.7
	30대	(779)	44.5	24.9	25.2	5.4
	40대	(963)	46.0	27.4	22.7	3.9
	50대	(1,008)	48.7	24.3	23.2	3.9
	60대	(757)	48.5	24.0	23.6	3.9
거주 지역	수도권	(2,191)	44.7	27.7	22.5	5.0
	강원	(108)	53.3	19.1	22.9	4.1
	충청권	(398)	43.6	31.8	19.0	5.5
	전라권	(417)	52.6	15.8	29.0	2.6
	경상권	(1,059)	46.3	25.9	26.0	1.7
	제주	(50)	73.7	17.7	4.1	4.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6)	46.5	12.0	40.6	0.9
	중학교 졸업	(251)	48.4	23.0	23.2	5.4
	고등학교 졸업	(1,620)	46.1	25.0	24.4	4.5
	대학교 졸업	(2,235)	46.1	28.0	22.4	3.4
	대학원 재학 이상	(70)	53.2	14.9	25.4	6.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0)	39.4	35.5	25.0	0.0
	100만원~200만원 미만	(242)	51.3	19.9	22.9	5.9
	200만원~300만원 미만	(718)	44.9	26.4	25.4	3.3
	300만원~400만원 미만	(1,064)	48.5	26.4	21.1	3.9
	400만원~500만원 미만	(1,002)	47.5	24.6	23.7	4.1
	500만원~600만원 미만	(733)	41.3	29.2	25.7	3.8
	600만원 이상	(422)	47.2	26.2	21.9	4.7

## 4. 외국어 교육

### 1)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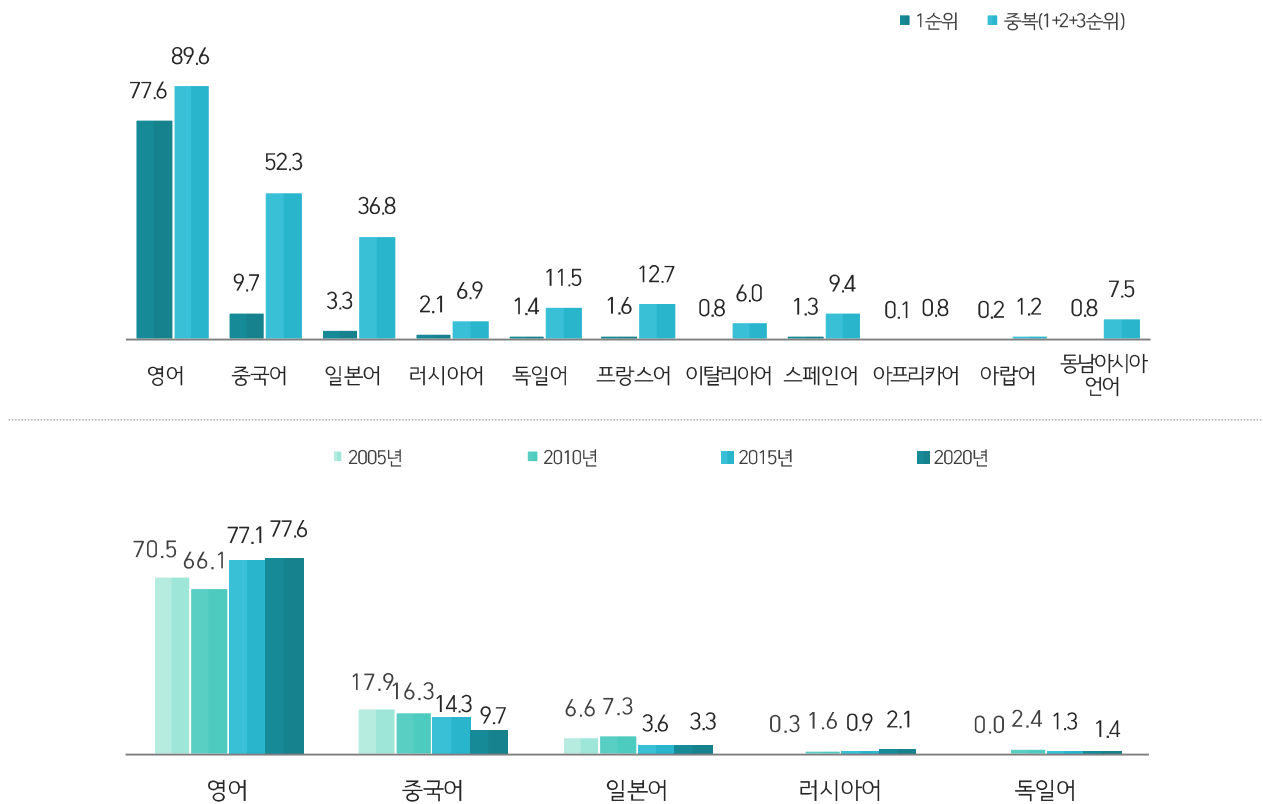
문37

귀하는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배우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국민들이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다른 언어로 '영어'(89.6%), '중국어'(52.3%), '일본어'(36.8%) 순으로 꼽았음.(중복 응답 기준)
- ▶ 시계열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다른 언어로 '영어'를 선택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65 |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단위 : %)



※ 시계열 분석은 2020년 기준, 응답률 상위 5가지 의견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며,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작성함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40대(91.3%), 거주 지역이 전라권(91.8%),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90.1%),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92.5%)인 집단에서 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5 |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중복 응답)

(단위 : %)

구분		사례 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아프리카어	아랍어	동남아시아어
[전 체]		(5,000)	89.6	52.3	36.8	6.9	11.5	12.7	6.0	9.4	0.8	1.2	7.5
성별	남성	(2,556)	89.6	54.7	37.4	6.8	12.0	9.8	5.3	8.1	0.8	1.3	8.1
	여성	(2,444)	89.7	49.9	36.2	7.1	11.0	15.7	6.7	10.7	0.9	1.2	6.9
연령	20대	(929)	88.4	51.3	31.7	8.3	16.4	18.9	7.7	13.7	0.8	2.3	6.5
	30대	(960)	88.8	52.0	34.2	7.3	13.4	15.3	7.0	13.0	0.8	2.2	8.0
	40대	(1,103)	91.3	52.6	36.5	6.6	10.7	12.1	7.4	10.5	1.3	0.9	8.0
	50대	(1,145)	90.0	53.2	39.2	6.0	8.7	10.3	4.3	6.3	0.8	0.7	8.0
	60대	(863)	89.3	52.3	42.4	6.8	8.8	7.1	3.6	3.2	0.4	0.1	6.7
	70대	(1,002)	88.5	51.5	41.5	6.5	8.5	6.5	3.5	3.5	0.5	0.2	6.5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90.7	53.7	36.8	6.4	11.4	14.3	6.2	12.2	0.7	1.7	7.7
	강원	(142)	75.3	47.0	42.3	10.9	5.2	15.6	9.5	18.3	2.2	4.0	7.4
	충청권	(539)	87.3	42.3	28.3	6.3	13.2	12.0	6.8	7.8	1.1	0.8	4.7
	전라권	(461)	91.8	54.4	35.8	10.0	10.5	12.2	6.0	6.6	0.7	0.3	6.0
	경상권	(1,233)	90.2	53.5	39.8	6.6	11.8	9.8	5.1	4.2	0.9	0.4	8.9
	제주	(62)	73.9	54.7	46.9	8.9	14.7	8.1	3.2	8.7	1.3	2.7	10.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76.2	42.4	36.1	4.0	6.0	10.1	1.1	8.6	0.0	1.3	6.9
	중학교 졸업	(295)	88.7	46.3	38.5	4.5	7.6	8.2	3.8	1.4	0.6	0.0	9.2
	고등학교 졸업	(1,902)	90.1	48.9	38.5	6.5	9.7	10.7	4.8	6.8	0.7	0.6	6.7
	대학교 졸업	(2,662)	90.0	55.3	35.5	7.5	13.1	14.6	7.1	11.9	0.9	1.8	7.9
	대학원 재학 이상	(89)	80.6	62.0	33.4	8.0	17.6	14.9	8.5	17.4	3.9	1.4	9.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85.6	48.4	47.0	5.9	24.9	10.4	5.5	11.6	0.0	2.3	5.6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86.7	54.2	45.0	2.9	7.5	8.8	3.3	3.9	0.4	0.6	5.6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90.5	53.7	44.8	6.6	13.5	10.5	5.1	8.8	0.7	0.7	6.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90.4	49.6	36.4	7.7	11.3	14.6	5.5	7.4	0.8	0.7	6.4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92.5	53.3	36.3	6.3	9.0	11.2	7.2	9.1	0.6	2.1	8.5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90.1	51.8	30.9	5.5	12.2	13.0	6.4	11.1	1.5	1.0	9.4
	600만원 이상	(498)	81.0	54.7	29.5	11.9	13.9	17.5	6.7	15.8	1.1	1.7	7.9

※ 기타 응답 제외

## 1-1)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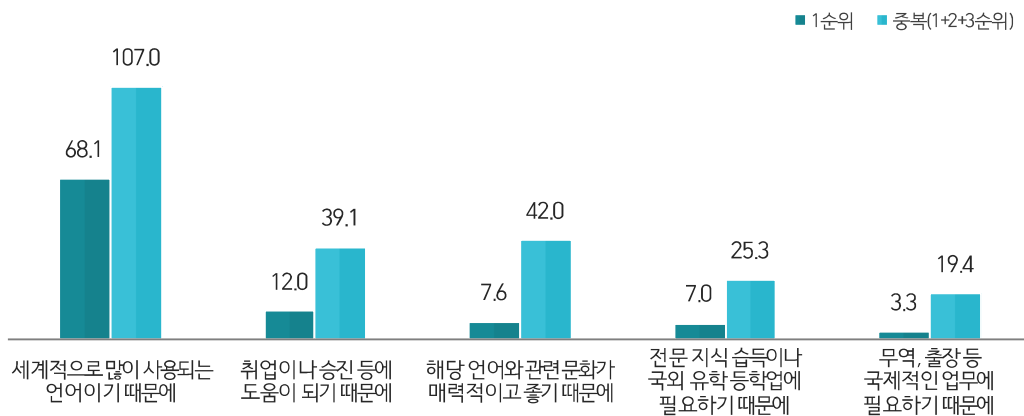
문37-1

귀하가 1, 2, 3순위로 고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107.0%), '해당 언어와 관련 문화가 매력적이고 즐기 때문에'(42.0%), '취업이나 승진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39.1%) 순임.(중복 응답 기준)

| 그림 3-66 |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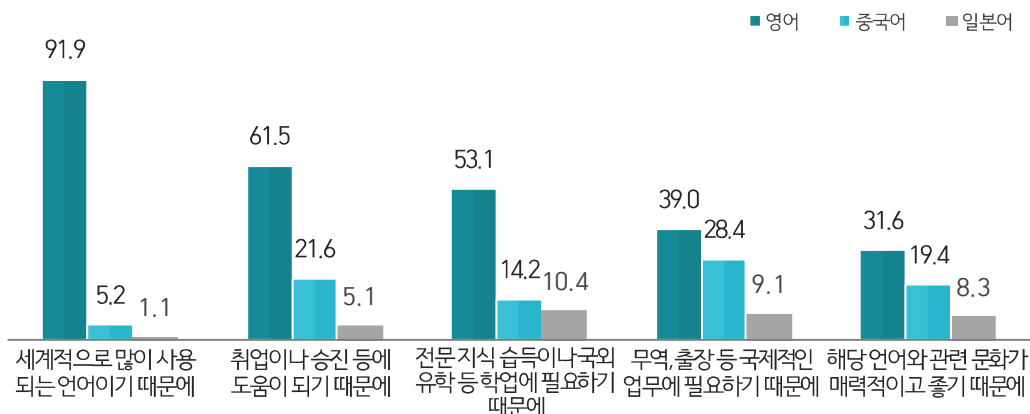
(단위 : %)



- ▶ 영어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91.9%), 중국어는 '무역, 출장 등 국제적인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28.4%), 일본어는 '전문 지식 습득이나 학업에 필요하기 때문에'(10.4%) 각각의 언어를 1순위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67 |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1순위로 고른 외국어 기준)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60대(119.5%), 50대(114.8%), 거주 지역이 전라권(117.1%),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116.4%),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112.9%), 200만원~300만원 미만(111.9%)에서 다른 언어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6 |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

(단위 : %)

구분		사례 수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해당 언어와 관련 문화가 매력적이고 좋기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 습득이나 국외 유학 등 학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 출장 등 국제적인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 체]		(5,000)	107.0	42.0	39.1	25.3	19.4
성별	남성	(2,556)	103.8	37.3	42.2	24.9	24.1
	여성	(2,444)	110.3	47.0	36.0	25.7	14.6
연령	20대	(929)	90.6	44.8	58.7	30.0	20.2
	30대	(960)	99.3	41.4	47.9	28.2	23.4
	40대	(1,103)	109.5	44.7	34.9	25.6	21.0
	50대	(1,145)	114.8	39.4	30.6	22.3	18.2
	60대	(863)	119.5	39.9	25.0	20.5	13.9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107.9	41.8	38.9	27.5	23.0
	강원	(142)	106.9	44.1	28.8	42.8	11.8
	충청권	(539)	91.0	54.3	34.9	14.1	14.3
	전라권	(461)	117.1	44.3	33.9	25.7	13.3
	경상권	(1,233)	108.4	36.4	45.1	23.1	17.2
	제주	(62)	104.1	33.8	30.8	31.0	25.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16.4	24.4	28.5	14.5	7.0
	중학교 졸업	(295)	122.7	35.6	19.2	20.7	10.5
	고등학교 졸업	(1,902)	113.2	40.7	30.3	22.3	15.3
	대학교 졸업	(2,662)	101.2	44.2	47.3	28.1	22.8
	대학원 재학 이상	(89)	88.3	38.2	56.2	25.6	45.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79.8	42.7	56.1	24.2	36.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09.8	39.3	26.9	19.6	21.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11.9	44.0	41.1	23.4	19.2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05.4	42.2	39.2	24.7	18.1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12.9	39.5	35.9	24.6	21.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05.1	41.1	40.1	28.0	16.5
	600만원 이상	(498)	93.1	47.7	46.9	30.4	21.3

※ 기타 응답 제외

## 5. 어문 규범

### 1) 어문 규범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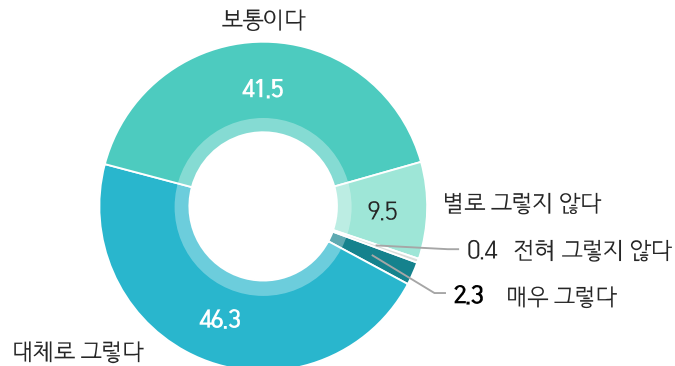
문38

귀하는 평소 글을 쓸 때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본인이 평소 글을 쓸 때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48.6%)이라고 생각함.
- ▶ 반면, 국민의 9.9%는 어문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편'(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남.

| 그림 3-68 | 어문 규범 준수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54.0%)에서, 거주 지역이 수도권(53.5%)에서,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1.2%),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60.9%)인 집단에서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67 | 어문 규범 준수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0.4	9.5	41.5	46.3	2.3	9.9	41.5	48.6
성별	남성	(2,556)	0.3	10.1	42.0	45.6	2.1	10.4	42.0	47.7
	여성	(2,444)	0.5	8.8	41.0	47.2	2.4	9.4	41.0	49.6
연령	20대	(929)	0.4	8.1	41.2	47.7	2.6	8.5	41.2	50.3
	30대	(960)	0.2	5.3	40.5	52.2	1.8	5.5	40.5	54.0
	40대	(1,103)	0.4	8.6	40.5	47.8	2.8	9.0	40.5	50.6
	50대	(1,145)	0.2	10.6	43.1	44.4	1.7	10.8	43.1	46.2
	60대	(863)	0.9	15.5	42.2	39.1	2.3	16.4	42.2	41.5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2	6.1	40.2	51.0	2.6	6.3	40.2	53.5
	강원	(142)	0.0	18.2	43.7	35.6	2.5	18.2	43.7	38.1
	충청권	(539)	0.7	12.3	47.4	36.2	3.3	13.0	47.4	39.5
	전라권	(461)	0.4	11.1	35.6	52.4	0.5	11.5	35.6	52.9
	경상권	(1,233)	0.8	13.4	43.8	40.7	1.3	14.2	43.8	42.0
	제주	(62)	0.7	14.9	37.7	35.6	11.2	15.5	37.7	46.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3	21.6	47.9	27.4	0.8	23.9	47.9	28.2
	중학교 졸업	(295)	1.7	24.5	43.0	29.8	1.0	26.2	43.0	30.8
	고등학교 졸업	(1,902)	0.3	12.0	45.8	40.9	1.0	12.3	45.8	41.9
	대학교 졸업	(2,662)	0.3	5.9	38.4	52.3	3.1	6.3	38.4	55.3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6.2	32.6	50.6	10.5	6.2	32.6	61.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4	17.6	36.8	42.3	2.0	18.9	36.8	44.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2.1	19.8	43.8	32.3	2.0	21.9	43.8	34.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0.5	13.1	45.8	39.4	1.2	13.6	45.8	40.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3	9.1	42.0	47.5	1.1	9.4	42.0	48.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0	9.1	43.7	45.7	1.5	9.1	43.7	47.2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3	5.1	38.2	54.3	2.0	5.4	38.2	56.4
	600만원 이상	(498)	0.4	6.1	32.5	51.7	9.2	6.6	32.5	60.9

## 2)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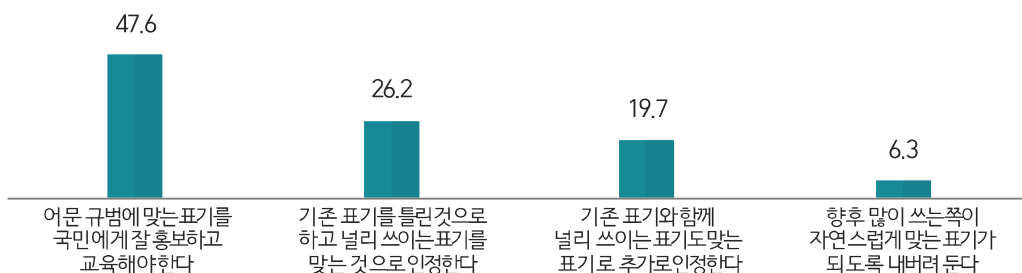
문39

아래의 예는 우리 국민들이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입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삼가하다(X) → 삼가다(O), 곱배기(X) → 곱빼기(O), 알콜(X) → 알코올(O)

- ▶ 우리 국민들은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에 대해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47.6%)고 생각함.
- ▶ 다음으로는 '기존 표기를 틀린 것으로 하고 널리 쓰이는 표기를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26.2%), '기존 표기와 함께 널리 쓰이는 표기도 맞는 표기로 추가로 인정한다'(19.7%) 순임.

| 그림 3-69 |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특성별 분석

-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에 대해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연령이 40대(49.8%), 거주 지역이 제주(75.1%),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5.1%),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54.4%)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8 |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기존 표기를 틀린 것으로 하고 널리 쓰이는 표기를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표기와 함께 널리 쓰이는 표기도 맞는 표기로 추가로 인정한다	향후 많이 쓰는 쪽이 자연스럽게 맞는 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
[전 체]		(5,000)	47.6	26.2	19.7	6.3
성별	남성	(2,556)	46.3	26.4	19.8	7.4
	여성	(2,444)	49.1	26.0	19.7	5.1
연령	20대	(929)	44.3	27.4	21.2	7.1
	30대	(960)	48.9	26.1	18.1	6.9
	40대	(1,103)	49.8	25.4	18.8	5.9
	50대	(1,145)	47.9	25.1	20.6	6.2
	60대	(863)	46.7	27.7	20.1	5.3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9.2	23.0	21.4	6.4
	강원	(142)	49.0	22.8	23.3	4.9
	충청권	(539)	43.3	22.6	22.8	10.4
	전라권	(461)	47.0	29.8	15.7	7.5
	경상권	(1,233)	45.1	34.6	16.5	3.9
	제주	(62)	75.1	3.9	11.0	9.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46.8	24.7	17.6	7.3
	중학교 졸업	(295)	45.7	29.6	17.3	7.4
	고등학교 졸업	(1,902)	45.6	28.1	19.7	6.5
	대학교 졸업	(2,662)	49.1	24.8	20.3	5.7
	대학원 재학 이상	(89)	55.1	15.9	14.9	14.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4.4	14.0	19.5	12.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2.5	22.5	15.9	8.5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50.4	22.7	18.7	8.1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6.0	27.8	20.4	5.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4.7	27.3	22.3	5.7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6.3	29.5	18.9	5.3
	600만원 이상	(498)	52.8	23.7	17.6	5.9

※ 기타 응답 제외

## 6. 사전 이용

### 1) 평소 국어사전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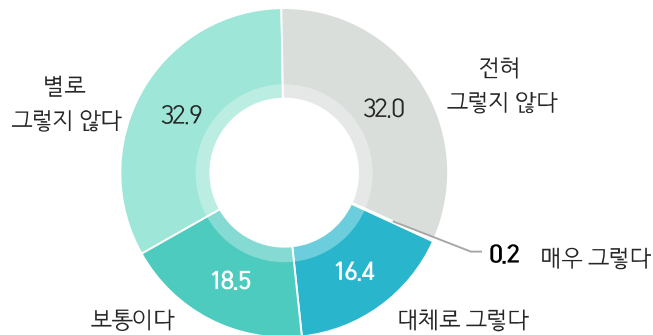
문40

귀하는 평소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 ▶ 우리 국민의 국어사전 사용률(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16.6%이며,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64.8%로, 평소 국민들은 국어사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낙탄남.

| 그림 3-70 | 평소 국어사전 사용 정도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60대(69.0%), 거주 지역이 강원(74.6%),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82.0%),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77.4%)인 집단에서 평소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69 | 평소 국어사전 사용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32.0	32.9	18.5	16.4	0.2	64.8	18.5	16.6
성별	남성	(2,556)	30.9	34.1	18.4	16.2	0.3	65.0	18.4	16.5
	여성	(2,444)	33.0	31.6	18.6	16.6	0.1	64.6	18.6	16.7
연령	20대	(929)	29.0	33.6	20.0	17.4	0.1	62.6	20.0	17.4
	30대	(960)	26.6	35.6	19.9	17.8	0.1	62.2	19.9	17.9
	40대	(1,103)	29.6	34.8	19.6	15.6	0.4	64.4	19.6	16.0
	50대	(1,145)	33.8	32.3	17.0	16.7	0.2	66.2	17.0	16.9
	60대	(863)	41.5	27.4	16.2	14.6	0.3	69.0	16.2	14.8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1.2	34.9	16.8	16.9	0.2	66.2	16.8	17.1
	강원	(142)	35.5	39.1	14.8	10.5	0.0	74.6	14.8	10.5
	충청권	(539)	27.2	28.8	29.1	14.6	0.4	56.0	29.1	15.0
	전라권	(461)	22.6	29.6	23.5	24.2	0.1	52.2	23.5	24.3
	경상권	(1,233)	37.8	31.3	15.9	14.7	0.2	69.2	15.9	14.9
	제주	(62)	48.1	25.0	22.2	4.6	0.0	73.1	22.2	4.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59.3	22.7	9.3	8.7	0.0	82.0	9.3	8.7
	중학교 졸업	(295)	51.2	23.6	12.7	12.5	0.0	74.8	12.7	12.5
	고등학교 졸업	(1,902)	36.7	30.1	18.5	14.5	0.2	66.8	18.5	14.7
	대학교 졸업	(2,662)	26.1	36.3	19.2	18.2	0.2	62.4	19.2	18.4
	대학원 재학 이상	(89)	24.6	27.9	22.6	22.6	2.2	52.5	22.6	24.8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5.7	15.2	17.8	11.3	0.0	70.9	17.8	11.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9.8	27.6	16.3	6.3	0.0	77.4	16.3	6.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5.4	30.8	20.4	13.1	0.2	66.2	20.4	13.3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30.6	34.9	19.2	15.2	0.1	65.4	19.2	15.3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30.7	37.4	16.8	15.1	0.1	68.1	16.8	15.1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27.8	31.0	18.2	22.8	0.2	58.8	18.2	23.0
	600만원 이상	(498)	26.7	28.9	19.5	23.9	1.0	55.6	19.5	24.9

## 1-1) 국어사전 사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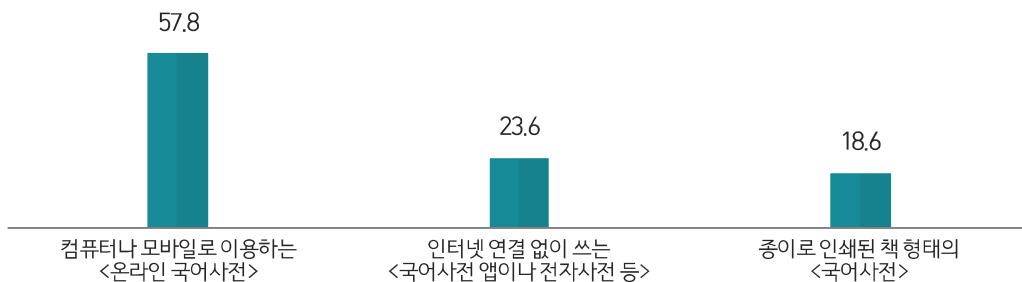
문40-1

귀하는 평소 어떤 형태로 된 국어사전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 ▶ 평소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는 국민들은 '컴퓨터나 모바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국어사전>' (57.8%)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 다음으로는 '인터넷 연결 없이 쓰는 <국어사전 앱이나 전자사전 등>'(23.6%), '종이로 인쇄된 책 형태의 <국어사전>'(18.6%) 순임.

| 그림 3-71 | 국어사전 사용 형태

(단위 : %)



특성별 분석

- ▶ 평소 주로 사용하는 국어사전이 '컴퓨터나 모바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국어사전>' 형태라는 응답은 연령이 30대(64.9%), 거주 지역이 제주(73.5%),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2.7%),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64.0%)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70 | 국어사전 사용 형태

(단위 : %)

구분		사례 수	컴퓨터나 모바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국어사전>	인터넷 연결 없이 쓰는 <국어사전 앱이나 전자사전 등>	종이로 인쇄된 책 형태의 <국어사전>
[전 체]		(1,758)	57.8	23.6	18.6
성별	남성	(894)	57.9	23.4	18.6
	여성	(864)	57.6	23.7	18.7
연령	20대	(347)	61.3	26.3	12.4
	30대	(363)	64.9	22.3	12.7
	40대	(392)	60.4	24.5	14.9
	50대	(387)	55.4	22.6	22.0
	60대	(268)	43.1	21.5	35.2
거주 지역	수도권	(867)	59.0	25.8	15.1
	강원	(36)	55.2	19.9	24.9
	충청권	(237)	57.4	30.1	12.5
	전라권	(220)	54.9	15.0	30.1
	경상권	(380)	56.3	20.3	23.4
	제주	(17)	73.5	7.4	14.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	40.7	6.9	48.4
	중학교 졸업	(74)	37.5	26.1	36.5
	고등학교 졸업	(631)	52.4	22.3	25.2
	대학교 졸업	(1,001)	62.6	24.0	13.4
	대학원 재학 이상	(42)	62.7	30.8	6.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7)	48.0	23.6	26.1
	100만원~200만원 미만	(65)	34.4	28.4	37.1
	200만원~300만원 미만	(285)	50.6	26.6	22.8
	300만원~400만원 미만	(437)	58.9	22.0	19.0
	400만원~500만원 미만	(382)	64.0	20.1	15.9
	500만원~600만원 미만	(351)	59.2	23.0	17.8
	600만원 이상	(221)	59.3	28.0	12.6

※ 기타 응답 제외

## 1-2)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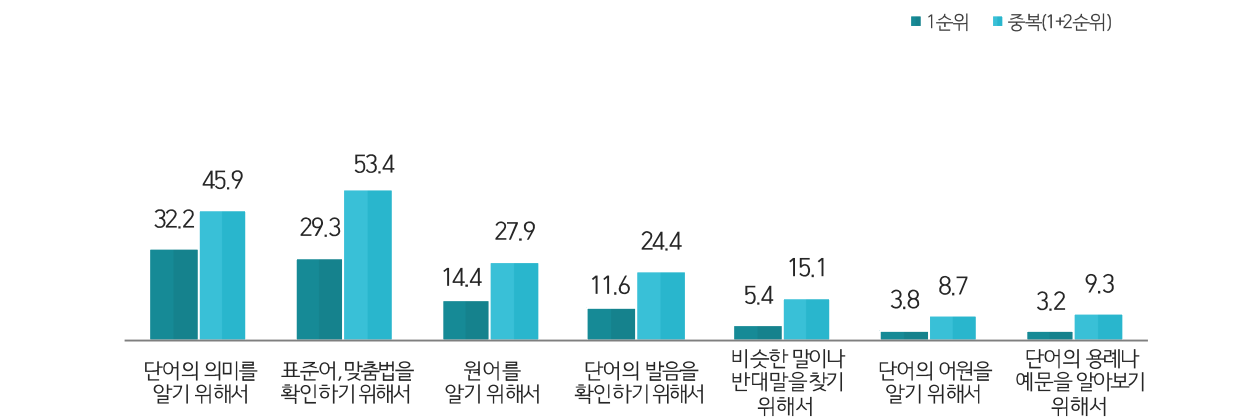
문40-2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목적 순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국민들이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53.4%)임.
- ▶ 다음으로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45.9%), '단어의 원어(한자, 외래어)를 알기 위해서'(27.9%) 순으로 나타남.(중복 응답 기준)

| 그림 3-72 |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단위 : %)





특성별 분석

- ▶ 국민들이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응답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62.0%), 600만원 이상(61.4%), 거주 지역이 수도권(55.7%), 연령이 20대(55.0%), 40대(5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71 |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중복 응답)

(단위 : %)

구분		사례 수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어의 원어(한자, 외래어)를 알기 위해서	단어의 발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을 찾기 위해서	단어의 어원을 알기 위해서	단어의 용례나 예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 체]		(1,758)	45.9	53.4	27.9	24.4	15.1	8.7	9.3
성별	남성	(894)	45.6	53.9	26.5	25.7	14.2	8.2	9.5
	여성	(864)	46.3	52.8	29.3	23.1	16.0	9.2	9.2
연령	20대	(347)	47.0	55.0	25.9	23.3	14.6	7.6	7.9
	30대	(363)	47.2	53.9	27.9	25.9	14.2	8.7	8.5
	40대	(392)	47.5	54.6	27.7	25.4	13.5	7.9	11.2
	50대	(387)	44.2	51.0	29.9	24.4	16.6	10.2	7.8
	60대	(268)	43.0	52.3	27.6	22.5	17.0	8.9	11.9
	70대	(268)	43.0	52.3	27.6	22.5	17.0	8.9	11.9
거주 지역	수도권	(867)	47.2	55.7	31.0	24.2	10.9	9.5	10.3
	강원	(36)	69.2	26.6	24.4	16.0	26.3	6.8	20.9
	충청권	(237)	39.8	50.5	31.0	19.7	21.6	8.8	11.0
	전라권	(220)	49.5	52.1	26.4	26.3	19.5	8.5	5.9
	경상권	(380)	41.2	53.0	20.7	28.3	17.6	6.7	7.2
	제주	(17)	77.8	58.0	11.9	5.5	2.4	14.9	7.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9)	48.0	34.4	41.7	14.1	6.7	26.9	6.1
	중학교 졸업	(74)	51.8	51.2	30.4	25.3	15.8	3.1	4.5
	고등학교 졸업	(631)	45.6	53.0	28.1	25.7	14.9	8.6	8.5
	대학교 졸업	(1,001)	45.5	54.4	27.0	24.1	15.6	9.1	9.8
	대학원 재학 이상	(42)	51.6	42.6	36.9	13.9	7.7	6.0	19.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7)	30.5	32.6	34.1	19.7	38.5	23.7	9.0
	100만원~200만원 미만	(65)	46.2	40.5	34.6	20.3	10.4	11.2	13.2
	200만원~300만원 미만	(285)	46.3	52.7	23.8	24.4	20.7	11.3	6.3
	300만원~400만원 미만	(437)	47.6	51.7	27.4	26.6	14.4	8.0	7.4
	400만원~500만원 미만	(382)	51.3	46.4	27.5	24.9	14.7	10.9	9.2
	500만원~600만원 미만	(351)	39.3	62.0	31.8	22.7	12.9	5.1	10.9
	600만원 이상	(221)	44.7	61.4	26.2	23.6	13.0	6.6	13.8

※ 기타 응답 제외

### 1-3)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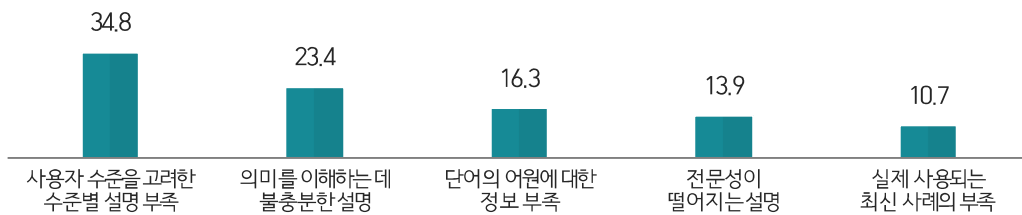
문40-3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설명 부족'(34.8%)을 가장 많이 꼽았음.
- ▶ 다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불충분한 설명'(23.4%), '단어의 어원에 대한 정보 부족'(16.3%) 순임.

| 그림 3-73 |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단위 : %)



특성별 분석

- ▶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설명 부족'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20대(35.9%), 거주 지역이 전라권(39.3%),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41.3%),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39.0%)인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3-72 |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단위 : %)

구분		사례 수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설명 부족	의미를 이해하는 데 불충분한 설명	단어의 어원에 대한 정보 부족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명	실제 사용되는 최신 사례의 부족
[전 체]		(1,758)	34.8	23.4	16.3	13.9	10.7
성별	남성	(894)	35.7	24.2	15.4	14.0	9.5
	여성	(864)	33.9	22.6	17.2	13.7	11.8
연령	20대	(347)	35.9	24.6	13.6	12.9	12.2
	30대	(363)	35.7	20.6	16.3	14.4	12.7
	40대	(392)	33.2	25.1	15.6	14.7	9.7
	50대	(387)	35.0	21.7	19.3	13.1	9.5
	60대	(268)	34.1	25.7	16.4	14.4	8.9
거주 지역	수도권	(867)	36.4	21.9	14.3	13.7	12.3
	강원	(36)	8.5	30.7	17.1	8.7	30.0
	충청권	(237)	27.4	27.2	18.1	12.6	13.5
	전라권	(220)	39.3	24.0	19.3	12.7	4.6
	경상권	(380)	36.2	22.9	18.0	16.7	6.1
최종 학력	제주	(17)	20.3	34.7	12.4	0.0	28.0
	초등학교 졸업 이하	(9)	41.3	27.4	7.0	6.1	14.1
	중학교 졸업	(74)	26.6	31.9	14.4	17.7	8.6
	고등학교 졸업	(631)	36.3	24.0	17.4	13.0	7.8
	대학교 졸업	(1,001)	34.6	22.8	15.9	14.0	12.1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재학 이상	(42)	31.0	11.8	15.2	20.1	22.0
	100만원 미만	(17)	30.5	12.3	20.2	13.8	20.9
	100만원~200만원 미만	(65)	34.9	30.4	14.8	12.5	5.9
	200만원~300만원 미만	(285)	28.6	26.5	20.6	10.2	13.6
	300만원~400만원 미만	(437)	36.3	21.0	17.2	13.8	9.4
	400만원~500만원 미만	(382)	32.3	24.8	17.0	14.6	10.1
	500만원~600만원 미만	(351)	38.1	24.6	16.0	14.8	6.3
	600만원 이상	(221)	39.0	18.4	8.1	16.4	18.1

※ 기타 응답 제외

## 7. 공공 언어

### 1)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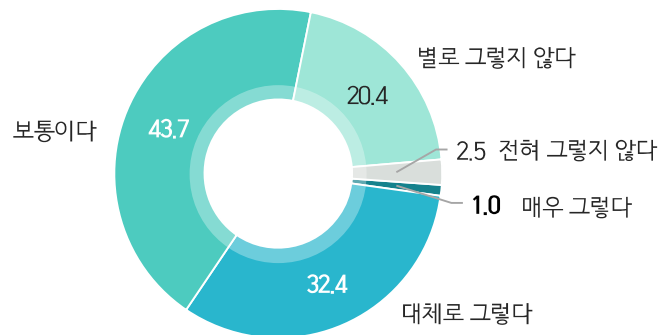
문41

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 안내문, 홍보문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33.4%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 안내문, 홍보문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해하기 '쉬운 편'(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이라고 응답함.
- ▶ 반면, 국민들의 22.9%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가 '어려운 편'(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이라고 생각함.

| 그림 3-74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37.7%), 거주 지역이 전라권(43.8%),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 (45.3%),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백만 원 이상(40.9%)인 집단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쉬운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73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2.5	20.4	43.7	32.4	1.0	22.9	43.7	33.4
성별	남성	(2,556)	2.2	19.4	43.1	34.2	1.1	21.6	43.1	35.3
	여성	(2,444)	2.7	21.6	44.3	30.4	1.0	24.3	44.3	31.4
연령	20대	(929)	3.5	20.0	40.3	34.8	1.4	23.5	40.3	36.2
	30대	(960)	1.4	19.1	41.8	36.3	1.4	20.6	41.8	37.7
	40대	(1,103)	1.8	20.2	45.1	32.3	0.7	21.9	45.1	33.0
	50대	(1,145)	2.1	21.4	45.1	30.7	0.7	23.4	45.1	31.4
	60대	(863)	4.0	21.5	45.7	27.6	1.2	25.5	45.7	28.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2.6	22.9	41.1	32.4	1.1	25.5	41.1	33.5
	강원	(142)	4.8	24.4	49.7	21.1	0.0	29.2	49.7	21.1
	충청권	(539)	2.8	19.2	53.0	23.2	1.8	22.1	53.0	25.0
	전라권	(461)	0.6	11.8	43.8	43.0	0.8	12.4	43.8	43.8
	경상권	(1,233)	2.7	18.7	43.6	34.3	0.7	21.4	43.6	35.0
	제주	(62)	2.0	19.3	56.7	19.4	2.6	21.3	56.7	22.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6.2	29.6	43.3	12.9	8.0	35.8	43.3	20.9
	중학교 졸업	(295)	3.6	19.8	51.3	25.2	0.0	23.5	51.3	25.2
	고등학교 졸업	(1,902)	3.3	21.8	45.4	28.8	0.7	25.1	45.4	29.5
	대학교 졸업	(2,662)	1.8	19.4	41.9	35.7	1.2	21.2	41.9	36.9
	대학원 재학 이상	(89)	0.4	17.9	36.3	44.1	1.2	18.3	36.3	45.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6.7	20.8	54.8	17.6	0.0	27.5	54.8	17.6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4	25.9	48.4	19.0	1.3	31.3	48.4	20.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2.3	17.9	48.9	30.1	0.8	20.2	48.9	30.9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2.5	20.1	44.1	32.5	0.8	22.6	44.1	33.3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1	19.2	45.2	32.0	1.4	21.3	45.2	33.4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2.0	21.3	39.7	36.1	0.9	23.3	39.7	37.0
	600만원 이상	(498)	2.4	23.9	32.7	39.5	1.4	26.4	32.7	40.9

## 2) 공공기관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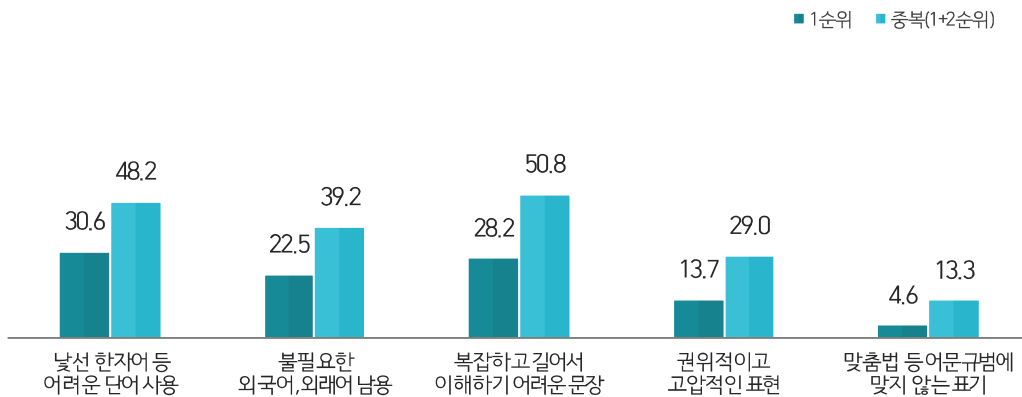
문42

귀하는 공공기관의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50.8%)이라고 생각함.
- ▶ 다음으로는 '낮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48.2%),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남용'(39.2%) 순임.(중복 응답 기준)

| 그림 3-75 | 공공기관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단위 : %)



특성별 분석

- 공공기관의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이 제주(61.6%), 수도권(54.8%),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4.4%), 400만원~500만원 미만(54.4%), 100만원 미만(5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4 | 공공기관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중복 응답)

(단위 : %)

구분		사례 수	낮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남용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
[전 체]		(5,000)	48.2	39.2	50.8	29.0	13.3
성별	남성	(2,556)	47.9	39.7	49.5	29.2	13.4
	여성	(2,444)	48.5	38.6	52.2	28.9	13.3
연령	20대	(929)	50.2	36.3	50.8	29.8	14.8
	30대	(960)	46.7	37.3	51.4	29.7	13.0
	40대	(1,103)	49.9	39.0	50.5	29.6	11.7
	50대	(1,145)	47.8	39.9	50.7	28.8	13.9
	60대	(863)	46.2	43.7	50.6	27.1	13.2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48.8	34.7	54.8	30.9	12.9
	강원	(142)	58.0	31.3	49.4	26.7	18.1
	충청권	(539)	47.1	41.6	47.2	28.3	17.3
	전라권	(461)	42.6	48.1	49.1	22.8	14.7
	경상권	(1,233)	48.5	44.8	44.4	28.4	11.7
	제주	(62)	48.2	42.4	61.6	22.0	8.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44.7	32.9	47.2	26.3	17.4
	중학교 졸업	(295)	48.5	41.1	48.3	25.5	12.9
	고등학교 졸업	(1,902)	49.4	43.0	49.1	26.9	13.0
	대학교 졸업	(2,662)	47.3	36.7	52.3	30.9	13.6
	대학원 재학 이상	(89)	52.5	29.9	52.2	32.2	1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41.1	29.9	52.6	35.7	13.6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9.2	39.6	50.0	28.1	9.5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51.9	38.3	48.5	25.8	13.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48.0	43.8	47.6	29.0	12.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48.9	36.3	54.4	27.5	12.9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5.8	39.1	50.7	28.1	16.4
	600만원 이상	(498)	45.4	36.7	54.4	39.5	12.8

※ 기타 응답 제외

## 8. 차별적 표현, 혐오 표현

### 1) 차별적 표현/혐오 표현의 사용 양상

문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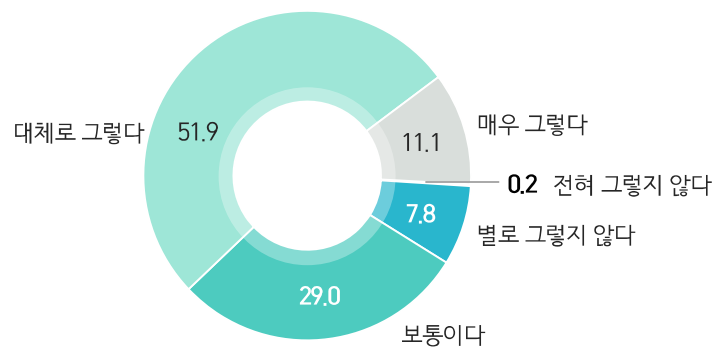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와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한남, 김치녀, 꼰대, 틀딱, 맘충

- ▶ 국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남, 김치녀, 꼰대, 틀딱, 맘충'과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62.9%)이라고 생각함.
- ▶ 반면, 국민들의 8.0%는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 많아지지 않았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76 | 차별적 표현/혐오 표현의 사용 증가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70.1%), 거주 지역이 수도권(67.9%),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7.7%)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72.7%)인 집단에서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75 | 차별적 표현/혐오 표현의 사용 증가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0.2	7.8	29.0	51.9	11.1	8.0	29.0	62.9
성별	남성	(2,556)	0.2	8.4	29.1	51.2	11.1	8.6	29.1	62.3
	여성	(2,444)	0.2	7.3	29.0	52.6	11.0	7.5	29.0	63.6
연령	20대	(929)	0.1	6.0	23.7	55.8	14.4	6.1	23.7	70.1
	30대	(960)	0.1	7.9	27.7	51.9	12.4	8.0	27.7	64.3
	40대	(1,103)	0.2	6.9	30.6	51.9	10.4	7.1	30.6	62.3
	50대	(1,145)	0.2	8.6	31.5	50.3	9.4	8.8	31.5	59.7
	60대	(863)	0.3	10.0	31.0	49.7	9.1	10.3	31.0	58.7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0	6.0	26.1	54.7	13.2	6.0	26.1	67.9
	강원	(142)	0.4	9.3	26.8	57.6	5.8	9.7	26.8	63.4
	충청권	(539)	0.4	8.4	40.7	37.9	12.6	8.8	40.7	50.5
	전라권	(461)	0.3	16.6	26.6	50.4	6.1	16.9	26.6	56.5
	경상권	(1,233)	0.3	7.7	31.5	52.6	7.8	8.0	31.5	60.5
	제주	(62)	2.6	12.6	23.9	39.7	21.2	15.1	23.9	60.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21.4	22.8	52.6	3.1	21.4	22.8	55.7
	중학교 졸업	(295)	0.6	13.0	33.4	45.5	7.4	13.6	33.4	53.0
	고등학교 졸업	(1,902)	0.2	8.1	33.2	50.1	8.4	8.3	33.2	58.5
	대학교 졸업	(2,662)	0.1	7.0	25.6	53.9	13.3	7.2	25.6	67.2
	대학원 재학 이상	(89)	0.5	1.5	30.3	49.8	17.9	2.0	30.3	67.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0.0	9.5	21.7	58.4	10.4	9.5	21.7	68.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0.6	9.4	32.8	44.6	12.5	10.0	32.8	57.2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0.3	10.1	31.4	48.3	9.9	10.4	31.4	58.2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2	8.8	29.3	52.6	9.0	9.1	29.3	61.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2	6.7	30.9	51.9	10.3	6.9	30.9	62.2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0	6.6	26.9	56.4	10.1	6.6	26.9	66.5
	600만원 이상	(498)	0.0	5.2	22.1	51.8	20.9	5.2	22.1	72.7

## 2)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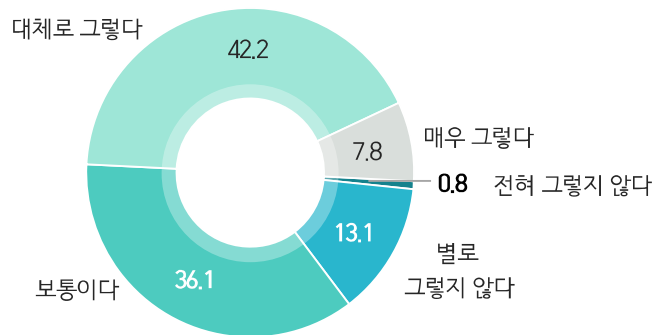
문44

귀하는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에 대해 국민들의 50.0%는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생각함.
- ▶ 반면, 국민들의 13.9%는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77 |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52.3%), 거주 지역이 수도권(54.1%),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6.5%),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60.2%)인 집단에서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76 |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0.8	13.1	36.1	42.2	7.8	13.9	36.1	50.0
성별	남성	(2,556)	0.7	13.6	36.1	41.9	7.7	14.3	36.1	49.6
	여성	(2,444)	0.8	12.6	36.1	42.6	7.9	13.4	36.1	50.5
연령	20대	(929)	1.2	12.3	37.6	41.2	7.8	13.5	37.6	49.0
	30대	(960)	0.6	15.4	31.8	44.1	8.2	15.9	31.8	52.3
	40대	(1,103)	1.1	12.9	36.0	42.2	7.7	14.1	36.0	49.9
	50대	(1,145)	0.7	11.3	37.6	43.1	7.3	12.0	37.6	50.4
	60대	(863)	0.0	14.2	37.4	40.2	8.2	14.2	37.4	48.4
	70대	(107)	0.0	14.1	37.4	40.2	8.2	14.2	37.4	48.4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0.5	12.8	32.5	44.2	10.0	13.3	32.5	54.1
	강원	(142)	1.8	8.7	47.3	37.8	4.3	10.5	47.3	42.1
	충청권	(539)	1.3	15.6	42.3	31.5	9.4	16.8	42.3	40.9
	전라권	(461)	0.1	11.1	36.5	45.9	6.3	11.2	36.5	52.2
	경상권	(1,233)	1.0	13.5	39.6	42.8	3.1	14.5	39.6	45.9
	제주	(62)	3.3	21.0	33.0	27.0	15.7	24.3	33.0	42.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2.0	19.4	32.4	44.2	2.0	21.3	32.4	46.3
	중학교 졸업	(295)	0.0	14.6	38.1	42.7	4.6	14.6	38.1	47.3
	고등학교 졸업	(1,902)	0.4	12.7	38.2	42.8	5.9	13.1	38.2	48.7
	대학교 졸업	(2,662)	1.1	13.5	34.6	41.8	9.0	14.6	34.6	50.8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2.9	30.7	39.4	27.0	2.9	30.7	66.5
	대학원 졸업 이상	(10)	0.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2.1	11.5	32.9	38.0	15.4	13.6	32.9	53.5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0.2	18.1	36.4	40.8	4.5	18.3	36.4	45.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0.7	16.3	36.6	40.8	5.6	17.0	36.6	46.4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8	11.6	37.9	43.1	6.7	12.4	37.9	49.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8	13.0	36.5	43.0	6.7	13.9	36.5	49.7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8	12.6	36.7	42.7	7.2	13.5	36.7	49.9
	600만원 이상	(498)	0.8	9.8	29.2	41.0	19.2	10.6	29.2	60.2
	700만원 이상	(10)	0.0	0.0	0.0	0.0	0.0	0.0	0.0	0.0

## 9. 특수 언어

### 1)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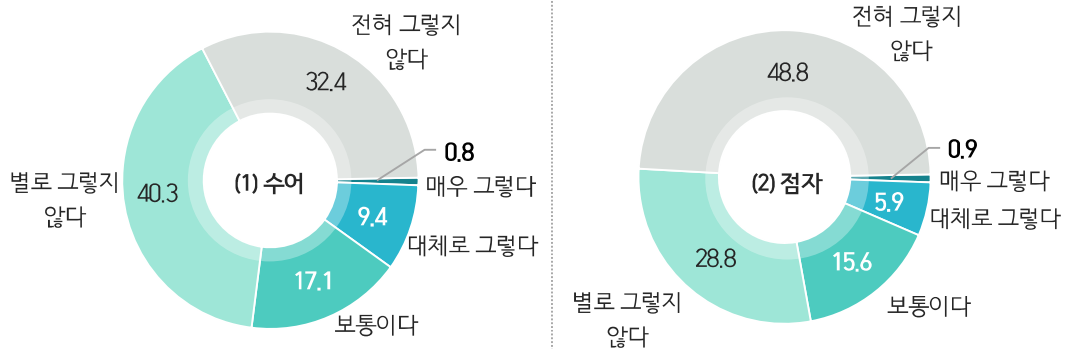
문45

귀하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수화언어)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 국민들 중 10.2%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수화언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6.8%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반면, 국민들의 72.7%는 수어(수화언어)에 대해, 77.6%는 점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으로 나타남(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림 3-78 |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어(수화언어)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30대(12.8%), 거주 지역이 제주(17.2%),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12.0%),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16.1%)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점자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20대(9.2%), 거주 지역이 제주(14.3%),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9.6%),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8.9%)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77 |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1) 수어(수화언어)			(2) 점자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5,000)	72.7	17.1	10.2	77.6	15.6	6.8
성별	남성	(2,556)	72.1	17.1	10.8	77.8	15.3	6.9
	여성	(2,444)	73.3	17.2	9.5	77.4	15.9	6.7
연령	20대	(929)	68.5	20.2	11.4	75.7	15.1	9.2
	30대	(960)	70.7	16.5	12.8	76.1	17.6	6.3
	40대	(1,103)	72.5	18.4	9.1	79.4	14.6	6.0
	50대	(1,145)	76.0	15.4	8.5	78.8	15.5	5.7
	60대	(863)	75.2	15.1	9.7	77.6	15.3	7.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70.9	17.9	11.2	79.3	16.1	4.7
	강원	(142)	82.2	11.5	6.3	78.2	16.9	4.9
	충청권	(539)	68.7	18.8	12.4	73.2	15.0	11.9
	전라권	(461)	78.0	15.0	7.1	71.7	20.3	7.9
	경상권	(1,233)	75.8	15.7	8.5	79.0	12.7	8.3
	제주	(62)	57.7	25.1	17.2	64.4	21.4	14.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77.7	15.8	6.5	86.8	6.2	7.0
	중학교 졸업	(295)	85.5	8.7	5.8	84.4	12.0	3.6
	고등학교 졸업	(1,902)	74.7	16.8	8.5	77.8	15.5	6.8
	대학교 졸업	(2,662)	69.6	18.4	12.0	76.6	16.4	7.0
	대학원 재학 이상	(89)	75.3	14.5	10.2	77.6	12.8	9.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77.1	12.0	10.8	84.0	8.0	8.0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83.4	10.0	6.6	82.0	11.8	6.2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78.2	14.5	7.3	79.2	13.8	7.0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74.8	16.8	8.4	78.8	14.5	6.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71.9	18.9	9.2	79.3	15.0	5.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64.5	20.5	15.0	71.1	20.0	8.9
	600만원 이상	(498)	67.1	16.8	16.1	75.6	18.3	6.1

## 2)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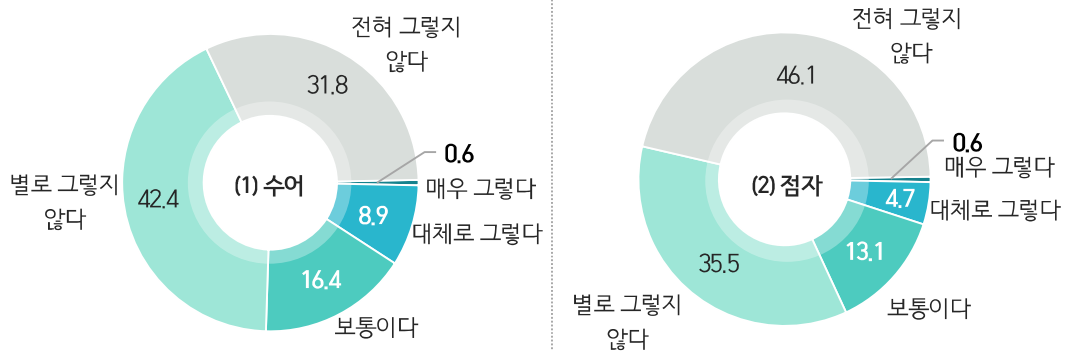
문46

귀하는 기회가 된다면 수어(수화언어)와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습니까?

- ▶ 국민들 중 9.4%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수화언어)를 배울 의사가 있으며, 5.2%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반면, 국민들의 74.2%는 수어(수화언어)를, 81.6%는 점자를 배울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그림 3-79 |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어(수화언어)에 대한 학습 의사는 연령이 20대(12.4%), 거주 지역이 제주(29.6%),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11.3%),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18.4%)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는 연령이 20대(6.4%), 거주 지역이 제주(23.7%),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9.1%),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7.0%)인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78 |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

(단위 : %)

구분		사례 수	(1) 수어(수화언어)			(2) 점자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전 체]		(5,000)	74.2	16.4	9.4	81.6	13.1	5.2
성별	남성	(2,556)	75.2	15.8	8.9	81.9	12.8	5.2
	여성	(2,444)	73.2	16.9	9.9	81.3	13.4	5.2
연령	20대	(929)	67.1	20.4	12.4	76.2	17.4	6.4
	30대	(960)	72.3	16.1	11.6	80.0	14.9	5.1
	40대	(1,103)	74.1	17.3	8.7	81.9	13.1	5.0
	50대	(1,145)	78.1	14.2	7.7	85.5	10.4	4.2
	60대	(863)	79.2	13.9	6.9	83.8	10.3	5.9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70.8	18.5	10.8	81.3	13.6	5.1
	강원	(142)	59.8	29.3	10.9	67.1	24.6	8.3
	충청권	(539)	82.9	13.8	3.3	88.1	10.0	1.9
	전라권	(461)	73.3	12.5	14.1	72.5	20.6	6.8
	경상권	(1,233)	80.9	12.8	6.2	86.0	8.8	5.1
	제주	(62)	49.9	20.5	29.6	52.1	24.2	23.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84.0	10.9	5.1	84.4	11.8	3.8
	중학교 졸업	(295)	85.7	10.8	3.5	89.6	7.9	2.5
	고등학교 졸업	(1,902)	77.4	14.8	7.8	84.1	11.2	4.7
	대학교 졸업	(2,662)	70.6	18.1	11.3	79.1	15.1	5.8
	대학원 재학 이상	(89)	71.6	18.0	10.4	76.9	14.0	9.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80.1	10.5	9.4	87.5	7.7	4.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86.7	10.1	3.2	89.4	7.4	3.2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81.3	12.7	6.1	84.1	11.3	4.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76.9	16.4	6.8	82.1	12.3	5.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72.3	17.9	9.9	80.2	15.2	4.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66.9	20.3	12.8	78.1	16.0	6.0
	600만원 이상	(498)	65.1	16.5	18.4	80.4	12.6	7.0

## 2-1) 수어(수화언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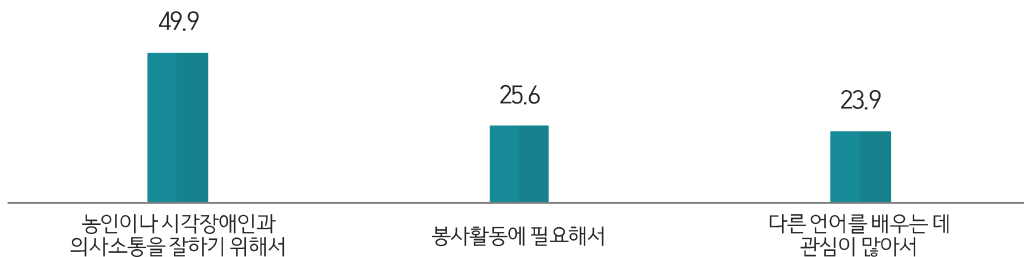
문46-1

수어(수화언어)나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수어(수화언어)나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주된 이유로 '농인(청각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49.9%)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봉사활동에 필요해서'(25.6%),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아서'(23.9%) 순임.

| 그림 3-80 | 수어(수화언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수어(수화언어)나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주된 이유로 '농인(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50대(54.0%), 거주 지역이 제주(67.1%),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52.2%),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400만원 미만(52.4%)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79 | 수어(수화언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농인(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필요해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아서
[전 체]		(1,477)	49.9	25.6	23.9
성별	남성	(725)	51.2	24.0	24.3
	여성	(751)	48.6	27.2	23.6
연령	20대	(356)	52.1	24.0	22.5
	30대	(299)	47.5	27.8	24.3
	40대	(332)	49.7	23.2	26.8
	50대	(282)	54.0	25.3	20.7
	60대	(208)	44.0	29.5	25.6
거주 지역	수도권	(827)	51.9	26.0	21.9
	강원	(62)	56.0	16.8	24.2
	충청권	(113)	45.8	19.7	33.7
	전라권	(169)	50.0	20.0	30.0
	경상권	(274)	41.8	33.6	23.6
	제주	(32)	67.1	15.5	13.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	34.3	21.4	41.1
	중학교 졸업	(48)	50.8	23.5	25.7
	고등학교 졸업	(484)	52.2	26.0	21.4
	대학교 졸업	(902)	49.9	25.2	24.2
	대학원 재학 이상	(31)	16.5	38.1	45.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2)	84.7	0.0	12.2
	100만원~200만원 미만	(46)	52.3	23.8	23.9
	200만원~300만원 미만	(196)	48.2	22.4	28.7
	300만원~400만원 미만	(340)	52.4	25.2	21.4
	400만원~500만원 미만	(383)	49.6	23.5	26.9
	500만원~600만원 미만	(313)	49.4	26.9	23.2
	600만원 이상	(186)	45.5	34.2	19.4

※ 기타 응답 제외

## 10. 다문화 가정 언어

### 1)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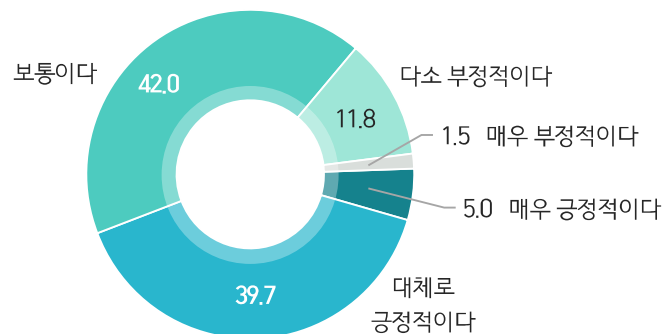
문47

귀하는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44.7%는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대체로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으로 생각함.
- ▶ 반면, 국민들의 13.3%는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함.

| 그림 3-81 |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생각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48.8%), 거주 지역이 수도권(47.3%),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53.4%),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4.2%)인 집단에서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80 |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종합		
								부정적	보통	긍정적
[전 체]		(5,000)	1.5	11.8	42.0	39.7	5.0	13.3	42.0	44.7
성별	남성	(2,556)	1.7	12.2	41.6	39.9	4.7	13.8	41.6	44.6
	여성	(2,444)	1.3	11.5	42.4	39.5	5.4	12.8	42.4	44.9
연령	20대	(929)	1.3	9.6	41.8	42.2	5.1	10.9	41.8	47.3
	30대	(960)	1.7	9.5	40.1	44.2	4.6	11.2	40.1	48.8
	40대	(1,103)	1.3	10.4	43.7	38.4	6.2	11.7	43.7	44.6
	50대	(1,145)	1.4	13.0	43.6	37.8	4.2	14.4	43.6	42.0
	60대	(863)	1.8	17.2	39.8	36.1	5.2	19.0	39.8	41.3
	70대	(200)	1.5	15.0	35.0	33.5	5.0	20.0	35.0	35.0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1.9	11.9	39.0	40.3	7.0	13.7	39.0	47.3
	강원	(142)	3.9	17.7	52.2	25.4	0.8	21.6	52.2	26.2
	충청권	(539)	1.1	9.7	49.6	35.3	4.3	10.8	49.6	39.6
	전라권	(461)	0.1	19.0	39.8	40.5	0.6	19.2	39.8	41.1
	경상권	(1,233)	1.1	9.3	44.5	42.2	2.9	10.4	44.5	45.1
	제주	(62)	0.7	12.3	40.5	30.5	16.1	12.9	40.5	46.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3	16.5	42.2	29.5	10.6	17.7	42.2	40.1
	중학교 졸업	(295)	1.3	16.1	43.1	34.6	5.0	17.4	43.1	39.5
	고등학교 졸업	(1,902)	1.3	12.5	44.6	37.1	4.5	13.8	44.6	41.6
	대학교 졸업	(2,662)	1.6	10.9	40.2	41.9	5.5	12.4	40.2	47.4
	대학원 재학 이상	(89)	3.8	9.2	33.5	51.6	1.8	13.1	33.5	53.4
	무학	(10)	0.0	0.0	0.0	0.0	0.0	0.0	0.0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2	11.9	38.2	35.9	12.9	13.1	38.2	48.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1.2	19.2	39.5	33.3	6.8	20.4	39.5	40.1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1.9	14.9	41.7	38.3	3.4	16.7	41.7	41.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0.9	14.1	43.7	37.4	4.0	14.9	43.7	41.4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7	8.5	44.8	39.8	5.2	10.2	44.8	44.9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3	9.0	41.5	43.6	4.7	10.3	41.5	48.3
	600만원 이상	(498)	2.3	9.7	33.9	45.2	8.9	12.0	33.9	54.2
	700만원 이상	(10)	0.0	0.0	0.0	0.0	0.0	0.0	0.0	0.0

## 1-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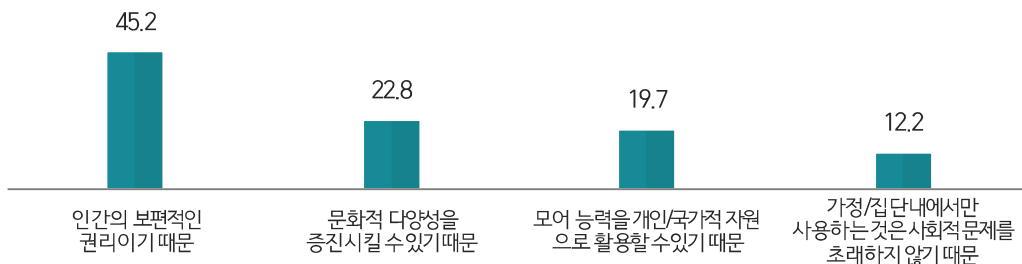
문47-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주민들이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모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45.2%)임.
- ▶ 다음으로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22.8%), '이주민의 모어 능력을 개인적, 국가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19.7%)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82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이주민들이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신의 모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연령이 20대(47.9%), 거주 지역이 제주(68.0%),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54.9%),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60.0%)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81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자신의 모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모어 능력을 개인적, 국가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전 체]		(4,334)	45.2	22.8	19.7	12.2
성별	남성	(2,202)	44.1	23.4	20.6	11.9
	여성	(2,133)	46.3	22.0	18.9	12.5
연령	20대	(828)	47.9	21.5	18.5	12.0
	30대	(852)	42.9	25.1	19.9	11.9
	40대	(974)	47.6	20.1	19.1	13.2
	50대	(980)	41.9	23.0	22.3	12.6
	60대	(700)	46.1	24.7	18.3	10.8
	70대	(100)	45.0	25.0	18.0	12.0
거주 지역	수도권	(2,211)	45.8	20.9	18.6	14.7
	강원	(111)	56.1	24.8	11.3	5.6
	충청권	(480)	42.6	21.7	21.0	14.5
	전라권	(373)	40.3	30.8	22.1	6.7
	경상권	(1,105)	44.6	24.8	22.3	8.4
	제주	(54)	68.0	6.0	6.9	18.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3)	54.9	25.0	12.6	7.5
	중학교 졸업	(244)	49.7	23.3	18.8	7.5
	고등학교 졸업	(1,639)	42.5	24.4	20.1	12.9
	대학교 졸업	(2,331)	46.2	21.9	19.8	12.0
	대학원 재학 이상	(77)	52.8	11.9	17.7	16.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0)	60.0	18.5	12.2	9.2
	100만원~200만원 미만	(230)	56.3	22.2	11.9	9.3
	200만원~300만원 미만	(703)	45.0	22.2	22.1	10.3
	300만원~400만원 미만	(1,075)	43.4	25.1	19.9	11.6
	400만원~500만원 미만	(1,073)	43.9	22.9	19.5	13.5
	500만원~600만원 미만	(766)	42.6	22.3	21.0	14.1
	600만원 이상	(438)	50.0	19.0	18.9	11.9

※ 기타 응답 제외

## 2)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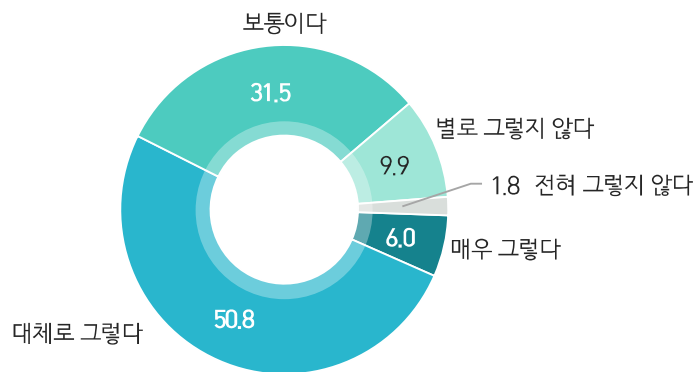
문48

귀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56.8%는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6.8%)(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생각함.
- ▶ 반면, 국민들의 11.7%는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83 |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59.2%), 거주 지역이 제주(70.1%),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8.2%),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62.2%)인 집단에서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82 |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1.8	9.9	31.5	50.8	6.0	11.7	31.5	56.8
성별	남성	(2,556)	1.9	10.0	31.1	50.6	6.4	11.9	31.1	57.0
	여성	(2,444)	1.7	9.8	31.8	51.0	5.7	11.5	31.8	56.6
연령	20대	(929)	0.7	7.9	33.3	51.1	6.9	8.6	33.3	58.1
	30대	(960)	2.0	8.5	30.3	54.5	4.7	10.5	30.3	59.2
	40대	(1,103)	1.7	10.2	31.2	49.7	7.2	11.9	31.2	56.9
	50대	(1,145)	1.9	9.9	31.8	50.1	6.4	11.8	31.8	56.4
	60대	(863)	2.7	13.4	30.6	48.7	4.5	16.1	30.6	53.2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2.5	9.7	28.3	52.6	6.8	12.3	28.3	59.4
	강원	(142)	1.7	7.4	33.5	48.7	8.7	9.1	33.5	57.4
	충청권	(539)	1.6	10.7	41.6	36.8	9.4	12.3	41.6	46.1
	전라권	(461)	0.1	9.6	35.7	51.8	2.8	9.7	35.7	54.6
	경상권	(1,233)	1.0	10.5	32.3	53.5	2.8	11.4	32.3	56.3
	제주	(62)	2.0	7.4	20.4	43.4	26.7	9.5	20.4	70.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8.6	11.6	29.5	49.0	1.2	20.2	29.5	50.2
	중학교 졸업	(295)	1.5	10.4	30.9	51.9	5.3	11.9	30.9	57.2
	고등학교 졸업	(1,902)	1.4	10.7	33.4	49.2	5.3	12.1	33.4	54.5
	대학교 졸업	(2,662)	2.0	9.4	30.4	51.8	6.4	11.4	30.4	58.2
	대학원 재학 이상	(89)	1.4	5.5	24.9	52.5	15.7	6.9	24.9	68.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1.6	14.3	27.8	37.9	18.5	15.9	27.8	56.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3	14.2	26.8	51.3	3.4	18.5	26.8	54.7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0	9.6	31.2	50.8	5.4	12.6	31.2	56.2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5	9.1	35.9	49.4	4.1	10.6	35.9	53.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3	9.1	32.6	50.8	6.2	10.4	32.6	57.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2	9.8	29.3	52.8	6.8	11.0	29.3	59.6
	600만원 이상	(498)	1.3	11.5	24.9	52.1	10.2	12.9	24.9	62.2

## 2-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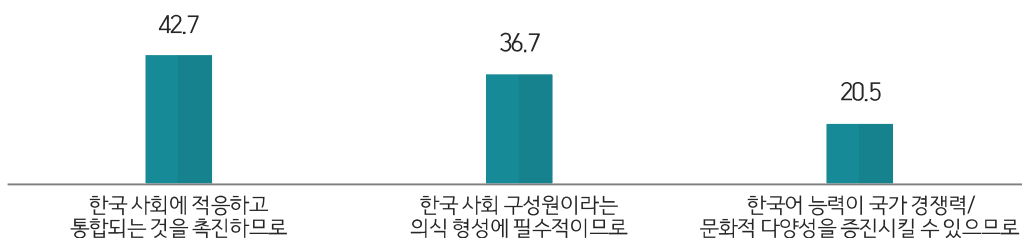
문48-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므로' (42.7%)임.
- ▶ 다음으로는 '한국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 형성에 필수적이므로'(36.7%), '한국어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20.5%)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84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므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30대(45.5%), 거주 지역이 제주(59.3%),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44.2%), 월평균 가구 소득이 400만원~500만원 미만(45.0%)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83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므로	한국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 형성에 필수적이므로	한국어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전 체]		(4,415)	42.7	36.7	20.5
성별	남성	(2,252)	42.8	36.4	20.7
	여성	(2,163)	42.5	37.0	20.3
연령	20대	(849)	43.0	36.2	20.6
	30대	(859)	45.5	34.6	19.9
	40대	(972)	42.4	36.7	20.9
	50대	(1,010)	41.4	37.7	20.7
	60대	(724)	41.0	38.5	20.4
거주 지역	수도권	(2,248)	44.1	36.1	19.8
	강원	(129)	50.7	35.4	11.8
	충청권	(473)	42.8	32.9	24.0
	전라권	(416)	42.0	37.5	20.5
	경상권	(1,092)	37.9	40.6	21.4
	제주	(56)	59.3	15.8	24.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2)	39.8	34.4	24.4
	중학교 졸업	(260)	38.6	37.8	23.4
	고등학교 졸업	(1,671)	41.1	38.4	20.4
	대학교 졸업	(2,360)	44.2	35.4	20.3
	대학원 재학 이상	(83)	43.6	37.6	18.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8)	42.9	32.4	24.7
	100만원~200만원 미만	(235)	40.6	36.7	22.5
	200만원~300만원 미만	(738)	42.1	37.9	19.8
	300만원~400만원 미만	(1,130)	43.4	35.4	21.1
	400만원~500만원 미만	(1,071)	45.0	35.9	19.1
	500만원~600만원 미만	(759)	41.9	39.3	18.8
	600만원 이상	(434)	38.1	36.2	25.3

※ 기타 응답 제외

###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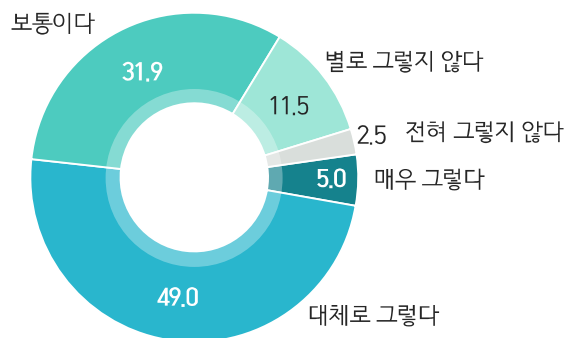
문49

귀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54.0%는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생각함.
- ▶ 반면, 국민들 중 14.1%는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85 |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57.8%), 거주 지역이 제주(62.1%),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7.2%),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57.6%)인 집단에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84 |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2.5	11.5	31.9	49.0	5.0	14.1	31.9	54.0
성별	남성	(2,556)	2.7	11.2	31.3	50.1	4.7	13.9	31.3	54.9
	여성	(2,444)	2.4	11.9	32.6	47.9	5.2	14.3	32.6	53.1
연령	20대	(929)	1.8	10.1	33.3	48.6	6.1	11.9	33.3	54.7
	30대	(960)	3.2	10.8	28.2	53.7	4.1	14.0	28.2	57.8
	40대	(1,103)	2.5	11.5	32.4	48.0	5.6	14.0	32.4	53.6
	50대	(1,145)	2.1	11.0	32.7	49.1	5.1	13.1	32.7	54.2
	60대	(863)	3.3	14.5	33.0	45.5	3.8	17.8	33.0	49.3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7	10.8	28.9	51.1	5.5	14.5	28.9	56.6
	강원	(142)	2.6	8.8	35.4	48.0	5.3	11.3	35.4	53.2
	충청권	(539)	1.5	12.2	40.6	36.8	9.0	13.6	40.6	45.8
	전라권	(461)	0.5	9.1	31.4	53.9	5.1	9.7	31.4	58.9
	경상권	(1,233)	1.3	14.1	34.5	48.5	1.6	15.4	34.5	50.1
	제주	(62)	2.1	7.5	28.3	45.9	16.2	9.6	28.3	62.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5.2	11.9	31.3	50.4	1.2	17.1	31.3	51.6
	중학교 졸업	(295)	1.8	10.0	36.2	50.6	1.4	11.8	36.2	52.0
	고등학교 졸업	(1,902)	2.0	12.2	35.0	46.8	3.9	14.2	35.0	50.7
	대학교 졸업	(2,662)	2.8	11.5	29.5	50.4	5.8	14.3	29.5	56.2
	대학원 재학 이상	(89)	5.6	2.1	25.1	50.6	16.7	7.6	25.1	67.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4.6	4.4	36.4	40.5	14.1	9.0	36.4	54.6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6	13.6	32.8	44.2	4.7	18.3	32.8	48.9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5	10.0	34.7	48.3	3.5	13.5	34.7	51.8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2.4	10.5	32.3	51.2	3.5	12.9	32.3	54.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5	10.8	34.0	49.3	4.4	12.3	34.0	53.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4	13.7	29.8	50.1	5.0	15.1	29.8	55.1
	600만원 이상	(498)	4.1	14.3	24.0	45.9	11.7	18.4	24.0	57.6

### 3-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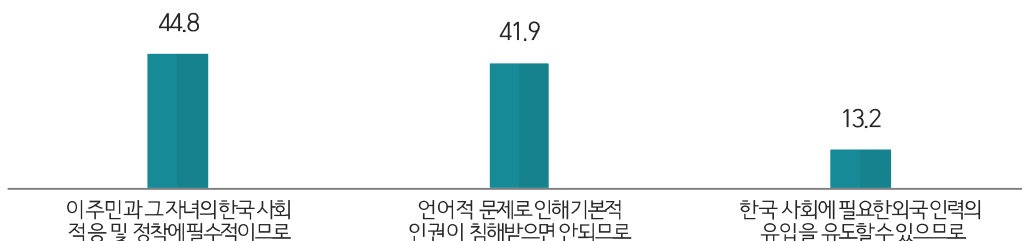
문49-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이주민과 그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에 필수적이므로'(44.8%)임
- ▶ 다음으로는 '언어적 문제로 인해 이주민과 그 자녀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으면 안 되므로'(41.9%),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외국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13.2%)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86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이주민과 그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에 필수적이므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60대(46.4%) 거주 지역이 전라권(52.5%),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48.7%),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59.5%)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85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이주민과 그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에 필수적이므로	언어적 문제로 인해 이주민과 그 자녀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으면 안 되므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외국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전 체]		(4,297)	44.8	41.9	13.2
성별	남성	(2,201)	45.7	41.1	13.0
	여성	(2,096)	43.8	42.6	13.4
연령	20대	(818)	43.5	43.9	12.1
	30대	(825)	44.4	40.7	14.9
	40대	(949)	44.6	42.0	13.4
	50대	(995)	45.1	41.4	13.3
	60대	(710)	46.4	41.4	11.9
거주 지역	수도권	(2,191)	42.3	44.2	13.5
	강원	(126)	41.1	51.2	5.6
	충청권	(465)	44.8	41.2	13.6
	전라권	(417)	52.5	36.7	10.8
	경상권	(1,043)	47.2	38.2	14.6
	제주	(56)	48.3	43.5	6.2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3)	47.7	46.4	3.6
	중학교 졸업	(260)	48.7	40.1	10.8
	고등학교 졸업	(1,631)	45.9	41.2	12.8
	대학교 졸업	(2,281)	43.6	42.3	13.9
	대학원 재학 이상	(82)	39.9	46.7	13.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2)	59.5	29.0	8.9
	100만원~200만원 미만	(236)	49.9	40.8	8.8
	200만원~300만원 미만	(730)	44.5	40.0	15.4
	300만원~400만원 미만	(1,100)	45.2	42.8	11.9
	400만원~500만원 미만	(1,048)	42.3	44.0	13.6
	500만원~600만원 미만	(725)	44.5	41.7	13.6
	600만원 이상	(406)	46.2	39.7	14.1

※ 기타 응답 제외

## 11. 한국어 진흥

### 1)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활성화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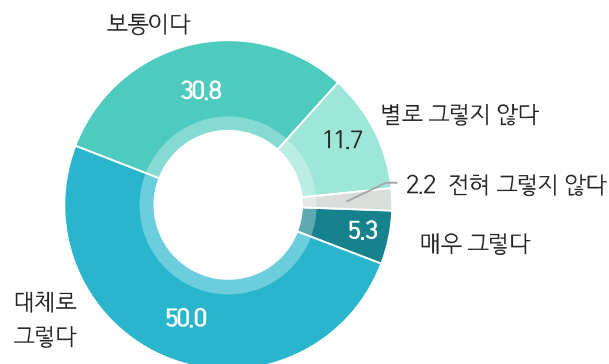
문50

귀하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55.3%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생각함.
- ▶ 반면, 국민들 중 13.9%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87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57.8%), 거주 지역이 수도권(57.7%),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62.4%),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60.2%)인 집단에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86 |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체계화/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2.2	11.7	30.8	50.0	5.3	13.9	30.8	55.3
성별	남성	(2,556)	2.2	12.1	30.6	50.0	5.1	14.3	30.6	55.0
	여성	(2,444)	2.2	11.2	31.0	50.1	5.5	13.4	31.0	55.6
연령	20대	(929)	2.1	10.3	29.9	49.9	7.8	12.4	29.9	57.8
	30대	(960)	2.3	11.1	31.8	50.0	4.8	13.4	31.8	54.9
	40대	(1,103)	2.0	11.6	30.9	51.2	4.3	13.6	30.9	55.5
	50대	(1,145)	1.5	12.2	31.9	49.1	5.3	13.7	31.9	54.4
	60대	(863)	3.2	13.4	29.3	49.9	4.2	16.6	29.3	54.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1	11.3	27.9	51.4	6.3	14.4	27.9	57.7
	강원	(142)	3.0	7.3	36.4	49.9	3.4	10.3	36.4	53.3
	충청권	(539)	1.9	11.6	39.7	37.3	9.5	13.5	39.7	46.8
	전라권	(461)	0.3	10.1	33.0	54.7	1.9	10.4	33.0	56.6
	경상권	(1,233)	1.0	13.7	31.4	51.6	2.4	14.7	31.4	54.0
최종 학력	제주	(62)	1.4	12.6	34.3	39.2	12.6	14.0	34.3	51.8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0	14.8	23.7	57.3	4.2	14.8	23.7	61.5
	중학교 졸업	(295)	1.3	11.4	30.8	52.9	3.7	12.6	30.8	56.6
	고등학교 졸업	(1,902)	1.9	11.9	33.7	48.7	3.8	13.8	33.7	52.5
	대학교 졸업	(2,662)	2.4	11.6	29.2	50.8	6.0	14.0	29.2	56.8
월평균 가구 소득	대학원 재학 이상	(89)	4.4	9.7	23.6	42.4	20.0	14.1	23.6	62.4
	100만원 미만	(57)	7.7	7.2	30.4	39.5	15.2	14.9	30.4	54.7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3	15.8	28.6	45.5	5.9	20.1	28.6	51.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4	10.1	30.6	51.8	4.0	13.6	30.6	55.8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6	11.2	33.4	50.0	3.9	12.8	33.4	53.8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7	10.8	31.8	51.7	4.0	12.5	31.8	55.8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5	12.2	31.5	49.8	5.1	13.7	31.5	54.8
	600만원 이상	(498)	2.0	15.0	22.8	47.6	12.6	17.0	22.8	60.2

## 1-1)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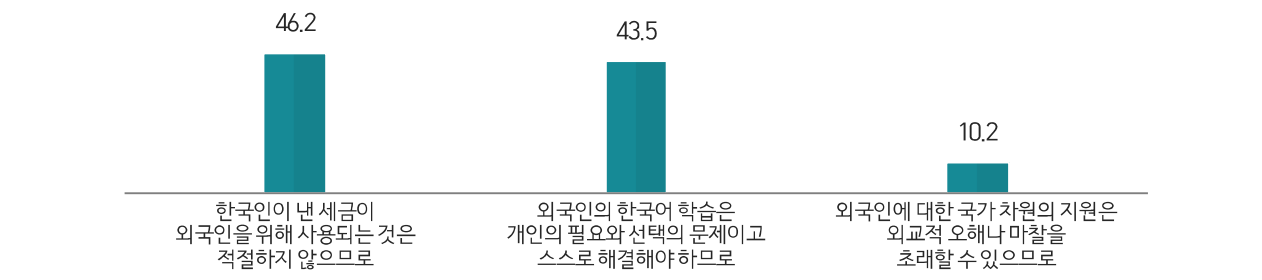
문50-1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46.2%)임.
- ▶ 다음으로는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은 개인의 필요와 선택의 문제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43.5%), '외국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10.2%)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88 |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60대(57.5%), 거주 지역이 수도권(51.6%),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56.9%),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60.4%)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87 |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은 개인의 필요와 선택의 문제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 체]		(693)	46.2	43.5	10.2
성별	남성	(366)	46.0	44.7	9.3
	여성	(327)	46.5	42.2	11.3
연령	20대	(115)	37.4	49.4	13.2
	30대	(128)	47.8	45.9	6.3
	40대	(150)	40.3	48.7	11.0
	50대	(157)	46.8	40.1	13.1
	60대	(143)	57.5	35.0	7.5
거주 지역	수도권	(369)	51.6	39.7	8.7
	강원	(15)	61.1	38.9	0.0
	충청권	(73)	41.1	39.8	19.0
	전라권	(48)	46.7	41.6	11.7
	경상권	(181)	36.5	52.9	10.6
	제주	(9)	35.4	59.4	5.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8)	42.1	57.9	0.0
	중학교 졸업	(37)	56.9	31.8	11.3
	고등학교 졸업	(263)	49.2	41.4	9.5
	대학교 졸업	(373)	43.4	45.4	11.2
	대학원 재학 이상	(12)	40.6	59.4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	51.6	27.2	21.3
	100만원~200만원 미만	(58)	60.4	28.2	11.4
	200만원~300만원 미만	(115)	47.6	42.7	9.7
	300만원~400만원 미만	(162)	43.1	42.2	14.8
	400만원~500만원 미만	(149)	47.6	45.1	7.3
	500만원~600만원 미만	(117)	39.1	50.7	10.2
	600만원 이상	(85)	47.6	46.7	5.6

## 1-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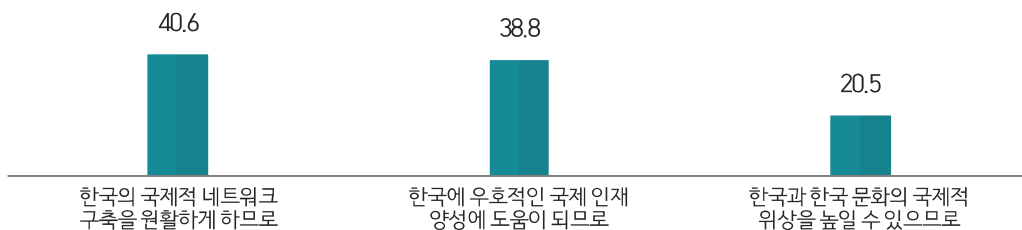
문50-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국민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하므로' (40.6%)임.
- ▶ 다음으로는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므로'(38.8%), '한국과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므로'(20.5%)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89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하므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30대(42.3%), 거주 지역이 강원(48.2%),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46.3%),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45.1%)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88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하므로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므로	한국과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전 체]		(4,307)	40.6	38.8	20.5
성별	남성	(2,189)	41.2	38.6	20.1
	여성	(2,117)	39.9	39.0	20.9
연령	20대	(814)	41.1	38.9	19.8
	30대	(831)	42.3	36.6	21.0
	40대	(953)	40.4	39.6	19.8
	50대	(988)	40.8	38.0	21.0
	60대	(720)	37.9	41.2	20.8
거주 지역	수도권	(2,194)	43.9	36.0	20.1
	강원	(127)	48.2	33.6	15.3
	충청권	(466)	38.5	36.3	24.5
	전라권	(413)	42.3	40.1	17.5
	경상권	(1,052)	33.4	46.2	20.4
	제주	(54)	30.8	27.6	39.4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5)	41.6	40.2	15.9
	중학교 졸업	(258)	36.6	37.9	25.3
	고등학교 졸업	(1,639)	37.7	40.8	21.4
	대학교 졸업	(2,289)	42.8	37.6	19.4
	대학원 재학 이상	(76)	46.3	33.5	20.2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9)	37.2	33.1	27.5
	100만원~200만원 미만	(230)	42.1	33.0	24.3
	200만원~300만원 미만	(730)	38.1	40.7	21.1
	300만원~400만원 미만	(1,102)	37.4	40.1	22.3
	400만원~500만원 미만	(1,046)	40.7	39.8	19.2
	500만원~600만원 미만	(737)	45.1	39.7	15.2
	600만원 이상	(413)	44.5	31.5	23.9

※ 기타 응답 제외

## 2)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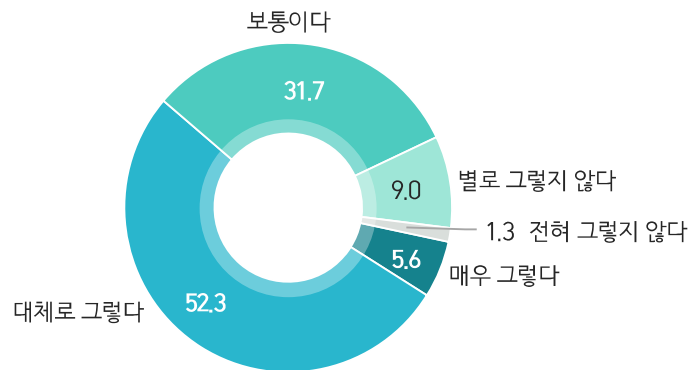
문51

귀하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은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57.9%)고 생각함.
- ▶ 반면 국민들의 10.4%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90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위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61.1%), 거주 지역이 전라권(61.1%),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71.7%),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64.7%)인 집단에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89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위한 사업 지원의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1.3	9.0	31.7	52.3	5.6	10.4	31.7	57.9
성별	남성	(2,556)	1.4	9.8	30.8	52.3	5.7	11.2	30.8	58.0
	여성	(2,444)	1.3	8.2	32.7	52.3	5.5	9.5	32.7	57.8
연령	20대	(929)	1.3	9.4	28.2	55.4	5.7	10.7	28.2	61.1
	30대	(960)	0.8	7.7	32.3	53.0	6.1	8.5	32.3	59.1
	40대	(1,103)	1.5	8.9	31.8	52.3	5.6	10.4	31.8	57.8
	50대	(1,145)	1.4	9.6	33.0	50.8	5.2	11.0	33.0	56.0
	60대	(863)	1.7	9.5	33.1	50.2	5.5	11.2	33.1	55.6
	70대	(1,103)	1.5	8.9	31.8	52.3	5.6	10.4	31.8	57.8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2.1	8.3	29.1	54.2	6.2	10.4	29.1	60.5
	강원	(142)	0.8	7.6	42.7	45.0	3.9	8.4	42.7	48.9
	충청권	(539)	1.1	11.9	37.0	38.2	11.8	13.0	37.0	50.0
	전라권	(461)	0.0	9.6	29.3	57.8	3.3	9.6	29.3	61.1
	경상권	(1,233)	0.5	9.2	34.2	53.8	2.3	9.7	34.2	56.1
	제주	(62)	2.1	10.4	34.9	41.2	11.3	12.5	34.9	52.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0.8	10.0	30.3	57.7	1.2	10.8	30.3	58.9
	중학교 졸업	(295)	1.1	8.7	28.6	56.5	5.1	9.8	28.6	61.6
	고등학교 졸업	(1,902)	1.1	9.7	36.1	48.9	4.2	10.8	36.1	53.1
	대학교 졸업	(2,662)	1.6	8.7	29.2	54.4	6.0	10.4	29.2	60.4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4.6	23.7	45.9	25.8	4.6	23.7	71.7
	대학원 재학 이상	(89)	0.0	4.6	23.7	45.9	25.8	4.6	23.7	71.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0.7	15.0	23.2	45.3	15.8	15.7	23.2	61.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5	14.7	27.4	47.0	6.4	19.3	27.4	53.4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2.5	9.4	30.2	52.8	5.0	11.9	30.2	57.8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1.0	9.0	32.3	52.4	5.2	10.0	32.3	57.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0.8	7.3	35.7	52.1	4.1	8.1	35.7	56.2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0.7	9.4	31.8	53.4	4.7	10.2	31.8	58.1
	600만원 이상	(498)	0.7	8.1	26.5	53.6	11.2	8.7	26.5	64.7

## 2-1)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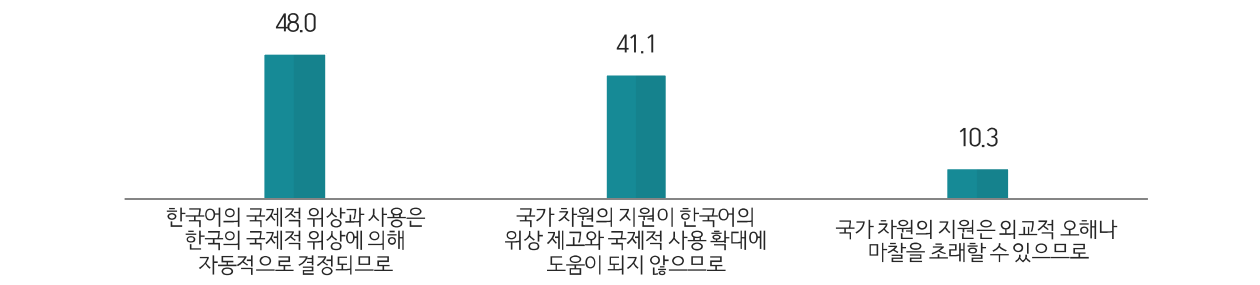
문51-1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사용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48.0%)임.
- ▶ 다음으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41.1%), '국가 차원의 지원은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10.3%)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91 |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사용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40대(64.0%), 거주 지역이 전라권(58.5%),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54.6),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55.8%)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90 |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사용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 체]		(519)	48.0	41.1	10.3
성별	남성	(286)	47.0	44.8	7.7
	여성	(233)	49.2	36.6	13.5
연령	20대	(100)	41.4	46.2	12.4
	30대	(82)	47.8	41.6	8.7
	40대	(115)	64.0	23.1	12.2
	50대	(126)	46.3	45.5	7.7
	60대	(97)	38.3	51.1	10.6
거주 지역	수도권	(266)	45.3	47.0	7.8
	강원	(12)	53.6	32.1	0.0
	충청권	(70)	52.1	29.5	18.3
	전라권	(44)	58.5	31.4	10.1
	경상권	(119)	47.9	39.9	11.5
	제주	(8)	38.4	33.5	22.0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28.4	59.8	11.7
	중학교 졸업	(29)	54.6	33.1	10.2
	고등학교 졸업	(205)	46.0	42.8	11.2
	대학교 졸업	(276)	48.9	41.0	9.3
	대학원 재학 이상	(4)	70.3	0.0	29.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	24.0	76.0	0.0
	100만원~200만원 미만	(56)	49.4	41.5	9.1
	200만원~300만원 미만	(101)	47.1	39.1	12.3
	300만원~400만원 미만	(127)	47.5	40.9	10.8
	400만원~500만원 미만	(97)	46.4	41.2	12.3
	500만원~600만원 미만	(87)	55.8	35.2	8.3
	600만원 이상	(44)	42.7	50.4	6.9

※ 기타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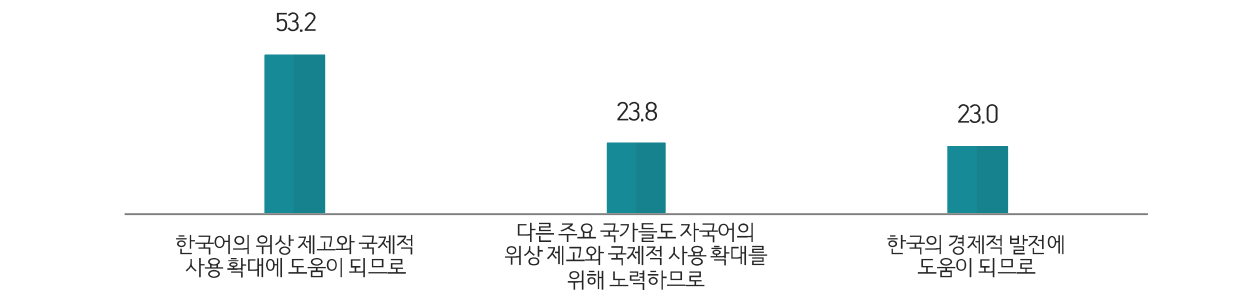
## 2-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문51-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53.2%)임.
- ▶ 다음으로는 '다른 주요 국가들도 자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므로'(23.8%),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23.0%)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92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40대(54.1%), 거주 지역이 강원(65.6%),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60.0%),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59.0%)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91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다른 주요 국가들도 자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므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전 체]		(4,481)	53.2	23.8	23.0
성별	남성	(2,269)	52.8	23.2	24.0
	여성	(2,212)	53.7	24.4	21.9
연령	20대	(829)	53.6	23.6	22.8
	30대	(878)	53.1	23.0	23.8
	40대	(989)	54.1	23.8	22.1
	50대	(1,019)	52.2	24.5	23.3
	60대	(767)	53.1	23.8	23.0
거주 지역	수도권	(2,297)	55.0	22.7	22.3
	강원	(130)	65.6	10.3	23.1
	충청권	(469)	49.8	30.2	20.0
	전라권	(417)	49.8	27.5	22.7
	경상권	(1,114)	50.9	22.9	26.2
	제주	(54)	49.1	36.2	13.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7)	52.6	20.7	26.7
	중학교 졸업	(266)	60.0	22.2	17.6
	고등학교 졸업	(1,697)	52.1	23.9	24.0
	대학교 졸업	(2,386)	53.3	23.8	22.9
	대학원 재학 이상	(85)	53.6	26.4	2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8)	55.6	13.7	30.7
	100만원~200만원 미만	(233)	59.0	20.6	20.4
	200만원~300만원 미만	(744)	52.9	26.2	20.8
	300만원~400만원 미만	(1,137)	53.1	22.2	24.6
	400만원~500만원 미만	(1,098)	55.8	21.1	23.2
	500만원~600만원 미만	(766)	49.3	28.1	22.7
	600만원 이상	(454)	51.1	25.6	23.3

※ 기타 응답 제외

## 12. 남북한 언어 통일

### 1)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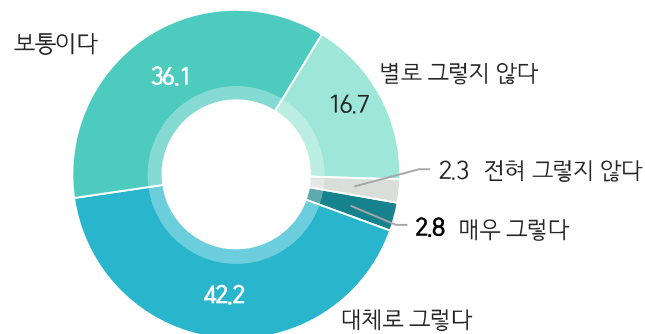
문52

귀하는 통일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도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44.9%는 통일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도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고 생각함.
- ▶ 반면, 국민들의 19.0%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그림 3-93 |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성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30대(46.9%), 거주 지역이 전라권(53.3%), 최종 학력이 대학원 재학 이상(49.9%),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50.0%)인 집단에서 우리 국민들의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92 |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성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 체]		(5,000)	2.3	16.7	36.1	42.2	2.8	19.0	36.1	44.9
성별	남성	(2,556)	2.0	16.9	36.0	42.3	2.7	19.0	36.0	45.0
	여성	(2,444)	2.5	16.5	36.1	42.0	2.8	19.1	36.1	44.8
연령	20대	(929)	3.0	16.3	38.2	39.4	3.1	19.3	38.2	42.5
	30대	(960)	2.0	15.3	35.9	42.9	4.0	17.3	35.9	46.9
	40대	(1,103)	1.8	15.8	36.5	43.5	2.4	17.6	36.5	45.9
	50대	(1,145)	2.4	18.0	35.7	41.8	2.0	20.4	35.7	43.8
	60대	(863)	2.2	18.4	33.8	43.0	2.7	20.6	33.8	45.6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0	16.3	35.4	42.3	3.0	19.3	35.4	45.4
	강원	(142)	3.5	10.0	39.6	44.4	2.6	13.4	39.6	47.0
	충청권	(539)	2.2	13.9	42.7	35.9	5.3	16.1	42.7	41.1
	전라권	(461)	0.7	10.8	35.2	52.9	0.4	11.5	35.2	53.3
	경상권	(1,233)	1.2	22.2	34.6	40.4	1.7	23.3	34.6	42.1
	제주	(62)	4.7	10.0	34.7	41.2	9.4	14.7	34.7	50.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1.6	34.1	26.3	31.4	6.5	35.7	26.3	38.0
	중학교 졸업	(295)	2.7	16.3	41.7	37.9	1.3	19.0	41.7	39.2
	고등학교 졸업	(1,902)	1.8	17.2	34.9	44.1	2.0	19.0	34.9	46.1
	대학교 졸업	(2,662)	2.7	16.1	36.6	41.4	3.3	18.7	36.6	44.7
	대학원 재학 이상	(89)	0.5	17.4	32.3	44.4	5.5	17.9	32.3	49.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0	22.9	44.8	28.2	1.1	25.9	44.8	29.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2.2	24.9	33.6	37.5	1.8	27.0	33.6	39.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0	18.2	36.1	39.9	2.7	21.3	36.1	42.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2.8	16.2	36.6	42.4	2.1	18.9	36.6	44.5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1.7	14.9	37.9	43.3	2.3	16.5	37.9	45.6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1.5	14.6	33.9	47.1	2.9	16.1	33.9	50.0
	600만원 이상	(498)	2.5	18.3	34.2	38.3	6.6	20.8	34.2	45.0

## 1-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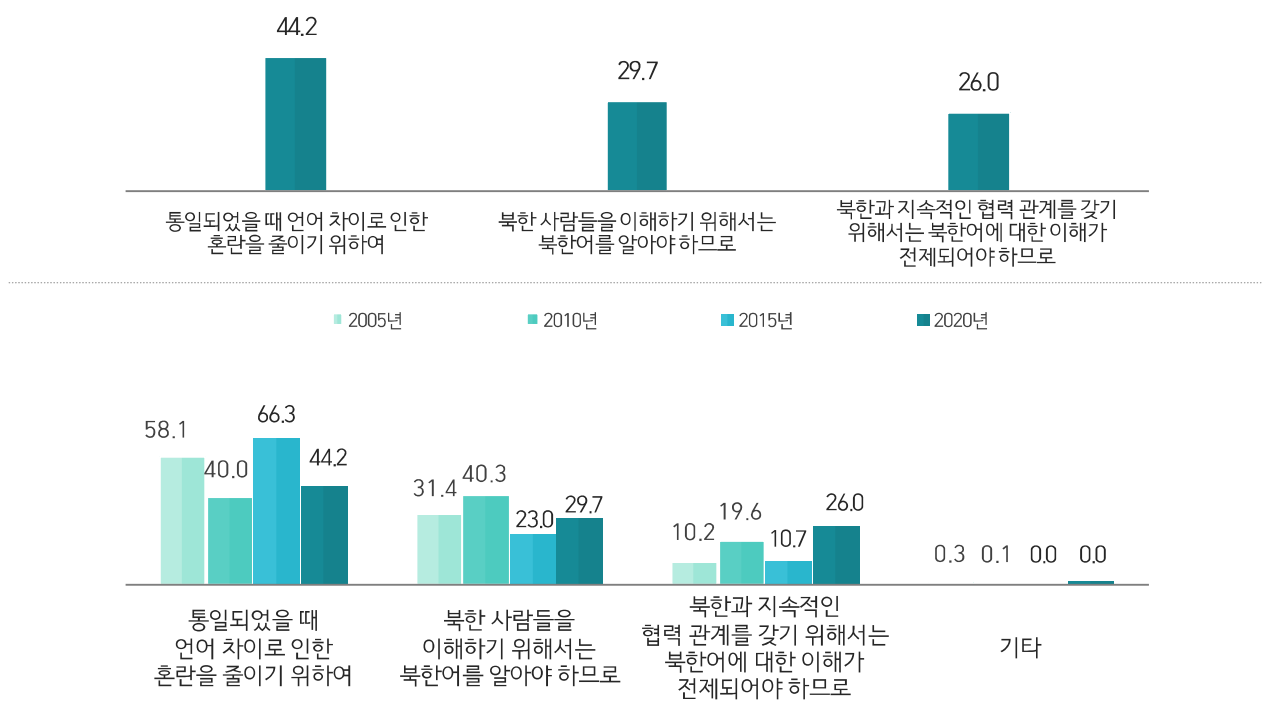
문52-1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우리 국민들도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44.2%)로 나타남.
- ▶ 다음으로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29.7%),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26.0%) 순임.
- ▶ 시계열 분석 결과 또한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국민들도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5년 이후 큰 폭(+15.3%p)으로 상승함.

| 그림 3-94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우리 국민들도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연령이 60대(47.2%), 거주 지역이 제주(64.1%),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47.4%),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47.3%)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93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 수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전 체]		(4,050)	44.2	29.7	26.0
성별	남성	(2,071)	43.3	29.1	27.6
	여성	(1,979)	45.2	30.4	24.4
연령	20대	(750)	44.2	28.5	27.3
	30대	(794)	41.9	30.6	27.5
	40대	(909)	43.2	31.0	25.8
	50대	(911)	44.9	28.4	26.7
	60대	(686)	47.2	30.1	22.5
거주 지역	수도권	(2,069)	44.6	29.4	26.0
	강원	(123)	56.4	20.9	21.7
	충청권	(452)	44.4	24.3	31.3
	전라권	(408)	37.5	38.9	23.5
	경상권	(945)	43.6	31.2	25.2
	제주	(53)	64.1	10.2	25.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4)	47.4	28.1	24.5
	중학교 졸업	(239)	40.9	34.6	24.3
	고등학교 졸업	(1,540)	42.7	31.5	25.7
	대학교 졸업	(2,164)	46.0	27.8	26.3
	대학원 재학 이상	(73)	34.1	33.9	31.9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2)	34.6	36.9	28.5
	100만원~200만원 미만	(210)	42.0	29.2	28.8
	200만원~300만원 미만	(665)	40.8	31.1	28.1
	300만원~400만원 미만	(1,024)	44.3	30.8	24.8
	400만원~500만원 미만	(998)	45.2	29.3	25.5
	500만원~600만원 미만	(716)	45.4	30.5	24.1
	600만원 이상	(394)	47.3	23.8	28.9

※ 기타 응답 제외

## 2) 남북한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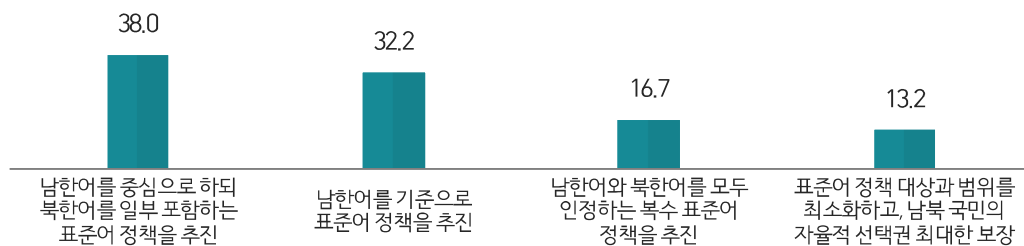
문53

남북 통일 상황에서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남북 통일 상황에서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은 '남한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어를 일부 포함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38.0%)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 다음으로는 '남한어를 기준으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32.2%), '남한어와 북한어를 모두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16.7%) 순임.

| 그림 3-95 | 남북한어 통합시 표준어 정책 기준과 방향

(단위 : %)



특성별 분석

- ▶ 남북 통일 상황에서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으로 '남한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어를 일부 포함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응답은 연령이 40대(39.4%), 거주 지역이 전라권(39.6%), 초등학교 졸업 이하(43.6%),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600만원 미만(41.5%)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94 | 남북한어 통합시 표준어 정책 기준과 방향

(단위 : %)

구분		사례 수	남한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어를 일부 포함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	남한어를 기준으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	남한어와 북한어를 모두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	표준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남과 북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전 체]		(5,000)	38.0	32.2	16.7	13.2
성별	남성	(2,556)	37.3	32.9	17.0	12.8
	여성	(2,444)	38.7	31.4	16.3	13.5
연령	20대	(929)	38.0	31.7	17.4	12.8
	30대	(960)	37.3	33.3	17.0	12.4
	40대	(1,103)	39.4	30.5	15.1	14.9
	50대	(1,145)	37.9	30.8	17.9	13.4
	60대	(863)	36.9	35.3	15.9	11.9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9.4	33.6	16.6	10.5
	강원	(142)	34.2	28.4	17.7	19.2
	충청권	(539)	32.6	25.5	17.0	24.8
	전라권	(461)	39.6	30.3	18.2	11.8
	경상권	(1,233)	38.1	33.1	15.9	13.0
	제주	(62)	22.0	36.1	18.5	22.1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43.6	34.1	10.7	11.6
	중학교 졸업	(295)	43.4	30.6	14.6	11.4
	고등학교 졸업	(1,902)	39.5	31.8	16.9	11.7
	대학교 졸업	(2,662)	36.6	32.7	16.7	14.0
	대학원 재학 이상	(89)	25.9	29.5	20.1	24.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38.8	29.6	14.8	16.8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38.1	38.7	13.9	9.3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3.9	36.3	16.0	13.7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39.5	30.2	16.6	13.6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36.8	31.2	18.3	13.7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41.5	28.2	17.5	12.8
	600만원 이상	(498)	37.5	35.8	14.4	12.2

※ 기타 응답 제외

## 라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1.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1) 국립국어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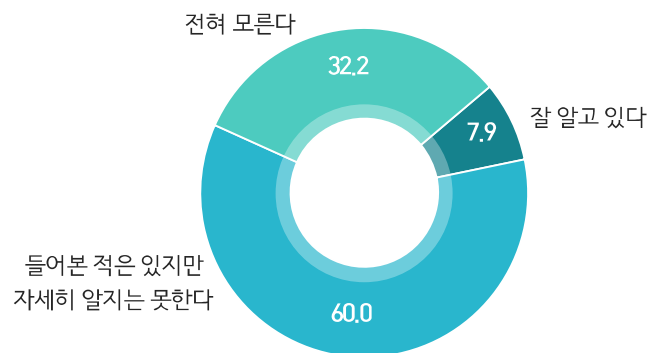
문54

귀하는 국립국어원이라는 국가 기관을 알고 있습니까?

- ▶ 국립국어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민은 7.9%인 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 국민은 60.0%이고 '전혀 모르는' 국민들은 32.2%임.

| 그림 3-96 | 국립국어원 인지도

(단위 : %)





특성별 분석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20대(76.3%), 거주 지역이 전라(81.0%),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76.4%), 월평균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73.4%)인 집단에서 국립국어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95 | 국립국어원 인지도

(단위 : %)

구분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잘 알고 있다	종합	
						비인지	인지
[전 체]		(5,000)	32.2	60.0	7.9	32.2	67.8
성별	남성	(2,556)	30.8	61.1	8.1	30.8	69.2
	여성	(2,444)	33.6	58.8	7.6	33.6	66.4
연령	20대	(929)	23.7	63.3	13.0	23.7	76.3
	30대	(960)	25.6	65.5	9.0	25.6	74.4
	40대	(1,103)	29.7	63.6	6.6	29.7	70.3
	50대	(1,145)	34.8	59.2	6.0	34.8	65.2
	60대	(863)	48.2	46.6	5.1	48.2	51.8
	70대	(863)	48.2	46.6	5.1	48.2	51.8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2.8	58.0	9.1	32.8	67.2
	강원	(142)	37.0	57.4	5.6	37.0	63.0
	충청권	(539)	22.0	69.0	9.0	22.0	78.0
	전라권	(461)	19.0	71.2	9.8	19.0	81.0
	경상권	(1,233)	39.4	56.6	4.0	39.4	60.6
	제주	(62)	35.2	53.3	11.4	35.2	64.8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71.9	24.5	3.6	71.9	28.1
	중학교 졸업	(295)	58.9	39.1	2.0	58.9	41.1
	고등학교 졸업	(1,902)	38.9	56.6	4.5	38.9	61.1
	대학교 졸업	(2,662)	23.6	65.9	10.5	23.6	76.4
	대학원 재학 이상	(89)	32.3	44.7	23.0	32.3	67.7
	대학원 졸업 이상	(89)	32.3	44.7	23.0	32.3	67.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4.8	40.5	4.7	54.8	45.2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58.2	40.6	1.2	58.2	41.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40.8	54.2	5.0	40.8	59.2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28.5	64.7	6.8	28.5	71.5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28.0	64.3	7.7	28.0	72.0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27.9	60.8	11.4	27.9	72.1
	600만원 이상	(498)	26.6	59.6	13.9	26.6	73.4

## 2)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한 국가 기관의 중점 추진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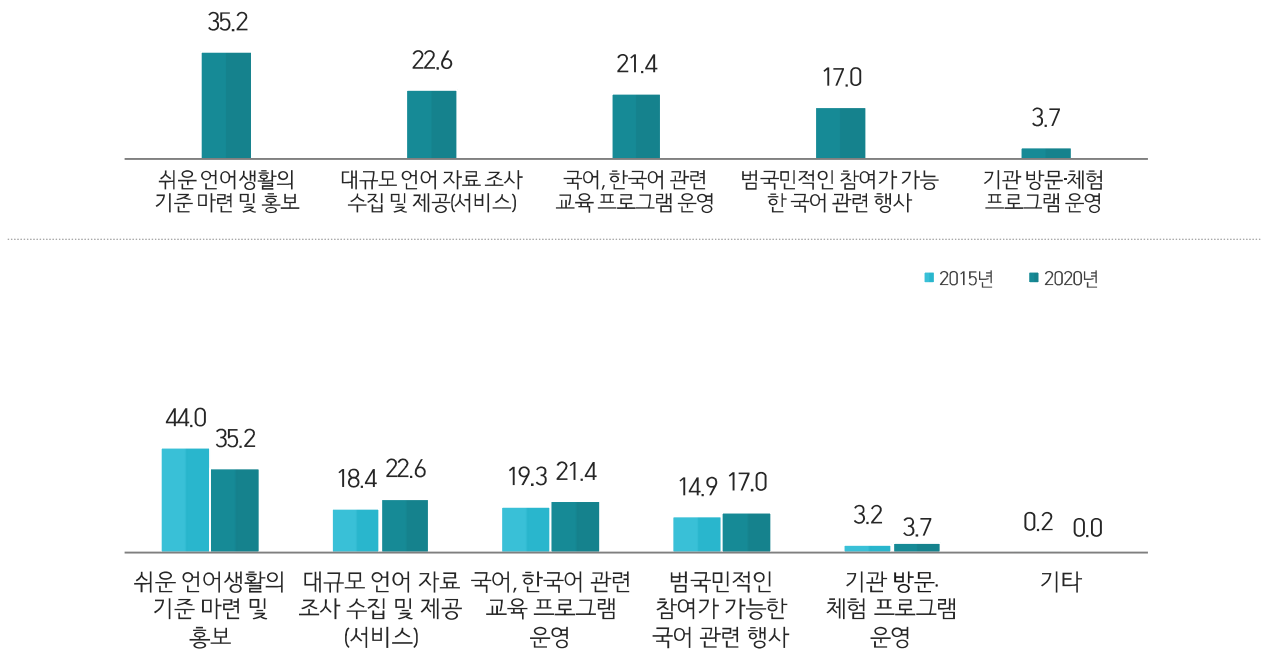
문55

귀하는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 같은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 같은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35.2%)임.
- ▶ 다음으로는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수집 및 제공(서비스)'(22.6%),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21.4%) 순으로 나타남.
- ▶ 시계열 분석 결과,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가 기관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 의견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함.

| 그림 3-97 | 국민 언어생활 위해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단위 : %)



특성별 분석

- ▶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라는 응답은 연령이 60대(38.5%), 거주 지역이 강원(56.4%),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48.5%),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44.5%)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6 | 국민 언어생활 위해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단위 : %)

구분		사례 수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수집 및 제공(서비스)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범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어 관련 행사	기관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 체]		(5,000)	35.2	22.6	21.4	17.0	3.7
성별	남성	(2,556)	35.4	22.8	21.1	17.3	3.4
	여성	(2,444)	35.1	22.4	21.7	16.7	4.1
연령	20대	(929)	34.9	23.3	22.3	15.7	3.8
	30대	(960)	32.8	24.8	20.9	18.0	3.5
	40대	(1,103)	35.5	22.5	20.8	17.6	3.6
	50대	(1,145)	34.7	23.1	21.1	17.3	3.7
	60대	(863)	38.5	19.0	22.2	16.2	4.1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34.0	21.3	21.2	19.2	4.3
	강원	(142)	56.4	6.6	21.7	11.4	3.9
	충청권	(539)	32.0	21.0	25.0	14.8	7.2
	전라권	(461)	41.5	27.4	15.8	14.1	1.3
	경상권	(1,233)	34.0	26.8	22.1	15.0	2.0
	제주	(62)	42.0	9.5	26.5	19.3	2.7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48.5	13.0	22.5	13.5	2.4
	중학교 졸업	(295)	45.9	21.0	19.8	11.5	1.7
	고등학교 졸업	(1,902)	37.0	22.6	21.1	15.9	3.5
	대학교 졸업	(2,662)	32.3	23.2	21.5	18.6	4.3
	대학원 재학 이상	(89)	40.8	16.5	27.6	15.1	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44.5	18.7	28.2	7.5	1.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41.9	19.8	23.7	11.8	2.8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38.7	23.4	20.2	13.8	3.9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33.8	25.3	21.7	16.2	2.9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36.6	20.7	21.9	16.4	4.4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30.2	24.4	20.3	21.9	3.2
	600만원 이상	(498)	33.5	18.3	20.9	21.5	5.8

### 3) 참여하고 싶은 국어 관련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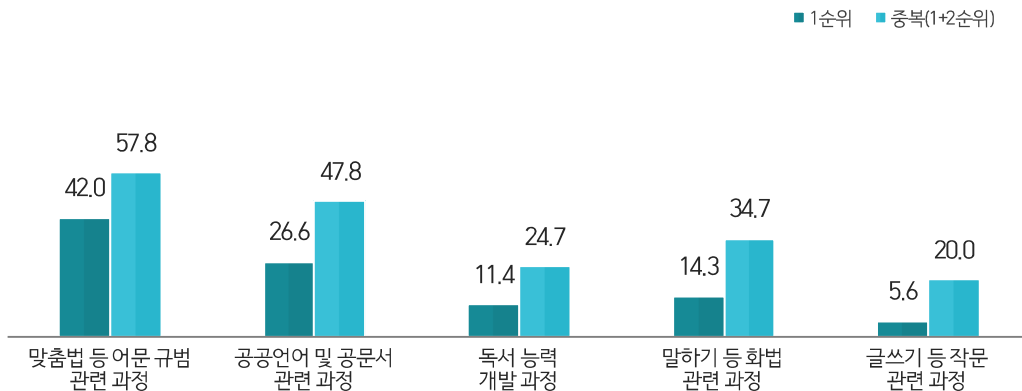
문56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관련 교육 과정(국어문화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국어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육 내용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 국립국어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어 관련 교육 과정(국어문화학교)에 참여할 경우 참여하고 싶은 교육 내용은 '맞춤법 등 어문 규범 관련 과정'(57.8%)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 다음으로 '공공언어 및 공문서 관련 과정'(47.8%), '말하기 등 화법 관련 과정'(34.7%) 순임. (중복 응답 기준)

| 그림 3-98 | 참여하고 싶은 국어 관련 교육 내용

(단위 : %)



특성별 분석

- ▶ 참여하고 싶은 교육 내용이 '맞춤법 등 어문 규범 관련 과정'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60대(61.5%), 거주 지역이 제주(60.8%),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66.3%),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62.5%)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97 | 참여하고 싶은 국어 관련 교육 내용(중복 응답)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맞춤법 등 어문 규범 관련 과정	공공언어 및 공문서 관련 과정	독서 능력 개발 과정	말하기 등 화법 관련 과정	글쓰기 등 작문 관련 과정
[전 체]		(5,000)	57.8	47.8	24.7	34.7	20.0
성별	남성	(2,556)	58.7	49.4	24.5	33.4	19.1
	여성	(2,444)	56.9	46.1	25.0	36.1	21.0
연령	20대	(929)	58.4	44.7	23.6	36.4	21.8
	30대	(960)	56.6	49.9	25.0	32.4	22.1
	40대	(1,103)	56.7	47.1	25.1	37.6	17.7
	50대	(1,145)	56.7	47.8	27.1	34.5	20.2
	60대	(863)	61.5	49.7	22.1	32.2	18.6
	70대	(109)	55.0	45.9	23.8	35.8	19.3
거주 지역	수도권	(2,563)	58.4	44.8	25.8	35.9	22.1
	강원	(142)	60.6	32.8	21.4	47.0	25.2
	충청권	(539)	53.6	56.5	24.2	31.9	19.3
	전라권	(461)	55.8	54.6	24.0	36.5	16.7
	경상권	(1,233)	58.8	50.8	23.8	30.6	15.8
	제주	(62)	60.8	17.0	19.5	53.9	37.9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2)	66.3	33.8	20.9	34.3	19.5
	중학교 졸업	(295)	65.3	49.8	19.5	30.5	18.8
	고등학교 졸업	(1,902)	57.9	50.5	24.1	35.7	18.2
	대학교 졸업	(2,662)	57.2	46.2	25.7	34.5	21.2
	대학원 재학 이상	(89)	45.3	40.3	30.0	36.9	28.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57)	54.3	36.4	14.8	40.5	31.3
	100만원~200만원 미만	(288)	62.5	48.0	22.7	33.6	14.4
	200만원~300만원 미만	(844)	59.8	50.9	21.5	31.9	17.6
	300만원~400만원 미만	(1,264)	58.8	51.1	24.5	35.0	16.5
	400만원~500만원 미만	(1,195)	60.2	47.8	25.3	32.7	20.1
	500만원~600만원 미만	(853)	54.4	44.7	27.6	36.0	22.3
	600만원 이상	(498)	49.7	40.5	26.9	41.7	30.6

※ 기타 응답 제외





# 사회언어학적 함의와 정책 제언





## 가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1. 국어 관심

#### 1)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관심

- ▶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한 관심 정도는 2010년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2010년 45.6%, 2015년 53.0%, 2020년 55.4%) 2005년 수준(60.9%)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만 적극적 관심(5.6%)보다는 소극적 관심(49.8%)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 20대~40대가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연령대에서 국어 사용을 통한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등에서의 국어 사용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 학력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어에 관한 관심의 정도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국어와 국어 사용 문제가 계층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줌.
- ▶ 저학력, 저소득층도 국어에 관한 관심을 갖고 원활한 국어 생활을 함으로써 국어 사용에서 계층적 차이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

#### 2) 국어 관심 분야

- ▶ '말하기', '언어 예절', '맞춤법과 발음', '글쓰기'는 2005년 이후 4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나타난 반면, '한자 사용'과 '국어(국어 교육)에 관한 정책' 분야는 2005년 이후 4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관심이 낮은 분야로 나타남.
-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관심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맞춤법과 발음'(2005년 19.9%, 2020년 69.8%), '단어의 의미와 유래'(2005년 4.2%, 2020년 53.7%)로 나타남. '맞춤법과 발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1988년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 교육이 30여 년간 진행되면서 어문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 소양이 되었고, 이 어문 규범을 교육받은 청장년층이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는 '어문 규범 준수'(2020년 48.6%)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결과와도 관련됨.
- ▶ 최근 5년간 관심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표준어와 방언'(2015년 36.8%, 2020년 55.9%)으로 나타남. 최근 5년 사이에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교육, 방송 등 공적 영역에서 표준어가 사용되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표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언어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방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방언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에서 '친근하다'의 응답 비율이 증가(2015년 42.5%, 2020년 79.9%)한 것과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2015년 62.4%, 2020년 86.1%)한 결과와도 관련됨.

- ▶ ‘글쓰기’, ‘맞춤법과 발음’에 대한 관심은 학력 수준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맞춤법과 발음’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가 누리소통망(SNS)이나 인터넷 등 통신언어상에서는 어문 규범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공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어문 규범 준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어문 규범의 사용과 교육 관련 정책의 대상이 특별히 젊은 층에만 집중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함.
- ▶ ‘한자 사용’은 가장 관심이 적은 분야인데 특히 연령대, 학력,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임.
- ▶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분야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유를 세분화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음.
- ▶ ‘말하기’, ‘언어 예절’, ‘맞춤법과 발음’, ‘글쓰기’ 분야는 모두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국어 정책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 ‘한자 사용’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과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그간 이루어진 한글 전용 정책의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글 전용이 세대, 학력, 계층에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정책임을 재확인함.

## 2. 국어 인상

- ▶ 국어에 대해 기능성(뜻이 정확하다, 논리적이다, 학문/과학 활동에 유리하다), 심미성(품위가 있다, 아름답다, 발음이 부드럽다), 습득의 용이성(배우기 쉽다)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편이지만, 습득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 ‘배우기 쉽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국어의 경어법 등 외국인이 학습하기에 쉽지 않은 언어라고 객관화하여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익히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성과 더불어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언어 활동을 훈련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어에 대해 ‘논리적이다’라는 인식을 더 갖게 되는 반면,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기 쉽다’는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저학력, 저소득 국민이 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원활한 언어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언어 사용

### 1. 사용 인식

#### 1) 국민들의 바른 국어 사용

-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국민 50.9%, 본인 56.3%)만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최근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화, 이로 인한 언어 환경과 언어 사용의 변화 과정에서 언어생활의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함.
- ▶ 50대와 60대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연령, 저학력층이 국어 사용에서의 혼란과 불안, 자신감 부족을 많이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음.
- ▶ 설문 문항이 부정적이었던('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5년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18.7%, 부정적 응답이 61.8%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50.9%)과 부정적 응답(14.2%) 비율이 역전되어 나타난 것은 실제 인식의 변화로 해석하기보다 부정형 설문을 긍정형 설문으로 바꾼 효과로 보아야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 1-1)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말과 글의 응집성, 발음이나 억양, 어휘력, 높임말 사용 문제보다도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문 규범 오류가 가장 쉽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언어 문제의 전부라는 잘못된 인식이 일반화되었다는 사실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임.
- ▶ 바른 국어 사용이 어문 규범 준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 어문 규범이 바른 국어 사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없는지, 현행 어문 규범 교육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됨.
- ▶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이라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세대보다 주변 또래들의 통신언어에서 탈규범적 표기를 자주 접하기 때문이거나, 통신언어 외의 다른 상황(예. 학업이나 직장 업무 등)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하기 때문일 수 있음.
- ▶ 20대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준수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함.

- ▶ 경어법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60대(17.7%)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20대(4.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세대 간에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경어법의 높이는 단계가 간소화되고 높임 어휘 사용이 줄어드는 등 경어법 사용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별 사용 양상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와 인식 조사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 ▶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중에서 신조어와 유행어의 증가, 청소년의 거친 말투, 비속어 사용 증가, 외국어 단어 혼용 등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이나 높임말의 과용 등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50% 미만이거나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함'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50%에 못 미쳤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고(54.2%), '외국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 '외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 많음', '표준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렇다'라는 응답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원인과 그것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제주에서 5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55.5%)에 가까운 응답률로 강원(29.3%), 춘천(42.6%), 전라(47.1%), 경상(45.9%)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임
- ▶ 외지인 유입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표준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제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 방언의 기록, 보존, 재생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3) 본인의 바른 국어 사용

- ▶ 응답자 본인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56.3%)은 2015년(52.9%)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응답자 이외의 국민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50.9%)보다 높게 나타남.
- ▶ 학력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평소 자신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불안감, 자의식 과잉, 자신감 결여 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저학력, 저소득층의 언어적 불안정(linguistic insecurity)을 줄여줄 수 있는 언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2. 높임말

### 1)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3%로 극히 낮게 나타나 대부분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젊은 세대(20대~30대)에서는 그 윗세대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적고 부정적 응답이 많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계층 간에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한 생각에서 아직까지는 세대 간, 계층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어떤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필요함.

#### 1-1)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 ▶ 국어의 높임말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높임말 사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없음.
- ▶ 국어의 높임말을 부정적으로 보는 다른 이유에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젊은 세대(20대~30대)는 높임말을 현대 사회와 걸맞지 않은 불평등의 가치관, 수직적 인간관계와 동일시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중년층(40대와 50대)은 높임말이 심리적 거리를 가져와 인간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60대의 노년층은 높임말 사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음.

#### 1-2)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 ▶ 국어의 높임말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전통 문화와 높임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함을 드러내는데, 높임말을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존경과 공손 표시', '다양한 말투 제공'과 같은 높임말의 실질적 기능보다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는 점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 ▶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비해 연령별 차이가 적은 편이지만, 오히려 가장 큰 이유인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음.'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50대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2-1) 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 부부 간에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아내가 남편에게 37.1%, 남편이 아내에게 31.5%)은 2015년도 조사 결과(아내가 남편에게 53.0%, 남편이 아내에게 44.9%)와 비교할 때 대폭 낮아졌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아직까지 부부 간의 불평등한 위계가 존재함을 시사함.
- ▶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가족 관계에서 위계보다는 친밀감을 중요시하면서 높임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 높임말 인식과 사용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 교육 지원이 필요함.

### 2-2) 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 직장에서 상사라도 부하 직원(나이 많은 부하 직원, 친하지 않은 부하 직원, 친한 부하 직원 순)에게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50%를 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직장 문화가 수직적 위계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문화로 변화해 감을 시사함.
- ▶ 전반적으로 회식 자리보다 근무 중일 때 높임말 사용의 필요가 더 높고 친밀도로 인한 차이는 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에서 높임말 사용의 기준으로 공적/사적 장면(격식성)이 친밀도보다 더 우선시됨을 알 수 있음.
- ▶ 높임말 사용의 기준 또는 높임말의 기능이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이면서 높임말로 인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한 실태조사 및 상호 이해 교육이 요구됨.

### 2-3)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 ▶ 직장에서의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높임말 사용도 '공적/사적 장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 장면에서는 상위자인 선생님이나 같은 또래인 회장도 학생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음.
- ▶ 사적 장면에서는 친한 선배에게는 높임말을 쓰지 않고(59%), 낯선 후배에게는 높임말을 쓰는(39%) 등 친밀도를 중시하는 높임말 사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적 장면에서는 친밀도가 높임말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 ▶ 높임말 사용의 기준 또는 높임말의 기능이 세대 간에 차이를 보이면서 높임말로 인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한 실태조사 및 상호 이해 교육이 요구됨.

### 3) 사물 주체 높임 표현의 적절성

- ▶ 사물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적절하다’의 3배가 넘게 나타났는데, 이는 규범적 문법을 중시하는 국민이 다수임을 보여줌.
- ▶ 2015년도 조사 시 ‘자연스러운 표현이다’이라는 응답이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18.4%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에서는 66.5%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많이 나타남.
- ▶ 새로운 표현의 사용에 적극적이고 경험 기회가 많은 젊은 세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정 표현에의 노출 빈도와 수용성이 비례한다는 기존의 가설을 벗어나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사와 이유 파악이 필요함.

#### 3-1) 사물 주체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 사물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표현이 전형적인 한국어 표현이 아니고 문법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3-2) 사물 주체 높임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 사물이 주어인 문장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응답자들(18.4%)은 사물 존칭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상대방을 대우하는 나름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 해당 문항의 답항 선택지 중의 하나인 ‘언어 표현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는 다른 선택지와 동일한 층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3. 욕설 및 비속어

#### 1) 국민들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 사용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 욕설과 비속어가 매우 유사한 양상과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문항이 욕설과 비속어를 구분하여 질문하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응답자들은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 향후 조사에서는 욕설과 비속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조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국민들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국민들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남성이 여성보다, 20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과 이유 파악이 필요함.

#### 2) 본인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 정도

- ▶ 본인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욕설 24.8%, 비속어 30.4%)은 2015년도 조사 결과(44.4%)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단, 올해는 욕설과 비속어를 따로 설문하였다는 차이가 있음.)
- ▶ 욕설 및 비속어를 '자주 사용한다'라는 응답은 국민의 사용 정도(욕설 18.4%, 비속어 14.1%)에 비해 응답자 본인의 사용 정도(욕설 2.2%, 비속어 3.3%)에서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과소 보고'일 가능성이 있음.
-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국민들의 사용 정도와 본인의 사용 정도 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객관적인 결과인지, 과소 보고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과 이유 파악이 필요함.
- ▶ 본인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차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비속어보다 욕설의 사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본인이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는 응답이 남성이 여성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과 이유 파악이 필요함.



### 3) 욕설 및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

#### 3-1)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을 상대방보다 자신의 인격 문제로 보는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을 자신의 인격 문제로 보는 인식을 관련 교육이나 캠페인 등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해당 문항의 답항 선택지 중의 하나인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는 다른 선택지와 동일한 층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 3-2)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 '습관적으로'는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습관적으로'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은 욕설 및 비속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사용되면서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기분이 나쁠 때 표현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40대~60대에서 20대~30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재미있어서'라는 응답은 20대에서 30대~60대보다 높게 나타남.
- ▶ 부정적 감정 표출, 언어유희 등의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과 이유 파악이 필요함.

## 4. 표준어와 지역 방언

### 1)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 ▶ 표준어 사용 비율이 2005년 47.6%, 2010년 47.5%, 2015년 54.5%, 2020년 56.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이후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평소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표준어 사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54.7%)과 강원 지역(54.0%), 외지인들의 유입이 증가한 제주(44.6%)에서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제주는 2015년 조사 결과(32.0%)에 비해 큰 상승 폭을 보임.
- ▶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15년에 비해 방언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방언의 약화를 보여줌.

### 1-1)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 ▶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편하고 친근하다'가 79.9%로 2015년 조사 결과(42.5%)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19.1%에서 13.6%로 소폭 감소하는 등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가가 두드러짐.
- ▶ 방언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 방언 태도를 더 정밀하게 하위 범주화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방언 태도와 방언 사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세한 후속 조사가 요구됨.

### 1-2)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2005년 26.3%, 2010년 61.0%, 2015년 62.4%, 2020년 8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0년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소득이 높은 편인 집단에서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평소에는 표준어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방언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방언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줌.
- ▶ 방언 태도를 더 정밀하게 하위범주화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방언 태도와 방언 사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세한 후속 조사가 요구됨.

## 2) 표준어와 지역 방언 사용

- ▶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005년을 제외하고 계속 1위를 차지한 반면,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 31.4%에서 2020년 15.9%로 감소했고, '방언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5년 19.0%에서 2020년 26.9%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방언 사용의 영역을 제한하거나 지역 방언 사용 자체를 지양하는 태도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3) 지역 방언 유지, 존속에 대한 생각

- ▶ 과반수의 응답자가 지역 방언의 유지와 존속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상대적으로 방언 사용자가 많은 높은 연령대에서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제주 지역(76.4%)에서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제주 방언의 절멸 위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3-1)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역 방언이 언어적,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3-2)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문화유산, 한국어 역사 자료라는 방언의 '사회적, 상징적 가치'가 방언 화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이라는 '개인적 가치'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개인적 가치(23%)와 사회적, 상징적 가치(70.6%)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
- ▶ 개인적 차원에서 지역 방언의 효용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4) 표준어 사용

- ▶ 본인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편(‘매우 잘 사용한다’ 포함)이라는 응답(45.7%)이 2015년 조사 결과(55.6%)에 비해 감소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2015년 27.0%에서 2020년 42.1%로 증가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이 2015년 17.4%에서 2020년 12.3%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는 표준어의 사용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본인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편(‘매우 잘 사용한다’ 포함)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수도권 지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상권 지역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대체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 수도권, 젊은 층,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표준형(위세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의 사회언어학 연구 결과들과 일치함.

#### 5)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 ▶ 널리 쓰이는 지역 방언을 기존의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는 16.4%에 불과하므로 응답자 대부분은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5.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 1)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 외래어/외국어 사용 빈도

- ▶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는 응답(54.3%)은 2015년의 조사 결과(56.6%)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사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을 경험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전체적으로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 '많이 사용된다'는 응답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반면, '사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게 나타나 연령, 학력, 소득이 사용 빈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의 경험과 이해 정도에 따라 세대 간, 지역 간, 학력 및 소득 수준 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주의가 필요함.

### 1-1)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생각

- ▶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지금보다 더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한다', '지금보다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등의 개입적 태도(41.4%)보다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상관없다',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등의 방임적 태도(58.6%)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3차례의 조사 결과들과 비교할 때 개입적 태도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방임적 태도는 역대 최저치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음.
- ▶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에 대한 개입적 태도와 방임적 태도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젊은 세대나 고학력, 고소득층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경향이 강하며 인위적으로 줄여가는 것에는 덜 동의하하는 편이지만, 노년층이나 저학력, 저소득층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대해 인위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더 동의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노년층, 저학력, 저소득층이 더 개입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파악하고 해당 집단이 겪는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 외래어/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느낌

- ▶ '별 느낌이 없다'를 제외한 응답들을 긍정적 평가('세련된 느낌이 든다'와 '학식이 높아 보인다')와 부정적 평가('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와 '유치해 보인다')로 나누어 보면 긍정적 평가(35.4%)가 부정적 평가(30.1%)보다 다소 많음.
- ▶ 지난 3차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 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세련된 느낌이 든다'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아지며 20대(25.9%)에서 가장 많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자본을 동경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보여줌.
- ▶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응답은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많아지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30.3%)와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3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이 상위 계층을 부정적으로 정형화하는 표지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본인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정도

- ▶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정도(54.3%)에 비해 본인이 평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정도(23.5%)는 절반 이상 낮게 나타남.
- ▶ 본인의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주관적인 과소 보고가 원인일 수도 있고, 표현 언어보다 수용 언어에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더 빈도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 본인이 평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은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의 경험과 이해 정도에 따라 세대 간, 지역 간, 학력 및 소득 수준 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 주의가 필요함.

### 3-1)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 측면과 연관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능력이나 매력 등을 드러내는 상징적 측면과도 중요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던 반면,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의 능력이나 매력을 드러내는 상징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음.

### 4)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생각

- 지난 3차례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치(70.9%)를 기록했고,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역대 최고치(18.2%)를 기록함
- ▶ 전반적으로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지만 그 정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함.

### 5)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생각

- 일본에서 온 외래어(18.2%)보다 일본식 한자어(29.5%)에 대해서는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보기의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므로 불구하고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44.6%)는 응답이 일본에서 온 외래어의 경우(44.4%) 못지않게 다수 의견으로 나타남.
- ▶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문항에서 해당 단어들이 일본식 한자어임을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없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6)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한 생각

- ▶ 2005년 이후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적극적 순화에 대한 견해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소극적 순화에 대한 견해와 함께 1, 2순위를 바꿔가며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다가 2020년에만 2015년 대비 13%p 하락했고,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현상 유지에 대한 견해는 다른 두 견해에 비해서는 동의율이 매년 낮았으나 2020년에 2015년 대비 7.9%p 상승함.
- ▶ 현상 유지에 대한 견해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외래어/외국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순화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경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현행 순화 정책의 기초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지는 않음.
- ▶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는 현상 유지에 대한 견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남.
- ▶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현상 유지에 대한 견해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국어 순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7) 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 ▶ 2015년 조사에 비해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10.2%p 증가하고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9.1%p 감소함.
- ▶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의 응답은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의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 국어 순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의 ‘지시성’ 문제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대중매체의 언어

### 1)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 ▶ 2020년 문항 수정으로 직접적인 추이 비교는 어려우나 '방송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 끼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지난 3차례의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동의 비율이 나타났고(2005년 90.9%, 2010년 81.5%, 2015년 84.1%), 2020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18.9%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매우 높은 비율(81.1%)의 응답자가 방송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1-1)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그 가장 큰 이유를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 표기, 문법 등의 사용으로 '언어 규범의 지침이 되고 있다'(43.7%)와 '공정하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36.8%)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다수의 응답자가 방송에 대해 언어 규범의 지침과 언어생활의 본보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 ▶ 방송 언어가 언어 규범의 지침과 언어생활의 본보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1-2)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그 가장 큰 이유를 '선정적이거나 과장적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46.6%)라고 응답한 반면, '비표준어 사용과 부정확한 발음, 잦은 오자와 탈자 출현 등으로 언어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23.5%)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이는 방송 언어가 언어 규범의 지침 역할에서보다 언어생활의 본보기 역할에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 ▶ 방송 언어 개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언어 규범 준수 문제만이 아니라 방송이 언어생활의 올바른 본보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책적 관리/규제 필요성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정책적 관리나 규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에 그쳐 국민의 대다수가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방송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

### 2-1)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시청자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2-2)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

-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언어 규범의 지침과 언어생활의 본보기로서의 방송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임.

## 3) 인터넷 언어 인지도

- ▶ 인터넷 언어를 잘 아는 편(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41.9%)이라는 응답이 잘 모르는 편(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27.8%)이라는 응답보다 많이 나타남.
- ▶ 이전 조사에서와 달리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사용을 분리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추적 조사가 요구됨.
- ▶ 인터넷 언어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 세대 또는 계층 간 이해와 소통의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소외 집단에 대한 디지털 문식성 증진 관련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 3-1) 인터넷 언어 사용 빈도

- ▶ 인터넷 언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남.

### 4)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

- ▶ 인터넷 언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처럼 인터넷 언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점차 약화되는 추이가 나타남.
- ▶ 인터넷 언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 평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 언어 사용과 인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언어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요구됨.

## 7. 외국 문자 사용

### 1)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

- ▶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 외국어를 로마자 알파벳으로만 표기하는 사례는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상위 1~4위에 해당하는 '패션 상표, 화장품명'(▲5.8%p), '노래 제목(가사)이나 가수 이름' (▲11.5%p), '아파트나 건물명'(▲12.2%p), '가게의 간판이나 광고 문구'(▲11.5%p)에서 응답률이 모두 상승했는데, 이는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2)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

- ▶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경험이 '있다'(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37.4%)이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26.4%)보다 높게 나타남.
- ▶ 곤란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더 많다는 점에서 국민의 곤란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 연령대가 높을수록(특히 50대와 60대), 학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했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고령층과 저학력자가 외국 문자로만 표기된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3)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느낌

- ▶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된 것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은 편이었으며,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는 모든 경우에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 모든 경우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가 많아지며, 특히 '품위 있다'와 '멋있다' 등 위세나 미적 측면과 관련된 평가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해당 집단에서 외국 문자를 접촉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외국 문자와 외국 문자로만 표기된 것에 대한 접촉 경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추적 조사와 함께 외국 문자 표기 없이 한글로만 표기된 것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과의 비교 조사도 필요함.

#### 4)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 ▶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5.3%)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17.0%)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1)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외국 문자 표기에 국제성과 심미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4-2)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외국 문자 표기가 의미 전달 및 이해의 제한, 전통 파괴,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5) 기관 이름 표기 방법

- ▶ 영어 약어 로마자 표기, 한국어 한글 표기, 영어 약어 한글 표기 등의 기관 이름 표기 방법 중 한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방법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 ▶ 후속 조사에서는 기관의 유형과 성격, 영어 약어 로마자 표기의 사용 빈도 등에 따라 선호되는 표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 설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6) 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 표기 방법

- ▶ 공공 이용 시설 안내 표지와 같이 공공성을 띤 정보에 대해서는 영어 약어 로마자 표기, 한국어 한글 표기, 영어 약어 한글 표기 등의 기관 이름 표기 방법 중 한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1. 국어 능력

#### 1) 국어 능력 향상 방안

-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개선'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과 가정 교육'이이었으며, '성인의 국어 학습 기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상위 3개의 응답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성인의 국어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응답이 4위로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 평생교육 차원의 국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함.
- ▶ '성인에게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교육에서의 결손을 평생교육을 통해 보완하려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국어 교육

### 1)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

-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큰 폭으로 증가(▲27%p)한 반면, '전혀 없다'는 큰 폭으로 감소함(▼18.1%p).
- ▶ 최근 5년 동안 곤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문용어와 어려운 한자어가 다수 사용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 긍정과 부정의 응답률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타당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조사가 요구됨.
- ▶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고연령층, 저학력, 저소득 집단이 대중매체의 언어 이해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1-1) 문제가 되었던 말

- ▶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의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행어나 신조어', '외래어/외국어'의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남.
- ▶ 대중매체의 언어 이해와 관련하여 세대 간 차이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1-2)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의 대응

- ▶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추측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지나치는 '소극적' 대응(54.8%)이, 인터넷이나 사전을 검색해 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적극적' 대응(45.2%)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는 큰 폭으로 감소(▼9.8%p)하였는데,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가 대중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검색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용이해진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남.

-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는 1순위이나 50대와 60대에서는 4순위로 나타나며, 50대와 60대에서는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거나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는 등의 소극적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음.
- ▶ 소극적 대응이 주를 이루는 고령층, 저학력층 집단이 대중매체를 통해 공급되는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1-3) 쉬운 말 사용 필요성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중매체에서 말을 좀 더 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 대중매체의 언어를 알기 쉽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언어 정책의 근거로 활용 가능함.
- 50대(56.5%)와 60대(60.6%)에서,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말을 좀 더 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 대중매체와 관련된 언어 정책에서 고령자와 저학력층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

## 2) 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한 생각

- 학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와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이 과반이 넘는 것(62.3%)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인식(‘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은 37.6%로 나타나 국민들은 대체로 자신이 받은 학교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3. 한자 교육

#### 1)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필요성

- ▶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문1-1에서 국어의 관심 분야로 한자 사용을 꼽은 응답의 수치(45.1%)와 상응하는 것임.
- ▶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1-1)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한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대부분은 한자를 몰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한글 전용 환경과 의미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1-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한자 능력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이유 대부분은 한자어의 비중이 높고 동음이의어가 많다는 한국어의 어종적 특성과 어휘력과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4. 외국어 교육

### 1) 국어 외에 배우고 싶은 언어

-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이후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 1, 2, 3순위 응답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제 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해서 유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어에 대한 선호도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와 경제 교류 확대 정도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1)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

- ▶ 국민이 학습할 외국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국제 통용어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언어별로는 영어의 경우 국제 통용어 기능, 중국어의 경우 국제적 업무상 필요, 일본어의 경우 학업적 필요 등의 측면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학습 언어의 선택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줌.
-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무역, 출장 등 국제적인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하는 응답은 여성(14.6%)보다 남성(24.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언어와 관련 문화가 매력적이고 좋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남성(37.3%)보다 여성(4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어 학습 동기에서 경제적 측면은 남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문화적 측면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고려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5. 어문 규범

### 1) 어문 규범 준수

- ▶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본인은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40대에서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청장년층의 규범 의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다는 기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임.
- ▶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어문 규범의 준수를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고 어문 규범의 준수가 계층적 지표로도 기능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줌.

### 2)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응답(47.6%)이 가장 많지만, 어문 규범의 변화를 인정하는 응답('기존 표기를 틀린 것으로 하고 널리 쓰이는 표기를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표기와 함께 널리 쓰이는 표기도 맞는 표기로 추가로 인정한다', '향후 많이 쓰는 쪽이 자연스럽게 맞는 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을 합친 비율(58.4%)이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기존의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문 규범의 변화를 인정하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문 규범 정책의 합리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6. 사전 이용

### 1) 평소 국어사전 사용 정도

- ▶ 국민들은 평소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령대가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1) 국어사전 사용 형태

- ▶ 2010년 이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온라인이나 전자 방식 사전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종이 사전의 이용률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2)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 ▶ 어문 규범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이용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어의 의미와 다양한 정보들(원어, 발음, 관련어, 어원, 용례 등)을 알기 위해 사전을 이용한다는 응답을 모두 합치면 어문 규범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이용한다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1-3)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 ▶ 국어사전의 개선은 사용자 수준에 맞는 설명, 의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어원에 대한 풍부한 정보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 국어사전의 사용 목적과 정도, 선호하는 형태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국어사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의 형식적 측면과 함께 사전이 제공하는 내용 정보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7. 공공 언어

### 1)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난이도

-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33.4%)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2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과반수에 훨씬 모자라고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 공공기관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 ▶ 공공기관 언어의 주된 문제로 지적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은 민원인이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의사소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요소임.
- ▶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고령층, 저학력층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언어의 어휘와 문장을 쉽게 개선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8. 차별적 표현, 혐오 표현

### 1) 차별적 표현/혐오 표현의 사용 양상

- ▶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론이나 학계와 교육계에서 관련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상에서도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 감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 차별적 표현과 혐오 표현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표현들의 사용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 필요성

- ▶ 국민의 절반이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확산에 대한 인지도에 비하면,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에 찬성하는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을 도입하기에 앞서 관련 표현 사용의 문제점과 방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9. 특수 언어

### 1)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

- ▶ 수어와 점자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수어에 대한 인지도가 점자에 대한 인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TV 방송 등에서 수어 통역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해당 문항은 수어나 점자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 능력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응답 결과를 보면 그러한 의도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수어(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

- ▶ 수어와 점자에 대한 학습 의사 역시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어 학습 의사가 점자 학습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인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TV 방송 등에서 수어 통역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에게 수어와 점자 학습의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1) 수어(수화언어),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는 이유

- ▶ 수어나 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인(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10. 다문화 가정 언어

### 1)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생각

- ▶ 정착 이주민들이 그들의 집단 내에서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44.7%)과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42.0%)을 합해 보면(86.7%),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비교적 관용적인 편임.
- ▶ ‘긍정적’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많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많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1-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태도가 이주민들이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임.

### 2) 한국어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 ▶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56.8%)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1.7%)보다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이 대체로 이주민 집단 내 이주민 모어 사용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보임.

#### 2-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회 통합과 국민 정체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 ▶ 이 문항의 답항 선택지 중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므로’에서는 개인적인 이유(적응)와 사회적인 이유(통합)가 혼재되어 있고, ‘한국어 능력이 국가 경쟁력/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에서도 국가주의적 시각(국가 경쟁력)과 다원주의적 시각(문화적 다양성)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응답자가 어느 측면을 중시하여 답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에서는 답항 선택지의 개선이 필요함.



### 3)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필요성

- ▶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54.0%)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4.1%)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3-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한국 사회 적응/정착과 기본적 인권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 11. 한국어 진흥

### 1)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활성화 지원 필요성

- ▶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55.3%)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3.9%)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1-1)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임.

#### 1-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친한파 국제 인재 양성 등 장기적 국익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 2)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지원 필요성

-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57.9%)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0.4%)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남.

#### 2-1)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국제적 위상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임.

#### 2-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효과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 12. 남북한 언어 통일

### 1)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요성

- ▶ 우리 국민들이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44.9%)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률(19.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1-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미래의 통일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20% 후반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와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라는 응답은 미래의 통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두 응답을 합치면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임.

### 2) 남북한 언어 통합 시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

- ▶ 전반적으로는 남한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어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에서는 '남한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어를 일부 포함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응답이 '남한어를 기준으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응답보다 조금 더 많다는 점에서 북한어 사용자를 고려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라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1.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1) 국립국어원 인지도

- ▶ 국립국어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민들(7.9%)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잘 알지는 못해도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국민들(60.0%)을 포함하면, 국립국어원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67.9%)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2015년 조사 결과(43.0%)에 비해 큰 폭(▲24.9%p)으로 증가하여 국립국어원의 인지도가 매우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국립국어원을 인지하고 있다(‘잘 알고 있다’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2)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한 국가 기관의 중점 추진 사항

- ▶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 같은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가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현재보다 더 쉽고 편리한 언어생활에 대한 요구가 크고 국립국어원이 이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3) 참여하고 싶은 국어 관련 교육 내용

- ▶ 국립국어원에 가장 기대하는 교육 내용은 어문 규범에 관한 것으로 국립국어원의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교육 내용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공문서 작성이나 말하기 등과 같은 좀 더 실용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록1.

설문 문항 정비 내용 및 사유



## 가 설문 문항 정비 개요

- ▶ 2020년에 실시할 제4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를 계획하면서, 기존의 설문 문항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차 조사(2005년)에서부터 제3차 조사(2015년)까지 사용된 설문지는 2005년에 작성한 설문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차수에 따라 일부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2005년 당시의 언어 현황에 따라 작성되었다. 곧, 15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기존 설문 문항에 2020년 현재의 언어 사용 현황을 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설문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설문 목적에 부합되게 주제와 문항 문항을 정비하였다. 설문 문항의 정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정비 방향

- 2020년 현재의 언어 사용 현황 및 국어원 업무 반영
  -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새롭게 대두된 언어 분야 추가
  - 2020년 현재 국립국어원의 업무 및 관심 분야를 반영하여 설문 내용 현실화
-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어 관련 통계 수집 창구로 활용
  -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가 「국어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문항으로 정비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언어 의식 변화 추이 조사가 필요한 설문 항목 유지

### ◎ 정비 과정

기간	내용
2019. 12.	2005년, 2010년, 2015년 조사 결과의 문항별 변화 추이 분석 및 설문 문항의 적합성 검토
2020. 1. 20.	국립국어원 원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정비 회의 개최(1차) (① 기존 설문 문항의 적합성 검토, ② 신규 추가 주제 및 설문 문항 수립)
2020. 2.~3.	연구진에서 국어원 1차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설문지 정비안 마련
2020. 4. 16.	국립국어원 원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정비 회의 개최(2차)
2020. 5.	연구진에서 국어원 2차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설문지(초안) 작성
2020. 6. 15.	외부 전문가(사회학, 사회언어학, 통계학) 자문회의 개최
2020. 6.~7.	연구진에서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설문지(2안) 작성
2020. 7. 21./8. 5.	사전 조사 설문 문항 확정 회의 개최(국어원 담당자, 연구진)
2020. 8. 7.~8. 16.	사전 조사 실시(서울·경기 지역 일반 국민 100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 지역을 수도권으로 축소
2020. 8. 27.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질문지 확정

###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및 이후 정비 내용

- 조사 분량(70문항, 27쪽)이 과도하여 중도 탈락률 증가 및 조사 결과 신뢰성에 문제 발생 가능
  - ☞ 조사 분량 축소(56문항, 19쪽)
- 설문 문항에 4점, 5점 척도가 혼재, 긍정과 부정 답변 문항의 배치 방향에 일관성 없음
  - ☞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 문항은 기존 척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문항은 5점 척도 사용
  - 모든 답변 문항을 부정에서 긍정 순으로 배치

- 일상적 용어와 학술적·정책적 용어 혼재
  - ☞ 최대한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고 학술적인 용어는 쉬운 말로 해설
- 평소·자주 등의 피상적·주관적인 용어 사용 빈도 높음
  - ☞ 언어 의식 조사의 특성상 주 1회 등과 같은 구체화가 어려워 현행 유지
- 응답자의 상황을 고려한 설문 설계 필요
  - ☞ 연관성 있는 주제를 순차적으로 배치

### ◎ 주요 정비 결과

- 국어 정책 관련 시의성 있는 소주제 추가
  - 국어 능력, 공공언어, 차별적 언어·혐오 표현, 다문화 가정 언어, 한국어 진흥 등 6개 소주제 신규 추가

2015년 설문 문항	내용
주제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언어 사용	언어 사용
	높임말
	욕설 및 비속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대중 매체의 언어
	외국 문자 사용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국어 교육
	한자 교육
	외국어 교육
	어문 규범
	사전 이용
	남북한 언어통일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2020년 설문 문항		정비 결과
대주제	소주제	
I.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국어 관심	
	국어 인상	
II. 언어 사용	사용 인식	
	높임말	
	욕설 및 비속어	
	표준어와 지역 방언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	
	대중매체의 언어	
	외국 문자 사용	
III.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국어 능력	신규 추가
	국어 교육	
	한자 교육	
	외국어 교육	
	어문 규범	
	사전 이용	
	공공 언어	신규 추가
	차별적 언어, 혐오 표현	신규 추가
	특수 언어	신규 추가
	다문화 가정 언어	신규 추가
	한국어 진흥	신규 추가
	남북한 언어 통일	
IV.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나 문항별 정비 내용 및 사유

### 1.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2015년에는 없지만 2010년 또는 2005년에 있는 문항인 경우에는 문항 앞에 대괄호로 연도 표시함.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국어 관심	문1. 귀하께서는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u>국어와 국어 사용</u> 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1. 귀하는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u>국어와 국어 사용</u> 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는”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문1-1. (1,2,3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u>국어의 어떠한 점</u> 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1-1. (문1에서 ③,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u>국어의 어떠한 점</u> 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들 각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위와 같음.	
국어 인상	문2. (전체 응답자) 다음은 평소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u>우리말에 대한 인상</u> 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2. 다음은 <u>국어에 대한 귀하의 생각 또는 느낌</u> 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우리말에 대한 인상” -> “국어에 대한 생각 또는 느낌” : 표현 구체화	
	문3. 귀하께서는 평소 어떤 말이 <u>가장 아름다운 우리말</u>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 2. 언어 사용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사용 인식	문4. 우리 국민들이 <u>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u> 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3. 귀하는 우리 국민들이 <u>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u> 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설문에 응답하기 편하게 문항 제시	
	문4-1. (3,4,5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들이 <u>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u> 중 <u>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u> 를 골라 주십시오.	문3-1. (문3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들이 <u>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u> 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위와 같음.	답항 선택지 항목/ 표현 일부 수정
	문5. <u>(전체 응답자)</u> 일반인들의 <u>언어 사용</u> 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각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4. 우리 국민들의 <u>언어 사용</u>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일반인” -> “우리 국민”	답항 선택지 표현 일부 수정
	문6.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u>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u> 생각하십니까?	문5. 귀하는 평소 <u>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u>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는”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높임말	문7. 다음은 우리 사회의 <u>높임말 사용</u> 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입니다. 다음 각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6. 귀하는 <u>국어의 높임말 사용</u>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문항 체계 수정)	높임말 사용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수정	
	-	문6-1. (문6에서 ①, ② 응답자만) <u>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u>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6-2. (문6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u>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높임말	문8. <u>가정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u> 말씀해 주십시오.	문7. 다음 중 가정, 직장 및 학교에서 <u>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u> 고 생각하는 상황을 <u>모두</u> 선택해 주십시오. 문7-1. <u>가정에서 말할 때</u>	유지 (문항 체계 수정)	설문에 응답하기 편하게 문항 제시	
	문9. <u>직장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u> 말씀해 주십시오.	문7-2. <u>직장에서 말할 때</u>	유지 (문항 체계 수정)	위와 같음.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10. <u>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u> 말씀해 주십시오.	문7-3. <u>학교에서 말할 때</u>	유지 (문항 체계 수정)	위와 같음.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11. <u>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모두</u> 말씀해 주십시오.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12. 다음 <보기>는 <u>일상생활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표현</u> 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8. 귀하는 다음 <보기>와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	문8-1. (문8에서 ①, ② 응답자만) <보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8-2. (문8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보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욕설 및 비속어	-	문9. 귀하는 <u>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 및 비속어*</u> 를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사회적 차원(국민)과 개인적 차원(응답자)의 사용 양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 신설 욕설과 비속어를 구분하여 질문	
	문13. 귀하께서는 <u>욕설이나 비속어</u> 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문10. 귀하는 <u>평소 욕설 및 비속어</u> 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는”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평소”라는 표현 추가 욕설과 비속어를 구분하여 질문	
	문13-1. (1,2번 응답자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u>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u> 는 무엇입니까?	문10-2. (문10에서 (1) 욕설 또는 (2) 비속어 ③, ④번 응답자만) 욕설 및 비속어를 <u>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u> 는 무엇입니까?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질문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13-2. (3,4번 응답자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u>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u> 는 무엇입니까?	문10-1. (문10에서 (1) 욕설 또는 (2) 비속어 ①, ②번 응답자만) 욕설 및 비속어를 <u>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u> 는 무엇입니까?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위와 같음.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14.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u>청소년들이 서로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면</u>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14-1. (3번 응답자만) 그럼 서로에게 <u>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을</u> 그냥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삭제	위와 같음.	
	문15. (전체 응답자) 다음 <보기>는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에서 <u>출연자들이 사용한 욕설이나 비속어</u> 표현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삭제	위와 같음. (<대중매체의 언어>에 관련 표현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 신설)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표준어와 지역 방언	문16. 다음 중 귀하께서 <u>평소 사용하는 말</u> 은 어떤 것입니까?	문11. 다음 중 귀하가 <u>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u> 은 무엇입니까?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평소 사용하는” ->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 표현 구체화	
	문16-1. (1번 응답자만) <u>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u>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문11-1. (문11에서 ① 응답자만) <u>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u>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유지		
	문16-2. (2~7번 응답자만) <u>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u>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1-2. (문11에서 ②~⑦ 응답자만) <u>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u>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문16-3. (2~7번 응답자만) <u>다른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u>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16-4. (2~7번 응답자만) <u>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u>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삭제	위와 같음.	
	문17.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평소 <u>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u>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2. 귀하는 평소 <u>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u>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문18. 다음은 <u>지역 방언의 존속</u> 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무엇입니까?	문13. 귀하는 표준어가 아닌 <u>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u>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문항 체계 수정)	지역 방언의 유지, 존속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수정	척도형 답항 선택지 제시
	-	문13-1. (문13에서 ①, ② 응답자만) 지역 방언이 <u>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13-2. (문13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지역 방언이 <u>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표준어와 지역 방언	문19. 귀하께서는 <u>자녀가 지역 방언과 표준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일 경우</u> 어느 것을 사용하길 바라십니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20. 텔레비전의 대담 또는 토론 프로에 나온 <u>토론자가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u>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장 크게 받으십니까?	-	삭제	위와 같음.	
	문21. 귀하께서는 <u>표준어를 얼마나 잘 사용한다고</u> 생각하십니까?	문14. 귀하는 <u>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편</u>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설문에 응답하기 편하게 문항 제시	
	문22. 귀하께서는 <u>타인이 사용하는 표준어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u> 생각하십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23. 다음 <보기>는 표준어와 같은 의미로 두루 쓰이는 지역 방언입니다. 이러한 <u>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u>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5. 귀하는 <u>지역 방언에 속하는 어떤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쓰이면</u> , 그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준어와 함께 <u>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u>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표준어” -> “복수 표준어” : 표현 구체화	두루 쓰이는 지역 방언 예시 삭제, 척도 수정 (4점 척도 => 5점 척도)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외래어· 외국어와 순화어	문24. 귀하께서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b>외래어나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b>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6. 귀하는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b>외래어나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b>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문24-1. (3,4,5번 응답자만) 일상생활에서 <b>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이 증가</b>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6-1. (문16에서 ④, ⑤ 응답자만) 일상생활에서 <b>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b>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설문에 응답하기 편하게 문항 제시	답항 선택지 표현 일부 수정
	문25. (전체 응답자) 일상생활에서 <b>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b> 을 주로 받으십니까?	문17. 일상생활에서 <b>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b> 을 주로 받으십니까?	유지		
	-	문18. 귀하는 평소 <b>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b>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아래 <18-1>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 필요	척도형 답항 선택지 제시
	문26. 귀하께서 <b>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b> 는 무엇입니까?	문18-1. (문18에서 ④, ⑤ 응답자만)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b>가장 큰 이유</b> 는 무엇입니까?	유지 (문항 체계 수정)	상위 문항에 맞게 수정	
	문27. 예전부터 공공기관의 문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고, 온 국민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사용해야 한다는 영어공용어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b>영어공용어화 주장</b>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28. 다음 <보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b>일본에서 온 외래어</b> 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9. 다음 <보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b>일본에서 온 외래어</b>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설문에 응답하기 편하게 문항 제시 (행동에 대한 질문을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	
	-	문20. 다음 <보기>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괄호 안은 순화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b>일본식 한자어</b>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	널리 쓰이는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국어 순화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신설	
	문29. 귀하께서는 <b>국어 순화</b> 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1. 귀하는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b>국어 순화</b>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국어 순화” ->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 : 표현 구체화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30. 일부 사람들이 <b>순화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b>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2. 귀하는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b>순화어</b> 를 <b>일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b>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순화어” ->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순화어” : 표현 구체화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대중매체의 언어	문31.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b>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b>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3. 귀하는 <b>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b> 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떤 <b>영향</b> 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문항 체계 수정)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 정책적 관리를 묻는 방식으로 수정	영향의 성격과 여부를 선택하는 답항 선택지 제시
	-	문23-1. (문23에서 ① 응답자만) <b>긍정적인 영향</b> 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23-2. (문23에서 ② 응답자만) <b>부정적인 영향</b> 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24. 귀하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b>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b>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리		척도형 답항 선택지 제시
	-	문24-1. (문24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b>필요 없다</b>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방송 언어 관리에 대한 인식의 이유를 묻기 위해 신설	
	-	문24-2. (문24에서 ④, ⑤ 응답자만)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b>필요하다</b>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문32.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누리 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통신 언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보기>와 같은 <b>통신 언어</b> 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까?	문25. 귀하는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새롭게 통용되는 이른바 <b>‘인터넷 언어*’</b> 를 <b>잘 아는 편</b>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문항 체계 수정)	“통신 언어” -> “인터넷 언어” : 표현 구체화 인터넷 언어에 대한 인지 정도와 사용 정도를 분리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정	척도형 답항 선택지 제시
	-	문25-1. (문25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는 평소 <b>‘인터넷 언어’</b> 를 <b>자주 사용하는 편</b>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리	인터넷 언어에 대한 인지 정도와 사용 정도를 분리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정	척도형 답항 선택지 제시
	문33. 귀하께서는 <b>통신 언어에 대한 다음 평가</b> 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6. 귀하는 <b>인터넷 언어에 대한 다음 평가</b> 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통신 언어” -> “인터넷 언어” : 표현 구체화	답항 선택지 표현 일부 수정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외국 문자 사용	문34. 최근 들어 간판이나 각종 안내판에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의 외국어만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u>한글 표기 없이 로마자 중심의 외국어로 표기되는 사례</u> 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을 <u>모두</u> 골라 주십시오.	문27. 최근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 외국어를 로마자 알파벳으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u>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u> 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u>모두</u> 선택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외국어” -> “외국 문자” : 표현 구체화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35. 일상생활에서 <u>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적</u> 이 있습니까?	문28.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u>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적</u> 이 있습니까?	유지 (표현 수정)	위와 같음.	척도 수정 (4점 척도 => 5점 척도)
	문36. <u>한글 표기가 배제된 외국어 표기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u> 중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29. <u>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u>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위와 같음.	이미지 수 축소 (8개 -> 6개)
	문37. <u>외국어 표기</u>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u>모두</u> 선택해 주십시오.	문30. 귀하는 <u>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u> 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문항 체계 수정)	외국 문자 표기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수정	척도형 답항 선택지 제시
	-	문30-1. (문30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u>문제가 아니라</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30-2. (문30에서 ④, ⑤ 응답자만)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u>문제</u>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2005, 2010] 문35. OO님은 다음 표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5-1) 기관 이름	문31. 귀하는 다음의 <u>기관 이름 표기 방법</u>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	공공 기관 이름 표기에서의 문자 선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부활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32. 귀하는 <u>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 이용 시설에서의 안내 표지 표기 방법</u>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공공성이 높은 정보 표기에서의 문자 선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	

### 3.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국어 능력	-	문33. 우리 국민의 <u>국어 능력을 향상</u> 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u>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u> 선택해 주십시오.	신설	국어 능력 향상 관련 활동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	
국어 교육	문38. 귀하께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u>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적이</u> 있습니까? 인터넷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34. 귀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u>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적이</u> 있습니까? 인터넷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는”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문38-1. (1,2번 응답자만) 그럼 주로 <u>어떤 말들이</u> 문제였습니까? (3개 선택)	문34-1. (문34에서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주로 <u>어떤 말들이</u> 문제였습니까? <u>모두 선택해 주십시오.</u>	유지 (질문 방식 수정)	설문에 응답하기 편하게 문항 제시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38-2. (1,2번 응답자만) <u>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u> 이 나올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문34-2. (문34에서 ②, ③ 응답자만) <u>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u> 이 나올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유지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34-3. (문34에서 ②, ③ 응답자만) <u>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말을 좀 더 쉽게 써야 한다</u> 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언론이나 방송에서의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	
	문39. (전체 응답자) 귀하께서는 자신이 <u>가정에서 받은 언어 교육</u>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40. 귀하께서는 자신이 <u>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u>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35. 귀하는 자신이 <u>초, 중, 고등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u>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지 (표현 수정)	“학교” -> “초, 중, 고등학교” : 표현 구체화	
	문41. <u>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문제</u>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한자 교육	문42. <u>한자를 읽고 쓰는 귀하의 능력</u> 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삭제	언어의식 조사라고 보기 어려움	
	문4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u>1,800자의 한자</u> 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u>현행 한자 교육</u>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중국의 상용한자는 각각 2,136자, 3,500자로 규정되어 있음.)	-	삭제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은 교육부 소관이므로 본 조사에 적절하지 않음	
	문44. <u>한자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u>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	문36. 귀하는 <u>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u> 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한자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신설	
	-	문36-1. (문36에서 ①, ② 응답자만) 한자 능력이 <u>필요하지 않다</u>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	문36-2. (문36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한자 능력이 <u>필요하다</u>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외국어 교육	문4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u>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삭제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내용은 교육부 소관이므로 본 조사에 적절하지 않음	
	문46. 귀하께서는 국어 외에 <u>다른 언어를 배운다면</u>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배우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u>세 가지</u> 만 골라 주십시오.	문37. 귀하는 국어 외에 <u>다른 언어를 배운다면</u>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배우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u>세 가지</u> 만 선택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는”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	문37-1. 귀하가 1, 2, 3순위로 고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신설	특정 외국어 학습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파악 필요	
	문47. 귀하의 <u>자녀에게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가르친다면</u> 어떤 언어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가르치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u>세 가지</u> 만 골라 주십시오.	-	삭제	동일 문항을 응답자와 응답자 자녀 대상으로 구별할 필요성 부족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어문 규범	-	문38. 귀하는 평소 글을 쓸 때 <u>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u>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국민의 어문 규범 준수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필요	
	문48. 국어 표기법 중 <u>국민들이 자주 틀리는 표기</u> 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문39. 아래의 예는 우리 국민들이 <u>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u> 경우가 많은 단어들입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지 (표현 수정)	“틀리다” -> “다르다” : 문항의 표현이 응답자에게 편향적인 응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수정	
사전 이용	-	문40. 귀하는 <u>평소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u> 하십니까?	신설	아래 <40-1>에서 어떤 형태의 국어사전을 주로 사용하는지 묻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 필요	
	문49. 귀하께서는 <u>어떤 매체를 통하여 사전을 이용</u> 하십니까?	문40-1. (문4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는 평소 <u>어떤 형태로 된 국어사전을 주로 사용</u> 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어떤 매체” -> “어떤 형태로 된” :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 “사전” -> “국어사전” : 표현 구체화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문40-2. (문4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u> 은 무엇입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목적 순으로 <u>두 가지</u> 를 선택해 주십시오.	신설	국어사전 사용의 주된 목적 파악 필요	
	문50. 이용하시는 <u>국어사전에</u> 대해 평소 어떤 <u>불만</u> 을 가지고 있습니까? ( <u>복수응답 가능</u> )	문40-3. (문4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u>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불만” ->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 긍정적인 표현으로 수정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공공 언어	-	문41. 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u>공공기관에서</u> 각종 서류, 안내문, 홍보문 등에서 <u>사용하는 언어가 이해하기 쉬운 편</u>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파악 필요	
	-	문42. 귀하는 <u>공공기관의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u>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u> 선택해 주십시오.	신설	공공기관의 언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파악 필요	
차별적 표현, 혐오 표현	-	문43.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와 같은 <u>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u>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지 정도 파악 필요	
	-	문44. 귀하는 <u>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u>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관련 국민의 인식 파악 필요	
특수 언어	-	문45. 귀하는 <u>농인(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수화언어)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u> 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신설	특수 언어에 대한 국민의 인지 정도 파악 필요	
	-	문46. 귀하는 기회가 된다면 <u>수어(수화언어)와 점자를 배울 의사</u> 가 있습니까?	신설	특수 언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그 이유 파악 필요	
	-	문46-1. (문46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수어(수화언어)나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u> 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다문화 가정 언어	-	문47. 귀하는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u>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u>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	이주민의 모어 사용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그 이유 파악 필요	
	-	문47-1. (문47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긍정적으로</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	문48. 귀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u>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u>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그 이유 파악 필요	
	-	문48-1. (문48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필요하다고</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	문49. 귀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u>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u> 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이주민의 언어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그 이유 파악 필요	
	-	문49-1. (문49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필요하다고</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한국어 진흥	-	문50. 귀하는 국가 차원에서 <u>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u> 하기 위한 <u>정책적 지원</u>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그 이유 파악 필요	
	-	문50-1. (문50에서 ①, ② 응답자만) <u>필요 없다</u>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	문50-2. (문5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필요하다고</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	문51. 귀하는 <u>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u> 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u>국가 차원에서 지원</u>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사용 확대 지원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그 이유 파악 필요	
	-	문51-1. (문51에서 ①, ② 응답자만) <u>필요 없다</u>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	문51-2. (문51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u>필요하다고</u>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남북한 언어 통일	문55. 귀하께서는 <u>지역 방언 및 북한어를 표준어와 비교했을 때</u>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삭제	문항의 유의미성 부족	
	문56. 귀하께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u>국민들에게 북한어를 가르쳐야 한다</u> 고 생각하십니까?	-	삭제	위와 같음.	
	문56-1. (1번 응답자만) <u>국민들에게 북한어를 가르쳐야 한다</u>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삭제	위와 같음.	
	문56-2. (2번 응답자만) <u>북한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u> 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삭제	위와 같음.	
	-	문52. 귀하는 통일을 고려하면 <u>우리 국민들도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u> 고 생각하십니까?	신설	북한어의 기본적 이해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그 이유 파악 필요	
	-	문52-1. (문52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기본적인 이해가 <u>필요하다</u> 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설	위와 같음.	
	문57. (전체 응답자) <u>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u> 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3. 남북 통일 상황에서 <u>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u> 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기준” -> “기준과 방향” : 응답자가 문항을 이해하고 응답하기 쉽도록 ‘방향’이란 표현 추가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4.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문51. 귀하께서는 <u>국립국어원</u> 을 알고 있습니까?	문54. 귀하는 <u>국립국어원</u> 이라는 국가 기관을 알고 있습니까?	유지 (표현 수정)	“귀하께서는” -> “귀하는” : 높임 표현 완화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이라는 국가 기관” : 표현 구체화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문52. <u>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u>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55. 귀하는 <u>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 원 같은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 항</u>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표현 수정)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 : 표현 구체화	
	문53. 우리나라에는 국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KBS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있습니다. <u>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u> 에 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삭제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움	
	문54. 한국인의 <u>국어 능력을 향상</u> 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u>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u> 를 골라 주십시오.	-	삭제	위와 같음.	
	-	문56.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관련 교육 과정(국어문화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u>국어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면</u> , 참여하고 싶은 <u>교육 내용을 순서대로 두 가지</u> 선택해 주십시오.	신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 파악 필요	



## 5. 자료 분류용 질문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자료 분류용 질문	DQ1.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DQ1.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지		
	DQ2. 매일 신문(종이신문, 전자신문 등)을 읽고 계십니까?	DQ2. 매일 신문(종이 신문, 전자 신문 등)을 읽고 계십니까?	유지		
	DQ3.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DQ3.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지		
	DQ4. 하루 평균 인터넷을 통한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커뮤니티 이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삭제	언어의식과 관련성이 부족한 정보	
	DQ5. 주로 이용하는 누리 소통망(SNS)과 포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	삭제	위와 같음.	
	DQ6. 현재 공중파나 케이블 TV 등을 통해 주로 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 부문별로 몇 개 정도를 시청하십니까?	-	삭제	위와 같음.	
	DQ7. 한 달 평균 독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잡지와 만화, 전자책을 이용한 독서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수험서, 신문은 제외)	DQ4. 한 달 평균 독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잡지와 만화, 전자책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수험서, 신문은 제외)	유지 (표현 수정)	“전자책을 이용한 독서” -> “전자책” : 표현 간략화	
	DQ8. (1~4번 응답자만)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삭제	언어의식과 관련성이 부족한 정보	
	DQ9. (전체 응답자) 각종 모임 및 사회 활동(취미, 종교, 봉사 관련 활동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삭제	위와 같음.	
	DQ9-1. (1~5번 응답자만) 참여하고 계시는 각종 모임은 어떤 성격의 것들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삭제	위와 같음.	
	DQ10. (전체 응답자)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DQ5.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유지 (표현 수정)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 “외국에서” : 표현 간략화	

항목	2015년 이전 문항*	2020년 문항	변경 여부/방식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자료 분류용 질문	DQ11. 다음은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상, 중, 하로 나눈 표입니다. 귀하께서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DQ6. 다음은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상, 중, 하로 나눈 표입니다. 귀하의 외국어별 의사소통 능력을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해당되는 칸” -> “외국어별 의사소통 능력을 해당되는 칸” : 표현 구체화	
	DQ12. 주로 성장기(초, 중, 고)를 보낸 지역은 어디입니까?	DQ7. 주로 성장기(초, 중, 고)를 보낸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지		
	DQ13.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DQ8.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지		
	DQ14.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다가?	-	삭제	언어의식과 관련성이 부족한 정보	
	DQ14-1. (2,3번 응답자만) 실례지만, 귀하의 배우자 고향은 어디입니까?	-	삭제	위와 같음.	
	DQ14-2. (2,3번 응답자만) 현재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십니까?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손주가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삭제	위와 같음.	
	DQ15. (전체 응답자) 귀하의 부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위 보기에서 골라 각각 번호로 응답해 주십시오.	DQ9. 귀하의 부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위 보기에서 선택해 각각 번호로 응답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전체 응답자” 삭제	
	DQ16. 귀댁의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DQ10. 귀댁의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지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DQ17.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면접원 :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Q11.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유지 (표현 수정)	면접원 질문 삭제	
	DQ18.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DQ12.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유지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DQ19. 실례지만, 귀댁의 한 달 총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DQ13. 실례지만, 귀댁의 세금 납부(공제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 (표현 수정)	“한 달 총수입” -> “세금 납부(공제전)의 월평균 가구 소득” : 표현 구체화	답항 선택지 항목/표현 일부 수정



## 부록2. 설문지



#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케이스탯리서치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언어 사용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국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 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보호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 분석으로만 활용되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주관 기관



조사 대행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답자  
인적 사항

성명

전화번호

( ) - ( ) - ( )

응답자  
인적 사항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연령대

☐ ① 20대 ☐ ③ 40대 ☐ ⑤ 60대  
☐ ② 30대 ☐ ④ 50대

지역

☐ ① 서울 ☐ ⑤ 광주 ☐ ⑨ 경기 ☐ ⑬ 전북 ☐ ⑰ 제주  
☐ ② 부산 ☐ ⑥ 대전 ☐ ⑩ 강원 ☐ ⑭ 전남  
☐ ③ 대구 ☐ ⑦ 울산 ☐ ⑪ 충북 ☐ ⑮ 경북  
☐ ④ 인천 ☐ ⑧ 세종 ☐ ⑫ 충남 ☐ ⑯ 경남

지역 코드

--	--	--	--	--	--

[면접원 기입]

면접원

성명

면접 장소

면접 일시

2020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검증원

성명

검증 결과

I.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 국어 관심(문1)

문1. 귀하는 평소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법, 혹은 문장 쓰는 법 등 국어와 국어 사용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 문2에 응답		↳ 문1-1에 응답	

문1-1. (문1에서 ③,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국어의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들 각각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조금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 말하기(말하는 태도, 방법 등)	①	②	③	④	⑤
㉡ 글쓰기(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하기)	①	②	③	④	⑤
㉢ 표준어와 지역 방언	①	②	③	④	⑤
㉣ 고유어(한자어 등을 제외한 순수 우리말)	①	②	③	④	⑤
㉤ 신조어, 유행어, 외래어/외국어	①	②	③	④	⑤
㉥ 한자 사용	①	②	③	④	⑤
㉦ 맞춤법과 발음	①	②	③	④	⑤
㉧ 언어 예절	①	②	③	④	⑤
㉨ 단어의 의미와 유래	①	②	③	④	⑤
㉩ 국어(국어 교육)에 관한 정책	①	②	③	④	⑤
㉪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①	②	③	④	⑤

■ 국어 인상(문2)

문2. 다음은 국어에 대한 귀하의 생각 또는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뜻이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 품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 발음이 부드럽다	①	②	③	④	⑤
㉤ 배우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 논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학문·과학 등의 활동에 유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 II. 언어 사용

### ■ 사용 인식(문3~문5)

문3. 귀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3-1에 응답		↳ 문4에 응답		

문3-1. (문3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우리 국민들이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부정확한 발음이나 억양         | <input type="checkbox"/> ④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단어 사용이 제한적  |
| <input type="checkbox"/> ② 맞춤법과 띄어쓰기 부정확        | <input type="checkbox"/> ⑤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높임말 사용이 부적절 |
| <input type="checkbox"/> ③ 말하거나 글로 쓸 때 내용 연결 미흡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 십 시 오 )   |

문4. 우리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각각의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높임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잘 모르는 신조어, 유행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의 말투가 거칠다	①	②	③	④	⑤
㉧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외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5. 귀하는 평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 높임말(문6~문8)

문6. 귀하는 국어의 높임말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문6-1에 응답		↳ 문6-2에 응답		

문6-1. (문6에서 ①, ② 응답자만)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된다
- ☐ ②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
- ☐ ③ 상하 관계를 강요하는 불평등의 문화를 담고 있다
- ☐ ④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가져와 인간관계의 폭을 좁게 만든다
- ☐ ⑤ 기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6-2. (문6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국어의 높임말 사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다
- ☐ ② 다양한 말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표현력을 풍부하게 한다
- ☐ ③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과 공손함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 ④ 적절히 사용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 ☐ ⑤ 기타(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7. 다음 중 가정, 직장 및 학교에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7-1. 가정에서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가 아버지에게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가 어머니에게 <input type="checkbox"/> ③ 부모가 자녀에게 <input type="checkbox"/> ④ 남동생이 형, 누나에게	<input type="checkbox"/> ⑤ 여동생이 오빠, 언니에게 <input type="checkbox"/> ⑥ 남편이 아내에게 <input type="checkbox"/> ⑦ 아내가 남편에게
문7-2. 직장에서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① (근무 중) 부하 직원이 친하지 않은 상사에게 <input type="checkbox"/> ② (근무 중) 부하 직원이 친한 상사에게 <input type="checkbox"/> ③ (근무 중) 상사가 친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input type="checkbox"/> ④ (근무 중) 상사가 친한 부하 직원에게 <input type="checkbox"/> ⑤ (근무 중) 상사가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에게	<input type="checkbox"/> ⑥ (근무 중) 부하 직원이 나이가 어린 상사에게 <input type="checkbox"/> ⑦ (회식 자리) 부하 직원이 친하지 않은 상사에게 <input type="checkbox"/> ⑧ (회식 자리) 부하 직원이 친한 상사에게 <input type="checkbox"/> ⑨ (회식 자리) 상사가 친하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input type="checkbox"/> ⑩ (회식 자리) 상사가 친한 부하 직원에게
문7-3. 학교에서 말할 때	<input type="checkbox"/> ① 선생님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input type="checkbox"/> ②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input type="checkbox"/> ③ 학급 행사로 회장이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input type="checkbox"/> ④ 친한 학교 선배와 이야기할 때 <input type="checkbox"/> ⑤ 낯선 후배와 이야기할 때



문8. 귀하는 다음 <보기>와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요금은 2,000원이세요. 이 상품은 품질되었습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8-1에 응답		↳ 문8-2에 응답		

문8-1. (문8에서 ①, ② 응답자만) <보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교양이 부족한 표현으로 느껴져서☐ ② 한국어의 문법 규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③ 이익을 얻으려는 상술이기 때문에
- ☐ ④ 사람 대신 사물을 높이는 것이 부적절해서☐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8-2. (문8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보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상대방을 대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②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③ 서비스 제공 맥락에서 자연스럽게기 때문에
- ☐ ④ 사물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⑤ 언어 표현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욕설 및 비속어(문9~문10)

문9. 귀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 및 비속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1) 욕설	①	②	③	④
(2) 비속어	①	②	③	④

- \* (1) 욕설 예시: 니기미, 빌어먹을, 제기랄, 씹새끼, 씨팔놈, 쌍년, 미친놈
- \* (2) 비속어 예시: 낫짝, 눈깔, 대갈통, 쪽팔리다, 똤지다, 개기다

문10. 귀하는 평소 욕설 및 비속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1) 욕설	①	②	③	④
(2) 비속어	①	②	③	④
↳ 문10-1에 응답		↳ 문10-2에 응답		

문10-1. (문10에서 (1) 욕설 또는 (2) 비속어 ①, ②번 응답자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행동이므로☐ ②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③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④ 언어폭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 ☐ ⑤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⑥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⑦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10-2. (문10에서 (1) 욕설 또는 (2) 비속어 ③, ④번 응답자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② 재미있어서☐ ③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 ☐ ④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⑤ 습관적으로☐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표준어와 지역 방언(문11~문15)

문11. 다음 중 귀하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 ☐ ① 표준어                      → 문11-1에 응답
- ☐ ② 강원 방언                    → 문11-2에 응답
- ☐ ③ 충청 방언                    → 문11-2에 응답
- ☐ ④ 전라 방언                    → 문11-2에 응답
- ☐ ⑤ 경상 방언                    → 문11-2에 응답
- ☐ ⑥ 제주 방언                    → 문11-2에 응답
- ☐ ⑦ 북한 방언                    → 문11-2에 응답

문11-1. (문11에서 ① 응답자만)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별 느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11-2. (문11에서 ②~⑦ 응답자만)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별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귀하는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②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③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 ④ 별 생각이 없다

문13. 귀하는 표준어가 아닌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13-1에 응답		↳ 문13-2에 응답		

문13-1. (문13에서 ①, ② 응답자만)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 ☐ ③ 지역 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 ☐ ②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 ☐ ④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13-2. (문13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지역 방언이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 ☐ ③ 한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 ☐ ② 사용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
- ☐ ④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14. 귀하는 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잘 사용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사용한다	잘 사용하는 편이다	매우 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지역 방언에 속하는 어떤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쓰이면, 그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외래어/외국어와 순화어(문16~문22)

문16. 귀하는 평소 읽거나 듣는 말 중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이 사용된다	매우 많이 사용된다
①	②	③	④	⑤
↳ 문17에 응답			↳ 문16-1에 응답	

문16-1. (문16에서 ④, ⑤ 응답자만)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상관없다
- ☐ ②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 ③ 지금보다 더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④ 지금보다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한다
- ☐ ⑤ 지금보다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문17.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어떤 느낌을 주로 받으십니까?

- ☐ ① 학식이 높아 보인다
- ☐ ② 세련된 느낌이 든다
- ☐ ③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 ☐ ④ 유치해 보인다
- ☐ ⑤ 별 느낌이 없다
-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18. 귀하는 평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19에 응답			↳ 문18-1에 응답	

문18-1. (문18에서 ④, ⑤ 응답자만)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
- ☐ ② 외래어나 외국어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 ☐ ③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 ☐ ④ 주위 사람들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 ☐ ⑤ 우리말로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19. 다음 <보기>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에서 온 외래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쇼부, 간지, 뽀빠이, 만땅, 노가다, 기스, 와꾸
----	------------------------------

- ☐ ①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
- ☐ ②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 ☐ ③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 ☐ ④ 별 생각이 없다
-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순화어: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외래어,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것

문20. 다음 <보기>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괄호 안은 순화어)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고참(선임), 식비(밥값), 간식(새참), 견학(보고 배우기), 고객(손님), 승강장(타는 곳), 노점(거리 가게)
----	--

- ☐ ① 익숙하니까 그대로 우리말로 받아들여 사용해야 한다
- ☐ ②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 ☐ ③ 적극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 ☐ ④ 별 생각이 없다
- ☐ ⑤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21. 귀하는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국어 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 순화에 대한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외래어/외국어는 적극적으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익숙해진 외래어/외국어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만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순화어**를 일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외래어나 외국어에 비해 순화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 ☐ ② 순화어가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해서
- ☐ ③ 순화어가 세련되지 않아서
- ☐ ④ 순화어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 ☐ ⑤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대중매체의 언어(문23~문26)

문23. 귀하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문23-1에 응답
- ☐ ②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문23-2에 응답
- ☐ ③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문24에 응답

\*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인터넷(유튜브, 아프리카 티브이) 등 모든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언어

문23-1. (문23에서 ① 응답자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 표기, 문법 등의 사용으로 언어 규범의 지침이 되고 있다
- ☐ ② 공정하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 ☐ ③ 전문 용어, 신어, 외국어 등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제시하여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 ☐ ④ 다양한 지역, 세대, 계층 간 언어 차이를 알게 하여 집단 간 소통을 돕고 있다
- ☐ ⑤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23-2. (문23에서 ② 응답자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비표준어 사용과 부정확한 발음, 잦은 오자와 탈자 출현 등으로 언어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
- ☐ ② 선정적이거나 과장적 표현을 남용하여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 ☐ ③ 불필요하게 어려운 외국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축시킨다
- ☐ ④ 특정 집단만 이해하는 방언, 신조어, 유행어 등을 남용하여 집단 간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 ☐ ⑤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24. 귀하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24-1에 응답			↳ 문24-2에 응답	

문24-1. (문24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시청자의 몫이기 때문에
- ☐ ② 언론으로서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 ☐ ③ 방송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 ☐ ④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24-2. (문24에서 ④, ⑤ 응답자만) 정책적 관리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시청자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 ② 언론으로서의 방송이라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 ☐ ③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25. 귀하는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새롭게 통용되는 이른바 **‘인터넷 언어’**를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 언어 예시: ㅋㅋ(웃음소리), ㅠㅠ(눈물 흘리는 모양), 땡땡이(멍멍이),  
프사(프로필 사진), 순삭(순간 삭제), 레알(진짜), 안습(눈물이 나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26에 응답		↳ 문25-1에 응답		

문25-1. (문25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는 평소 **‘인터넷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26. 귀하는 **인터넷 언어에 대한 다음 평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참신하고 기발한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 어휘가 풍부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일상 대화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아 친근감을 더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그림말(이모티콘)의 사용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맞춤법을 무시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심한 욕설이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 거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어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인터넷 언어를 대화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⑤

## ■ 외국 문자 사용(문27~문32)

문27. 최근 한글 표기 없이 영어 등 외국어를 로마자 알파벳으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패션 상표, 화장품명       | <input type="checkbox"/> ⑦ 전자 제품의 설명서(또는 안내서) |
| <input type="checkbox"/> ② 노래 제목(가사)이나 가수 이름 | <input type="checkbox"/> ⑧ 운동 경기명             |
| <input type="checkbox"/> ③ 아파트나 건물명          | <input type="checkbox"/> ⑨ 지방자치단체 표어나 정책 이름   |
| <input type="checkbox"/> ④ 가게의 간판이나 광고 문구    | <input type="checkbox"/> ⑩ 방송 자막 및 방송 프로그램 이름 |
| <input type="checkbox"/> ⑤ 요리나 음식명           | <input type="checkbox"/> ⑪ 기업명                |
| <input type="checkbox"/> ⑥ 영화 제목             | <input type="checkbox"/> ⑫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사례: KBS, LH, Korail

문28.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되어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29.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 표기만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문자 표기				
이미지1	매우 가깝다	반반이다	매우 가깝다	이미지2
<예> 진부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신선하다
㉠ 품위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품위 있다
㉡ 비실용적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실용적이다
㉢ 촌스럽다	① <———— ② ————— ③ ————— ④ —————> ⑤			멋있다
㉣ 장황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간결하다
㉤ 친근감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친근감 있다
㉥ 싫다	① <———— ② ————— ③ ————— ④ —————> ⑤			좋다

문30. 귀하는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30-1에 응답			↳ 문30-2에 응답	

문30-1. (문30에서 ①, ②, ③ 응답자만)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새로운 감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④ 국제화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
| <input type="checkbox"/> ② 세련되고 멋진 느낌을 주기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 <input type="checkbox"/> ③ 학식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   |

문30-2. (문30에서 ④, ⑤ 응답자만)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한국의 전통이 파괴되기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③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
| <input type="checkbox"/> ② 잘난 척하는 느낌과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문31. 귀하는 다음의 **기관 이름 표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KBS, LH, Korail  | <input type="checkbox"/> ③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 <input type="checkbox"/> ② 케이비에스, 엘에이치, 코레일 | <input type="checkbox"/> ④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

문32. 귀하는 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의 공공 이용 시설에서의 안내 표지 표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IN/OUT, PULL/PUSH, OPEN, EXIT, TICKET
- ☐ ② 인/아웃, 풀/푸시, 오픈, 엑시트, 티켓
- ☐ ③ 입구/출구, 당기시오/미시오, 열림, 비상구, 매표소
- ☐ ④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Ⅲ.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 국어 능력(문33)

문33.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 ☐ ②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
- ☐ ③ 성인에게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④ 방송·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언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 ☐ ⑤ 국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한다
- ☐ ⑥ 국가가 국어 사용의 표준을 제시한다
- ☐ ⑦ 특별히 정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 ☐ ⑧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국어 교육(문34~문35)

문34. 귀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 문35에 응답	↳ 문34-1~문34-3에 응답		↳ 문35에 응답

문34-1. (문34에서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주로 어떤 말들이 문제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외래어/외국어
- ☐ ② 수준 높은, 어려운 한자어
- ☐ ③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 ☐ ④ 유행어나 신조어
- ☐ ⑤ 지역별로 차이 나는 단어
- ☐ ⑥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어
- ☐ ⑦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34-2. (문34에서 ②, ③ 응답자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모르는 말이 나올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친다
- ☐ ② 맥락을 통해 추측하고 넘어간다
- ☐ ③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
- ☐ ④ 사전(종이, 전자 등)을 찾아본다
- ☐ ⑤ 인터넷(PC,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 본다
- ☐ ⑥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34-3. (문34에서 ②, ③ 응답자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말을 좀 더 쉽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35. 귀하는 자신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받은 국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①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 ☐ ②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 ☐ ③ 좀 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 ☐ ④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 ☐ 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한자 교육(문36)

문36. 귀하는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36-1에 응답		↳ 문36-2에 응답		

문36-1. (문36에서 ①, ② 응답자만) 한자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한자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 ☐ ② 한자를 몰라도 필요할 때 사전이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 ③ 한자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고유어와 한글 사용이 위축될 수 있다
- ☐ ④ 한자 능력을 강조하게 되면 한자 능력 차이 때문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36-2. (문36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한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우리말은 한자어의 비중이 높아서, 한자를 알아야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 ☐ ② 같은 발음의 한자어(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있다
- ☐ ③ 어휘력이 높아지고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④ 한자 문화권의 언어 학습과 국제 교류에 유리하다
-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외국어 교육(문37)

문37. 귀하는 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래의 보기 중 배우고 싶은 언어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영어

④ 러시아어

⑦ 이탈리아어

⑩ 아랍어
- ② 중국어

⑤ 독일어

⑧ 스페인어

⑪ 동남아시아 언어(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등)
- ③ 일본어

⑥ 프랑스어

⑨ 아프리카어

⑫ 기타 (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문37-1. 귀하가 1, 2, 3순위로 고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⑤ 해당 언어와 관련 문화가 매력적이고 좋기 때문에
- ② 취업이나 승진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⑥ 기타 (1순위: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③ 전문 지식 습득이나 국외 유학 등 학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2순위: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④ 무역, 출장 등 국제적인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3순위: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 어문 규범(문38~문39)

문38. 귀하는 평소 글을 쓸 때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 규범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39. 아래의 예는 우리 국민들이 어문 규범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입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삼가하다(X) → 삼가다(O), 곱배기(X) → 곱빼기(O), 알쿨(X) → 알코올(O)

- ☐ ① 어문 규범에 맞는 표기를 국민에게 잘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 ☐ ② 기존 표기를 틀린 것으로 하고 널리 쓰이는 표기를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 ☐ ③ 기존 표기와 함께 널리 쓰이는 표기도 맞는 표기로 추가로 인정한다
- ☐ ④ 향후 많이 쓰는 쪽이 자연스럽게 맞는 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
- ☐ ⑤ 기타 (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 사전 이용(문40)

문40. 귀하는 평소 국어사전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41에 응답		↳ 문40-1~문40-3에 응답		

문40-1. (문4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는 평소 어떤 형태로 된 국어사전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 ☐ ① 종이로 인쇄된 책 형태의 <국어사전>
- ☐ ② 컴퓨터나 모바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국어사전>
- ☐ ③ 인터넷 연결 없이 쓰는 <국어사전 앱이나 전자사전 등>
- ☐ ④ 기타 (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문40-2. (문4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국어사전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목적 순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 ☐ ② 표준어, 맞춤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 ☐ ③ 단어의 원어(한자, 외래어)를 알기 위해서
- ☐ ④ 단어의 발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 ☐ ⑤ 비슷한 말이나 반대말을 찾기 위해서
- ☐ ⑥ 단어의 어원을 알기 위해서
- ☐ ⑦ 단어의 용례나 예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 ☐ ⑧ 기타 (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문40-3. (문4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국어사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의미를 이해하는 데 불충분한 설명
- ☐ ② 단어의 어원에 대한 정보 부족
- ☐ ③ 실제 사용되는 최신 사례의 부족
- ☐ ④ 사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설명 부족
- ☐ ⑤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명
- ☐ ⑥ 기타 (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 공공 언어(문41~문42)

문41. 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 안내문, 홍보문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42. 귀하는 공공기관의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
- ☐ ②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남용
- ☐ ③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 ☐ ④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
- ☐ ⑤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
- ☐ ⑥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 차별적 표현, 혐오 표현(문43~문44)

문43.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와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이 예전보다 많아진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한남, 김치녀, 곤대, 툇딱, 맘충
----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44. 귀하는 **차별적 표현이나 혐오 표현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 특수 언어(문45~46)

문45. 귀하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수화언어)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어(수화언어)	①	②	③	④	⑤
(2) 점자	①	②	③	④	⑤

문46. 귀하는 기회가 된다면 수어(수화언어)와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습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어(수화언어)	①	②	③	④	⑤
(2) 점자	①	②	③	④	⑤
↳ 문47에 응답			↳ 문46-1에 응답		

문46-1. (문46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수어(수화언어)나 점자를 배울 의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인(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 ☐ ② 봉사활동에 필요해서
- ☐ ③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아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다문화 가정 언어(문47~문49)

문47. 귀하는 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 한국어가 아닌 이주민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문48에 응답		↳ 문47-1에 응답		

문47-1. (문47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신의 모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 ☐ ②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 ☐ ③ 이주민의 모어 능력을 개인적, 국가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 ☐ ④ 가정이나 이주민 집단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 ☐ ⑤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48. 귀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49에 응답		↳ 문48-1에 응답		

문48-1. (문48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을 촉진하므로
- ☐ ② 한국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 형성에 필수적이므로
- ☐ ③ 한국어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49. 귀하는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영역에서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50에 응답		↳ 문49-1에 응답		

문49-1. (문49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언어적 문제로 인해 이주민과 그 자녀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으면 안 되므로
- ☐ ②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이주민과 그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에 필수적이므로
- ☐ ③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외국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 한국어 진흥(문50~51)

문50. 귀하는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50-1에 응답		↳ 문50-2에 응답		

문50-1. (문50에서 ①, ② 응답자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한국인이 낸 세금이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 ☐ ②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은 개인의 필요와 선택의 문제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 ☐ ③ 외국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50-2. (문50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한국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하게 하므로  
☐ ②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므로  
☐ ③ 한국과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므로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51. 귀하는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51-1에 응답		↳ 문51-2에 응답		

문51-1 (문51에서 ①, ② 응답자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 ②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사용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 ③ 국가 차원의 지원은 외교적 오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④ 기타 (                      내용 을 적 어 주 십 시 요                      )

문51-2. (문51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 ☐ ②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 ☐ ③ 다른 주요 국가들도 자국어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므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남북한 언어 통일(문52~문53)

문52. 귀하는 통일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도 북한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문53에 응답		↳ 문52-1에 응답		

문52-1. (문52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통일되었을 때 언어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 ☐ ②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를 알아야 하므로
- ☐ ③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 ☐ ④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문53. 남북 통일 상황에서 남한어와 북한어를 통합한다면 표준어 정책의 기준과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한어를 기준으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
- ☐ ② 남한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어를 일부 포함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
- ☐ ③ 남한어와 북한어를 모두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
- ☐ ④ 표준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남과 북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 ⑤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IV.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문54~문56)

문54. 귀하는 국립국어원이라는 국가 기관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문55. 귀하는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국립국어원 같은 국가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쉬운 언어생활의 기준 마련 및 홍보
- ☐ ④ 범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한 국어 관련 행사
- ☐ ② 대규모 언어 자료 조사 수집 및 제공(서비스)
- ☐ ⑤ 기관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 ☐ ③ 국어,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56.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관련 교육 과정(국어문화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국어 관련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면, 참여하고 싶은 교육 내용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맞춤법 등 어문 규범 관련 과정
- ☐ ④ 말하기 등 화법 관련 과정
- ☐ ② 공공언어 및 공문서 관련 과정
- ☐ ⑤ 글쓰기 등 작문 관련 과정
- ☐ ③ 독서 능력 개발 과정
- ☐ ⑥ 기타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 V. 자료 분류용 질문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시간 미만                      ☐ ③ 2시간~4시간 미만                      ☐ ⑤ 6시간 이상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④ 4시간~6시간 미만                      ☐ ⑥ 전혀 보지 않음

DQ2. 매일 신문(종이 신문, 전자 신문 등)을 읽고 계십니까?

-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DQ3.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시간 미만                      ☐ ③ 2시간~4시간 미만                      ☐ ⑤ 6시간 이상  
☐ ② 1시간~2시간 미만                      ☐ ④ 4시간~6시간 미만                      ☐ ⑥ 전혀 사용하지 않음

DQ4. 한 달 평균 독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잡지와 만화, 전자책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수험서, 신문은 제외)

- ☐ ① 1권 이하                      ☐ ③ 4~5권                      ☐ ⑤ 전혀 읽지 않음  
☐ ② 2~3권                      ☐ ④ 6권 이상

DQ5.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거주 국가: \_\_\_\_\_)                      ☐ ② 아니다

DQ6. 다음은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상, 중, 하로 나눈 표입니다. 귀하의 외국어별 의사소통 능력을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상	중	하
㉠ 영어	①	②	③
㉡ 일본어	①	②	③
㉢ 중국어	①	②	③
㉣ 기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①	②	③

- ※ 상 : 능숙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중 : 어느 정도 의사소통할 수 있다  
 ※ 하 : 전혀 의사소통할 수 없다

DQ7~DQ9까지 문제를 읽고 그 응답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빈칸에 번호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① 서울	⑥ 대전	⑪ 충청북도	⑯ 경상남도	⑳ 함경남도 ㉑ 함경북도 ㉒ 기타(지역명: _____) ㉓ 잘 모름
	② 부산	⑦ 울산	⑫ 충청남도	⑰ 제주도	
	③ 대구	⑧ 세종	⑬ 전라북도	⑱ 황해도	
	④ 인천	⑨ 경기도	⑭ 전라남도	⑲ 평안남도	
	⑤ 광주	⑩ 강원도	⑮ 경상북도	㉔ 평안북도	

DQ8.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DQ9. 귀하의 부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위 보기에서 선택해 각각 번호로 응답해 주십시오.

DQ7. 주로 성장기(초, 중, 고)를 보낸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	--	--	-----	--	--

DQ10. 귀댁의 가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 ① 1세대 가구(부부, 부부+형제자매, 가구주+형제자매 등)  
☐ ②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등)  
☐ ③ 3세대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④ 4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손자녀+부모, 부부+자녀+부모+조부모 등)  
☐ ⑤ 1인 가구  
☐ ⑥ 비친족 가구  
☐ ⑦ 기타 (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

DQ11.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중퇴한 경우에는 최종 졸업한 학력에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④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재학)  
☐ ② 중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 ③ 고등학교 졸업(재학)

DQ12.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관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⑩ 기타 (내 용 을 적 어 주 십 시 오)

DQ13. 실례지만, 귀 댁의 세금 납부(공제)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1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 오랜 시간 협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연구 책임자: 김창영((주)케이스탯리서치 상무)  
 공동 연구원: 조태린(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현철(호서대학교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양수경(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김주성(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심주희(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담당 연구원: 위진(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발 행 인	국립국어원장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일	2020년 12월 31일
인 쇄	네오블루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